

영어권문화연구

11권 1호, 2018년 4월

영어권문화연구소

Contents

【특집논문】 생명윤리

Ⅰ 김 대 중 Ⅰ

사물과 정동 연구 : 『덕테』와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5

Ⅰ 김 명 성 Ⅰ

탈신체 시대의 과학기술 : 사이버펑크 서사로 읽는 과학기술의
사회학과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지평 29

Ⅰ 박 병 기 Ⅰ

생명윤리와 불교 - 초기불교 계율의 덕윤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 55

Ⅰ 최 은 주 Ⅰ

질병 공간 담론에서 개인의 신체 의미 : 영국의 정신의학 담론과
버지니아 울프의 『달러웨이 부인』 85

【일반논문】

Ⅰ Ko, Kang Yl Ⅰ

A Critique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
Baconian Utopia and New Atlantis 113

Ⅰ 김 진 아 Ⅰ

원시주의를 넘어서 : 애론 더글러스(Aaron Douglas)의 초기 삽화 작업에
나타난 인종적 정체성 문제와 할렘 르네상스 139

Ⅱ Suh, Yun Kyo Ⅱ

Whitman's American Experience and Democracy and Divine Literatus
in Democratic Vistas 183

Ⅱ 임 경 규 Ⅱ

집의 (불)가능성 : 『제스처 라이프』에 나타난 분열된 욕망 205

Ⅱ 정 미 경 Ⅱ

교육 연극과 소시오드라마를 활용한 영미 드라마 수업 연구 237

Ⅱ 조 희 정 Ⅱ

대화시에서 극적 독백으로 259

Ⅱ Choi, Cho A Ⅱ

Narrative Form, Unheimlich, and the Queer Subject
in Jessica Hagedorn's Dogeaters 285

-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규정 315
-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317
-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 322
- 『영어권문화연구』 투고 규정 329
-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330
- 원고작성 세부 지침 333
- 영어권문화연구소 연구윤리규정 336

사물과 정동 연구

: 『딕테』와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김 대 중

I. 사물과 정동

근대 이후로 철학과 문학은 사물(thing)들에 대한 질문에 매달렸다. 사물이란 무엇일까? 우선 플라톤(Plato)의 이데아(Idea)론으로 보았을 때 사물들은 이데아의 그림자이고 이 사물들의 재현은 복사의 복사인 시물라크라(simulacra)에 불과하다. 형이상학 논쟁의 중심이던 실체(substance)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물은 본질(essence)이나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의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 실체에 따라 만들어진 2차 산물이다. 형상(form)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물은 형상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사물은 사물 그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은 인간의 인식과 언어 안에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세에는 유명론(nominalism)과 실재론(realism)과 관념론(conceptualism)의 보편논쟁이 벌어졌고 이 논쟁에서 사물은 복잡한 형이상사상학적 논쟁의 주제가 된다. 유명론 측 입장은 보편은 이름에 불과하고 실재 안에 각 사물들이 언어와 상관없이 실존한다고 보았고, 실재론은 보편이란 실체로 실재한다고 믿었다. 가령 ‘나무’라는 보편성을 각 나무들이 공유한다고 믿는 것이 실재론이라면 나무라는 보편성과는 별개로 개별 나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유명론이다. 이후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사물을 신과 언어의 문제가 아닌 수학적 연장(extension)을 지닌 과학의 관찰대상으로 파악한다. 사물은 공간적으로 특정된 연장이 된다. 반면 칸트(Immanuel Kant)는 물자체(thing-in-itself)를 인간의 오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언명한다. 결국 사물은 존재성이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인식의 체계 속의 표상(representation)이 된다.

유물론(materialism)은 이러한 논쟁 자체의 무의미함을 강조하며 세계 자체가 사물들로만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근대 유물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물들은 유용성으로 존재하며 인간의 노동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근대 현상학 이후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물 이론에 동의하지 못한다. 현상학에서 사물은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고 후설(Edmund Husserl)은 ‘사물 자체로’ 인간의 인식을 에포케(epoche) 함으로서 사물의 본질 이해 가능성을 연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세계를 사물과 인간과 동물의 세계를 나눈다. 그러면서 인간이 “세계를 형성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동물은 “세계가 빈곤한 존재”이고 사물은 “세계가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사물(Das Ding)의 세계가 갖는 의미를 고대 독일어로부터 추적하여 사물을 “신, 하늘, 땅, 인간”의 “모임”(gathering)이라고 해석한다. 하이데거의 사물 이론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하이데거가 보았을 때 소련이 우주에 쏘아 올린 첫 비행체인 스푸트니크(Sputnik)가 대표하는 현대 물질문명 속 사물은 신비한 ‘모임’의 속성을 지닌 ‘세계가 없는 존재’로 사유의 중심이 되는 사물의 본래 모습을 망각하고 대상(object)화 된다.¹⁾

1) 이후 다른 철학적 문화적 시도들이 계속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사물과 담론과 권력의 체계를 계보학적으로 살핀 미셸 푸코의 『사물의 질서』(Order of Things)나 테오도르 아도르노, 발터 벤야민의 근대 사회 속 사물 이론 등이 있다. 자끄 라캉이나 슬로보에 지젝 역시 사물과 실재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포스트모던시대 이후로 사물은 철학보다는 문학/문화 비평이론에 상품/소비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맞춰서 새로운 맥락으로 이해가 된다. 문학에서는 엘리엇(T.S. Eliot)의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이나 에즈라 파운드의 이미지즘을 통해 사물 그 자체로의 형상화가 시도되었다.

하이데거나 이전 철학자들과 다르게 스피노자는 사물을 하나의 실체 속에 있는 양태로 본다. 스피노자의 일원론적 범신론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신체는 사물이다. 스피노자는 신체라는 사물과 외부 사물의 만남에서 신체적 변용이 일어나고 이 신체적 변용의 관념과 함께 정신 속 관념의 변용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²⁾ 스피노자(Spinoza)는 『에티카』(*Ethica*)에서 신체를 비롯한 사물을 신의 양태(mode)로 본다. 물론 양태는 무한 양태로서의 사물의 질서를 담은 자연 법칙과 유한 양태로서의 사물로 나뉜다. 양태는 단일한 실체 안에서 무한히 변용되어간다. 신 안에서 양태들은 사물들로 내재적으로 생성된다. 스피노자는 양태들 속에 인간을 넣음으로써 인간과 사물들이 모두 신이라는 무한하고 필연으로 움직이는 단일 실체(substance)의 여러 양태들이라고 본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사물들은 인간의 신체와 끝없이 상호작용한다. 즉 사물과 인간의 신체/정신의 만남에서 생성되는 정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닌 끝없이 변용하는 정동으로 인간의 감정을 지배한다.³⁾ 가령 여름날 나무들 속에서 내리쬐는 햇빛을 받은 나의 신체에서 감각과 지각을 통해 일어나는 신체의 변용은 나의 정신 속의 관념의 변용을 일으키며 나는 ‘기분 좋음’이라는 정서의 변용을 느낀다. 그러나 이 햇볕 속에 숨어 있던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나게 되면 신체의 변용을 통한 정서는 ‘두려움’이라는 정서로 순식간에 바뀌게 된다. 정서의 변용으로서의 정동은 언어의 세계로 포획되기 어려운 무한 변용의 상태로 나타난다. 즉 정서의 변용으로서의 정동은 언어의 세계를 넘어선다. 정동이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지만 근원적으로 ‘신체와 정신에 변

2) 스피노자는 일종의 병행론(parallelism)으로 신체와 정신이 조응(correspondence)을 갖는다고 보았다. 스피노자의 학설은 유물론이나 병행설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 왔다. 박삼열의 『스피노자의 『윤리학』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학설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정서(affectio)와 정동(affectus)의 구분은 번역자들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고 구분된다. 여기서는 들뢰즈의 정서와 정동의 구분법을 따른다. 들뢰즈가 해석한 정서와 정동의 구분은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용을 가져다 주는 만남을 통해 발생하는 감정의 스펙트럼'이라고 정의내리려 한다. 본 논문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독해해낸 스피노자 철학 속 정동의 세계를 읽어내고 이를 통해 정동 속 사물들의 역할과 정동의 힘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물과 정동의 정치적 맥락 역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학 작품으로 아시아계 미국문학에서 그 난해함으로 유명하면서도 가장 많이 논의되는 테레사 차학경(Theresa Hak-Kyung Cha)의 『딕테』(*Dictee*) 속에 나오는 그림이나 사진들을 중심으로 정서와 정동과 사물 이미지들의 계열들을 분석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정동의 정치적 의미를 최근 대한민국에 있었던 촛불집회를 통해 살피려 한다. 이 두 사례를 선택한 것은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방인으로 살아간 차학경이 제시하려한 정동의 의미를 '무리'와 '다중'과 '사물'로 확대하고 이러한 정동의 주제들이 어떻게 촛불집회라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이다.

II. 들뢰즈의 「정동이란 무엇인가」

들뢰즈의 뱅센느 대학에서의 강의를 담은 「정동이란 무엇인가」는 정동 이론에 대한 강연 요약을 담고 있다. 몇 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강연에서 들뢰즈는 우선 스피노자의 책에서 일견 감정(affect)라고 번역되어 온 단어들의 원어표기인 라틴어들이 원문에 'affectio,'('affection'(정서))와 'affectus'(affect(정동))로 구분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들뢰즈는 또한 관념(idea)와 정동을 구별한다. 관념이 "재현의 특징에 의해 규정된 사유양식"이라면 정동은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는 사유양식"을 일컫는 다고 본다(24). 들뢰즈는 우리가 관념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재현하는 무언가를 떠올린다고 논한다. 그러나 유니콘이 존재하지 않듯이 관념의 재현으로서의 "형식적 실재는 ... 그것의 내적인 특징이다"(27). 즉 유니콘은 존재하

지 않지만 문화적 재현으로서의 도상(icon)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머리 속에 떠오른다. 때문에 관념은 형식적 실재를 지니고 있다. 반면 정동으로서의 사랑과 희망의 관념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재현하는 대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동은 아무런 재현적 특징이 없는 사유이며 지적인 비교로 환원되지 않는 “살아있는 추이, 즉 어떤 정도의 완전성에서 또 다른 종류의 완전성으로의 살아있는 이행”으로 구성된다(32).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지각을 통해 발생한 정서는 나의 행위를 증진시키고 나는 기쁨으로 정동된다. 반면 싫어하는 이를 만나면 행동능력이 감소하고 슬픔으로 정동된다. 정동은 유물론의 정동이고 현실의 정동이며 삶의 정동이다.

정동은 신체와 영혼에 모두 정동된다. 스피노자가 유물론자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그러나 들뢰즈가 보기에 이것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매일 겪고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신이 만나는 누군가나 사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격동을 매순간 느끼고 영혼과 신체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정동의 변이는 특정 순간의 수치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의 힘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호하고 혼란스럽다. 사물도 마찬가지로이다. 내 몸에 투여되는 좋은 약과 나쁜 독은 내 신체의 만남을 통해 생명 존속에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부른다. 마찬가지로 나쁨(bad)은 부정적 정동의 사물과의 마주침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변이에 대한 판단이다. 어떤 신체나 사물과 마주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정동의 변이이다. 이러한 정동의 역학에서 사물이나 타인은 내가 알 수 없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들뢰즈가 본 스피노자의 결론은 ‘우리는 우리의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이다.

따라서 정동은 도덕이 아닌 윤리의 영역이다. 무엇이 옳은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도덕의 영역인 반면 윤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수행력의 완성을 묻는다. 즉 내 신체의 이 우연한 사물(대

상)이나 타자와의 만남에서 내가 이 정념(passion)에서의 정서에서 다른 정서로의 정동, 특히 기쁨의 정동을 높이는 것을 통해 어떤 행위로 어떻게 나갈지를 묻는 것이 윤리이다. 정동의 윤리는 슬픔의 정동을 피하고 기쁨의 정동으로 나아가 신체/정신 역량의 향상을 이루는 것을 목적에 둔다. 가령 들뢰즈는 “슬픔으로 정동되는 신체는 여러분 자신의 신체와 합치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정동하는 만큼 여러분을 슬픔으로 정동할 뿐 이라는 한 가지 매우 단순한 이유로 그렇습니다. 스피노자가 의미한 것은 매우 단순한 어떤 것, 즉 슬픔이 누구도 지성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는 비참해집니다. 권력이 슬퍼할 백성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한다(57) 또한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정칙은 철학이 삶에 대한 명상이지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라고 해석한다(58). 정동은 삶의 윤리로 귀결된다.

정서는 지각과 더불어 순간적 상태이고 “문자 그대로 효과(affect)”이고 정동을 봉인시키는 상태이다(85). 어떤 측면에서 정동은 강밀도(intensity)로 존재한다. 시기와 분노는 강밀도에서 차이가 있다. 정동이 흐름이라면 정서는 미분화된 찰나의 상태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들뢰즈는 정동이 베르그송의 ‘지속’(duration)과 연결된다고 본다(86). 들뢰즈에게 정동은 지속이며 ‘되기’(becoming) 자체이다. 들뢰즈의 되기는 물질적 되기 뿐 아니라 정동적 되기가 연동된다. 내가 느끼는 슬픔은 나의 행동과 행위능력의 감소를 부르지만 이 변화는 이행의 과정이며 지속의 대상이다. 따라서 정서의 순간으로 봉인이 된다 해도 정동은 계속 미분적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고 정서적 상태의 본질은 해체된다. 물론 들뢰즈에게 능력(pouissance)와 정서 혹은 정동은 어떤 타고난 힘(pouvoir)의 강함과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시력이 없는 맹인이 시력이 없음으로 신체적 능력이 약화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맹인의 몸은 시력이 없다는 차이를 지녔을 뿐 그 자체로 완벽한 몸이라고 본다.⁴⁾ 되기로서의 정동은 힘의 증

4) 스피노자는 실제로 어떤 사물의 모습이 불완전과 완전으로 나눌 수 없다고 보

대와 감소를 통해 드러난다.

들뢰즈는 사물과의 만남에서 정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논한다. 사물, 보다 엄밀히 말해 사물의 이미지는 나의 힘을 감소시키거나 증대시킴으로서 슬픔과 기쁨을 가져다준다. 스피노자를 해석하는 들뢰즈는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주는 사물은 그것이 맺는 관계들이 나의 관계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물입니다. 그것이 정서입니다. 그 관계가 내 관계들 중의 하나 혹은 내 관계들의 총체성을 해체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사물들은 슬픔으로 나를 정동한다”고 논한다(95). 마치 스펙트럼이 넓은 색조들의 연속체(continuum)처럼 이 정동은 기쁨과 슬픔의 두 가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동은 인상주의 그림의 색조들처럼 경계를 알 수 없는 미분적 차이를 지니고 강밀도를 지닌 채 흐른다. 사물은 나와외의 관계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 정동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기쁨과 슬픔의 정동은 두 개의 단독적 범주들이 아니다. 이 두 정동은 서로 맞물려 있다. 미움이 대표적이다. 미움의 슬픔도 있지만 미움의 기쁨도 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대상에 대한 미움은 기쁨의 정서이다. 미워하는 대상에 대한 잔인함은 미움의 기쁨에서 파생하는 정서와 행위이다. 그러나 이 기쁨은 직접적인 기쁨이 아닌 슬픔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기쁨이기에 슬픔의 정서에 기울어 있다. 이와 같이 정서는 간접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으로 나뉘게 되고 기쁨의 정동은 능동적 정서들에서 나온다.

정동은 관계와 마주침으로부터 시작된다. 가령 내가 혐오하는 사물을 만났을 경우 나의 신체에 나에게 맞지 않는 사물의 이미지가 침투하고 나는 그 사물이 남긴 흔적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데 힘을 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의 전체적 힘은 감소하게 된다. 가령 락음악이 울릴 때 락을 좋아하는 이는 이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의 정동을 갖게 되고 신체(정

고, 인간의 미·추·선·악의 판단이 상상지(imagination)에 의한 오류로 채워져 있다고 본다. 장애가 불완전이라는 판단이나 돌연변이가 이상하다는 우리의 의견은 모두 오류에 불과하다.

신) 능력의 향상을 이루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슬픔의 정동을 통해 대상의 흔적을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것은 전체 신체(정신) 능력의 하락을 낳을 것이다. 결국 정동적 윤리의 행동 방향은 나의 신체와 외부 사물의 지각/감각 영향이 합성이 되었을 때 나의 능력을 하락시키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들뢰즈는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은 나와 합치되는 사물의 발견 혹은 발명이라고 본다. 예술가는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예술작품을 생성함으로써 기쁨의 정동을 겪게 된다. 물론 들뢰즈는 힘(pouvoir)과 능력(puissance)을 다시 구별한다. 들뢰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타자들의 슬픔 위에 구축할 수 있을 뿐인 무기력한 사람들이다”라고 논한다(103). 즉 독재자는 힘을 지니고 있지만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슬픔을 기반하고 있기에 무기력한 존재들이라고 본다. 이러한 권력의 힘에 비해 능력은⁵⁾ 정동을 통해 획득되는 신체와 정신의 힘으로 인간의 자유를 가져다준다. 들뢰즈는 ‘나는 자유롭다’나 ‘나는 합리적이다’는 의미가 없는 명제들이라고 본다. 오히려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나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능력의 향상을 통한 정동과 되기의 윤리를 담은 질문들이라고 논한다(115). 이 윤리 속에서 “무능한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끝까지] 달려들면서, [막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내버려 두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들이다”(117). 결국 스피노자의 윤리는 일반적인 신체가 아닌 너의 신체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귀결된다. 이러한 들뢰즈가 해석한 스피노자의 윤리는 푸코의 자기 지배(self-governance)와 상통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사물로 돌아간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의 정리 11번에서 “인간 정신의 현실적 유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단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물의 관념일 뿐이다”라고 논한다(94). 스피노자에게

5) 스피노자의 이론에서 나온 이 능력은 번역에 따라 ‘역능’이라고도 번역이 된다. 스피노자와 들뢰즈는 모두 능동적 신체의 변용과 신체적 완전성의 향상을 부르는 역능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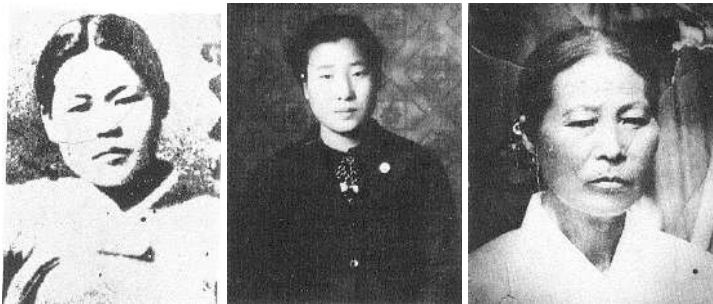
인간은 자연의 사물과 마찬가지로 신의 한 부분들일 뿐 더 나은 존재가 아니다. 들뢰즈의 가장 큰 관심은 탈주체(desubjectification)의 과정라고도 할 수 있는 ‘되기’를 통한 사물과의 만남이 부르는 주체의 무한한 자기변형의 잠재성의 탐색이다. 권력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형성되는 주체가 어떻게 이러한 영토화에서 끝없이 탈영토화할 수 있는지 탐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 속에서 정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후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정동이 사물들과 더불어 어떻게 『덕테』에서 재현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Ⅲ. 사례 1 『덕테』

들뢰즈는 그의 거의 마지막 저작인 『철학이란 무엇인가』(*What is Philosophy?*)의 한 장에서 예술과 정동을 논한다. 그는 예술적 사물이란 화가나 관객이나 청중으로부터 독립되었다고 규정하고 예술작품은 “*감각들의 블록, 말하자면 지각과 정서들의 복합체*(*a block of sensations, that is to say, a compound of percets and affects*)라고 정의한다(원문 이탤릭, 164). 여기서 지각(percept)는 지각작용(perception)과 정서와 정동의 관계와 같이 분리된다. 들뢰즈가 보기에 예술은 예술작품이 주는 감각과 지각을 지각작용 속에서 형성해 내고 정동에서 정서의 순간을 표현한다. 들뢰즈는 또한 예술이란 기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되기’를 통해 형성되는 정동과 지각작용에서 포착된 정서와 지각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예술 사태는 그 재료의 질감 등을 통해 정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반드시 기억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물들과 질감을 지닌 배경을 통해 정서가 비인간적으로, 탈주체적으로 형성된다. 이 정서의 집결체는 때로는 부조리하고 때로는 결정불가능하고 구별 불가능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서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예술가는 “견자 이자 되기를 수행

하는 자”(seer, a becomer)가 된다(171). 그리고 예술 작품에서 “정동은 정서를 넘어서고 지각작용은 지각을 넘어선다”(The affect goes beyond affections no less than the percept goes beyond perceptions). 들뢰즈는 정동이란 “인간의 비인간적 생성”(nonhuman becomings of man)이다(원문 이탤릭, 169). 동물되기로서 인간들은 정서의 집결체가 된다. 또한 “예술은 견해를 갖지 않는다. 예술은 지각들, 정서들, 견해들의 삼중 조직을 해체하고 언어에서 일어나는 지각작용, 정동, 그리고 감각들의 블락들로 대체한다”(176). 예술가는 새로운 정동과 감각과 지각작용의 다양함을 창조해 낸다. 차학경(Theresa Hak-Kyung Cha)의 아방가르드 작품인 『딕테』(Dictee)는 이러한 새로운 정동을 이미지의 계열로 보여준다.

『딕테』는 이미 미국 아시아계 미국 문학, 특히 전위 예술 세계에 큰 족적을 남긴 작품이 되었다. 포스트 디아스포라⁶⁾ 시대의 한국계 미국인인 차학경의 『딕테』는 소설, 자서전, 시, 그림, 사진 등의 몽파주류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차학경의 작품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동과 이미지 속 사물의 관점에서 차학경의 작품에 나오는 사진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딕테에는 사진들의 몇 가지 계열이 있다. 첫 번째 계열은 한국 독립운동에 앞장선 유관순과 차학경의 어머니와 같은 한국 여성의 얼굴들이다.



6) 포스트 디아스포라에 대한 논의는 줄고 「포스트 디아스포라 시대의 입양과 존재윤리」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첫 번째 사진은 유관순의 얼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차학경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노년의 얼굴 사진들이다. 각각의 얼굴들은 삼면화라고 부를 정도로 일치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식민지 역사와 소통하고 있다. 이 사진들을 『딕테』의 내용과 문맥화해 해석하면 식민시기에 순교자가 된 유관순과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해 만주와 미국으로까지 이민을 떠나야했던 어머니의 삶이 녹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적 역사적 문맥적 배경을 제거(époché)하고 사진 속 이미지들이 전달하는 정동의 흐름만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 사진 속 여성들의 얼굴들은 모두 앞면을 응시하고 있다. 이 응시들은 죽은 이의 ‘소환’과 ‘응답을 위한 부름’을 담고 있다. 일종의 영정사진들처럼 구도가 잡힌 연속된 사진들에서 한국 여성의 얼굴은 각각 독립된 주체(유관순과 차학경의 어머니)들을 떠나 그 안의 지각작용(percept)과 정동(affect)이 멈추지 않고 연결되고 흐르면서 사진을 보는 이들에게 이들 인물들이 보여주는 감정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것에 반응하길 요청한다. 특히 인물들의 배경을 모르는 (서구)독자들은 사진들을 통해 얼굴들의 흐름을 보고 이들 얼굴들이 일으키는 정동을 느낀다. 물론 이 정동의 ‘부름’이 갖는 의미는 독자들에게 완벽하게 언어화될 수 없다. 이미지 속 주체와 의미는 이 사진들의 연결 속에서 모호해지고 숨겨진다.

사진들의 계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백들이다. 들뢰즈는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여백은 이미 “감각이다”(sensation)라고 밝힌다(165). 『감각의 논리』(*Logic of Sensation*)에서 들뢰즈는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라는 현대 화가의 그림을 분석하면서 캔버스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생각으로 이미 꽉 채워져 있다고 논한다(71). 흰 바탕에 검은 점들, 혹은 검은 바탕에 흰점들로 이루어진 구도는 검은 색과 흰색을 모두 여백으로 만든다. 검은 점이 흰 색의 여백일 수도 있다. 여백들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사진 속 흑과 백으로 존재하는 사유로 채워진다. 그 사유를 독자에 대한 정동의 ‘부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진들에서 인물들은 점점 사라지고 여백과 점들의 구도로 잡혀간다. 이러한 여백과 점의 구도는 얼굴을 흐르게 하고 흑백의 차이로 나타나는 인물의 '부름'은 우리 신체에 지각작용을 일으키고 결국 정동을 일으킨다. 들뢰즈의 이론으로 보자면 세 사진을 통해 드러나는 정동은 우리의 능동적 사유와 응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쁨'의 정동이다. 우리는 이 사진들을 통해 우리의 사유를 깊이하고 '부름'에 정서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 신체의 능력, 즉 사유와 생각과 감각능력을 향상시킨다.

두 번째 계열은 기쁨의 정동과 다르게 슬픔의 정동을 보여주는 서양 여성 순교자의 '예수의 얼굴'계열이다. 이 계열 역시 앞서 나온 한국여성들의 사진들처럼 독자들에게 어떤 정동을 일으키지만 한국여성들의 사진들과는 다르다. 여성 순교자 계열을 이루는 이 사진들에서 인물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의미를 신으로부터 찾으려 하는 예수 얼굴을 차이를 지니고 반복함으로써 슬픔의 정동을 이룬다.



첫 번째 사진은 리지외의 테레사수녀(St Thérèse of Lisieux) 사진이다. 두 번째 사진은 칼 드레이어(Carl Dreyer)가 감독한 <잔다르크의 수난> (*The Passion of Joan of Arc*, 1928)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다. 이 사진들과 앞의 한국 여성들의 사진은 다른 관점을 취한다. 우선 테레사의 사진은 인물이 배경과 혼합이 되어 지각된다. 그리고 인물의 얼굴이 아닌 몸과 배

경에 중심이 있다. 잔다르크와 함께 지정된 프랑스의 수호성자로 이 여성 성인의 사진은 사물로서의 꽃들 속에 모호하게 위치함으로써 인물로 인한 정동과 사물에 의한 정동이 함께 부른다. 이 정동들은 혼란되어 있으며 분명한 정동을 나타내지 못한다. 오히려 이 사진이 담은 서구 여성 성자의 얼굴은 다음에 나오는 사진과의 배치를 통해 정동된다. 두 번째 사진은 이와 반대로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는 『천 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의 ‘얼굴’(faciality)에 대한 논의에서 정확히 『딕테』에 나온 이 스틸사진을 언급한다. 이들은 “얼굴은 그 자체가 예수이다. 얼굴은 일반적으로 유럽인이며 ... 예수는 슈퍼스타이다: 그는 전체 몸의 얼굴화를 만들어 냈고 그것을 모든 곳에 퍼트렸다(가령 잔다르크의 수난에서의 클로즈업된 사진을 들 수 있다)”(*The face is Christ. The face is the typical European ... Jesus Christ superstar: he invented the facialization of the entire body and spread it everywhere (the Passion of Jon of Arc, in close-up)*)”라고 논한다(176). 이 사진은 예수의 수난에 버금가는 고통과 좌절과 희망의 정서를 보여주는 얼굴이다.

들뢰즈의 정동 이론으로 보자면 이 두 사진들은 슬픔의 정동, 특히 이 정동에 의한 우울함의 정서를 보여준다.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구원을 헛되이 기다리는 잔다르크의 얼굴은 여성 순교자를 조장한 서구 기독교와 가부장적 체계의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얼굴이다. 이 정동이 중심이 된 서구 기독교 이념은 공포를 매개로 지배당하는 여성들을 수동적 신체로 만들어 생명력과 신체/정신 능력을 떨어뜨리고 죽음과 수난을 당연한 삶의 목표로 삼게 만들었다.⁷⁾ 스피노자는 “자유로운 이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의 지혜는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성찰에 있다”라고 한다(Cook 123). 서구 여성 순교자 사진들은 앞의 한국 여성들의 사진들이 보

7) 능동과 수동은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능동은 자유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기쁨의 정동은 능동의 정동으로 선(goodness)이며 자신의 생존능력인 코나투스(conservation)를 극대화 하는 방향이다. 이에 비해 수동의 정동은 정반대로 슬픔의 정동이며 역능의 상실이다.

여주는 여백과 검은점들의 조응과 다르게 사진 밖의 대상 즉 신과 예수와 이념적 맥락에 호소하고 있다. 이들 사진들은 사진과 독자의 ‘부름’과 ‘응답’이 아닌 예수의 얼굴을 그대로 모방한 신과 인간의 불행한 관계와 수동적 운명의 수용과 순교라는 맥락을 지님으로써 슬픔의 정동을 보여준다.

세 번째 계열은 ‘무리’와 ‘다중’(multitude)과 ‘사물화’의 계열이다. 스피노자와 들뢰즈 철학을 통해 정동의 정치성을 논한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t)는 ‘다중’이라는 개념을 통해 탈중심된 세계의 새로운 민중의 의미를 살핀다. 『제국』(Empire)을 통해 소개된 이 개념은 기존의 민중과는 다른 혁명의 가능성을 지닌 인간의 무리들을 지칭한다. 이탈리아의 자율운동 즉 아우또노미아 운동의 영향을 받은 ‘다중’ 개념은 무리로서의 인간들과 그들의 노마드적 삶이 만들 수 있는 저항의 탈주선들과 특이점들을 담아낸다. 이 다중은 탈주체의 존재들이며 단순히 무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항의 탈주선을 그릴 수 있다. 이들은 기존의 맞시점에서 논하던 목적론적 역사관 속의 민중과는 다르다.⁸⁾ 식민지인들, 난민, 이동 노동자, 비물질적 노동자, 정동적 노동자들과 같은 이들의 모임과 움직임은 그 자체로 탈주선을 그린다. 욕망의 결여가 아닌 욕망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의 움직임은 리즘처럼 뿌리 없이 모여 있는 존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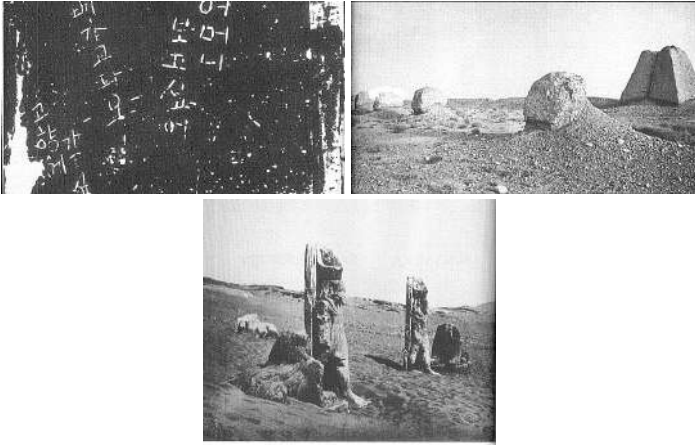
8) 스피노자와 들뢰즈는 모두 목적인(telos)을 부정한다. 스피노자는 실체로서의 신은 필연이지만 그 어떤 목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고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목적과 의지는 환상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들뢰즈 역시 기독교적, 헤겔의 변증법적 (혹은 맞스의 역사유물론적) 목적인을 부정한다.

위의 제시된 계열 속 사진들에서 인물들의 얼굴은 서서히 해체된다. 첫 번째 계열에서 담론(역사, 문화)적 맥락을 지니던 유관순과 차학경 어머니의 사진들은 이들 사진들에서 그 맥락마저 사라지고 주체성은 해체된다. 첫 번째 사진에서의 집단으로 모인 한국 여성들의 사진에서 점과 여백의 구성은 ‘개인’에서 ‘무리’(pack)를 보여준다. 두 번째 사진에서 ‘개인’은 ‘무리’를 넘어 ‘다중’(multitude)이 된다. 3.1운동으로 유추되는 이 사진에서 인물들의 얼굴들이나 개별적 특성들은 무의미해지고 모여 있는 이들의 ‘다수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러나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에서 인물들은 앞의 유관순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부름’을 명하듯 앞면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부름’은 신에 대한 호소로 채워진 서구 여성들의 두 번째 계열과는 다르다. 사진 속에서 예수의 얼굴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구담론 속 “얼굴성”(faciality)이 완전히 사라진다. 얼굴들은 점점 지워진다. 서구 예수의 형상에서 비롯된 얼굴의 담론은 점점 지워지고 탈영토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계열 속에서 신체는 얼굴을 넘어 사물이 된다. 아마도 일본 제국주의 시절 조선인 처형장면을 보여주는 이 사진에서 이제 ‘다중’은 배경 속의 ‘사물’이 된다. 탈주체화를 거쳐 사물화(시체화 된 혹은 시체가 될)된 인간들의 모습과 독자의 만남은 기쁨의 정동으로 이어진다. 물론 이들 사진들이 부르는 감정은 분노와 절망이다. 그러나 정동의 관점에서 이들 사진들의 스펙트럼은 감각의 논리를 보여준다. 감각은 역사 속에서 ‘부름’을 ‘소환’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이들의 모임과 합성과 사물화의 단계를 거쳐 인간 존재 전반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냄으로써 능동적 정동을 이끌어낸다. 이 사진들을 본 독자들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없이 구도를 통한 능동적 반응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기쁨의 정동이다. 이러한 세 번째 계열의 정동은 마지막 계열인 사물의 정동으로 간다.

『덕테』에서 가장 모호한 부분들은 앞의 계열에 연결된 마지막 계열인 ‘사물의 계열’이다. 사물들의 정동은 얼굴과 신체를 구성하던 점과 여백마

저 해체되고 배경과 사물로만 채워진다. 물론 사물 계열에서의 탈주체화, 탈인간화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계열의 첫 번째 사진은 벽에 쓰여진 한글이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 당시의 일본 징용노동자들이 쓴 글로 추측되는 이 글에서 인간의 흔적은 문자로만 남게 된다.⁹⁾ 그러나 앞서서 보여준 여백과 점의 얼굴-구도는 검은 여백과 글자로서의 선들의 구도가 바뀐다. ‘어머니’와 ‘고향’은 한국인들에게 문자로 인식되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미국독자들에게는 파열된 선들의 모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의미를 상실한 선들은 오히려 사물의 질감이 되고 감각의 대상이 되며 지각작용을 일으키고 정동의 사물이 된다. 두 번째 사진은 사막 위의 반복적으로 바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사진 속 사물들은 정동적 사물들이다. 앞의 계열들과 연결되면서 바위들은 표정과 얼굴이 사라진 머리의 형태가 된다. 더구나 이 바위들의 반복은 앞 계열의 ‘다중’과 연결된다. 이들 사물의 이미지와의 만남을 통해 이 모든 계열들의 궁극적 탈주선을 그릴 수 있다. 탈주체화된 다중들의 모습을

9) 물론 비평가들이 지적하듯 이 사진에는 위작 논란이 있다. 그러나 차학경이 이 위작논란마저 염두에 두고 이 사진을 넣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닌 ‘탈주체’와 ‘탈의미화’된 사물들은 의미와 주체가 없는 정동 그 자체가 된다. 마지막 사진 속 사물들의 이미지 역시 역사적 맥락과 주체화가 탈각된 사물 그 자체의 언어 속에 있지만 언어를 넘어선 정동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동들 속 정서는 독자들의 능동적 반응으로 이끌어진다. 물론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규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이 정동을 통한 변이는 독자를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되기’로 생성된다.

물론 차학경의 『딕테』 속 정동은 독자의 몫이며 이들 사진들의 정동에 대한 필자의 해석은 보편적이지는 않다. 각 이미지들의 계열들은 서로 다른 연결이나 연접이나 이접이나 합일을 통해 독자의 능동적 반응을 이끌어 낸다. 그것이 생성으로 또 다른 사유로 이끌어지고 우리 신체와 정신의 활동으로 이끌어진다면 능동적 정동이다. 인간의 얼굴들은 이 계열들을 통해 사물들과 다르지 않은 실체의 양태들임을 보여준다. 예술가는 인간의 얼굴을 사물화 하고 사물을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해냄으로써 이 두 양태들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과 글자와 얼굴은 모두 내재성의 구도 안에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체와 정신은 하나의 구도 속에 위치한다. 예술은 이 ‘사물되기,’ ‘얼굴되기,’ ‘무리되기,’ ‘다중되기’ 등을 보여줌으로써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통해 탈주선을 그린다. 그것이 일제 강점기나 서구의 순교자들이라는 담론에만 묶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담론에 묶이는 순간 정동은 사라지고 해석하는 사제들의 언술만이 남게 된다. 한글을 모르고 한국 상황을 모르고 어떠한 문화적 맥락도 모르는 이들이 『딕테』의 사진들을 통해 느끼는 능동적 정동은 이 작품이 지닌 예술성의 핵심이다. 『딕테』가 정동을 통해 드러내는 무리와 다중의 정치학은 현실에서 정동 노동자나 집회에서 실제로 현실화된다. 다음으로 현실 속 정동 정치학의 모습으로 정동 노동자와 다중과 촛불집회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IV. 사례2: 정동 노동자와 다중과 촛불집회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정동의 개념을 노동과 연결시킨다. 마이클 하트는 「정동적 노동」에서 “정동적 생산”이 “반자본주의 기획을 위한 유용한 토대가 된다”라고 선언한다(139). 정동적 노동과 생산은 다중(multitude)라는 집단적 주체성을 형성시킨다. “비물질적 노동”이라고 불리는 정동적 노동은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 사회의 노동이다. 포디즘(Fordism)이 콘베이어 벨트 위에서 노동의 분화와 단순 노동으로 이루어진 산업사회의 체계라면 포스트 포디즘은 웰빙이나 다양한 감정노동을 포함하는 후기 자본주의사회 속 노동형태들을 일컫는다. 정동적 노동은 비물질적 노동이라고 불린다. 포스트포디즘의 자본주의는 인간의 생산노동에서의 착취를 정동적 착취로까지 확대시켰다. 텔레마케터나 외판원이나 교사등이 대표적이다. 가령 외판원은 가장 정동적 자본노동자들 중 하나이다. 그들에게 언어란 잉여재화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며 상품과 감정은 일치해야한다. 홈쇼핑 속 홈쇼핑 진행자들의 모습은 사물의 이미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정동을 일으키고 그 정동으로 시청자가 쇼핑이라는 실천을 하도록 유도한다. 정동은 이제 현대 소비중심, 미디어중심 산업 구조의 정점에 속한다. 그러나 “이 노동은 비록 몸과 관련되고 정동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생산물들은 손으로 만질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노동은 비물질적이다. 즉 편안한 느낌, 행복, 만족, 흥분, 열정이 그 생산물이며 심지어는 결속감이나 귀속감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물질적이다”(150). 교사, 대학 강사, 아이 돌봄 서비스등은 모두 정동적 노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물질적 노동에서도 노동자의 삶의 질은 기존의 물질적, 혹은 포드식 생산 노동자들의 삶의 질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와 잉여가치의 자본의 논리는 이 세계에서조차 유사하게 움직인다.

푸코(Michel Foucault)의 생체 능력(bio-power)과 생체 정치(bio-politics)는 모두 이러한 양태를 포함하고 있다. 푸코와 들뢰즈는 같은 세

상을 보고 있다. 푸코는 결국 이러한 생체 권력과 그를 이용한 생체 정치가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있으며 공장이라는 공적 영역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의 경계마저 사라진 ‘모든 공간의 생체 정치적 공장화’가 이루어진다고 암시한다. 끝없이 생성되는 정동적 담론들, 즉 무수히 쏟아지는 ‘건강한 삶’, ‘만족스러운 노동’, ‘자기 계발’ 등의 담론들은 미디어를 통해 무한히 확산되고 정동적 삶을 통제당한 인간들은 정동적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한다. 그러나 푸코는 이러한 생체 권력에는 늘 윤리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윤리는 미시단계에서의 자기 규율(self-governance)이다. 이와 유사하게 들뢰즈가 해석한 스피노자는 ‘우리의 신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생체 정치가 담론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된 사회’(society of control)로 만들지만 나의 신체가 할 수 있는 생체 능력, 즉 푸코가 말하는 자기 규율은 나의 윤리적 저항과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가령 정동에서도 생체 정치에 대한 풍자와 패러디와 해학과 의도적 왜곡은 삶의 변화를 만드는 윤리적 선택들이다.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 반복적으로 있어온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보여준 무수한 패러디와 해학과 웃음과 목적 없이 모인 군중들의 집단행동은 정동적 윤리가 어떻게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어떻게 지배 권력을 약화시키는지도 보여주었다. 들뢰즈가 해석한 스피노자에 따르면 슬픔의 정서는 권력에 조정을 당하는 신체에서 비롯된 감정이고 기쁨의 정동은 이 권력에서 벗어날 잠재성을 지닌 새로운 감정과 신체를 통한 ‘되기’의 정동이라고 본다. 인간은 슬픈 정서 때문에 자신의 몸과 의식을 노예로 만들고 독재자는 슬픈 정서를 지닌 인간을 원한다. 물론 슬픔 정서는 지성의 작용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쁨 역시 지성의 작용은 아니다. 들뢰즈가 보는 윤리란 기쁨의 정서를 능동적인 정동으로 만들어 사물에 인간이 영향을 받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생산하는 노동을 통한 우리들 사이의 통념(common sense)의 확보이다. 이 속에서 윤리는 다중(multitude)의 비물

질적 노동과 정동을 통한 ‘되기’의 능동적 윤리이다.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SNS를 통한 네트워킹된 다중들의 모임이고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이 윤리와 정치의 교집합을 보여준다. 촛불 집회는 슬픔이 아닌 기쁨을 통해 다중들의 ‘되기’와 ‘정동화’를 이룬 기쁨의 능동적 표현들이었다. 스피노자는 독재자와 사제는 민중의 슬픔을 정동화하여 힘을 감소시키고 예측되도록 만든다. 그러나 독재자가 슬픔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면 촛불집회에서의 다중들은 노래와 춤과 풍자와 해학과 기쁨의 행위들로 촛불을 밝히고 공통 관념을 만들었다. 여기서 사물들(촛불, 손팻말, 분장, 탈, 다양한 희극적 장치들)은 뒤러의 멜랑콜리 사물들이 아닌 기쁨의 정동화에 일치되는 사물들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사물과 정동의 이론들을 계보적으로 이해하고 읽어보았다. 정교하지 못한 논의들이었지만 현대 사회 속 사물과 정동을 문학과 문학 밖의 윤리 및 정치와 연결시켜 내재성의 구도 속에서 살펴보았다. 정동은 탈인간,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 더욱 중요한 윤리적,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어디까지나 정동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능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4차 기술 혁명을 통한 AI시대에 우리는 문학을 통해 정동의 반증들을 목격하지만 인간이나 사물이나 모두 욕망과 정동이 영향을 주고 받고 흐르는 내재성의 판 위에 놓인 기계들이라고 볼 때 정동이론은 인간을 겸손하게도 하고 또한 인간성의 중요성을 그만큼 드러내기도 한다. 촛불집회등에서 보인 정동의 윤리와 정치성은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민주정치가 ‘정동의 민주정치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하기도 한다. 문학과 예술에서도 푸코가 『사물의 질서』(*Order of Things*)의 마지막에서 예언한 인간의 얼굴이 사라진 모래사장에서 정동의 의미를 파악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사피엔스』의 마지막에 “우리는 머지않아 스스로의 욕망 자체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일 것이다.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한다(548). 특이성은 오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답은 아마 지성이 아닌 정동 속에 있을 것이다.

(강원대)

■ 주제어

사물, 정동, 윤리, 차학경, 덕테, 촛불집회

■ 인용문헌

- 김대중. 「포스트 디아스포라 시대의 입양과 존재윤리」. 『영어권문화연구』 8.3 (2015): 7-28.
- 들뢰즈, 질. 서창현 역. 「정동이란 무엇인가?」. 『비물질 노동과 다중』. 서울: 갈무리, 2005. 21-138. Print.
- 박삼열. 『스피노자의 『윤리학』 연구』. 서울: 선학사, 2012. Print.
- 스피노자. 『에티카』. 강영계 역. 서울: 서광사, 1991. Print.
- 하라리, 유발. 『사피엔스』. 조현욱 역. 서울: 김영사, 2015. Print.
- 하트, 마이클. 자울평론 번역 모임 역. 「정동적 노동」. 『비물질 노동과 다중』. 서울: 갈무리, 2005. 139-157. Print.
- Cha, Theresa Hak Kyung. *Dictee*. Berkeley: U of California P, 2001. Print.
- Cook, J. Thomas. *Spinoza's Ethics*. London: Continuum, 2007. Print.
- Deleuze, Gilles. *Francis Bacon: The Logic of Sensation*. Trans. Daniel W. Smith.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2. Print.
- Deleuze, Gilles,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7. Print.
- _____. *What is Philosophy?*. Trans. Hugh Tomlinson and Graham Burchell. New York: Columbia UP, 1994. Print.
- Foucault, Michel. *The Order of Things: An Archaeology of the Human Sciences*. New York: Vintage Books, 1994. Print.
- Heidegger, Martin. “The Thing.”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 Albert Hofstadter. New York: Harper Perennial, 1971. 163-184. Print.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Harvard UP, 2000. Print.

■ Abstract

**Study on Thing and Affect:
Focusing on *Dictee* and Candle Demonstration**

Kim, Dae-Joong

(Kangwon Univ.)

This paper aims to explore contextual meaning of thing and affect and how these are expressed in differential areas such as literary works, ethics, and politics by analyzing Theresa Cha Hak-Kyung's *Dictee* and recent candle demonstration in Korea. As theoretical scaffoldings, the paper employs Spinoza's theory of affect in *Ethica* and Gilles Deleuze's adaptation of it as well as such ideas as multitude proposed by Antonio Negri and Michael Hart. The paper first of all delineates genealogy of philosophical inquiries on thing and affect then shifts its focus to Gilles Deleuze's preeminent explanation of affect and affection. These theoretical overviews assist readers to understand this paper's analysis of images in Cha's avant-garde masterpiece, *Dictee*. The paper mostly delve into series of images and their affect in *Dictee*: the first series of images of Korean women's faces and affect of joy, the second series of images of Western female martyrs and affect of sadness, the third series of images of multitude and their affect, the fourth series of images of things and thing-affect. In the last part of the paper, I examine political meaning of affect and

multitude as well as its power in contemporary society, especially recent candle demonstrations in Korea.

■ Key words

Thing, Affect, Ethics, Theresa Cha Hak-Kyung, Candle Demonstration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8년 3월 15일 ○심사일: 2018년 3월 22일 ○게재일: 2018년 4월 30일

탈신체 시대의 과학기술

: 사이버펑크 서사로 읽는 과학기술의 사회학과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지평*

김 명 성

I. 서론: 21세기 과학기술사회와 인종

서로 다른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21세기의 미국 인종담론에서 탈인종(postrace)이라는 용어는 인종적 정체성이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의식의 진보와 분배경제의 성장, 그리고 문화적 통합이 이질적인 민족문화 간의 경계를 넘어 평등하고 단일한 형태의 다민족 국가 건설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신자유주의 팽창경제와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전세기의 인종적 위계를 재생산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현재의 미국 사회를 설명하기에 적절치 않지만, W. E. B. 듀보이스(Du Bois)가 한 세기 전에 제기한 “컬러 라인”(color line)의 문제가 새로운 정치공학과 사회윤리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라몬 살디바(Ramon Saldívar)는 2012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대통령 재선을 21세기 미국이 탈인종 시대가 아닌 “탈백인종 시대”(a postwhite era)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징후로 이해한다(156). 백인들

* 본 논문은 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 온(Science-On)에 투고한 기사를 발전시킨 논문이다.

보다는 유색 인종들의 지지율이 선거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재선은 더 높은 비율의 백인들이 오바마를 선택한 2008년 초선과 비교할 때 미국의 정치 엘리트 집단들이 미국이 정치 지형 형성이 미치는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더 이상 과소평가할 여유가 없음을 암시하는 정황이기 때문이다(Saldivar 156).¹⁾ 21세기 미국의 정치적 지형과 이에 따른 국가 정책이 인종의 지정학적 재편에 따라 변해가고 있는 것인데, 민족문화라는 관념이 지배적이던 20세기와 달리 21세기 미국 사회는 문화 간의 “교민족적”(crossnational)이고 “초민족적(transnational)”인 이합집산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Shu et al. 2). 멕시코 장벽 건설로 상징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반세계화, 반이민, 보호무역 정책은 전통적 민족주의가 붕괴된 결과로 말미암은, 과거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산층 백인 남성들의 불안과 위기감을 반영하는 징후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중산층 백인 남성들이 미국의 정치와 사회, 문화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러한 지정학적 재편이 지난 반세기 동안 본격적으로 확장된 “여성학과 인종학,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의 주요한 영향”하에서 일종의 “탈민족적”(postnational)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학 연구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Rowe 167). 탈민족이라 함은 단순히 전통적인 민족국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지역성이 제거된 문화의 결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종류의 사회적 범주 속에서 발생한 “내부적 원형과 외부적 힘의 지속적인 충돌”로 인해 이전 세기 국가 관념을 지탱하던 민족주의 내러티브가 붕괴된 상태를 의미한다(Pease 5). 국민 국가의 단일체 속에서

1) 도리언 워런(Dorian Warren) 역시 오바마 재선 직후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선거의 결과를 현재 미국의 인종정치학적 모습이 “다양한 유권자 층과 결합된 유색인종들이 ... 선거를 결정짓는”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각 문화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했던 기존의 동화주의(assimilationism)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혹은 인종통합주의(integrationism)와는 달리 탈민족주의적 관점은 문화들 간의 결합보다는 관계성 그 자체에 집중하여 문화적 경계의 비일관적인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이전의 접근방식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보편적 법칙들과 지배적 개념들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민족적 단일체로 생각했다면, 탈민족주의적 접근은 인종과 계급, 성의 다양한 역학관계로부터 생겨나는 충돌과 대립의 접점 그 자체에 집중한다. 미국은 더 이상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속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단일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혼합과 동화, 혹은 차이와 배제라는 단어들은 현재 미국의 정치문화적 지형을 설명할 수 없다. 21세기 미국을 이해하는 것은 이처럼 인종과 계급, 성의 차이에 따라 형성되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미시적 역학 관계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전 세기에 비해 인종의 관계가 다변화되고 문화 간 혼합이 복잡해진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유전공학이나 생명과학, 전자 네트워크 등 과학기술의 발달이 개인의 삶을 신체적이고 지역적인, 혹은 여러 다른 제약들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인종 대립의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인종 사회학의 핵심적 논제 중 하나는 과학기술문화(technoculture)가 인종적 타자성에 어떤 새로운 역학구조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달라진 정보와 재화의 접근성으로 인해 지역적 위계가 어떤 양상으로 해소되고 또 재구축 되어 왔는지도. 유전공학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생물학적 정보가 데이터화되고 형질의 변형이 가능하며,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광범위한 정보의 네트워크가 현재와 미래의 인간형을 규정하는 21세기 과학기술문화는 인종담론과 현실정치의 많은 전제들을 바꾸었다. 이 양상은 다소 복잡하여 과학기술의 발달이 궁극적으로 인종간의 갈등을 없앨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이와 반대로 지배문화에 독점된 과학기술은 기존의 사회

적 위계를 기술관료제, 즉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의 형태로 재생산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모두를 피해갔다.

예를 들어, 20세기 후반의 디지털 네트워크 혁명은 지역적, 경제적 제약들을 뛰어넘어 제공되는 정보와 교육이 다인종 사회의 민주적 성립을 가능케 할 것이며 인종차별의 역사는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특히 공화당은 정보과학 혁명이 기업중심 자유시장경제의 민주적 재구축에 기여하여 “인종과 경제력, 군사력, 출신지에 따른 편견이나 특권이 없는”(Barlow) 보편적 미국 민족주의를 자본주의의 틀 속에 구현해 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60년대의 민권운동 이후 보편화된 ‘탈인종’이라는 수사가 20세기 후반 다소 낙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일상생활의 기반으로 확장된 과학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은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주정부들과 비영리단체,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무료 혹은 저가의 전자 정보들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공동체 기술센터를 미국 전역의 1,0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위한 웹 인종 콘텐츠 구축도 다양한 논의를 거치는 중이다.²⁾

하지만 전후 미국 사회를 지배한 이념, 즉 낡은 편견들로부터 벗어난 디지털 세상이라는 환상과 기대들은 여전히 견고한 사회적 위계의 벽을 넘지 못해 과학기술을 통한 궁극적인 평등이 얼마나 구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소득과 교육의 차이에 따른 차등화된 기술접근성이 결국은 완화될 것이라는 조지 부시(George Bush) 행정부 시절 미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가 발표한 보고서가 예견하던 전망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정보과학기술은 “빈곤층의 격차를 디지털 불평등으로 바꾸어놓았을 뿐”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Mossberger 584). 이전 세기의 유토피아적 전망을 많은 학자들이 “과학

2) 미국 내 인종 집단별 전자 정보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로건 힐(Logan Hill)과 캐런 모스버거(Karen Mossberger) 외 참조.

기술의 합리성이라는 탈산업시대의 환상”(Penley et al. xiii)이라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를테면 21세기의 미국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역학들이 “경제적 유동성과 정치적 책략, 공동체 건설을 위한 보다 더 광범위한 투쟁과 항상 연관”되어있으며, 또한 많은 개인들과 집단들이 “그들의 역사와 사회적 위치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이용”(Nelson et al. 5)한다는 사실을 목도해가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과학기술 담론들이 생산해온 사회학적 분석들을 인종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과학기술의 진보가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을 형성하고 그것에 관계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이는 단지 사회적 분배와 과학기술을 독점한 부르주아, 생체공학의 발달로 인한 전통적인 자유주의 이념의 훼손과 같은 보수적 관점이나 혹은 기술관료 사회의 계급 재생산과 같은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배문화가 독점한 과학기술을 재전유하는 과학기술 반문화(counterculture) 형성의 과정을 조명한다. 과학기술은 국가권력과 자본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지만 또한 항상 재해석되고 재전유되어 지배문화의 독점 이데올로기를 와해시키는데 기여해왔다. 보편적 인류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시기를 지나 기술적으로 통제된 신체가 생산되고 소비되며, 또한 하부문화(subculture)가 이에 개입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지난 몇 십년간 변화해온 궤적을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은 현재 미국 대중문화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학기술 서사들, 특히 사이버펑크(cyberpunk) 장르의 변천 과정을 참조한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 속 국가와 기업의 결합을 디스토피아적 형태로 다소 단일하게 이해했던 이전 세기의 사이버펑크가 지배문화와 인종적/성적 소수자들 간의 역학관계를 복잡하게 그려내는 방향으로 진화해온 방향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사회 담론의 중심 의제들이 지난 몇 십년간 변화해온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II. 사이버펑크가 묘사하는 정보과학 혁명

과학기술과 사회적 계층, 특히 인종적 위계라는 21세기 미국의 정치사회적 지형에서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최근 생산되고 있는 대중문화 속 서사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2017년에 개봉된 「로건」(*Logan*)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배문화와 사회적 소수자들의 갈등을 유전적 돌연변이 집단과 군국주의적 정부와의 대립을 통해 은유적으로 묘사해 온 마블(Marvel)사의 엑스맨(X-Men) 시리즈 중 한편인 이 영화는 시리즈가 지금까지 다루어온 억압적 지배문화와 소수집단의 대립을 후기 자본주의 초국가 경제체제와 미국-멕시코 경제지역의 생물정치(biopolitics)라는, 지역적, 정치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 놓는다. 주인공 로건은 멕시코의 생명공학 연구소인 알칼리 트랜시젠(Alkali-Transigen)에서 탈출한 실험체 아이들이 미국을 가로질러 캐나다 접경 부근에 있는 에덴(Eden)으로 도망치도록 돕는다. 1994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체결 전후로 미국-멕시코의 경제지역이 미국의 주요 생물정치학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이 접경지역을 생명공학이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묘사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비슷한 방식으로 마이클 윈터바텀(Michael Winterbottom)의 「코드 46」(*Code 46*)이나 가레스 에드워즈(Gareth Edwards)의 「몬스터즈」(*Monsters*) 등의 영화들이 백인의 영웅적 모험담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민족주의 경제지역 내러티브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착취, 생물정치학적 권력, 그리고 초국가적 자본축적 문제들의 틀 속에서 다시 써내려왔다. 기존의 민족주의 이념으로부터 생산된, “텍사스 기마대나 경계 경비대, 마약 단속반, 혹은 경찰의 영웅적인 임무”(Fojas 4-5)를 묘사하던 이전의 미국 대중서사와는 달리 이 2세대 경계서사 작품들은 경제지역의 경험을 과학기술 사회의 이산과 착

취의 문제로 다룬다.

과학기술과 미국 인종 소수자 집단의 사회적 역학을 묘사하는 경향은 무엇보다 사이버펑크 장르에서 두드러지는데, 특히 루퍼트 샌더스(Rupert Sanders)의 2017년 작 「공각기동대」(*Ghost In The Shell*)는 이러한 관점에서 흥미로운 점이 특히 많다. 오시이 마모루(Oshii Mamoru)의 1995년 사이버펑크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제작한 이 영화는 개봉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애니메이션 원작의 일본인 주인공 쿠사나기 모토코(Kusanagi Motoko) 역에 백인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Scarlett Johansson)을 캐스팅한 화이트워싱(whitewashing) 논란이 그 이유들 중 하나였다. 리메이크 작은 원작과 비교해서 달라진 주인공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적인 설정들을 추가했는데, 바로 여기서 원작이 개봉된 1995년으로부터 20여 년간 변화해온 과학기술의 사회적 궤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두 작품이 각각 기계와 영혼, 그리고 정치적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들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서 과학기술, 특히 탈신체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시선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각기동대」는 주인공의 인종을 백인으로 변화시키고 원작의 배경인 일본을 미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상의 공백을 주인공 미라 킬리언(Mira Killian)이 사실은 테러의 희생자인 쿠사나기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테러로 희생된 이후 백인의 외모를 가진 인공 신체에 옮겨진 것으로 재설정하여 해결한다. 영화는 미라 킬리언이 거대 군산복합기업 한카 로보틱스(Hanka Robotics)의 실험에 의해 인공 신체로 옮겨진 뒤 기억을 잃어버렸으나, 우연한 계기로 회복한 기억의 단편을 따라 자신의 일본인 가족을 찾아가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원작 애니메이션과 2017년 리메이크 영화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 원작 애니메이션은 고스트(ghost)와 의체(artificial body),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전뇌(cyber-brain), 영혼 전송(mind uploading) 등의 개념을 이용해 정보과학 혁명과 탈신체 기술이 야기할 인류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반면, 리메

이크작은 소수 인종의 신체를 통제하는 패권주의적 과학기술을 조명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쿠사나기는 인공지능으로부터 탄생한 순수한 비육체적 의식인 고스트와 융합하여 자신을 디지털화 하는데 반해 미라 킬리언은 고스트를 거부하고 육체에 기반한 전통적인 인간성을 회복하여 한카 로보틱스의 거대자본에 대항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애니메이션 원작이 과학기술로 인한 육체와 정신의 분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여러 철학적 질문들 속에 담아냈다면, 2017년 영화는 정부와 거대기업 신디케이트의 과학기술 지배에 저항하는 낭만적 영웅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애니메이션 원작에서 쿠사나기는 인간의 경험적 한계,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기억의 각인을 통해 규정되는 의식체로서의 인간의 근원적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한다. 유기체인건 인공 의체인건, 쿠사나기에게 육체는 구속과 제약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리메이크 영화 속의 미라 킬리언은 고스트와 융합하여 디지털화되기를 거부하고 육체적 개인성을 추구한다. 애니메이션 원작에서 육체란 곧 과거의 유물이 되어 버릴 외피에 불과하지만, 리메이크 작에서는 다시 회복해야 할 정신적 이산(diaspora)의 대상이다. 이를테면 20여 년이 지나 다시 쓰여진 「공각기동대」는 우리에게 육체적 인간성을 회복할 것을 재촉하는 것이다. ‘사라질 육체’와 ‘회복해야 할 육체’라는, 두 작품 속에 드러나는 육체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시선은 탈신체 과학기술에 대한 시대적 정서가 디지털 네트워크나 신체변형 기술이 다소 생소했던 지난 세기와는 사뭇 달라졌음을 짐을 알려준다. 그리고 변화한 「공각기동대」의 서사는 과학적 진보와 자아의 정체성 문제를 서사의 형태로 재현한 사이버펑크 장르가 발전하고 변화하며 보여준 인류학적 의미의 경향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한 사이버펑크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초거대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로 편입되어 있는 미래의 세상을 묘사한다. 사이버펑크의 세계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이보그나 인공지능을 인간으

로부터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현실과 가상 현실간의 경계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탈인본주의적(post-humanistic) 수사법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과 인공두뇌학(cybernetics)으로 인해 변화한 인식론적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선행철학”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을 경험적으로 연구”(이득재 10)하기 위해 정보 기술과 컴퓨터 과학을 주요한 분석 도구로 편입시킨 20세기 중반의 이 과학적, 철학적 혁명은 생명 유기체의 작동기제를 비유기체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물질과 에너지 중심의 기존 뉴턴 과학관”을 넘어서서 “정보와 정보처리, 계산, 표상”(이정모 31)이라는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세상을 이해한다.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와 유사한 원리를 가진 순환적 정보처리 체계로 이해될 수 있고, 인공지능이나 인공신체와 같이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보조하는 인공물들은 인간의 확장된 일부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철학적 지평을 받아들인 사이버펑크는 컴퓨터와 정보 기술이 인간 사회의 근간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사이버펑크의 세상은 인간을 보편적 단일체로 받아들이는 서양의 오랜 인식론적 전통에 의문을 던지며 인간을 판단하는 보편적 해석의 틀 바깥에 있는 다양한 존재론적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³⁾

최근의 컴퓨터 철학자들은 계산주의(computationalism)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과학적, 철학적 경향을 설명하기도 한다. 계산주의는 “우리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동일”하며, “인간의 마음 역시 일종의 컴퓨터와 같은 것으로 결국 규정지어질 수 있다”(Golumbia 8)는 전제를 따른다. 인지/진화 심리학과 분석 철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관점에 따르

3) 인지과학이 본격적인 학문 분과로 자리잡은 것은 학술지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이 창간되고 인지과학 학회(Cognitive Science Society)가 출범한 1970년대 후반이지만 인지과학 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시작점은 노버트 위너의 인공두뇌학 개념과 앨런 튜링이 인공 지능 컴퓨터 실험에서 찾을 수 있다. 자세한 논의는 이정모 참조.

면 우리의 두뇌가 세상을 인지하는 메커니즘은 디지털 컴퓨터의 알고리즘 연산구조와 유사하며, 인간의 두뇌가 언어적/수학적 기호들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컴퓨터가 코드화된 정보들을 처리함으로써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유기적 구조를 디지털 기호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인식론적 접근이 인지과학의 전통에서만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신경 구조를 “복잡하게 주기화된 패턴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다목적 전자 도구”인 디지털 컴퓨터로 비유한 바 있다(48-9).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기계”이며,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정보처리, 패턴인식, 단기/장기 정보저장, 연산작용”과 같은 작업들을 처리하는 컴퓨터와 비슷한 형태로 진화해왔다(Dawkins 276). 릴리 케이(Lily Kay)는 이러한 인식론적 전통을 분자생물학적 관점으로 확장하여, “정보이론이나 인공두뇌학, 시스템 분석, 전자 컴퓨터, 가상현실 기술”과 같은 20세기 후반의 정보과학 담론들이 유기체의 생물학적인 정보 구조를 이해하는 새로운 기호 체계들을 만들어냈으며(5), 그 결과 “분자와 유기체를 일종의 텍스트 구조, 즉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자연의 텍스트화”(textualization of nature)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34). 케이는 1980년대에 시작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를 이러한 인식적 전환의 가장 거대한 물결이었다고 설명한다(xv-xvi).⁴⁾

인지과학과 인공두뇌학으로 인해 촉발된 20세기 중반의 과학적, 철학적 혁명 이외에 사이버펍크의 탄생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역사적 흐름은

4) 미족수학(ethnomathematics)을 연구하는 론 이글래쉬(Ron Eglash)는 아프리카 서해안 지방의 유루바족을 비롯한 다양한 부족들의 의복과 거주문화로부터 복잡하게 계산된 프랙탈(fractal) 패턴의 전형을 찾으며, 아프리카의 전통 부족의 “알려지지 않은 코딩과 연산 전통”(356)이 문화적 관습과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과학기술이 함께 서구의 인공두뇌학의 역사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한다.

냉전시대의 종식에 따른 후기자본주의의 형성이다. 문화사회학적인 의미에서 후기자본주의는 인종적, 성적 소수자들과 노동자 계급의 전통적인 투쟁 방식이 시장 환원주의(market reductionism)로 인해 상당부분 와해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념적인 적이 사라진 자본주의는 중립적인 경제 체제로 자리를 잡았고, 인종, 성, 계급을 따라 형성된 사회적 불평등은 더 이상 구조적 문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일부로 환원된다. 또한 이 시기의 정치적, 경제적 지형은 미국 대도시 경제를 지탱하던 포드주의(Fordism) 대량생산이 “기술 변화와 자동화,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수요 창출, 노동유연성이 좋은 환경으로의 지역적 확장”(Harvey 145)으로 인해 해체되고 재편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저소득 계층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했던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는 “현대화의 새로운 물결”과 “세계적인 산업 구조 재편”의해 “보다 유연한 축적 체제”로 변화했고(Dubey 18), 동시에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임금 기술직종의 증가는 단순노동 인력의 규모를 축소시켜 그 잉여노동력을 서비스 업종으로 흡수시켰다(Dubey 196). 대도시 노동자 사회는 구조적 손상을 입게 됐지만, 이러한 계층적 위기는 탈냉전 후기자본주의 이념 하에서 분배나 경제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성취의 실패로 환원된다. 이는 민권운동 이후의 “국가 정책의 정치적 우경화”(Marable 32)와 결부되어 과학기술이 전통적 계급 체계를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의 한 형태로 사회적 소수자들에 의해 경험된 예이다.

이처럼 사이버펑크 장르의 과학기술, 특히 인지과학과 정보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패러다임의 변화가 후기자본주의 시대의 거대자본과 국가권력의 결합에 대한 불안감과 결합하여 생겨난, 이른바 사회적 위계와 전통적 계급 관계의 재생산에 봉사하는 과학기술사회에 대한 일종의 문화인류학적 반응이었다. 리들리 스콧(Ridley Scott)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에서 구체화된 이 장르는, 문학에서는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Neuromancer*)와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

그리고 영화에서는 「트론」(*Tron*), 「로보캅」(*RoboCop*), 「론머맨」(*The Lawnmower Man*), 「너바나」(*Nirvana*), 「매트릭스」(*Matrix*) 등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며 전체주의와 시장 논리가 과학기술을 통제하는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들을 그려냈다.

원작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는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 있다. 작품 속의 영혼전송 기술은 인간이 육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혹은 인간이 필멸의 존재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시대적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한다. 고스트는 육체가 없는 순수한 의식이다. 엄밀히 말하면, 고스트의 의식은 육체로부터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스트에게 있어서 육체란, 캐서린 헤일즈(Katherine Hayles)가 말한 것처럼, “존재의 근거지가 아닌 패션 약세사리”와도 같은 것이며 마음의 “물질적 실체”(material instantiation)는 이곳에 우연히 깃든 “부수적 현상”(epiphenomenon)에 불과하다(2).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육체를 옮겨 다니며 자신을 보존하는 고스트는 핵심적 유전자 정보 단위인 디엔에이(DNA)를 통해 전수되는 인류의 자기보존 방식과 다르지 않다. 태아의 디엔에이에 저장된 정보들은 성체로 성장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변별점들을 만들어낸다. 또한 생명체는 주변의 정보를 흡수하면서 스스로 진화하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네트워크 속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확장하는 고스트는 활자와 소리, 영상을 저장하는 기술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함으로써 진화해온 인류의 생존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보존한다. 도킨스가 주장하였듯 인류는 생물학적 유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문화적 정보를 전수함으로써 “비유전적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매개가 기호와 언어이다(189). 도킨스에 따르면 인류 문명의 성립과, 전수, 지속적 존립은 많은 부분 문화정보 저장단위인 밈(meme), 즉 “모방과 비슷한 ... 과정을 통해 [의미의] 저장소에서 두뇌와 두뇌 사이로 이동하며 스스로 증식하는 문화 정보들을 통해 이루어져왔다(192). 이 모방과 증식의 매커니

즘은 “은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닌 사실적인 의미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192).

III. 21세기 과학기술의 새로운 사회적 지형

고스트와 융합하여 자신을 네트워크 속으로 코드화한 쿠사나기는 탈신체 과학기술의 발전이 던져준 정체성 고민이 인류 진화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20세기 후반의 시대정신을 보여준다. 하지만 물질적 육체에 구애 받는 인간의 근원적 한계와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릴 신체라는 외피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된 인간의 존재론적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던 원작과는 달리, 21세기의 「공각기동대」는 물질적 신체와 육체적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갈구한다. 서로 다른 이 두 가지의 서사는 과학기술사회 담론의 중심 의제들이 지난 몇 십년간 변화해온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주로 정보 과학 혁명과 탈신체 기술,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급의 문제를 ‘보편적 인류’를 상정한 인식론적 틀 속에서 탐구했던 사이버펑크 장르는 21세기에 이르러 서사의 초점을 인종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역학구조로 옮겨와 인종정치학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성격을 수정한다.

이러한 장르적 변화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정보과학과 탈신체 기술이 이전 세기에 비해 개인의 삶 속으로 훨씬 깊게 들어왔다는 점이다. 사물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2016년 알파고에게 집중된 대중적 관심 역시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이다.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와 앨런 튜링(Alan Turing)과 같은 초기 인공지능/사이버네틱스 학자들은 물론이고 레이 커즈웨일(Ray Kurzwei)이나 닉 보스트롬(Nick Bostrom), 한스 모라벡(Hans Moravec), 캐서린 헤일스(Katherine Hayles)처럼 기계의 알고리즘 구조를 문화적 생산물이자 개념적 도구, 혹은 이념적 원리로 이

해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체의 결손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체내에 인공장기를 삽입하는 의학기술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인공지능이나 기계신체가 기술적 연구의 대상에서 보편적 삶 속으로 확장됨에 따라 탈신체 과학기술은 지난세기만큼 인류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 대신, 이제 관심은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분배되며 소비되는 방식에 집중된다.

사회적 분배와 불평등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과학기술사회 비판은 주로 전통적 ‘보편인류’의 개념으로부터 만들어진 서구 자유주의 이념이 인류의 기계적 진화로 인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였다. 대표적으로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생명공학의 발달이 정치적 논리의 의해 통제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불균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술 사회의 유토피아적 전망에 경고를 던진다. 만약 그가 주장한 바와 같이 경제적, 성적, 인종적 차이가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의 위계를 만들어낸다면 과학기술을 통해 신체적으로 “진화된 집단은 어떤 법적 권리를 주장할 것이며 또한 뒤쳐진 집단들과 비교해서 어떤 권리들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Fukuyama). 생명공학의 기술적 성과가 불균등하게 배분된다면 그것은 계급적 차이에 따른 전통적 위계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술을 독점한 부르주아 집단의 등장은 계급의 해체를 지향해온 서구 자유주의 이념에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생명공학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낮은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이 기술적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생명공학을 질병 치료가 아닌 형질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후쿠야마는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처럼 기술적 진화의 예찬론자들의 주장에 우려를 표한 “생명보수주의자(bio-conservative)”(신상규 147)들 중 신체향상 기술에 대한 우려를 가장 직접적으로 사회적 위계의 관점에서 표했지만,⁵⁾ 그에게 있어서

기술부르주아 사회의 문제는 ‘보편적 인류’가 감당해야 할 문제였다.

나노기술과 유전공학, 그리고 컴퓨터공학이 인종의 발생론적 표현형을 따라 형성된 인종의 지형학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과학기술 사회 속 인종의 외형과 조건들이 인종을 구분 짓는 이전의 여러 전제들과 함께 수정되고 있는 사회적 경향을 비슷한 시기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다. 이들 대부분은 과학기술사회와 관련해 이전 세기에 제기된 무분별한 낙관적 전망들을 비판해왔다. 리사 나카무라(Lisa Nakamura)는 과학기술과 인종 해방에 관한 이전 세기의 논의는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거대 언론 기업들이 생산해 낸 이미지들이 인종적 경험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카무라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광고 이미지에 의해 묘사되는 인종 관계는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타자화를 통해 “사회적, 문화적 가상현실이라는 이상적 세상”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25). 조 로카드(Joe Lockard)는 물리적 신체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사이버공간이 사실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계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의 “과학기술적 보편주의”는 “메타공동체라는 뿌리 깊은 문화적 모델”에 대한 신화적 신념을 21세기에 재생산한 것에 불과하며, 가상공간의 탈인종 신념은 미국 지배문화를 지탱하는 “물질적 권력 기반으로부터 정치적 초점을 흐트리는 것”에 불과하다(172-73).

이처럼 인종과 성, 계급적 위계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공간이 사실 전통적인 위계를 또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과학기술사회에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낙관적 전망을 비판

5) 트랜스휴머니즘 예찬론자들의 급진적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2013년 미국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 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가 관련 정부 보고서인 『치료를 넘어서: 생명기술과 행복의 추구』(*Beyond Therapy: Biotechnolog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를 발간한 전후로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주로 보수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인간 존엄성의 전제 훼손, 불명확한 안정성과 기술적 부작용, 사회적 계층에 따른 기술 분배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들을 쟁점으로 삼는다. 자세한 논의는 신상규 4장 「향상된 인간과 멋진 신세계의 역설」 참조.

한 학자들과는 달리, 콘스턴스 펜리(Constance Penley)와 앤드류 로스(Andrew Ross)는 지배문화가 생산한 과학기술을 소수자 계층으로 이루어진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이 반정부 투쟁에 이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배문화에 의해 전유된 과학기술을 재전유하는 이러한 투쟁 방식은 20세기의 다양한 해방운동을 통해 습득된 일종의 문화적 유산이다. 예를 들어, 서구사회 저작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던 저개발국가의 문화적 해적행위(cultural piracy)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지배문화에 저항하는 출판 행위를 의미하는 사미즈다트(*samizdat*)와 같은 의미로 변해왔다. 정보를 가공, 복제, 유통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능력의 독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서구사회의 저작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이 같은 해적 행위는, “독자적인 문화적 생산을 위한 자본과 물질적 도구들을 가지지 못한 개발도상국” 사회에서 활자 매체나 영상 정보들, 그리고 음악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 유통을 위한 일반적인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다(Penley et al. x). “서구 과학기술문화가 일방향으로 유통되는 획일적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차용한 이러한 전략적 해적 행위는 “초국가적 독점 생산”이념을 비판하기 위한 예로 활용되었다(Penley et al. xi). 이처럼 과학기술과 관련한 현시대의 정치문화적 지형을 읽어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구과학기술문화의 억압적 측면을 밝히는 것 보다 그것이 어떻게 과학기술적 반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는가 하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명확히 관찰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이념적이고 군사적인 영역에서조차 서구 과학기술문화가 항상 새롭게 이해되고 재해석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정치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서구의 생산자들과 후견인들의 성취와 의도에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Penley et al. xi)

과학기술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닌, 일종의 사회

적 과정이자 권력 관계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을 “사회적 감시망 속에서 연동된 체계를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성취되는 획일적이고 파노팁 콘적인 사회 통제”(Ross 126)를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주장들과는 달리, 서구 과학기술문화의 유산은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재전유되고 재해석된다. 아프리카나 남미,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인터넷 불법 공유 기술을 이용해 서구 국가들의 저작권 시스템을 피하고, 이러한 문화적 해적행위는 오랫동안 확립되고 유지되어온 서구와 제3세계 간의 독점 관계를 해체 하는데 일정 부분 공헌을 했다. 물론 이들이 표방하는 지역사회의 주체적 문화 네트워크의 확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펠리와 로스가 주장한 것처럼 문화적 해적행위가 ‘적법한 지식과 기술’이라는 말 속에 숨은 서구 저작권 체계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어느 정도 와해시킨 것은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을 단일성을 가진 보편적 존재로 그리는 80년대와 90년대의 사이버펑크 작품들과는 달리 최근 창작된 주요 사이버펑크, 혹은 사이버펑크의 장르적 특성들을 차용한 작품들이 백인 중산층 남성서사에서 벗어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학기술의 문제를 다루며 과학기술 사회 속 인종의 역학관계를 고민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의 「아바타」(*Avatar*)와 알렉스 리베라(Alex Rivera)의 「슬립 딜러」(*Sleep Dealer*), 닐 블롬캠프(Neill Blomkamp)의 「엘리시움」(*Elysium*) 같은 작품들이 사실적인 혹은 은유적인 방식으로 탈신체 과학기술의 불균등한 분배와 이로 인한 사회적 계층의 재생산 문제를 다루었다. 「아바타」는 주류 미국 문화 서사 속에서 소비된 미대륙 원주민의 낭만적 이미지인 “고결한 야만인”(noble savage)의 주제를 스페이스 오페라(space opera)의 풍경 속으로 옮겨놓았다. 원주민 이미지에 대한 착취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미국 원주민의 인종 문제를 영혼 전송 기술과 연관지어 재현한 최초의 주목할 만한 서사임은 분명하다. 「슬립 딜러」는 미국 남서부 멕시코 접경지역의 착취 문제

를 다룬다. 영화 속 다국적 기업 사이버텍(Cybertek)은 노드(node) 기술을 이용하여 멕시코 접경지역 노동자들을 전 세계의 건설 현장으로 원격 연결시킨다. 이 원격노동 기술은 멕시코 노동자들의 ‘비신체적 노동력’을 착취하지만, 또한 미국 정부와 기업의 군국주의적 신디케이트에 저항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엘리시움」은 황폐화된 지구에 남은 노동자 계급과 우주 정거장 엘리시움에 거주하는 상위 계급 사이의 계급투쟁을 묘사한다. 엘리시움이 향유하는 부는 대부분 지구의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생산되는데,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이 생산한 사회적 재화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엘리시움 계급은 자신들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이 중 인간의 신경에 연결하는 동력 외골격(powered exoskeleton) 슈트와 네트워크 해킹 기술을 지구 노동자 계급이 이용하여 지구와 엘리시움 사이의 경계를 허문다.

2017년 작 「공각기동대」 역시 이런 시대적 관심을 상당부분 공유한다. 애니메이션 원작과 달리 2017년 영화 속의 고스트는 순수하게 기계로부터 탄생한 비육체적 의식이 아닌, 한카 로보틱스가 정부와 계약을 맺어 진행하던 군사실험의 결과물이다. 한카 로보틱스는 무정부주의 일본인 가출 청소년들을 의체화 하여 반테러 부대를 만드는 실험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험대상 중 하나였던 쿠제 히데오(Kuze Hideo)가 우연히 디지털 네트워크 속으로 전뇌화 된 것이다. 쿠사나기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라 킬리언이 된다.

「공각기동대」는 무정부주의 일본인 가출 청소년들을 이야기 속에 포함 시킴으로써 대도시 언더클래스(underclass) 집단의 문제를 과학기술문화 서사 속으로 가져온다. 언더클래스는 만성적인 실업과 빈곤의 상태에 빠져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고 불법적 조직을 형성하는 빈민 계층을 뜻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빈곤에 스스로 깊은 책임이 있는”(Dubey 26) 집단으로 이해되는 언더클래스는 백인 주류 경제 구조의 변화에 민감한 소수 인종 경제가 20세기 중반의 급격한 경제

적, 정치적 재편에 의해 붕괴되며 생겨난 결과물이었다. 언더클래스는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가 탈산업 시대에 접어들어 변화하고 이로 인해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인종적 소수자들로 이루어진 단순 노동 계급을 대체하면서 발생했는데, 이는 제품생산과 자본축적 방식의 변화가 가져오는 경제 구조의 재편이 인종적 경계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관찰된 현상이었다(Dubey 196). 실업률과 범죄율이 높아지고 빈곤이 만성화되어 사회의 필수적 자원들을 결핍한 언더클래스의 등장과 이로 인한 도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진행은 도심지역 계급 구조가 인종적 분리와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공각기동대」 속 고스트는 기계 속에서 자생한 의식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언더클래스 계층의 신체를 전유하는 과정에서 탈신체화 된, 다시 말해 기술적 진보의 불평등한 분배의 결과로 희생된 인간의 영혼이다. 또한 「공각기동대」는 인종과 성, 계급에 따른 과학기술의 사회적 지형에 대한 21세기 사이버펑크의 관심을 고스트의 실체를 통해 재현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 미라 킬리언이 지배계급의 과학기술이 축적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정부와 기업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주변화 된 집단에 의한 과학기술의 전용은 저항을 위한 중요한 방법”(Eglash et al. 356)임을 드러내는, 하부계급에 의한 패권적 과학기술의 재전유에 관심을 기울이는 최근 사이버펑크의 경향을 따른다. 인종적 소수자였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한카 보로틱스의 인간개조 실험을 와해시킨 미라 킬리언은 자신이 육체를 가진 인간임을 상기시키며 육체적 인간으로 회귀하고자 한다.

IV. 결론

20세기에 제기된 정보와 지식의 광범위한 보급이 인류를 해방시킬 것

이라는 유토피아적 전망도, 혹은 과학기술이 자본에 의해 독점된 또 다른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 전망도 21세기 과학기술 사회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과학기술사회에 대한 현재의 관심이 ‘보편적 인간성’의 논의에서 벗어나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현재의 주요 논제는 기술적으로 통제된 신체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 다시 말해 성과 인종으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신체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권력 혹은 거대자본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며, 또한 하부문화에 의해 전유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7년 작 「공각기동대」가 재현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학관계는 노버트 위너와 앨런 튜링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컴퓨터와 인간의 관계가 인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를 지나서, 과학기술의 진보가 21세기의 사회적 지형을 계급적, 인종적, 성적 차이를 따라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신체와 영혼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한,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와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 길버트 라일(Gilbert Ryle), 아서 콕슬러(Arthur Koestler)로 이어지는 관념주의, 행동주의 철학 전통과 이 전통을 컴퓨터 철학으로 가져온 원작 「공각기동대」의 고민이 2017년 리메이크 영화에서 상대적으로 부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고려대)

■ 주제어

사이버펑크, 공각기동대, 인종사회학, 기술관료제, 과학기술사회

■ 인용문헌

-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서울: 아카넷, 2014. Print.
- 이득재. 「인지과학과 문학」. 『서강인문논총』 40 (2014): 5-34. Print.
- 이정모.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과 학문간 융합」. 『철학사상』 38 (2010): 27-66. Print.
- Barlow, John Perry.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9 Feb. 1996. Accessed 12 Feb. 2018. <www.eff.org/cyberspace-independence>. Web.
- Dawkins, Richard. *The Selfish Gene*. 1976. New York: Oxford UP, 2006. Print.
- Dubey, Madhu. *Signs and Cities: Black Literary Postmodernism*. Chicago: U of Chicago P, 2007. Print.
- Eglash, Ron, and Julian Bleeker. “The Race for Cyberspace: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Black Diaspora.” *Science as Culture* 10.3 (2001): 353-74. Print.
- Francis, Fukuyama. “Transhumanism.” *Foreign Policy*. originally published in Sep. 2004. accessed 13 Feb. 2018. <foreignpolicy.com/2009/10/23/transhumanism/>. Web.
- Fojas, Camilla. *Border Bandits: Hollywood on the Southern Frontier*. Austin: U of Texas P, 2008. Print.
- Golumbia, David. *The Cultural Logic of Computation*. Cambridge: Harvard UP, 2009. Print.
- Harvey, David.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lackwell, 1990. Print.
- Hill, Logan. “Beyond Access: Race, Technology, Community.” *Technicolor: Race, Technology, and Everyday Life*. Ed.

- Alondra Nelson, Thuy Linh N Tu, and Alicia Headlam Hines. New York: New York UP, 2001. 13–33. Print.
- Kay, Lily E. *Who Wrote the Book of Life?: A History of the Genetic Code*. Stanford: Stanford UP, 2000. Print.
- Lockard, Joe. “Babel Machines and Electronic Universalism.” *Race in Cyberspace*. Ed. Beth E. Kolko, Lisa Nakamura, and Gilbert B. Rodman. New York: Routledge, 2000. 171–190. Print.
- Marable, Manning. *How Capitalism Underdeveloped Black America: Problems in Race, Political Economy, and Society*. Boston: South End, 1983. Print.
- Mossberger, Karen, Caroline J Tolbert, and Michele Gilbert. “Race, Pla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Urban Affairs Review* 41.5 (2006): 583–620. Print.
- Nakamura, Lisa. ““Where do you want to go today?”: Cybernetic Tourism, the Internet, and Transnationality.” *Race in Cyberspace*. Ed. Beth E. Kolko, Lisa Nakamura, and Gilbert B. Rodman. New York: Routledge, 2000. 15–26. Print.
- Nelson, Alondra, Thuy Linh N Tu, and Alicia Headlam Hines. “Introduction: Hidden Circuits.” *Technicolor: Race, Technology, and Everyday Life*. Ed. Alondra Nelson, Thuy Linh N Tu, and Alicia Headlam Hines. New York: New York UP, 2001. 1–12. Print.
- Pease, Donald E. “National Identities, Postmodern Artifacts, and Postnational Narratives.” *National Identities and Post-Americanist Narratives*. Ed. Donald E. Pease. Durham: Duke UP, 1994. 1–13. Print.
- Penley, Constance, and Andrew Ross. “Introduction.” *Technoculture*.

- Ed. Constance Penley and Andrew Ross. Minneapolis: Minnesota UP, 1991. viii-xvii. Print.
- Ross, Andrew. "Hacking Away at the Counterculture." *Technoculture*. Ed. Constance Penley and Andrew Ross. Minneapolis: Minnesota UP, 1991. 107-134. Print.
- Rowe, John Carlos. "Postnationalism, Globalism, and the New American Studies." *Futures of American Studies*. Ed. Donald E. Pease and Robyn Wiegman. Durham: Duke UP, 2002. 167-82. Print.
- Saldivar, Ramon. "The Other Side of History, The Other Side of Fiction: Form and Genre in Sesshu Foster's *Atomik Aztex*." *American Studies as Transnational Practice: Turning Toward the Transpacific*. Ed. Yuan Shu and Donald E. Pease. New Hampshire: Dartmouth College P, 2015. 156-166. Print.
- Shu, Yuan and Donald E. Pease. "Introduction: Transnational American Studies and the Transpacific Imaginary." *American Studies as Transnational Practice: Turning Toward the Transpacific*. Ed. Yuan Shu and Donald E. Pease. New Hampshire: Dartmouth College P, 2015. 1-35. Print.
- U.S. Department of Commerce. *A Nation Online: How Americans Are Expanding Their Use of the Internet*. Feb. 2002. accessed Feb. 16, 2018. <<https://www.ntia.doc.gov/legacy/ntiahome/dn/anationonline2.pdf>>. Web.
- Warren, Dorian. "Boxing Out: Race, Walmart, and the Politics of Market Regulation from Below."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enter for Comparative Studies in Race and Ethnicity. Stanford University. 8 Nov. 2012. Lecture.

■ Abstract

**Technoculture in the Posthuman Era
: Sociology of Technoscience and the New Horizon of
21th-century U.S. Culture Represented in Cyberpunk
Narratives**

Kim, Myungsung
(Korea Univ.)

This essay explores the sociological aspects of the race-technology nexus in American culture during the twenty-first century, especially in regard to the formation of race within technoculture. The cultural shift from the industrial economy in the previous century to the present technocultural reconstruction is being explored in different forms of cultural texts across the nation. In highlighting the shifting politico-cultural milieu, this article focuses on how cyberpunk has evolved to represent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ynamics of race; while cyberpunk texts in the 80s and 90s mainly depicted the identity crises of humankind and class struggles in a high-tech society, cyberpunk in the twenty-first century brings the influences of post/trans-human technology and cybernetic culture on racial experiences to the center of technology discourse. Particularly, I investigate this trend across two different narratives in Oshii Mamoru's original *Ghost in the Shell* released in 1995 and Rupert Sanders's 2017 remake. Through representational revisions of a technocultural world, current cyberpunk texts establish posthuman

narratives as a location for the exploration of racial experiences in the supposedly post-racial United States.

■ Key words

cyberpunk, *Ghost in the Shell*, sociology of race, technocracy, technoculture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8년 2월 28일 ○심사일: 2018년 3월 22일 ○게재일: 2018년 4월 30일

생명윤리와 불교

- 초기불교 계율의 덕윤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

박 병 기

I. 서론

우리 시대에 윤리는 분열적인 시선의 대상이다. 한편으로 윤리의 재건 또는 강화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와 윤리적인 삶에 대한 경멸의 시선이 함께 존재한다. 특히 21세기 초반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윤리를 사회 전반의 중심 원리이자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조선 오백년의 역사가 미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그 도덕적 분열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간극이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열은 한 개인의 내부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사회 안의 각각 다른 집단 사이의 충돌 양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뻔히 보일 뿐만 아니라 곧바로 드러날 거짓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이른바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무감각한 얼굴과 나이만을 준거로 삼아 젊은 층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가로막고자 하는 일부 어른들의 얼굴이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다.

문제는 이런 분열의 징후가 그런 한정된 사람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생긴다. 자신을 포함한 우리 한국인들은 윤리에 관한 한 누

구나 분열을 경험하곤 한다. 생존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윤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았다가도 어느 순간 맥락도 없이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휘두르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기 어렵다. 윤리를 성립시키는 요건의 핵심 중 하나가 지속성에 기반한 일관성임을 고려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윤리는 그 핵심 요건을 결여한 불완전한 것이라는 진단이 가능해진다.

생명을 전제로 하는 윤리의 영역으로 넘어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생명 존중이나 생태 보전과 같은 생명윤리 관련 주제에 관한 관심의 양은 늘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생명 관련 담론의 과잉과 실천의 결여가 공존하고 있다. 생명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온 전통으로서의 불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채식 위주의 발우공양과 법정의 무소유 정신 같은 긍정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 불교가 생명 존중의 문화를 가꾸어가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내용이 없다.

이런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생명 관련 현상을 관찰하면서 불교의 생명윤리적 지향성을 되살릴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 모두가 가능하겠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징후들이 확장되는 상황 속에서 일종의 요청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듯하다.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핵발전소 사고와 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위험의 현실화, 북핵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만성적인 전쟁 위협,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숨쉬기의 어려움 등이 모두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생명의 삶을 원천적으로 위협하는 요인들로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제도종교의 영역까지 흡수해가면서 새로운 종교로 이미 자리잡은 물신주의(物神主意)가 생명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현실과도 마주하고 있다.

우리 상황 속에서 불교 생명윤리 논의를 펼치는 일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적실성을 지닐 수 있다. 하나는 생명윤리 논의 자체의

폭을 심화시키는데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데서 비롯하는 이론적 적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내면의식 속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불교 전통의 생명윤리 의식을 조명해봄으로써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으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실천적 적실성이다. 당연히 이 두 차원의 적실성은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지닌다.

II. 생명윤리 논의의 현황과 불교윤리의 정체성

1. 생명윤리 논의의 현황

윤리학에서 생명윤리 논의는 응용윤리학 또는 실천윤리학의 영역에 속한다. 응용이나 실천이라는 개념은 윤리학적 틀 안에서는 주로 이론과 대응된다. 이론윤리학이 주로 메타윤리학과 규범윤리학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응용윤리학 또는 실천윤리학은 그 이론을 토대로 현실 속 쟁점을 다루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 윤리학에서 생명윤리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체로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환경이나 생명, 의료 관련 현실적 쟁점들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존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주로 메타윤리학에 머물고 있던 철학적 윤리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계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졌던 근대 규범윤리학, 즉 의무윤리와 공리주의 윤리의 기본 원리들을 현실에 응용하거나 적용하는 응용윤리학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컴퓨터와 인터넷망 보급으로 인한 정보 관련 쟁점이 추가되면서 응용윤리학은 환경과 생명의료, 정보라는 주요 주제들을 거느리면서 윤리학 전반의 주도권을 잡아나갔다.

응용윤리학이 현실 속에서 부각되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실천적 대

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니게 된 특성 중 하나는 학제적 접근의 수용이다. 배틴(M. P. Battin)은 윤리학이 의학이나 법학, 과학기술 등의 학문과 연계되면서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 이러한 학제성이 응용윤리학을 단순한 학문적 논의 수준을 벗어나 임상과 정책 영역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한다(565). 그 중에서 생명윤리는 실제 삶의 구체적인 사례 속에 포함된 딜레마 상황을 놓고 도덕적으로 추론하면서 임상과 정책 차원까지 응용해야 하는 외연(外延)을 지닌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진우의 적절한 주목과 같이 ‘생명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윤리적 문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249).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출생을 통해 생명을 부여받아 그 수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살다가 죽음을 맞는 유한한 존재자들이다. 그런 점에서 생명윤리는 출생과 죽음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낙태와 배아복제 문제, 장기이식, 생태, 안락사 등의 주제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게 된다. 물론 생명윤리의 주제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거나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특히 원자핵무기나 발전소, 미세 먼지 문제 등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기반한 탐욕과 분노를 영양분 삼아 우리 눈앞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곳은 서구의 산업화된 나라들이다. 그러다보니 그 배경에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권리, 자유 시장 같은 전제들이 깔려있을 수밖에 없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그런 전제들은 보편성을 가정하면서 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최근의 논의 속에는 유교윤리와 불교윤리 같은 동양적 전통의 윤리가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의무론과 공리주의라는 서양 근대윤리학의 중심 이론을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입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논의들이 많다. 비교적 최근에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덕윤리가 도덕 추론과 판단의 원리로 수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유교나 불교적 배경의 덕윤리도 함께 주목받는 현상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2. 불교윤리의 비교윤리학적 경향

불교윤리는 불교를 학문적 배경으로 삼아 전개되는 윤리적 논의와 그 논의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윤리적 실천 지침 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것은 피터 하비의 주장과 같이 ‘서양에서 하나의 학문 연구 분야로 자리잡은 이후 최근까지 상당한 정도의 확장력을 보여주고 있다(29). 서구에서 새로운 종교로 부상한 불교가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윤리적 함축과 실천 지침을 찾고자 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불교윤리 또는 불교윤리학이 사용되었고, 그것이 서양 윤리학 전통과의 비교를 통해 조화를 이루거나 때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키온(D. Keown)은 오늘의 불교윤리학 연구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들을 불교적 가치와 정신적 전통의 맥락에서 어떻게 규명하여 조화를 모색할 것인가’임을 강조하면서, 2천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불교가 이전에는 마주한 적이 없던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1). 인도와 서남아시아,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등에 뿌리를 내린 불교 전통과는 다른 맥락의 서구불교에 주목하고자 하는 그는 오히려 서구의 상황이 불교윤리 논의를 적극적으로 펼쳐가는 데 더 적합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승가공동체의 전통이 없는 서구에서 승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전통 불교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불교공동체가 정착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시민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적 논의와 실천 지침의 도출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2).

불교윤리학이라는 개념 대신에 불교 도덕철학(Buddhist Moral Philosoph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고완스(G. W. Gowans)는 그것이 해석과 구성이라는 두 유형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한다. 불교 도덕철학은 우선 서양

1) ethics는 윤리와 윤리학으로 동시에 번역될 수 있는 개념이다.

도덕철학과의 비교를 전제로 불교윤리에 근거한 판단과 실천에 대해 해석하는 과정일 수 있고, 더 나아가 특정 문제와 사태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을 이끌어내는 구성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56). 이 두 유형 모두 서양윤리학과의 비교가 전제되어 있다. 실제로 불교윤리라는 개념 자체는 서양윤리학적 논의의 맥락을 거쳐 정립되었고 현재도 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주축은 서양 불교학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불교윤리학 논의가 서양윤리학과의 비교를 전제로 전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더 나아가 그런 비교의 방법을 통해 불교의 윤리적 가르침이 얼마나 제대로 규명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논의와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다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서양윤리학적 배경을 지닌 일종의 비교윤리학으로서의 불교윤리 논의가 지니는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우리 전통으로서의 불교를 배경으로 삼아 새롭게 해석하는 일과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우리 문제를 중심으로 불교 전통을 주체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불교윤리 논의 자체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일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불교윤리의 덕윤리적 특성과 불교 생명윤리

1. 불교 생명윤리의 정의(定義)와 주제들

불교 생명윤리는 말 그대로 불교를 전제로 하는 생명윤리이다. 이 명제는 각각 불교와 생명윤리에 관한 정의를 선결요건으로 지니고 있지만, 생명윤리의 경우 삶과 죽음 등 생명현상을 둘러싼 윤리적 논의와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단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에 관한 정의가 관건으

로 부상하게 된다. 불교에 관한 정의 또한 일반적인 수준의 그것과 21세기 초반 한국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인 수준의 불교에 관한 정의는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과 그 역사적 전개 과정과 결과로서의 총체’ 정도로 가능할 수 있다.

불교는 서양인들에게 ‘기원전 5세기 북부 인도에 살았던 역사적인 개인으로서의 고타마 붓다에게서 기원하는 종교적 가르침’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Keown, 1995, x) 이른바 축의 시대에 등장한 세계적인 성인 중에서 공자, 소크라테스가 이성 중심의 동서양 철학체계를 세우는데 기여했다면, 붓다는 그리스도교와 함께 이후 폭넓게 확산되는 세계종교 중 하나를 창시한 인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다. 우리도 이 사실 자체는 별다른 수정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고대 삼국시대부터 받아들여 거의 2천년 가깝게 함께하면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추가되어야만 한다. 이 사실은 특히 생명윤리와 같은 실천적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습관, 즉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 Bourdieu)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비투스(habitus)*로 자리잡고 있어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 발휘될 수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15).

현재의 우리에게 불교는 그리스도교와 함께 대표적인 제도 종교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유교와 함께 전통적 가치관을 형성해온 사상적 배경 중 하나이고 특히 전통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 전통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다만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로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는 극복 또는 배척의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관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시각이 형성되는 데는 불교 내부의 원인과 외부의 원인이 동시에 작동했음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불교는 무비판적 옹호나 환상의 대상이라기보다, 비판적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음을 인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시선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시선은 특히 생명윤리와 같은 윤리적

논의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불교는 종교만이 아니라 철학과 윤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김상봉의 지적과 같이 우리 역사 속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철학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불교이다(27). 물론 그는 이 사실을 부정적인 의미, 즉 외래철학에의 종속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민족에게 철학적인 사유가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는데 불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시 주로 화엄철학의 이사무애론(理事無礙論)을 이기론(理氣論)으로 재구성한 정주학(程朱學)에 기반한 조선 성리학의 정착으로 이어지며 구체적인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는 사상적 기반으로 작동함으로써 한국인의 전통적 윤리의식의 한 축을 차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에게 살아있는 현재의 종교이자 전통적인 철학이면서 윤리이기도 한 불교를 전제로 하는 불교 생명윤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 수 있을까? 불교윤리가 불교에 기반한 윤리적 논의와 실천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불교윤리를 붓다의 가르침에 기반한 윤리로 정의하고 논의를 펼치게 된다. 이때 붓다의 가르침을 무엇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지를 놓고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등의 다양한 유형의 불교 형태와 그것들 사이의 논쟁에서 부각되는 것과 같은 다양하고 때로 상반된 견해를 바탕으로 하는 논쟁까지도 가능하다. 그 논쟁 자체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고, 다만 우리는 윤리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한 교리 논쟁보다는 깨달음에 기반하여 중생의 진정한 행복을 설파했던 붓다의 의도와 실천에 초점을 맞출 필요를 확인하는 선에서 관련 경전과 불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불교 생명윤리는 생명윤리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리적 쟁점에 관함 불교적 관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 쟁점들은 생명의 탄

생과 늡음, 병, 죽음 같은 계기를 중심으로 삼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기 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배아복제와 같은 인위적인 생명조작의 문제와 동의에 기반한 소극적 안락사 허용 같은 존엄한 죽음의 문제, 늡음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등이다. 인위적인 생명조작은 이미 소나 양 같은 동물 수준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배아복제를 통한 인간 생명 탄생의 가능성 또한 현실화되어 있지만 윤리적 기준에서 그 허용여부를 놓고 지속적인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쟁점을 바라보는 우리 불교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10여 년 전에 ‘대한불교조계종 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의 이름으로 정리한 연구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어 있다.

(배아복제는) 생명조작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배아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므로, 생명체의 또 다른 생성방법이며 관계성의 원칙 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실험실에서 조작되어 만들어졌지만, 배아가 계속해서 발생의 과정을 거치려면 모태 혹은 모태에 상응하는 환경조건이 꼭 있어야 한다. 태생이지만 앞의 과정이 변형되었을 뿐이다. ... 생명조작 기술의 현 단계에서는 이 배아를 태내에서 발생하도록 하지 않고 모태가 아닌 다른 조건에서 배양하여 환자의 환부라는 특수한 환건에 이식시키는 것이다. 이 역시 관계성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원인과 조건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일 뿐이다.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101)

이 인용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절대자의 고유한 영역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교의 관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불교 생명윤리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관점에 모든 불교와 불교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불교가 생명조작과 같은 첨예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 비교적 열린 시각을 지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다. 생명을 연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과정에 가해지는 생명조작 기술을 인간이 중심이 되어 행하는 업(業)으로 재해석할 수 있으면, 그 결과(報)와 과정 자체의 윤리성에만 유의할 수 있다면 배아복제는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불교적 관점인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불교계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 이상의 진전된 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쟁점에 관한 불교계의 공식적인 입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 과연 위에 언급된 입장이 말 그대로 ‘불교적 관점’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윤리적 쟁점에 포함된 불교적 관점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유의와 함께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불교의 외연(外延)과 내포(內包)의 지점을 좀 더 명료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실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2. 초기불교 계율의 현재적 의미

한국불교를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권이 다른 지역의 불교와 비교하여 지니고 있는 특성은 여럿이지만, 그 중에서도 선불교 중심과 그에 따른 계율의 상대적인 경시를 중시할 수 있다. 선불교 중에서도 특히 한국불교는 간화선(看話禪)에 집중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고, 특히 돈오(頓悟)를 중시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전 공부[慧]와 계율 준수[戒]는 가볍게 다루는 경향성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우리 승가는 초기불교 계율의 율인 ‘사분율(四分律)’과 대승계율의 계율인 보살계(菩薩戒)를 동시에 수지함으로써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그런 경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인 현재의 승가공동체 분위기 속에서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돈오 중심의 간화선 수행이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한국 불교계에서 진행된 깨달음 논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깨달음과 역사, 그 이후』라는 책을 통한 문제 제기를 계기로 촉발된 이 논쟁에는 재가자들은 물론 주로 간화선 수행자들인 전국선원수좌회까지 참여하여 간화선만을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고집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놓고 이론과 실천 영역을 넘나들며 이어졌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국선원수좌회가 현응스님의 깨달음 관점을 비판하면서 내놓은 성명서이다. 이 성명서에는 비판과 함께 ‘선수행이 고요한 선방 안에 갇혀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반성은 물론 간화선의 폐쇄성에 관한 자기성찰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계율 준수와 경전공부를 경시하면서 선정(禪定), 그 중에서도 간화선 수행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재의 승가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국불교계의 깨달음 논쟁에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교리적 해석의 문제라는 차원과 함께 21세기 초반 한국사회에서 그 깨달음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관한 사회윤리학적 논의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후자는 특히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사부대중공동체의 깨달음이 내부는 물론 외부의 시민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 소통의 과정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방법과 그 결과의 대중적 공유라는 연결고리를 생각해볼 수 있고, 그 연결고리는 다시 우리 시대에 맞는 계율의 준수를 통한 도덕성 확보라는 과제와 이어진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상징되는 한국불교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불신은 바로 그 도덕성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문제 해소의 출발점은 당연히 계율문화의 재건 또는 승가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형성되는 사부대중공동체의 도덕성 회복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당위적 명제에 동의한다고 해도 그 실천 방법과 방향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고, 특히 우리 불교가 어떤 계율 전통을 근간으로

삼아 새로운 도덕적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놓고는 더 치열한 논쟁이 가능하다. 이 논쟁은 우리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초기불교 계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간략한 논변을 펼치는 것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우선 초기불교 계율은 ‘사분율’의 형태로 한국불교의 계율 전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사분율은 비구, 비구니계는 물론 승단의 존속과 발전에 필요한 계율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알리 율장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런 점에서 초기불교 계율에 대한 주목과 재해석은 우리 불교의 계율전통에 대한 그것으로 치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불교 계율에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붓다의 가르침을 보다 온전한 형태로 담아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전재성은 빠알리 율장이 니까야와 비교하여 일찍 결집된 것은 아니지만 편집상으로는 맨 앞에 배치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계율이 진리(다르마)의 생명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0-11). 대승계 또는 보살계가 기본적으로 승가공동체 보다는 출가와 재기를 아우르는 보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초기 계율은 깨달음과 수행을 중심으로 승가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과정과 결과를 대중과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승계와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깨달음의 공유, 즉 깨달음의 사회화 영역인데, 초기 계율의 경우 직접적인 붓다의 말씀에 따라 제정된 계율이라는 점에서 붓다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잡아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초기 계율은 불교 생명윤리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지닌다. 우선 그것은 불교윤리와 불교 생명윤리가 기본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전개되는 윤리적 논의와 실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다음으로 특히 불교 생명윤리의 경우 이전의 불교사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들을 붓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현재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초기 계율에 관한 현재적 해석을 근간으로 삼아 우리 계율전통의 중심축을 차지해온 보살계 전통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다시 정리해볼 수 있고, 그런 과정은 불교 생명윤리 논의의 논리적 적실성은 물론 현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초기불교 계율의 덕윤리적 특성과 불교 생명윤리의 실천성

가. 초기불교 계율의 상황윤리적 속성과 덕윤리

초기불교 계율을 담고 있는 빠알리 율장은 판본에 따라 여러 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19세기 독일 올덴베르크(H. Oldenberg)가 로마자로 바꾸어 편찬한 5권짜리 율장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판본이다. 우리 말로 번역된 전재성 역주의 빠알리 율장도 이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고, 현재 대부분의 내용이 번역되어 있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하박가-율장대품』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이후, 제자를 받아들여 승단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과 상황에 맞는 계율을 정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어 초기불교 계율의 형성과정과 의미를 탐색하는데 꼭 필요한 경전이다. 우리 논의는 이 율장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진행된다.

초기불교 계율은 붓다의 초전법륜(初轉法輪) 이후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불교수행자 공동체가 정착하는 과정에 수반하는 극히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붓다의 사후적인 처방으로 성립되는 계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다보니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왜 문제가 되어야 했는지를 헤아리기 쉽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 예를 함께 보기로 하자.

한때 수행승들이 발우와 옷을 갖추지 않는 자에게 구족계를 주었다. 그들은 벌거벗고 손으로 음식을 받으며 탁발을 다녔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뿌리고 분개하면서 비난했다.

[사람들] 마치 이교도와 같다.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발우와 옷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구족계를 주면 악작죄(惡作罪)가 된다. (『마하박가-율장대품』 250)

이 율장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계율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는 것들로 사후 처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계율들이 결집의 과정을 거치면서 율장을 이루고, 율장 속에 포함된 계율들은 붓다의 말씀과 명령이라는 이유로 쉽게 바꿀 수 없는 권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율을 해석하거나 받아들일 때 문자 그 자체에 매달리기 보다는 붓다가 어떤 상황적 맥락 속에서 그것을 계율로 설했는지를 헤아리는 일은 계율의 본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수행승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랍(法臘)에 관한 다음 인용을 함께 보면서 논의를 이어가보자.

[수행승들] 어찌 수행승들이 '나는 법랍이 십년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이면서도 의지를 줄 수 있단 말인가? ...

그러자 수행승들은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 (중략) ...

[세존] 수행승들이여, 수행승들이 '나는 법랍이 십년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이면서도 의지를 준 것이 사실인가? ... 어찌 그 어리석은 자들이 의지를 줄 수 있단 말인가? ...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오히려 아직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를 불신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마하박가-율장대품』 204-205)

단순히 수행 기간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는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초기 계율의 상황윤리적 특성과 함께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넓은 의미의 방편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방편적 특성은 다시 구체적인 행위의 규제라는 계율의 외면적 특성 못지 않게 깨달음을 열망하고 그것에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의 윤리로서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초기 계율의 이런 방편적 특성은 붓다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건으로 제시하는 다음 사항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수행승들이여, 다섯 가지 고리를 갖춘 수행승은 의지 없이 지낼 수 있다.

- 1)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계행(戒行)의 다발을 갖추고
- 2)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삼매(三昧)의 다발을 갖추고
- 3)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지혜(智慧)의 다발을 갖추고
- 4)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해탈(解脫)의 다발을 갖추고
- 5)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해탈에 대한 앎과 봄의 다발을 갖추면,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고리를 갖춘 수행승은 의지 없이 지낼 수 있다.

(『마하박가-울장대품』 236-237)

앞의 두 인용을 통해 초기불교 계율의 상황윤리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인용을 통해서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과 길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율 또한 그 길에 이르는 첫 번째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계율을 지키는 행위는 삼매와 지혜, 해탈에 대한 앎과 봄이라는 다른 요건들과 함께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핵심 요건이자, 그것을 맨 앞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세 가지 방법이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인 삼학(三學)의 계정혜(戒定慧)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계율의 위대한 뜻은
품행이 방정한 자들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악한 욕망을 지닌 자들은 제어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자를 포용한다.

만약 경전과 논서를
읽어버리더라도
계율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승가는 언제나 지속된다. (『마하박가-율장대품』 277-278)

이 인용 속에서 우리는 계율을 품행 및 부끄러움과 연결시키면서 욕망을 제어하는 일을 가운데 두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기불교 계율이 정해지는 과정 자체는 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해지는 상황윤리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의 지향점은 부끄러움을 알고 욕망을 억제하는 과정의 습관화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전제로 하는 행복에 이르는 품행(品行)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율장의 2,3,4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포살과 안거, 자자와 관련된 계율들은 그러한 품행의 형성과 실천을 위한 습관화와 자기 성찰 및 교육의 과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방편들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실제로 붓다가 사미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학습계율을 설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사미들에게 열 가지 학습계율을 허용한다. 사미들은 이것들을 배워야 한다.

- 1)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 2)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고
- 3)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삼가고
- 4)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고
- 5) 곡주나 과일주 등 취기 있는 것을 마시는 것을 삼가고
- 6)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가고
- 7) 춤과 노래, 음악, 연극 보는 것을 삼가고
- 8) 화환과 향, 그림을 가지고 단장하고 치장하는 것을 삼가고
- 9) 높은 침상과 큰 침상을 삼가며
- 10) 금과 은을 받는 것을 삼간다. (『마하박가-울장대품』 245-246)

붓다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한 계율을 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물음에 우선 각 수행자의 삶이 깨달음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과, 그 수행자들의 공동체인 승가공동체가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연결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각각의 수행자들이 처한 상황이 수행의 본래 목적인 깨달음의 지향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계율을 만들고, 꼭 지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좀 더 높은 차원에서는 그런 성품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는 초기불교 계율이 상황윤리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덕윤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로 바꾸어볼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구체적인 규칙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윤리나 규칙 공리주의와의 유사성이지만, 계율의 목적 자체를 고려할 경우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덕윤리적 특성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서양윤리학사에서 덕윤리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그 기반을 마련하여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교적 덕윤리로 발현된 이후, 근대 윤리학사에서는 거의 무시되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그것이 의무론과 공리주의로 상징되는 행위 중심의 윤리학이 지니는 한계, 즉 도덕성을 담지하고 있는 행위 주체의 문제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특히 응용윤리 영역에서 도덕적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 현대 덕윤리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 안옥선의 지적과 같이, 덕윤리의 본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적인 실천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성품의 형성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전환 또는 변환이다(23). 그는 “초기불교윤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의 이상의 핵심을 공유하고 있으며, 불교윤리 패러다임은 덕윤리를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3).

논자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덕윤리 또는 덕윤리학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행위의 도덕성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하는 주체의 덕성 또는 도덕적 품성을 중심에 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덕성 또는 도덕적 품성이 형성되는 과정의 실천, 특히 반복적 실천을 통한 습관화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초기불교 계율은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상황에 맞는 규제를 가하는 상황윤리적 속성을 지니지만, 그것의 지향성 속에 수행자 스스로의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행복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덕윤리적 특성을 강하게 지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수계의의식과 절차를 통해 타율적인 특성을 지니는 율(律)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수행자로서의 자율적인 성품인 계(戒)를 지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도 덕윤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 또한 가능하다.²⁾

나. 불교 생명윤리의 실천성과 인류의 미래

덕윤리적 특성을 지니는 불교윤리에 기반을 두고 생명의 문제를 다루

2)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불교윤리학자로 화이트힐을 꼽을 수 있다. James Whitehill(2000), “Buddhism and the Virtues”, Damien Keown(ed.), 앞의 책, 17~32쪽 참조, 그는 불교윤리를 ‘깨달음의 덕(awakened virtue)’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고자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교 생명윤리 논의와 만나게 된다. 불교 생명윤리는 불교의 생명관과 인간관을 토대로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불교적 관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새로운 쟁점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양상 또한 복잡성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갈래를 타고자 할 때 생노병사(生老病死)라는 삶의 네 과정을 중심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탄생과 관련된 쟁점에는 임신중절과 배아복제 문제가 속하고, 늙음과 관련된 쟁점에는 나이드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른바 안티에이징(antiaging) 문화와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개인적이고 사회적 인 문제가 속한다. 병의 경우에는 질병 치료에 임하는 의료진의 의료윤리 문제와 진료에의 접근 기회의 공정성,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 허용 같은 쟁점들이 부각되어 있고, 죽음과 관련된 쟁점에는 뇌사와 장기이식 문제, 사형제도의 정당성 문제,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런 쟁점들 외에도 삶의 과정 전반을 통해 최소한의 환경요건을 갖추기 위한 환경 및 생태윤리 문제와 인간과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문제, 세계화에 따른 평화 문제 등이 시급한 해결을 요청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생명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삶의 과정에서 부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불교윤리는 불교 생명윤리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는 당위적 명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교 생명윤리의 범위를 그 시급성을 기준으로 삼아 제한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21세기 초반 한국사회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의 논의를 중심에 두는 일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하나는 21세기 접어들어 우리에게 보다 명료한 과제로 주어지고 있는 인류 문명의 종말 위기에 관한 불교적 해석과 대안 제시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체적인 응용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불교적 답변 제시 및 실천 문제이다. 이 두 맥락은 당연히 삶과 생명이라는 주

제를 중심으로 서로 깊은 연관 고리를 갖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문명의 종말 위기는 우리 한국사회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경우 원자핵발전소 폭발 위험과 핵전쟁의 위협이라는 핵 위기와 미세먼지로 상징되는 전 지구적 생태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핵발전소 배치 상황과 끊임없는 지진과 부실 설계로 인한 사고 위험의 만성화, 북한핵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엄청난 양의 핵무기와 연결되는 핵전쟁의 위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 전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세계화로 상징되는 세계화 흐름의 중심에 있는 우리는 외적인 경제성장의 댓가로 중국의 오염까지 공유하는 생태위기로부터도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우리 삶과 생명에 관한 진지한 성찰과 그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천 과정의 공유일 수밖에 없고, 불교 생명윤리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함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 우리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고, 그것은 다시 우리 일상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삶의 양상을 통해 그 구체적인 모습을 숨기고 있거나 일부 드러내고 있다. 고완스(C. W. Gowans)는 그것을 불교적 관점의 잘삶(Buddhist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욕구 충족 패러다임이라는 현대에 일반화된 웰빙 문화가 지닌 자멸적인 한계를 비판하면서 그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지니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족(contement)과 지혜(wisdom), 덕(virtue)을 대안으로 제안한다(114-115). 로이(D. R. Loy) 또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특별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확인하면서 평화와 사회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보살행이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126-127).

이런 논의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통의 불교윤리적 함축은 인간 내면의 탐욕을 출발점으로 삼아 삶을 욕구충족 과정으로 설정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의 내면화와 세계화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새로운 생명윤리의 모색이 절박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야식(夜食)과 치킨으로 상징되는

무분별한 식육 충족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공장식 사육을 통한 동물 학대는 물론이고, 인간 생명 자체의 파괴 양상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음식윤리를 세워가는 일이 불교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안전하고 싼 전기’라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원전마피아들의 무지와 탐욕이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핵 위기의 본질은 바로 약간의 더위와 불편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원전마피아를 통해 존립가능하다는 진실과 마주하는 일 또한 불교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가능하다.

구체적인 응용윤리 쟁점에 관한 불교 생명윤리적 논의는 그 내용이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다층적이고 열린 관점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교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생명공학이나 뇌과학, 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계율정신을 토대로 열린 해석과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여기서는 한 가지 쟁점만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육식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사미의 열 가지 학습계율의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같은 율장의 다른 내용을 더 살펴보기로 하자.

수행승들이여, 자기를 위하여 살생된 것임을 알고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악작죄가 된다. 수행승들이여, 자기를 위하여 살생된 것이라고 보지 못했거나 듣지 못했거나 의혹이 없는 세 가지 관점에서 청정한 물고기와 고기는 허용한다. (『마하박가율장대품』 577)

북방불교권에 속하는 우리들에게는 비교적 낮은 계율이다. 현재 우리 불교를 바라보는 비판적 관점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승려육식 문제’는 물론 억불정책을 기본으로 했던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강화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안거를 선원(禪院)을 중심으로 실시한 전통에 기반을 두고 금지의 대

상으로 알려져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승려들의 일상엔 물론 그들과 함께하는 재가자들의 의식 속에서도 혼란과 이중성이 담겨져 행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관한 불교 생명윤리적 해석과 대안을 무엇일 수 있을까?

이 복잡한 물음에 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른 것과의 의존, 특히 다른 존재자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못살 또는 중생(衆生)의 생명을 차별화하지 않는 불교에서 인간에게는 다만 깨달음의 가능성 영역에서 차별성이 부여되어 있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이러한 못살명의 연기적 의존성에 관한 직시(直視)와 업(業)을 전제로 하는 그 과정에의 실천적 참여로 구체화할 수 있다. 수행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살생이나 자신을 위해 진행되는 살생을 삼가는 것은 당연한 계율 준수이자 깨달음을 향하는 과정에 매진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수행자 또한 어떤 방식이든지 유정물(有情物)의 주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자명한 진리이다.

그렇게 본다면 육식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단순한 계율적 근거나 전통에 기반한 허용 또는 금지의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원천을 이루는 연기적 의존성, 즉 타자의 주검에의 의존 속에서만 가능한 삶의 양상을 직시하면서 같은 생명으로서의 그 타자에 대한 공정한 배려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공장식 사육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운동과 함께 내 일상 속에서 육식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실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마음과 자세가 모여질 수 있을 때, 더 나아가 그 노력을 정치적 행위를 통한 제도적 차원의 대안 모색까지 가능하게 하는 사회윤리적 실천으로 연장시킬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불교 생명윤리는 그 본래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물음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IV. 맺음말

우리는 이 논의를 통해 불교윤리를 붓다의 가르침에 근거한 윤리적 논의와 실천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했고, 불교 생명윤리는 그러한 불교윤리의 응용윤리적 외연에 속하면서도 특히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이자 철학으로서의 불교가 좀 더 적극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실천윤리적 논의와 실천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했다. 그것을 특히 『마하박가』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불교 율장에 나타난 계율과 그 정신을 현 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교 생명윤리의 두 쟁점,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종말 가능성이라는 문명의 위기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불교적 답변의 모색이라는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했다.

초기불교 계율이 제정되는 과정과 결과에 관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불교윤리의 특징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으로서의 계율 제정이라는 상황윤리적 속성과 실천을 중심에 두고 일상 속 습관화와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덕(awakened virtue)’의 함양을 추구하는 덕윤리적 특성을 도출해내고자 했다. 이들은 수행자 개인의 수행 과정과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수행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이라는 목표 속에서 서로 조화와 통합을 이룬다. 또한 불교윤리학은 서양윤리학적 배경 속에서 윤리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통해 비교윤리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윤리와 공리주의, 덕윤리라는 서양 윤리이론의 어느 것으로도 온전히 포함될 수 없는 통합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중에서는 덕윤리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는 결론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토대로 우리는 먼저 21세기 초반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해 불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일상 속 실천을 중심에

두고 습관화와 깨달음의 덕을 함양해가는 실천윤리로서의 불교윤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공유할 수 있다. 물론 방대한 경전과 그 경전 내부의 충돌 가능성 등이 불교의 고유한 특성이고 그것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붓다가 문제가 생기는 대로 그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즉각적으로 계율을 제정하여 대응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실천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반복적인 실천을 중심에 두는 깨달음의 덕을 함양해감으로써 생명의 위기에 대한 불교 생명윤리의 대응은 적실성과 실천성 모두를 확보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의 위기에 대한 불교윤리의 대응은 일차적으로 종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계 안에 붙잡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 종교가 처한 상황, 즉 탈종교화 경향 속에서 근본주의로 도피하거나 일상적 윤리 수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그 제도적 틀만을 고수하는 퇴행성을 노출시키고 있기도 하다. 우리의 개신교와 불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볼 때 불교윤리 논의의 실천적 맥락은 각 종교계 내부의 윤리성 회복 운동과 사회 자체의 도덕적 건전성 회복 운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우리의 경우는 지속적인 민주화 운동을 통해 마련한 시민사회의 윤리적 토대를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그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새로운 시민사회에 요청되는 윤리는 비지배자유의 적극적인 구현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정착이라는 구체화된 목표를 전제로 한다. 전자는 국내정치적 맥락의 목표이고, 후자는 국내외의 맥락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제정치적 목표이다. 당연히 이 두 목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출발점은 자신의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망을 인식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갖춘 개인, 즉 연기적 독존(緣起的獨存)이 가능한 개인과 그들 사이의 연대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새

로운 윤리 정립이라는 과제는 관계망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연대를 모색하는 실천적 노력으로서의 정치를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원대)

■ 주제어

불교윤리, 불교 생명윤리, 초기불교 계율, 덕윤리적 특성, 깨달음의 덕

■ 인용문헌

-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2. Print.
-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rint.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계율과 불교윤리』.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1. Print.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현대사회와 불교 생명윤리』.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6. Print.
- 박병기. 「한국 시민사회에서 승가공동체의 위상과 출가보살의 역할」. 『동아시아불교문화』 27집(2016): 531-558. Print.
- _____. 「깨달음의 사회화: 그 당위성과 방향」.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정의평화불교연대 학술세미나 자료집(2016.1.21. 화쟁문화아카데미).
- _____. 『딸과 함께 철학자의 길을 걷다: 화쟁과 소통의 비교윤리학』. 서울: 작가와비평, 2016. Print.
- _____. 『의미의 시대와 불교윤리』. 서울: 씨아이알, 2013. Print.
- 바이츠제커. 이신철 옮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Print.
- 안옥선. 『불교윤리의 현대적 이해: 초기불교윤리에의 한 접근』. 서울: 불교시대사, 2002. Print.
- 원효. 「보살계본지범요기」. 『한국불교전서』 권1(1999): 229-310. Print.
- 이중표. 『현대와 불교사상: 불교의 관점에서 본 인간·자연·생명』.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0. Print.
- 이진우. 『도덕의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7. Print.
- 이찬훈. 「불교의 깨달음과 그 구현-최근 한국불교계의 깨달음 논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27집(2016): 283-316. Print.

전국선원수좌회. 「누가 조계의 주인인가」. 『불교닷컴』. <http://www.bulkyo21.com>, 20151013 게재. Web.

전재성 역주. 『마하박가-울장대품』.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 Print.

피에르 부르디외. 현택수 옮김. 『강의에 대한 강의』. 서울: 동문선, 1999. Print.

피터 하버. 허남결 역. 『불교윤리학 입문』. 서울: 싸아이알, 2010. Print.

현응. 『깨달음과 역사: 개정증보판』. 서울: 불광출판사, 2016. Print.

Battin, M. P. “Bioethic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thics*. West Sussex: Blackwell Publishing, 2013. Print.

Gowans, C. W. *Buddhist Moral Philosophy*.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13. Print.

Keown, D.(ed.). *Contemporary Buddhist Ethics*. Richmond: Curson, 2000. Print.

_____. *Buddhism & Bioethics*. London: Macmillan Press, 1995. Print.

Loy, D. R. *A New Buddhist Path*. Boston: Wisdom Publications, 2015. Print.

■ Abstract

Bioethics and Buddhism: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virtue ethics of early
Buddhist precepts

Pak, Byung-Kee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Buddhist ethics refers to ethical discussion and practice based on Buddha's teachings. Buddhist bioethics corresponds to the outer periphery of such Buddhist ethics in terms of applied ethics. In particular, Buddhist bioethics can be defined as a concept that refers to the discussion and practice of practical ethics which Buddhism, as a religion and philosophy valuing life, should be more active in responding to. This study reinterprets the precepts and spirits of early Buddhism from the present perspective to search for Buddhist responses to the two current issues of Buddhist bioethics

Through a discussion on the process and outcome of the promulgation of the early Buddhist precepts, this study seeks to deri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Buddhist ethics: the contextual ethical attributes such as the promulgation of the precepts as an immediate response to each situation; the characteristics of virtue ethics such as the cultivation of 'awakened virtue' through daily habituation and self-discipline centering on practice.

Based on the process where Buddhist ethics was positioned as an

area of ethics against the Western ethical background, this study reach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 Buddhist ethics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arative ethics; on the premise that Buddhist ethics has an integrity which cannot be fully incorporated by any of the Western ethical theories, Buddhist ethics has the characteristics of virtue ethics among them the most.

This conclusion suggests that Buddhism in Korea should respond more actively to various bio-ethical issues raised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in the early 21st century and seek Buddhist ethics as a practical ethic to cultivate the virtues of habituation and awakening centering on daily practice.

■ Key words

Buddhist ethics, Buddhist bioethics, early Buddhist precepts, the characteristics of virtue ethics, awakened virtue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8년 2월 28일 ○심사일: 2018년 3월 22일 ○게재일: 2018년 4월 30일

질병 공간 담론에서 개인의 신체 의미

: 영국의 정신의학 담론과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

최 은 주

I. 서론

영국에서 20세기 이전의 광기에 대한 사회적 취급은 국가에 대한 적대행위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관리’¹⁾되어야 할 문제였다. 이전까지의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전통적 역할이 축소되면서 수용소²⁾ 제도와 정신의학을 중심으로 한 광기관리의 기구화(Institutionalization)와 의료화(Medicalisation)가 광기영역을 세속화하고 전문화하게 되면서, 광기 사업은 권력의 사회통제 전략과 적절히 조응하는 결과를 낳았다(정모세 231). 이와 같은 사실은 20세기 1차 세계 대전 중 포탄 충격의 경험에서 발생한 전쟁 신경증을 취급하는 방식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병사들의 외상성 신경증 치료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17249).

- 1) treatment는 치료, 처치, 관리의 뜻으로 혼용되나 여기에서는 확고하게 ‘관리’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잘 다스려 낮게 한다’는 치료와 ‘감당한다’는 처치, 혹은 ‘보살피고 돌보는 동시에 통제한다’는 관리를 각각 상황과 문맥에 따라 관리와 처치, 치료를 혼용한다.
- 2) 본 논문에서는 ‘수용소’와 ‘정신병원’, ‘요양소’가 혼용되고 있는데, 특히 『댈러웨이 부인』의 ‘house’sms ‘안정’을 강조하는 윌리엄 경의 취지에 맞춰 ‘요양소’로 옮겼다.

직접 참여했던 의사들은 신경증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진단하는 대신, 전투에 투입할 인원부족을 막기 위한 국가의 철저한 의료전략 속에 동참해야 했다. 이들은 전쟁 이후 병원을 개업하면서 일반 신경증 환자의 치료를 맡게 되었으며,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치료를 맡았던 닥터 조지 새비지(Dr. Geroge Savage)와 모리스 크레이 경(Sir Maurice Cray)이 그 예다.

개인적으로 정신장애의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던 울프가 1925년에 출간한 『달러웨이 부인』(*Mrs. Dalloway*)은 1차 세계 대전 직후의 영국사회를 배경으로 경제 호황기를 누리며 정상적인 삶을 되찾은 생기 있는 런던 거리와 클라리사 달러웨이(Clarissa Dalloway)라는 중심인물의 네트워크에 포착된 인물들을 단 하루 동안 다루고 있다. 단편적으로 스치듯 소개되는 인물들이나 중심을 차지하는 인물들 중에는 바로 그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런던의 중심에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묻고 견뎌내는 개인들이 섞여있다. 착한 아들이 전사해서 장원과 오래된 저택이 사촌에게 귀속되게 된 폭스크로프트 부인(Mrs. Foxcroft)은 어젯밤 대사관에서 슬픔에 잠겨 있었으며, 벅스버러 부인(Lady Bexvorough)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존의 전사 통보 전보를 쥐고 바자회를 열었다(Woolf 4-5). 클라리사의 옛 친구 휴 휘트브레드(Hugh Whitbread)의 아내 에벌린(Evelyn)은 정신적인 병(internal ailment)을 앓고 있어 런던까지 의사를 만나러 왔다. 그러나 고맙게도 전쟁이 끝난 사실에 모든 관심이 모아질 뿐 그들을 동정하거나 특별히 따뜻한 시선을 드리우는 말 한마디도 후일담도 없다. 다만, 클라리사가 앓았던 병을 포함하여 개인의 슬픔과 고통을 덮을 수 있다는 듯이 다짐처럼 ‘고맙게도 전쟁이 끝났다’는 문장이 소설 전체에 드리운다. 초반의 이와 같은 서술은 마치 이어서 등장하는 셉티머스 워렌 스미스(Septimus Warren Smith)라는 포탄 충격(shell shock)으로 전쟁신경증을 앓고 있는 인물을 둘러싼 당대 의학적 시선과 소견에 대해 화자가 일관되고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복선 같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선이 머물고

있는 소설 초반의 화자와 달리, 셉티머스를 상담하는 의사 윌리엄 브래드쇼 경(Sir William Bradshaw)에 대해 이전까지와는 차이가 있는 냉소적 이면서 다소 자의적인 비난으로 비칠만한 목소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윌리엄 경에 앞서 6주간 처치를 받았던 닥터 홈스(Dr. Holmes)에 대해서 화자는 빈정거리며 불신하는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당대 정신과의사에 대한 울프의 개인적 복수심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비판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인 듯하다.

실제로 울프가 자신의 정신장애의 치료를 맡았던 닥터 새비지와 크레이 경에 대해, 그리고 신경쇠약 상태의 참전 용사들에 대한 처치 분석에 울프 개인의 복수심이 개입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다(Thomson 63). 『델러웨이 부인』을 출간한 후에, 화가 그웬 라베라트(Gwen Raverat)에게 보낸 편지에서 울프는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광기와 의사들, 그리고 궁지에 몰린 것 같은 기분은 여전히 자신에게 격렬한 시련이라고 밝힌 것이다. 울프는 이와 같은 자신의 치료 경험에 기대어 닥터 홈스와 윌리엄 경의 진료 방식을 묘사하였으며, 1차 세계 대전에서 신경쇠약에 걸렸던 시인 윌프레드 오웬(Wilfred Owen)의 글을 접하고서 병사의 포탄 충격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점이 울프의 한정되고 주관적인 시선을 담고 있었다는 평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하였는데, 오웬은 치료 요법에 능력이 있는 정신과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으며 실제로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를 얻은 후 시의 창작력이 향상되었다(Thomson 65). 울프가 창작력을 방해받을까봐 두려워 정신분석 치료를 피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한 편, 윌리엄 경에 대해서 그가 셉티머스의 증상에 대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진단하지만, 의사로서 치유보다는 “박해”(persecute, Bethea 251), 격리, 수용에 주안점을 둔다는 주장과, 윌리엄 경이 믿고 있는 ‘균형감각’(sense of proportion)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셉티머스를 입원치료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당연한) 목표”(psychologically understandable

aim, Thomson 64)라는 상반된 주장들이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서로 상반된 주장들에 기초하여 『델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20세기 초 영국사회의 정신의학과 정신병 취급에 대해 고찰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공간의 폐쇄·분리·이동의 경계에 놓이는 개인의 신체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울프가 “정신병 때문에 겪은 광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인간적인 수모를 극화시켜 간접적으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타자로 취급받는가를 밝히기 위해 셉티머스의 광기를 모티브로 삼았다”(이상규 104)는 평으로부터 본 논문은 한 발 더 나아가 셉티머스가 앓고 있는 포탄 충격으로 불리는 전쟁신경증이 소설의 묘사와 비교하여 영국 의료계에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소설에 나타난 전쟁신경증과 의사들에 대한 묘사가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소설에만 기대어 당대 정신의학을 이해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것이다.

II. 국가 재건으로서의 우생학과 개인의 신체

1차 세계 대전은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라고 하는 명백한 적이 나타난 2차 세계 대전과 달리, “악행보다는 무능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싸움을 벌인 파국을 초래했던 돌발적인 전쟁”(Bethea 249)으로, 여타 영국 전투와 달리 훨씬 많은 영국 병사들이 죽었던 사건으로 기록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참상이 알려지고 이에 따라 지원병의 수가 격감하기 시작하자, 영국에서 징병제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빌미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가를 병영으로 만들어 영국을 국가주의로 이끌려던 군국자들의 음모”(최재희 346)에서 기인했다. 1차 세계 대전을 기록했던 역사가들은 “애국심을 찬양하는 것이 군인의 전투의지를 북돋우는 주요한 수단”(파생·레스만 76)이라고 여겼다. 그래서인지 전시

중에 루퍼트 브룩(Rupert Chawner Brooke)과 같은 장교들의 애국시가 쏟아져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징병제는 세계 대전이 장기전이 되고 전쟁의 참상이 알려져 지원병의 수가 격감하기 시작한 대전 발발 18개월이 지난, 1916년 1월에 영국의 법률이 되었다(최재희 349). 현실에서는 공포가 만연한 상황에서 군의관의 역할만 유례없이 확장되었다(파생·레스만 79). 의사는 눈앞의 부상병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짐을 졌던 것이다. 트라우마 신경증은 전쟁 중에는 애국주의의 이상에 순응하지 못한데다가 군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애국심 걸여라는 비난을 받았다면, 종전 이후에는 공동체의식의 걸여라는 비난을 받았다. 나약하기 짝이 없는 환자 병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성격과 결점에서 맞추는 식으로 철저하게 세워진 의료전략이 준비되어 있었다(파생·레스만 97). 근현대 도시계획에 담아내려했던 유토피아적 갈망에서 국가가 개인의 신체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관리했는지에 대해 복잡한 층위의 의도와 기획이 있었던 것이다.

포탄 충격은 현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불리는 것으로, 병사들은 부상도 입지 않았으나 볼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으며, 서 있을 수도, 말할 수도, 소변을 볼 수도, 배변을 할 수도 없었으며, 기억을 잃거나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토하고, 경련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상당수의 환자들이 부상이 없는데도 이상한 걸음걸이의 신체적인 증상을 보였는데, 누구도 이 증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Shephard 1). 이와 같은 증상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적인 것으로, 독일에서 신경병체질이나 히스테리로 진단받은 남성 환자의 비율은 1915년까지 36%로 증가하였으며, 1914년부터 15년까지 프랑스의 영국 군병원과 사상자 구호소에는 포탄 충격으로 후송되어 온 병사들로 가득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병사들에 대해 열등한 동물(inferior stock)로 여기고 무시하였다가 ‘우수한 동물’인 장교들이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포탄 충격으로 ‘고통 받는 인간’을

더 밀착하여 바라보게 되었고, 놀랄만한 상황임을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전문 의료직과 군, 사회가 조사하도록 압력을 받았다(Church 53). 이 증상은 정치적으로 분열을 초래하였는데, 포탄 충격에 대한 초기 진단 범주가 ‘공포에 의한 광기’로 상태를 묘사했기 때문이다. 병사들에게 붙은 이와 같은 꼬리표는 병에 걸린 병사가 허약하다는 동요할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전시와 종전의 정신적인 사상자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의지력과 도덕적 결단력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의학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하는 생물심리학적 데이터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Church 53-5). 전쟁 중 치료보다는 피병환자를 색출하는 것이 의학적 검진의 핵심목표가 되면서 ‘전쟁 광기’(combat madness)나 ‘트라우마 광기’(trauma madness)를 분리시킨 다음, 전자를 용맹한 것으로, 후자를 이기적인 욕구로 간주하였던 것이 시작이었다. 즉, 트라우마 신경증으로 불렸던 PTSD를 겪는 병사는 군 징집을 위해서 피병이자 겁쟁이, 사기꾼의 명칭을 달고 전장으로 다시 보내졌다. 이것은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군 당국의 압력에 의해 과학적 개념과 윤리적 이상이 수렴된 것이었다(파생·레스만 83). 이로서 애국주의적 자긍심의 결여와 나약한 성격에 의심적은 의학적 상태 등의 도덕적 성질이 트라우마에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전시의 사회적 반응과 의학적 대응방식이 결정되었다. 셉티머스의 증상은 여러 개의 증상과 병명으로 지칭되었으나 전시든 종전이든 ‘상상의 고통에 굴복하기 쉬운 인격적 결함’의 이유가 따라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병 자체에 대한 오해와 이견, 그리고 진단까지는 개인의 심리적 장애에 집중되기보다 이해상충의 중심에 놓여야 했다.

이와 같은 이해상충의 전략에 가담했던 의사들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과대평가되어온 결과를 반영하듯이, 『델러웨이 부인』의 셉티머스는 윌리엄 경의 “균형과 ‘전향’(conversion)이라는 원칙하에 진행되는 도시화, 근대화, 제국화의 희생양으로 그려졌다”(김영주 141). 셉티머스의 증상은 외상성 신경증과 유사한 것으로 트라우마 증상의 다양한 면을 두루 보여준

다. 탈감각에서부터 반복행동, 줄어드는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 셉티머스에 대해 ‘미치광이’라는 말 대신 윌리엄 경이 내놓은 ‘균형’ 승배는 윌리엄 경뿐만 아니라 영국을 번영케 했다(Woolf 109). 이어지는 문장에 영국을 번영하게 하는 방법이 담겨있다. 나라의 미치광이들을 격리시켜 그들의 출산을 금지시키고, 그들의 절망을 처벌했으며, 그 사회 부적격자들의 견해가 퍼지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셉티머스에 대해 지칭될 수 있는 병명은 ‘광기’(madness) 대신 윌리엄 경이 창안한 ‘균형감각의 상실’이었다.

남편의 병세는 위중합니다. 윌리엄 경이 말했다. 자살을 하겠다고 하지 않던가요? 오, 그랬어요, 그녀는 외쳤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물론 아니지요. 문제는 안정입니다. 윌리엄 경이 말했다. 안정, 안정, 안정, 침대에 누워 오래 안정하는 것이지요. 시골에 아주 멋진 요양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맥의 남편을 잘 돌봐 드릴 겁니다. 저와 떨어져서요? 그녀가 물었다. 안됐지만, 그래야 합니다. 이플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저이는 미친 건 아니지요? 윌리엄 경은 자신은 결코 ‘미쳤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의사를 싫어해요. 그곳에 가기를 거부할 거예요. 그러자 윌리엄 경이 짙막하고도 친절하게 사태를 설명했다. 그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요?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의 문제예요.

Her husband was very seriously ill, Sir William said. Did he threaten to kill herself? Oh, he did, she cried. But he did not mean it, she said. Of course not. It was merely a question of rest, said sir William of rest, rest, rest, rest; a long rest in bed. There was a delightful home down in the country where her husband would be perfectly looked after. Away from her? she asked. Unfortunately, yes; the people we care for most are not good for us when we

are ill. But he was not mad, was he? Sir William said he never spoke of 'madness'; he called it not having a sense of proportion. But her husband did not like doctors. He would refuse to go there. Shortly and kindly Sir William explained to her the state of the case. He had threatened to kill herself. There was no alternative. It was a question of law. (Woolf 105-06)

‘자살,’ ‘균형감각 상실,’ ‘아플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있어야 한다’와 ‘법’과 같이 윌리엄 경이 제시하는 몇 가지만의 해석코드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인의 상이한 증상들을 정해놓은 해석틀로 규정하여 전체 론적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셉티머스에 대한 균형 감각 상실이라는 진단은 윌리엄 브래드쇼의 이름에 붙은 ‘경’(Sir)에서 알 수 있듯이, 작위를 받을 만큼 국가의 번성이라는 명분 아래 윌리엄 경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위해 착안한 것이다. 그는 장사꾼의 아들에서 책을 읽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해 의사로서 자수성가하였다. 사랑이나 의무, 자기희생 같은 그럴듯한 명분 아래 기금을 조성하고 개종을 전파하고 제도를 창시했다(Woolf 110).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는 화자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의학적 소견으로 이견 광기이고 저견 정상임을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윌리엄 경에 대한 냉소로 가득하다. 균형 숭배는 바로 윌리엄 경이 파괴하고자 하는 또 다른 우상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확고한 지식 틀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후에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영국 지배 계급은 이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릴 명분과 결단력을 가진 윌리엄 경에게 작위를 수여할 정도로 뛰어난 공로를 가진 인물로 평하였다 (Zwerdling 125).

화자가 일관되게 범죄자, 희생양, 도망자, 난파자, 시인, 구세주로 지칭하는 셉티머스에 대해 윌리엄 경은 전쟁신경증 환자들이 실제로 역사적 산물이 아닌, 개인적 성향 때문에 증상이 생긴 사람으로 간주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평가와 상당한 주관을 가지고 진료한다. 윌리엄 경의

확신으로 셉티머스는 대단한 중증이었다. 심각한 신경쇠약,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쇠약으로 상당히 진행된 단계의 모든 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2, 3분 만에 확인했다(Woolf 104-05). ‘전쟁에 나가 무공을 세웠다면 서요?’라고 묻자 전쟁이라는 말이 의아한 듯 전쟁, 전쟁, 하며 되풀이해 말하는 셉티머스에 대해, 윌리엄 경은 단어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심각한 증세라고 카드에 적었다(Woolf 105). 핑크색 카드에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고, 나직한 소리로 중얼거리는 모습과 홈스가 진정제인 약간의 브롬화물(bromide)을 처방했다는 데 대해 속엿 말로 일반의를 경멸하는 모습에서 전문가로서의 특화된 지위와 권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의 의료 행위는 핑크색 카드에 적어놓은 질문, 즉 이미 통일된 형태의 인위적 틀 속으로 환자가 가진 증상의 변이적인 현상들을 축소시킨다. 이렇게 해서 질병은 구성되며,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지적대로 “병원에서 만든 인위적인” 것으로, “병리학적 사건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장 안으로 축소시킨다”(『임상의학의 탄생』 190). 이러한 윌리엄 경에 대한 묘사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울프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의사에 대한 복수로 비친다면,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내과 의사 디디에 파생(Didier Fassin)과 정신과의사이자 인류학자 리샤르 레스만(Richard Rechtman)이 추적하여 기록한 “(트라우마 신경증에 대해) 선구적인 성과를 끌어낸 정신과의사와 심리학자들은 트라우마 전문가로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특화되었으나 환자를 위로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다”(68)라는 문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61년까지 자살이 불법이었던 영국에서 셉티머스가 자살을 입 밖으로 낸다는 사실은 사회적 위협으로 비친다. 앞서 윌리엄 경의 말을 인용한 ‘법의 문제’란 바로 자살이 불법이기 때문에 윌리엄 경은 경찰과 사회의 힘을 빌려 그를 격리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윌리엄 경은 법과 경찰 및 사회의 도움을 사용하여 환자들을 억압하였다(Woolf 111). 서리(Surrey)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의 요양소는 나쁜 혈통 때문에 생긴, 자살이라는 비사

회적인 충동을 다스리는 곳이다(Woolf 111). 자살충동을 ‘나쁜 혈통’의 원인으로 대고 있는 이 서술에서 영국사회가 우생학을 중요시하여 영국인의 혈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유가 담겨있는데, 20세기 영국의 우생학과 보건위생은 전문직 중산계층으로부터 확산된 것으로, 우생학의 언어는 영국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담론 속으로 스며들었다(조영란 224). 이미 19세기 말에 지역의 위생조건과 주택, 산업위생, 식품과 약, 전염병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보건소장들(MOHs, Medical Officers of Health)이 공중 보건서비스 영역의 자리를 채우면서 국민건강 상태의 개선에 큰 관심을 두고, “술, 납, 결핵, 성병과 같은 포배변성장애(blastophthoria)와 새로운 유전적 소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조영란 217)을 포함시킨 유전을 중시하는 우생학적 사고에 경도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유추해볼 때 포탄 충격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셉티머스야말로 유전적 결함을 가진 자이므로, 국민국가이자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을 주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로의 번식을 막아 부모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했다. 실제로 17세기까지 예언자적 자아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광인은 18세기에 이르러 부랑이나 성병환자와 같이 기성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셉티머스는 격리 수용 대상으로, 여기서 격리 조치는 광기의 상업적 의료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가 지지하는 우생학과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셉티머스 또한 이런 세상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순간적인 쾌락의 증대에만 관심이 있고 친절도, 믿음도, 자비심도 없는 “탐욕스러운 동물”(these lustful animals, Woolf 98)이므로 그 자손을 증식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달러웨이 부인』은 국가와 의료적 기준에 맞추어 개인의 신체를 배제시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영국사회 안으로 재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득에 대해 셉티머스의 목소리를 통해 극명하게 저항하고 있다. 윌리엄 경은 환자들을 가두었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결단력이 필요했는데 스스로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이점에 대해 환자들의 혈육들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Woolf 112). 광기 관리야말로 수많은 원인과 성격을 양산하는 담론들 때문에 권력과 지위를 가진 윌리엄 경의 결단이야말로 의심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는 규범과 기준을 스스로 내재화한 윌리엄 경조차 균형과 전향에 집착하는 면모에서 셉티머스 못지않은 신경증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러한 점은 간과된 채 과대평가 되어있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윌리엄 경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의학적 진단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결단력이라는 묘사에 주목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전쟁 신경증의 해석 역사에서 드러나듯이, 1917년부터 영국의 정신과의사들이 트라우마 병사들을 낙인찍는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했으나 종전이 되어야 이들의 의견이 수용되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트라우마 환자는 탈영병에 비유되었다. 종전 후 프랑스에서는 병사를 전방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연금 수혜의 문제가 개입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연금 혜택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급성반응성 정신병만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연금 수혜 자격이 주장되었는가 하면, 트라우마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이처럼 전쟁피해에서 나온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취급은 국가와 사회에 맞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변화되었다. 울프가 조명한 1923년 6월 13일에 맞춰진 영국사회는 셉티머스라는 전쟁신경증 환자와 그의 아내 루크레치아(Lucrezia “Rezia” Smith)라는 외국인을 공동체의 공간 속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영국 사회가 이상화 한 영국 국민의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인 것이다. 영국 국민으로서 적합한 행동은 클라리사와 셉티머스가 각기 따로 서 있던 런던거리의 소요에서 목격된다. 갑자기 폭음을 낸 자동차는 웨일스 왕자(Prince of Wales), 또는 왕비나 수상이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면서 각자 불일을 보고 있던 개인들의 의식을 수렴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모자가게와 양복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전사자들과 국기와

대영제국을 떠올리는”(thought of dead; of flag; of Empire, Woolf 19) 전 후 영웅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떠나버린 차가 일으킨 동요가 가라앉 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의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다. 이는 마치 “왕실과 국 가의 위엄, 제국의 존엄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을 고양시키려는 의례”(김 영주 136)로 비쳐진다.

반면, 이 무리 속에 서 있는 셉티머스는 그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표면 으로 떠오르며 두려움에 휩싸인다.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다가 일시에 불길이 치솟을 것만 같았다(Woolf 16). 또한 자신이 길을 막고 서있다고,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본드 가(Bond Street)의 꽃집에 있던 클라리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으나 그 공간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그 공간에서 개인의 행동이 의미 있는 것 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행동하고, 변화를 만 들어내고, 무엇인가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행동은 복수(複數) 의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상화한 공적 공간으로 재편입 되기 위해 셉티머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현재의 공간과 소속을 포 기하고 삶의 터전을 일정기간 떠나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소속의 포기 라는 것도 소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에 대해 강제성을 띤다. 이처럼, 참전용사들을 침묵시키고 하찮은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전후 문화적 인 재통합 과정으로 셉티머스의 전쟁 트라우마는 영원히 남고 심리적 피 해는 악화되었다(DeMeester 649). 전쟁은 분명 셉티머스를 특정한 종류의 신체로 바꾸어놓았다. 이로서 그는 영국사회로 편입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한다. 의료 엘리트인 윌리엄 경의 의학적 결단과 사회적 지지기반에 기댄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동시에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평등, 자유, 공간 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국가의 번성이 ‘우리’를 위한 것일 텐데, 묘하 게도 셉티머스는 ‘우리’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속하기 위해서 서리 주의 요양소로 가거나 “1920년대 전후 ‘정상’으로 복귀하려는 정치인과 정 책결정자들의 줄기찬 노력”(이영석 38)에 맞는 전향을 해야 한다.

Ⅲ. 질병에 대한 거의 불가능한 설명과 역사

19세기 초 영국에서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지향하던 임상정신의학은 광기관리영역의 정당성과 주도권을 획득해나갔고, 의료전문인들은 광기의 통제와 치료를 위한 탈종교적이고 탈형이상학적인, 세속적인 지식과 기술의 독점적 집단으로 발전했다(정모세 256). 그런데 19세기 초의 실증주의적 태도를 지향하는 임상정신의학이 광기의 통제와 치료를 위한 탈종교적이고 탈형이상학적인, 세속적인 지식과 기술의 독점적인 집단으로 발전했다는 기록과는 반대로, 18세기부터 반사회적인 타자로 격리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이 생겨난 이래로 19세기 초 여전히 국가권력을 향한 적대행위를 광기로 구분했던 지평에는 영국사회의 전략이 있었다. 즉 사회 불순요소들을 법적·사회적 정의의 대상이 아닌 의료적 관리와 치료의 대상으로 분리해낸 데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행동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개인적 비정상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데 있었다(정모세 245). 그리고 20세기 근대 정신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서 정신병환자라는 미명 아래 치료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감시와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이상규 104). 『덜러웨이 부인』에서 윌리엄 경의 과학적 태도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면 그 이면에 ‘균형’과 ‘전향’이라는 단어에 대한 주술적인 집착이 스며있다. 그에게 있어 건강이란 바로 ‘균형’이다(Woolf 108). 앞서 셉티머스를 입원치료 하여 좀 더 균형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당연한’ 목표라는 장 톰슨(Jean Thomson)의 주장을 보았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윌리엄 경의 입에서 과학을 신봉하고 미신을 경멸하는 면모와는 사뭇 다르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처음 발명된 19세기 말부터 이를 재발견하는 20세기말까지 “정신의학, 심리학 및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이론과 실천, 양방향에서 진행”(파생·레스만 29)되는 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 대전의 포탄 충격에 의한 전쟁신경증이라는 전무했던 증상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갈팡질팡하였으며, 전시 중의 군의관이나 종전(終戰)의 정신과의사들의 진단 방식은 개별 환자의 면밀한 관찰이 아니라 개념 생산에만 그 역할을 다했다. 전시 중 전쟁공포로 시달리는 병사들에 대한 군 당국의 전략적 관리 방식과 마찬가지로 종전 후 민간인에 대한 처치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쟁 공포에서 병사들의 증상을 도맡아 평가해야 했던 군의관의 역할이 20세기를 이었으며, 종전 후에도 그 역할은 의사 개인의 독보적인 영역이 되었고 가족, 친구, 직장 등 환자의 네트워크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전쟁 이후 1929년까지 영국에는 심리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187개 외래 환자 진료소가 있었다. 전시 중에 정신 치료에 경력을 쌓은 의사들은 민간인의 정신 치료에도 가담하게 되었다(Shepard 161).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1913년 런던에서 열린 제 17차 국제 의학 회의(Seventeenth International Medical Congress)에서 있었던 토론에서 정신장애는 정신의학과 신경학 두 개 분과로 나뉘었으며, 이와 같은 분리가 포탄 충격에 대한 대답을 구체화하는 데는 도움을 줄 것 같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신과의사들과 신경과의사들 사이에 사실상의 직업적 분리를 형성하는 데에만 영향을 끼쳤다. 정신과의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환자에 대해 엄격할 정도로 간섭하면서도 직업적으로 낮은 지위에 놓여있던 반면에 신경과의사는 훨씬 부유한 환자들과 가벼운 정신 장애를 관리하면서 개인영업을 하였다(Shephard 6). 이러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예로, 할리 가(Harley Street)에서 영업 중인 윌리엄 경은 소설에서 정신과의사인지 신경과의사인지 직함의 구분이 없으나, 부유한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취급하면서 부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과의사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할리 가는 가장 유명한 신경학자들이 개업하고 있었으며,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돈 많은 환자들이 가는 곳이었다(Shepard 163). 『델러웨이 부인』에서 홉스는 셉티머스의 모든 증상—두통, 불면증, 공포증, 꿈을 많이 꾸는 것 등—에 대해 신경과민일 뿐이라고 했으며, 자살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외국인 아내 앞에

서 영국남자의 체면을 깎지 말라고 조언하는 게 전부이다. 그는 건강이란 대체로 우리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면서, 관심을 외부로 돌리거나 취미활동을 하라고 권한다(Woolf 100). 그러나 마지못해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고, 부유하다면 할리 가로 가보라고 덧붙인다(Woolf 102-103).

누구나 겪은 일에 대한 다른 반응은 해석불가한 일이었다. 『덜러웨이 부인』에서 죽은 친구 에반스(Evans)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셉티머스에 대해 아내 루크레치아는 누구나 겪은 일이었으며, 누구에게나 전사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한다(Woolf 72). 폭스크로프트 부인도 그렇고 벅스버러 부인도 그렇다. 그러나 셉티머스에게만은 극복이 불가능하다. 충격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바로 이 상대적이라는 점 때문에 전쟁의 충격만으로는 트라우마가 설명되지 않았다. 러일전쟁과 러시아 혁명 같은 장기적인 사회적 격변과 자연재난의 뜻밖의 사건에 대한 반응을 비교한 아담 치기엘스트레흐(Adam Cygielstrejch)는 결코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사건에 놀란 것이 원인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격변이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만, 심지어 직접 격변을 겪지 않은 사람도 증상을 일으키므로, 사건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파생·레스만 재인용 85).

궁지에 몰려 택한 셉티머스의 자살이 “반항”(defiance)과 “소통에의 시도”(an attempt to communicate), 그리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한 것”(reaching the centre, Woolf 202)이었다고 믿는 클라리사가 “셉티머스의 자살에 대한 상상적인 이론을 정립”(imaginatively constructed a theory for Septimus' suicide, Lord 44)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질병 개념의 역사적인 구성 과정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셉티머스의 증상은 결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포탄 충격인 트라우마 신경증도 ‘발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듯이,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특정한 방식’이라 함은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쾌락원칙을 넘어서』(*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1920)에서 포탄 충격을 ‘불안’과 ‘공포’의 문제를 일으키는 신체적 병으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셉티머스의 죽음에 대한 클라리사와 외부 화자, 그리고 독자들의 해석은 전장에서 폭발할 때 셉티머스가 훼손되는 순간에 대해 여러 추측과 가설을 내놓고 있으나 단지 그 사건의 파급효과일 따름이다(Lord 39). 이와 같은 주장에서 ‘파급효과’를 긍정하는 것이라면 너무 당연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라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자체에 대해 파급되는 효과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생성하고 개념화 하는 것은 오해와 오류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다양한 견해차를 줄여가는 과정이다. 물론, 진단기술이 발달한 것이라거나 진단범주가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덕의 풍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말 신체손상에 관한 의학적 설명과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심리적 범주로 태어난 트라우마는 20세기 말 정신의학의 질병분류로 재등장하여, 한동안 임상진료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가 곧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파생·레스만 435). 임상 분야에서는 트라우마로 남을만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환자는 아니어도 반드시 진료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질병분류 영역에서는 최소한의 현상학적 설명만으로 PTSD라는 진단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실재(實在)는 오직 증상학에만 근거한 것이어서 어떠한 도덕적 판단도 배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판단에 대한 타당성’의 이름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다. 문학적 소재로 어떤 사건을 선택한 사람은 사건의 현상을 보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 목표에 맞추는 방식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트라우마를 비롯한 새로운 증상을 마주할 때마다 취급해온 방식도 마찬가지이다. 울프는 자신이 경험한 신경증 처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영국의 의료사회는 설명할 수 없는 병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야만 했다. 윌리엄 경의 진료실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치

료보다 우선이었다. 서리 주에 있는 윌리엄 경의 요양소에서 환자들의 균형 감각을 되찾고 전향하게 하는 방식의 언급에서 그 병에 꼭 맞는 집중적인 치료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엿보인다.

서리 주에 있는 윌리엄 경의 친구는, 윌리엄 경마저 가르치기 어렵다고 인정한 균형 감각을 가르쳤다. 게다가 가족애와 명예와 용기, 밝은 장래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윌리엄 경은 적극 지지했다. 만일 그런 것들로 충분치 않다면, 그는 환자들에게 경찰과 사회의 힘에 호소할 수도 있다고, 조용히 덧붙였다. 서리 주에는 무엇보다 나쁜 혈통 때문에 생긴, 반사회적인 충동을 다스려 줄 것이었다.

Sir William had a friend in Surrey where they taught, what Sir William frankly admitted was a difficult art — a sense of proportion. There were, moreover, family affection; honour; courage; and a brilliant career. All of these had in Sir William a resolute champion. If they failed, he had to support him police and the good of society. (Woolf 111)

어떤 증상을 원인과 이유를 대고 객관성의 표면위로 올려놓는 의학과 과학의 영역은 독립, 특화되어 있으며,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의 과학화는 ‘알려지지 않은’ 증상의 특징과 원인, 이유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 ‘무책임’이라는 수식어의 수없이 많은 거론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기 어려운 권위와 권력의 영역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배계급의 전략과 음모에 더한 사회적 인식이 끊임없이 개입되어 온 사실이 트라우마 신경증의 발명과 발달의 역사에 여지없이 드러난다. “기존의 확립된 사회규범을 위반하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사람들이 바로 광인이라는 인식”은 현대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으며, “사회가 그들의 존재를 수용할 수 없다”(『광기의 역사』 27)는 인식에 더하여 개인의 사적 공간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 중심 공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

위에서만 사유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유효하다.

루크레치아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아무것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남을 지배하고 벌을 내리려는 자들로 결론 내리고, 그런 자들에게 남편을 혼자 보내지 않기로 결심한다(Woolf 162). 이것은 “최후에 이룬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승리”(a miracle, a triumph, the last and greatest, Woolf 162)로 묘사된다. 전쟁을 통해 익명의 민간인은 결코 역사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가 전쟁 이전의 그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쩌면 생명력 있는 신체로서 뿐만 아니라 “물체적 신체”(호네프 57)로서의 의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셉티머스의 자살은 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것과 같은 생각으로 공동체의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는 것으로 볼 수 있다(DeMeester 661). 달리 보면, 그가 자기 신체의 불가침에 대한 의식을 찾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당시 사회의 금기를 거부하고 자살을 감행한 것에서 그는 자신의 신체를 성업 중인 개인 정신과의사에게 맡기는 대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였다. 윌리엄 경이 등에 업은 국가와 사회의 지지와 그에 따르는 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의 신체 공간을 마음대로 축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며, 런던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로 치워주는 데 대한 보상이었다. 셉티머스가 가야하는 정신병원, 또는 요양소는 일상생활의 무대가 아닌 ‘장소 바깥’에 위치하여 제 2의 공적 공간이라 불리는 정원, 무덤, 감옥, 양로원, 휴양지 같이 현실화된 유토피아다. 누구에게 유토피아인지를 묻는다면, 그 ‘우리’가 다시금 등장할 것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도시에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현실세계에 있지만 바깥, 외면에 위치한 장소이다. 국가는 국력 증강에 있어 방해받지 않고 중심 공간을 훼손시키지 않고자 이런 장소들을 조성해왔다.

울프는 당시 법적으로 금지된 자살을 셉티머스의 최후 선택으로 사용하면서 이상한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 창턱이다. 그는 몸의 일부를 창 안쪽과 바깥에 걸쳐놓고 그 경계에서 미결정의 시간을 공간에 대한 투쟁으

로 전환하는, 혹은 그 경계를 횡단할 가능성으로서의 자기 신체의 불가침에 대한 의식에 가 닿는다. 자기 신체의 자주적 사용권한에 대한 의식이 부정되는 것이야말로 개인을 훼손시키는 폭력임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다. 폭력은 인간의 실제적 삶이 잠재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협소해지도록 만드는 외적 영향력을 말하는 것으로, 신체훼손 이상의 행위로 인간의 삶에 대한 욕구 실현 차원인 생존, 복지, 정체성, 자유의 욕구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갈통, 문성훈 재인용 68). 셉티머스에게 결혼, 직장, 사적·공적 공간에서 다른 평등한 존재들과 평등할 권리에 대한 권리는 사회질서가 요구하는 관계 조건에 부합해야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올프는 셉티머스 개인의 희생을 분명한 국가의 책임, 권력주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셉티머스의 언어와 행동을 광기roman 보기를 거부했다. 권력지배층은 국가의 자기보존을 위한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국민이 서로 다른 욕구와 어려움을 가진 개체가 아니라 목표 집단으로 취급하여 전체화 한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IV. 결론

1차 세계 대전은 영국 민주주의의 무시무시한 측면으로, 그 힘은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등 차이에 기초를 두는 특정 신체와 생활양식의 선별권리를 갖는 식으로 이탈하였으며, 동시에 영국 국민의 신분이라는 ‘상상 공동체’를 위해 죽음의 희생을 요구하였다(Kovacevic 346). 전쟁은 셉티머스에게 있어 우정과 죽음을 경험하게 할 만큼 숭고한 것이었으나, 종전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전쟁 신경증뿐이었으며 돌아온 영국 땅에서 그는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였다. 셉티머스가 보기에 인간은 “번덕과 허영심으로 이리저리 쓸리는 음탕한 종족”(only whims and vanities, eddying them now this way, now that, Woolf 98)일 뿐이다. 『덜러웨이 부인』은 이와

같은 셉티머스의 관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적 논쟁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의 진단방식을 문학 텍스트에 기대 비의료적인 해석만 가지고 이해하려는 시도에 있어서는 의심의 눈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윌리엄 경을 “사악해 보였고 성(性)도 성욕도 없으며”(her obscurely evil, without sex or lust) “상대방의 영혼을 질식시키는”(forcing your soul)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인생을 참아낼 수 없다”(they make life intolerable, Woolf 202)고 묘사하는 등 정신과의사를 불신하고 정신질환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셉티머스의 자살을 정당화 하는 태도는 설부른 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 해도 트라우마의 역사 쓰기에 문학적 담론의 개입으로서 『델러웨이 부인』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트라우마 심리학의 분야에서 최근에 연구하여 발견한 것들에 모더니즘 문학의 형식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한다는 지적은 그러한 맥락에 근거한다. 트라우마적 사건을 일깨우는 데에 희생자가 경험하는 의식의 파편화와 장애, 혼돈을 192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형식이 반영하였는데, 모더니즘 작가들이야말로 과거 이데올로기와 특히 그 이데올로기에서 출현한 문학 형식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DeMeester 650). 울프의 작품을 비롯한 모더니즘 문학이 ‘트라우마 문학’이라고 지칭되는 이유이며, 따라서 1920년대 모더니즘 문학은 정신과의사들이 종전 후 50년을 이해할 수 없었을 심리적인 상태에 형식과 재현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사건과 질서, 시간, 그리고 선형적 운동(linear movement)이 아닌, 사고, 감정, 내면의 심리, 감정적 상태가 중시되었으며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이나 합리주의 보다 ‘자신의 생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셉티머스가 겪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에서 회복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에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이다. 앞에서 선구적인 정신과의사와 심리학자들이 트라우마 전문가로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특화되어있으나

환자를 위로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파생과 레스만의 지적을 기억할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간과해서 안 될 점은 환자입장의 스토리텔링을 정신과의사나 심리학자들은 알 수 없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소설적 재현이 불완전하다는 주장이 무효한 것은 아니지만, 『델러웨이 부인』은 분명히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트라우마의 병을 얻은 수많은 인간의 정확한 경험을 입증하는 전쟁의 심리 통증 묘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여느 의학보고서를 앞질렀다고 할 수 있다.

『델러웨이 부인』이 1차 세계 대전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트라우마를 겪은 인간의 경험을 정확하게 묘사해냈다는 점은 주체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맺는다. “국가 운영논리에 사로잡힌 국가의 주체세력이 정치가와 의사와 같은 집단”이라고 한다면, 셉티머스나 그의 아내 루크레치아는 전형적인 타자이며, ‘우리’를 위협하는 “정신적 불안의 기제”일 것이다(이상규 110). 이 상징적인 비유가 결국에는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지우기보다는 오히려 부각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으나, 1914년부터 4년 동안 계속된 1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트라우마 신경증에 대한 국가, 사회, 의학적 접근과 해석을 다룬 『델러웨이 부인』은 인종적, 국가적 사관에 불합치하면서도 개인을 배제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유의미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누구인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경계는 항상 뚜렷한 것이 아니기에 이 질문은 우리 세기 또한 비켜갈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들을 남긴다.

2014년 국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Ebolavirus) 감염으로 의심되는 50대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5개월간 아프리카에 체류했다 귀국한 후 고열에 시달리다 의식불명이 된 그는 119 구급차량으로 이송 중이었으나 에볼라 의심 환자라는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중동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인 메르스(MERS) 같은 고위험 전염병은 질병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원인으로 재확인되는 가운

데, 질병을 겪는 개인을 집단, 사회, 국가와의 관계에서 취급하여 그 몸을 관찰·격리·통제·기록·관리해야 할 의미체계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식은 국민전체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개인의 행동 일반에 대해 규제가 체계화 되면서 정작 개인의 자유, 복지, 정체성은 그만큼 협소해져 버린다. 공중보건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제도로 자리하면서 도 국가의 보존을 위한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국민을 서로 다른 욕구와 어려움을 가진 개체가 아니라 목표 집단으로 취급하여 전체화 한다.

국가 공간에서의 외적 평형, 질서의 형태로서 내적 평형을 위해 죽은 자, 아픈 자, 죄지은 자, 노동하지 않는 자는 제 2의 공적 공간으로 개인의 신체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국가의 지배적인 생각은 따라서 개인에게는 ‘거절된 인정의 형태’로 여겨질 수 있다. 공간은 바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적 장소인 것이다(『헤테로토피아』 120).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면서도 매번 거론되는 동의반복어이다. 경계를 결정하는 권력의 주체는 누구이며, 또 그 주체가 내리는 결정이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은 아마도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다. 이 가운데 여전히 권리를 가질 권리를 빼앗기는 개인들이 있으며, 그들의 삶은 각자의 특수한 국면들을 외면당하거나 박탈되고 있다. 박탈되는 개인에 주목하여 그 목소리를 복원하고 권리를 형상화하는 현실 변용의 문학적 담론이 되풀이하여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트라우마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질환을 둘러싼 『달러웨이 부인』의 서사는 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지적처럼 합리적 논증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제공한다”(12)는 사실을 명증한다.

(건국대)

■ 주제어

1차 세계 대전, 정신의학, 우생학, 국가, 버지니아 울프, 『달러웨이 부인』

■ 인용문헌

- 김영주. 「전쟁기념비와 애도: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 『제임스 조이스 저널』 19.1(2013): 129-151. Print.
- 누스바움, 마사. 박용준 역. 『시적 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서울: 궁리, 2013. Print.
- 문성훈. 「폭력 개념의 인정 이론적 재구성」. 『사회와 철학』 제 20호(2010): 63-96. Print.
- 이상규.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에서 광기의 사회적 타자 연구」. 『현대영미소설』 13.1(2006): 103-131. Print.
- 이영석. 「양차대전 사이의 영국 경제와 제국」. 『영국연구』 제 26호(2011): 35-68. Print.
- 정모세. 「19세기 초 영국의 관기 관리와 사회 통제-조나단 마틴의 요크 대성당 방화사건(1829)」. 『영국연구』 37.0(2017): 231-272. Print.
- 조영란. “Eugenics, Public health, and the Control of Tuberculosis in the Early Twentieth-Century Britain.” 『한국과학사학회지』 15.2 (1993): 211-224. Print.
- 최재희. 「20세기 초 영국에서의 징병제 논쟁의 의미와 영향」. 『전남사학』 제 22집(2004): 339-361. Print.
- 파생, 디디에, 리샤르 레스만. 최보문 역. 『트라우마의 제국 - 트라우마는 어떻게 우리 시대 고통을 대변하는 말이 되었나』 (*L'Empire du traumatisme enquete sur la condition de victime*). 서울: 바다출판사, 2016. Print.
- 푸코, 미셸. 홍성민 역. 『임상의학의 탄생: 의학적 시선에 대한 고고학』 (*Naissance de la clinique*). 서울: 이매진, 2006. Print.

- _____. 이규현 역. 『광기의 역사』(*Histoire de la folie l' ge classique*). 파주: 나남, 2008. Print.
- _____.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Le corps utopique/Les Heterotopies*).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Print.
- 호네트, 약셀. 문성훈 외 역. 『정의의 타자』(*Das Andere der Gerechtigkeit*). 파주: 나남. 2009. Print.
- Bethea, Arthur F. “Septimus Smith, the War-Shattered Christ Substitute in *Mrs. Dalloway*.” *The Explicator* 68.4(2010): 249–252. Print.
- Church, Johana. “Literary Representations of Shell Shock as a Result of World War I in the Works of Virginia Woolf and Ernest Hemingway.” *Peach and Change* 41.1(2016): 52–63. Print.
- DeMeester, Karen. “Trauma and Recovery in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Modern Fiction Studies* 44.3(1998): 649–673. Print.
- Kovacevic, Natasa. “Beyond the Politics of Emancipation: Utopianism and Radical (Im) possibilities in Virginia Woolf.” *Literature Interpretation Theory* 16(2005): 333–357. Print.
- Lord, Catherine M. “The Frames of Septimus Smith: Through Twenty Four Hours in the City of *Mrs. Dalloway*, 1923 and of Millennial London: Art Is a Shocking Experience.” *Parallax* 5.3(1999): 36–46. Print.
- Shepard, Ben. *A War of nerves: Soldiers and Psychiatrists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and Massachusetts: Harvard UP, 2001. Print.
- Thomson, Jean. “Virginia Woolf and the Case of Septimus Smith.” *The San Francisco Jung Institute Library Journal* 23.3(2004): 55–71. Print.

Woolf, Virginia. *Mrs. Dalloway*. London: Penguin Books, 2000. Print.

Zwerdling, Alex. *Virginia Woolf and the Real World*. California: U of California P, 1986. Print.

■ Abstract

**An Individual Body in the Space of Illness:
The Psychiatric Discourse in Britain and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Choi, Eun Joo
(Konkuk Univ.)

This paper explores psychiatry and psychotic treatment in early twentieth century Britain in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and discusses the physical meaning of an individual at the boundary of the closure, separation, and movement of private and public spaces caused by illness. Traumatic neurosis, which was coined in the nineteenth century, appeared in World War I soldiers suffering from shell shock, now call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r, PTSD. To illustrate the unexplained symptoms, medical officers conspiring with the ruling powers called cowards or the weak for a number of patients who had no injuries but felt physically aggressive. During the war, military officials had to find a pretext to return the afflicted soldiers to the battlefield. After the war, their symptoms were also not acknowledged because of compensation problems. Each time, those symptoms were only a matter of an individual. In other words, it was not because of the war, but rather the nature and personality of the individual. This forced many soldiers and veterans to experience additional mental and physical pain beyond the impact of the shell

shock.

In *Mrs. Dalloway*, Septimus Warren Smith is suffering from trauma neurosis after returning to work after the war. It is also a painful and heterogeneous experience for Septimus to re-enter everyday life in London. However, the ruling powers, who have been devoting themselves to postwar reconstruction, require the people to live as individuals to fit for the goal of national reconstruction. Such a push is only another example of violence to Septimus. The state regards individual inadequacies as a threat to society and leads to his personal separation, detention, and control. Ultimately, he cannot be considered a healthy individual at the national level, so Septimus commits suicide. He escapes the situation of being imprisoned in a sanatorium and throws himself out the window. Unlike some assessments of the trauma neurosis based on Woolf's own personal experience, *Mrs. Dalloway* criticizes the eugenic lineage of British society and the medical profession that coincides with the power class, revealing the problems of an individual, nation, and a race.

■ Key words

World War I, psychiatry, eugenics, nation, Virginia Woolf, *Mrs. Dalloway*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8년 3월 2일 ○심사일: 2018년 3월 22일 ○게재일: 2018년 4월 30일

A Critique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Baconian Utopia and *New Atlantis*

Ko, Kang YI

I. Introduction

Since Thomas More in his work, *Utopia* (1516), gave the term its name and fused a number of rhetorical and historical genres, utopia, as a form of writing, has been read in various ways. Ranging from science fiction to history, satire to political treatise, utopia's categorical ambivalence has frustrated many attempts at definition. In my paper, I follow Marina Leslie's definition: "Utopia is a critical practice investigating the historical subject in the interrogative mode" (8). Northrop Frye, one of the classical commentators on utopia, offers a similar explanation of the concept, "[t]he utopian writer looks at his own society first and tries to see what ... its significant elements are. The utopia itself shows what society would be like if those factors were fully developed" (26). Utopia, whether designed to escape reality or promote a revolutionary vision for a better future, is of necessity and by nature of its definition embodied with a negative view of existing order and reality.

What is interesting about the history of utopia is that utopian discourses were especially highlighted during the Renaissance. Scholars have elucidated the historical relation between early modern England and utopian ideas. Leslie observes that the publication of More's *Utopia* coincided with the spread of capitalism and the rise of colonial expansionism. *Utopia's* discovery narrative and its “secular rationalization of the social order,” according to Leslie, explains how early modern England became a rich context for utopian thought (6). Amy Boesky contends that the utopian writings of early modern England indeed played a role in the formation of emergent “Englishness.” In her view, utopian discourse, with its emphasis on the emergent institutions of early modern England, namely laboratories, workhouses, and colonial plantations, reflects the power shift in contemporary England from “the court and church to a widening aristocracy and growing bourgeoisie” (3). Jeffrey Knapp reads utopian texts as an expression of early modern England's other-worldliness. Stressing that the literary ebullience of Renaissance England derived from an embrace of England's material and political weakness (its small territory, its circumscription by enemies, its break with Catholic Europe, and its female monarch), Knapp detects English national desire for insular integrity in such utopian texts as *Utopia* and *New Atlantis* (1627) in which isolation and sexual chastity are praised (21). As such, it became inevitable that utopian visions were intensively discussed in the early modern period.

Among utopias of the early modern period is Francis Bacon's *New Atlantis*. Given the historicity of the utopian project, *New Atlantis* may be read as a Renaissance humanist's textual realization

of an ideal society; in other words, the work is supposed to present an alternative vision of seventeenth-century England. *New Atlantis* is viewed as expressing Bacon's ideal advanced society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¹⁾ Many scholars have interpreted the text in that way, asserting that *New Atlantis* is a rosy reflection of early modern England in which modern science promised the mastery of nature (Vattimo 79; Frye 78).²⁾ However, if we emphasize that the Bacon text is a serious critique of contemporary society, Bacon's book requires a radically different reading, resulting in *New Atlantis* becoming instead a more critical reflection on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supports the latter reading. In fact, John Archer detects in *New Atlantis* the operation of “the dialectic of enlightenment” (151). Stressing the oppressive aspect of scientocracy described in the text, he asks the reader critically to approach the technological utopia that *New Atlantis* is supposed to represent. According to Archer, in the text, Bacon is “caught up in a contraction between ... historical conditions that made his program possible and those it was intended to create” (148). In Archer's view, the *New Atlantis* is a contradictory text that reflects Bacon's dream of an ideal advanced society which “kings with their treasure cannot buy” as well as an ominous outlook for “an impersonal, technocratic, and surveilling state” which Bacon's program can likely bring about (150–51). In other words, for Archer, the text demonstrates that Bacon is caught in a

1) During the early to mid-seventeenth century, modern science was in the process of emergence (Albanese 525).

2) In a similar vein, Denise Albanese contends that in Bacon's text, the optimistic utopian impulse based on modern science changes the ground of authority, whether ethical, religious or civil (507).

pitfall of “the dialectic of enlightenment,” irrespective of Bacon's actual intent.

The argument in the current paper differs from that of Archer in terms of Bacon's intention. What I argue, in contrast to Archer, is that in his fiction Bacon consciously presents the limitations of modern science and ethical problems that a scientocracy can cause. I will also elaborate on how the work interrogates a political system that only a few elite scientists dominate. In doing so, this discussion ultimately concludes that *New Atlantis* presents Bacon's critique of the possible alternative vision to contemporary society, instead of criticizing the existing system.

II

New Atlantis might seem to be a prelapsarian world. Spanish sailors discover the island through God's “mercy” (457), and arrive there after they attest to the Christian faith (459). In the first night on the island, the Spanish narrator describes Bensalemite hospitalities and material abundance:

[D]inner was served in; which was right good viands, both for bread and meat; better than any collegiate diet that I have known in Europe. We had also drink of three sorts, all wholesome and good; ... Besides, there were brought in to us great store of those scarlet oranges for our sick; which ... were an assured remedy for sickness taken at sea. There was given us also a box of small grey or whitish pills, which they wished our sick should take, one of the

pills every night before sleep, which ... would hasten their recovery. (461)

Their officers do not need the money offered by the Spanish sailors (459), as for them, “merchandise” (i.e., “gold” and “silver”) are “all one” (462). Salomon's House, a technological–scientific think tank, described as “the very eye of this kingdom” (464), provides the Bensalemites with significant material progress. In addition to providing abundant drinks and food, the institution invents “new artificial metals” and uses them to cure disease and prolong life (480); it also controls the weather by creating artificial rain, hail, snow, thunder, and lightening, as well as fresh air for the cure of diseases (481). Put simply, in the world of New Atlantis, science and technology seem able to master nature; Bensalem appears to realize a technological utopia in which modern science has liberated the populace from the need to wrest life from nature. If the sailors leave the world “buffeted by the destructive forces of nature– wind, calm, famine, and disease–” Bensalem might seem to the readers a utopian world where “the weather is controlled, needs met, and sickness cured” (Weinberger 106).

However, Bensalemite science is limited in three respects. First, it fails to solve the under–population problem, as Suzanne Smith correctly notes (119). The “Feast of the Family” episode demonstrates that Bensalemite technology has not mastered the problem. The feast is “[a] most natural, pious, and reverend custom” for the island (472) and is sponsored by the State (473), in an effort to encourage fecundity by commemorating “any man [Tirsan] that shall live to see thirty persons descended of his body alive together, and all above

three years old” (472–73). Tirsan, the Father of the Family, is absolutely respected, and his authority is regarded as “the order of nature” (473). The King of Bensalem calls the Tirsan his “creditor” for the “propagation of his subjects” (474). What should be noticed is that Tirsan's authority and the State's sponsorship for the event indicate Bensalem's population deficit. Even the narrator, who is supposed to be overwhelmed by the island's technological progress, in a conversation with a Jewish merchant, clearly points out the problem: “[W]here population is so much affected, and such as with them it seemed to be, there is commonly permission of plurality of wives” (476). Although Salomon's House can control the weather, cure some diseases, and prolong life, it cannot solve the under-population problem.³⁾ The event sponsored by the scientocracy paradoxically verifies the limitations of modern science.

Even the Bensalemite scientist must acknowledge that science cannot explain all natural phenomena. A fellow of Salomon's House, in the “Great Pillar of Light” episode, declares in his prayer:

Lord God of heaven and earth, thou hast vouchsafed of thy grace to ... discern (as far as appertaineth to the generations of men) between divine miracles, works of nature, works of art, and impostures and illusions of all sorts, I do here ... testify before this people, that the thing which we now see

3) Bacon was childless. According to J. D. Davis, that circumstance affected Bacon's preoccupation with fecundity and sexual fruitfulness (114). Putting aside the authenticity of Davis' assumption, it is evident that Bacon was quite conscious of the issue of propagation. It is thus not irrelevant to argue that for Bacon, under-population was one of the key problems that modern science had to address.

before our eyes in thy Finger and a true Miracle; and forasmuch as we learn in our books that thou never workest miracles but to a divine and excellent end (for the laws of nature are thine own laws, and thou exceedest them not but upon great cause), we most humbly beseech thee to prosper this great sign, and to give us the interpretation (464)

The fellow admits that full knowledge of nature is impossible. He demarcates the sphere of science (“as far as appetaineth to the generations of men”) and accepts the existence of divine miracle, which his science fails to elucidate without God’s intervention. Notwithstanding the long list of nature already mastered by Salomon’s House (genetics, astronomy, biology, medicine, meteorology, physics, mechanic, mathematics, etc.), his prayer seems to manifest the fact that nature always slips away from any desperate attempt to scientifically define it. In addition to the “Great Pillar of Light” episode, the history of Bensalem can also be said to be interspersed with divine miracles: It was through “a kind of miracle” that the island, after the long passage of thirty-six years, was visited by foreigners (461); Bensalemites had been saved from “infidelity” through a “miraculous evangelism” (465); their insular integrity had been protected by “divine revenge” (468). That the Bensalemites can explain their history by invoking a *deus ex machina* suggests that their technological utopia is not yet completed.

Ironically, the history of Salmon’s House suggest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modern science as well. An officer of Bensalem says the House has researched nature since its establishment 1900 years before. The institution has long studied

nature for more than 1900 years. But the existence of the House itself indicates that it has not yet completed the tenets of “natural history,” as Davis points out (121). The scientists are still a long way from a complete natural history. In this respect, the end of the foundation, that is, “the knowledge of Causes, and secret motions of things” (480), is not a “declaration of historical hopefulness,” to borrow Judith Shaklar's words (104). Rather, it is a melancholic expression used to confess that science has not successfully mastered nature at all.

III

The narrator, impressed by Bensalemites' hospitalities, describes the island as an “angelical” land (466). Joabin, a Bensalemite Jew, during a conversation with the narrator, reinforces the narrator's impression by paying tribute to the collective morality of Bensalem. Given that Joabin is depicted as “a wise man, and learned, and of great policy, and excellently seen in the laws and customs of that nation,” his tribute is worth our attention: “You shall understand that there is not under the heavens so chaste a nation as this of Bensalem; nor so free from all pollution or foulness. It is the virgin of the world” (476). In his view, New Atlantis presents a prelapsarian world that modern science has restored.

However, the scientocracy of Bensalem, to be sure, does pose ethical problems. First, the institution called “Adam and Eve's pools” is surely problematic. According to Joabin, it is designed to solve the problem of post-nuptial disappointment caused by the “many hidden

defects in men and women's bodies,” ultimatel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dultery (478). The presence of the institution itself indicates that there is adultery and also promiscuity, although Joabin contends that the island is “the virgin of the world.” Rather, it conceivably may suggest that Bensalem's depravity of sexual morality is too extreme to be controlled individually. The effect and ethical values of the institution are also controversial. The institution permits a friend of the man and a friend of the woman “to see them severally bathe naked.” Joabin says that Bensalemites regard their device as a “more civil way” than More's utopian device in which the married couples are allowed to see one another naked, since “they think it a scorn to give a refusal after so familiar knowledge” (478). What must be remembered is that the “Adam and Eve's pools” also cause serious ethical problems. In a sense, it is more problematic than More's device; as Weinberger points out, the Bensalemites' pre-nuptial review leads us to question the effect and moral values of the device. How can we trust the friend of the couple as a reliable agent of viewing? What if the agent is moved by sexual desire? What if the agent pursues for himself or herself the object of desire? (Weinberger 109-10). The problematic convention explained by the man well versed in the custom of Bensalem suggests that the Bensalemites have actually paid scant attention to moral issues. Bacon's portrayal of Jewishness and Joabin are noticeable as well. In early seventeenth-century England, there was officially no native Jewish population. Rather, there was a strong tradition of “anti-Semitic depictions of Jews in circulation that imagined them as treasonous, sexually monstrous, foul smelling, and guilty of the ritual murder of Christians”

(Jowitt 143-4). One may ask here why Bacon assigns a Jew the role of a spokesperson to praise the Bensalemite morality. Bacon probably wanted to emphasize the ethical fragility of New Atlantis in an ironic manner.

As the Spanish narrator says, New Atlantis has “divine powers” to be hidden and unseen to others (466). The Bensalemites have full knowledge of the outside world without being corrupted by it. How can that be possible? According to a fellow of Salmon's House, while non-scientist Bensalemites are forbidden to contact the outside world, two ships carrying six fellows from the House are sent out from the island every twelve years. These fellows have a mission, namely,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of the “sciences, arts, manufactures, and inventions” of their assigned countries. The ships come back after landing the fellows, who continue their intellectual espionage incognito until the next expedition arrives twelve years later (471). The scientists also have the right to decide what kind of information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State (487). In a word, New Atlantis is dominated by a few scientists whose individual integrity has a huge influence on non-scientist Bensalemites. Then of course, we should ask how much we should trust their morality. Can we say that the scientists have reliable morality, although they are obviously exposed to the corrupting influences of the outside world? Two contradictory statements regarding Salomon's House, I believe, discredit the ethical authority of these scientists. A fellow of the House says to the narrator:

[W]e have circuits or visits of divers principle cities of the kingdom, where,

as it cometh to pass, we do publish such new profitable inventions as we think good. And we do also declare natural divinations of diseases, plagues ... ; and we give counsel thereupon what the people shall do for the prevention and remedy of them. (488)

The scientists are supposed to undertake tours to inform the cities of Bensalem of any new discoveries and provide them with preparations against illness. However, Joabin, “a wise man, and learned,” indicates that the scientists' tour and service that the fellow mentions is but an empty rhetoric: “[W]e have seen none of them [the fellows of Salmon's House] this dozen years” (478). The elite scientists of Bensalem, at least for twelve years, have indeed monopolized information regarding scientific discoveries and not paid attention to the welfare of the non-scientist populace, which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y have abused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ir own profit and power.

The fragility of the scientists' moral authority, as a result, leads one to contemplate ethical dilemmas that the employment of their institution creates. In the conversation with the narrator, the Father of Salomon's House provides a very long list, detailing the foundation's arrangements for the study of natural phenomena, including the house of “deceits of the senses.” According to the Father, in that house, the Bensalemite scientists can make “false apparitions, impostures, and illusions” (486). They can even make artificial miracles out of nature. While such fakery is punished with “ignominy and fines” (486), one cannot deny the possible disastrous results that such abuse of technology can cause.

Summing up then, the Bensalemite scientists, without seriously contemplating the ethical implication of their activities, have monopolized their knowledge of nature. The elite scientists do not do their duty for the populace and instead assign the discussion on sexual morality to the religious Other, Joabin. In *New Atlantis*, philosophical and ethical discussions seem only decorative at best. The technological utopia aims “at human empire, the effecting of all things possible, rather than things good or holy” (Faulkner 131).

As we have seen, the scientocracy of *New Atlantis* lacks any discussion on how it deals with social or moral conflicts. Given the long list of its employments, its scanty discussion of ethics is quite noticeable. At this point, some might argue that religion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oral guide for the Bensalemites. For instance, Stephen A. Mcknight contends that “Bacon's program of utopian reform presented in the *New Atlantis* is grounded in genuinely and deeply felt religious convictions” (qtd. in Smith 98). In a similar vein, V. Dupont contends that Bacon in his fiction is counting on “Christian morality to make his citizens good” (qtd. in Davis 119). The religious tone of *New Atlantis* is thus undeniable. As Smith puts it, Bacon's use of “Christian ... narrative patterns, tropes, and themes is so lavishly extensive” (99). The Spanish sailors, to be allowed to land on the island, must attest to the Christian faith (459). Their first question regarding Bensalem is how the Christian faith had been made known to the Bensalemites (463).

However, as we have discussed, the ethical values of *New Atlantis* are problematic. Despite the lavish Christian narrative patterns and rhetoric, the Christian faith does not function as a

reliable guarantee of ongoing moral standards. I argue that the failure of Christianity as a moral guide derives from the fact that the scientists of Salmon's House play a decisive role in the religious life of the Bensalemites. In other words, Bacon in his fiction presents the precise problems that any appropriation of religion into science could actually provoke.

It might not be irrelevant either to look at how Christianity was introduced to the Bensalemites. In the “Great Pillar of Light” episode, only the scientist is able to approach the Scriptures and entitled to interpret them (464–65). What is interesting in this episode is that Bensalemite science precedes the arrival of Christianity (Paterson 429; Briggs 193).⁴⁾ The history of Bensalem suggests that science was first established almost three hundred years prior to the arrival of Christianity. It implies that Bensalemite science, from its inception, has roots quite independent of faith (Paterson 429).

Then, how is religion as appropriated by scientocracy described? The name of the “Adam and Eve's pools” alone, according to Paterson, indicates Bacon's thinking, namely, that “scientific progress has also restored that innocence of good and evil which was corrupted or lost in the Fall” (428). I argue that Paterson misunderstands Bacon's intention. While he is right to point out that the “Adam and Eve's

4) I agree with Paterson's account of Bensalem's chronology (429). According to Paterson, the statement that the European expedition has radically increased “within these six-score years” (467) suggests that the events depicted in the *New Atlantis* are taking place in 1612 (dating the beginning of the six score years from 1492). While Christianity was introduced to New Atlantis “about twenty years after the ascension of ... Savior” (464), the founder of Salomon's House reigned “about nineteen hundred years ago” (469).

pools” suggests a Bensalemite belief in science because of its role in restoring a prelapsarian state, he fails to distinguish Bacon's thought from that of the Bensalemite scientists. If we follow Paterson's reading, New Atlantis becomes an idealized England in which the so-called Baconian modern project is fully supported by the State without any intervention from religion or power. However, Bacon's text never invites readers to see New Atlantis as a clear metaphor for England. The existence of “linguistic groups of Persians and Indians and the official toleration of Jews,” as Davis points out, exemplifies the meager correspondence between England and New Atlantis. Against Paterson's allegorical reading, I follow Davis's contention that Bacon was skeptic about the recovery of a prelapsarian state through men's mastery over themselves and over each other (125). Put differently, Bacon, through his fiction, presents a critique of the *imperial* science that tries even to intervene into the theological arena.

Exploring the religious issue in *New Atlantis*, many scholars cite Bacon's depictions of Jews and Joabin as a sign of Bacon's positive attitude toward religious tolerance: “He [Joabin] was a Jew, and circumcised: for they have some few strips of Jews yet remaining among them, whom they leave to their own religion” (475). Looking at Bacon's statement in his essay may help in addressing his view of religion further. In his essay, “Of Unity of Religion,” Bacon writes:

There be two swords amongst Christians, the spiritual and temporal; and both have their due office and place in the maintenance of religion. But we may not take up the third sword, which is Mahomet's sword, or like unto it,

that is, to propagate religion by wars or by sanguinary persecutions to force consciences. (346)

At first glance, this passage might seem to verify Bacon's theological tolerance. However, a more careful reading indicates that Bacon's emphasis is not so much on religious toleration as on his opposition to “sanguinary” religious persecution. In the same essay, he regards a heretic as one to be converted: “[H]eresies and schisms are of all others the greatest scandals; yea, more than corruption of manners” (344). And in another essay, “Of Atheism,” Bacon again foregrounds his stance in an unequivocal tone: “The causes of atheism are: divisions in religion, if they be many; for any one main division addeth zeal to both sides; but many divisions introduce atheism,... They that deny a God destroy man's nobility” (372). Given Bacon's comments on heretics, atheism, and his distrust of Jewishness presented in other texts, we can see that Bacon never fully supports religious toleration.⁵⁾

IV

The discussion thus far leads one to question the life of the nonscientist populace of Bensalem. At first glance, their lives might seem to realize the existence of an ideal society that modern science was projecting. As the narrator says, the Bensalemites show exceeding hospitality and tenderness toward strangers. The significant wealth

5) For Bacon's distrust of Jewishness presented in other texts, see Jowitt 144-46.

offered by science and technology makes them indifferent to money (for them, gold and silver are “all one”). Their transcendence of material necessity and niceness make the European sailors think that they have come into “a land of angels” (463). However, given that Bacon's moral and political ideas could be classified as “classical republican” (“Politics and Science: Francis Bacon and the True Greatness of States” 279), we should approach the life of the Bensalemites more critically.

In the essay, “Of Nobility,” Bacon presents his republican idea in an unequivocal tone:

A monarchy where there is no nobility at all, is ever a pure and absolute tyranny; as that of the Turks. For nobility attempts sovereignty, and draws the eyes of the people somewhat aside from the line royal. But for democracies, they need it not; and they are commonly more quite and less subject to sedition, than where there are strips of nobles. For men's eyes are upon the business, and not upon the persons; or if upon the persons, it is for the business's sake, as fittest, and not for flags and pedigree. We see the Switzers last well, notwithstanding their diversity of religion and of cantons. For utility is their bond, and not respects. The united provinces of the Low Countries in their government excel; for where there is an equality, the consultations are more indifferent, and the payments and tributes more cheerful (364-5).

According to Peltonen, the main emphasis in Bacon's concept of classical republicanism is placed on “virtues and qualities of the people.” In addition to “the idea of meritocracy” presented in his essay, Bacon endorses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s “the central

notions of classical republicanism” (“Politics and Science: Francis Bacon and the True Greatness of States” 297).⁶⁾

What is interesting is that Bacon's classical republicanism contradicts utopian thought that was vehemently discussed in Europe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As Davis writes, these two thoughts had wholly different priorities: “[I]n the name of participation and the freedom necessary to it the classical republican risks corruption and thereby instability, but to avoid corruption and achieve permanence the utopian, by contrast, tends to reject participation and risk freedom” (42).⁷⁾ Given the republican ideas presented in his essay, “Of Nobility,” we could say that Bacon is critical of the utopian vision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classical republicanism.

The life of the nonscientist populace of Bensalem stands in complete contrast to Bacon's classical republican idea. First, in Bensalem society, we cannot find any participation of nonscientists in the public life. The scientocracy of Bensalem, to be sure, places both political and moral responsibility in the hands of a few elite scientists. As seen in the “Great Pillar of Light” episode, the Bensalemite scientists are also priestly elites. In other words, nonscientists are marginalized even in the religious life. It is in the description of the process of the “Feast of the Family” that the marginalization of the Bensalemites is foregrounded:

6) Exploring Bacon's classical republicanism and its implication in *New Atlantis*, I owe much to Peltonen's work. My arguments, however, do differ from the work of Peltonen in terms of sources and evidences.

7) Frye, too, gives a similar explanation of elitism that contemporary utopian thought implies: “Most utopias are conceived as elite societies in which a small group is entrusted with essential responsibilities...” (35).

The Father of the Family ... is assisted also by the governor of the city or place where the feast is celebrated; and all the persons of the family are ... summoned to attend him. These two days the Tirsan sitteth in consultation concerning the good estate of the family. There, if there be any discord or suits between any of the family, they are compounded and appeased. There, if any of the family be distressed or decayed, order is taken for their relief and competent means to live. There if any be subject to vice, or take ill courses, they are reprov'd and censured. So likewise direction is given touching marriage, and the courses of life which any of them should take, with divers other the like orders and advices. The governor assisteth, to the end to put in execution by his public authority the decrees and orders of the Tirsan, if they should be disobeyed.... (473)

Considering that in the text there is virtually no discussion of the political arena, the feast is expected to serve as a pseudo-Parliament for conflict resolution. In the *New Atlantis*, the narrative of scientists and officers serves only to marginalize the operations of public political systems within Bensalem. A few elites monopolize scientific discoveries and do not share them with the populace. The non-scientist Bensalemites are not allowed to contact foreigners and the outside world. Even in the religious life, the populace is nothing other than an audience “in a theatre” (464). In this context, the “Feast of the Family”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kind of Parliament for collecting public opinions and conflict-resolving. Furthermore, the Tirsan is called the king's “friend and creditor,” due to his critical importance to “the propagation of the king's subjects” (474). Accordingly, one may regard him as an arbiter between power and the populace.

However, in the pseudo-Parliament of Bensalem, there is no such operation for collecting public opinions and mediating different interests. We cannot see any active role by the populace, either. The Tirsan, as a head of the family, wields his authority over family and the family members are obliged to follow his orders by public authority. In other words, the feast serves as a ritual to effectively dominate the non-scientist populace and maintain the scientocracy regime. Peltonen's comments on Bacon's political idea again help u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 of this feast. According to Peltonen, for Bacon, “[i]t was a central feature of the English political system that the people retained their fundamental capacity to take part in the political life of their community” (“Politics and Science: Francis Bacon and the True Greatness of States” 300). After all, all things considered, it is undeniable that Bacon is critical of a scientocracy that marginalizes the populace.

In the society of Bensalem, the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pulace and the elite scientist does not exist. The parade by the Father of Salomon vividly shows their relationship:

He [the Father] was a man of middle stature and age ... and had an aspect as if he pitied men. He was clothed in a robe of fine black cloth... His undergarment was of excellent with linen down to the foot ... He held up his bare hand as he went, as blessing the people, but in silence. The street was wonderfully well kept: so that there was never any army had their men stand in better battle-array, than the people stood. (478-9)

The parade of the Father of Salomon's House can be read as a

satire on the composite ideal of luxury, authority, and exclusive concern for private goods. The pageantry implies that all forms of authority are drawn from Salmon's House, a think tank that consists of but a few elite scientists. The Bensalemites' attitude toward the Father reflects the absolute hierarchy set in place between the non-scientist populace and a few elite scientists. Of course, Bacon does not prefer such a political regime. He notes that the king cannot change “any one point” contained in the Magna Carta (qtd. in “Bacon's Political Philosophy” 289). He even supports resistance theory (“Bacon's Political Philosophy” 291).⁸⁾ Given his anti-absolutist thought and his praise for “equality” in his “Of Nobility,” we thus can conclude that the depiction of the Bensalemite political system contradicts Bacon's ideas. In other words, the *New Atlantis* asks one to read it as Bacon's warning of a possible political regime that the sweeping cult of modern science might produce.

V. Conclusion

As we have discussed so far, the *New Atlantis*, as a “critical practice investigating the historical subject,” interrogates the virtual society that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re supposed to construct. Bacon, in his utopian text, points out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modern science. For him, natural history is not yet completed. Rather, in the world of New Atlantis, the mastery of nature

8) For careful examination of Bacon's classical republicanism, see Paterson's “Bacon's Political Philosophy,” 284–308.

seems almost impossible. Bacon also examines how scientocracy can cause ethical problems. Religion appropriated by science, in the text, leads virtually to an atheism that Bacon thinks “destroy[s] man's nobility.” Finally he interrogates how scientocracy marginalizes the non-scientist populace, even in their religious life. After all, in his only fiction, Bacon critically reflects on the possible results that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might bring about in the future. To put it another way, the *New Atlantis*, unlike other ‘mimetic’ utopian texts, serves as a ‘prophetic’ practice or a ‘run-through’ that is offered to readers, so they can examine an alternative vision of contemporary society.

(Yonsei Univ.)

■ Key words

New Atlantis, utopia, science, technology, scientocracy

■ Works Cited

- Albanese, Denise. "The New Atlantis and the Uses of Utopia." E.L.H. 57. 3. (Autumn 1990): 503-528. Print.
- Archer, John Michael. *Sovereignty and Intelligence: Spying and Court Culture in the English Renaissance*. Stanford: Stanford UP, 1993. Print.
- Bacon, Francis. "New Atlantis." *Francis Bacon: The Major Works*. Ed. Brian Vickers. New York: Oxford UP, 2002. 457-490. Print.
- _____. "Of Atheism." *Francis Bacon: The Major Works*. Ed. Brian Vickers. New York: Oxford UP, 2002. 371-372. Print.
- _____. "Of Nobility." *Francis Bacon: The Major Works*. Ed. Brian Vickers. New York: Oxford UP, 2002. 364-365. Print.
- _____. "Of Unity of Religion." *Francis Bacon: The Major Works*. Ed. Brian Vickers. New York: Oxford UP, 2002. 344-346. Print.
- Boesky, Amy. *Founding Fictions: Utopia in Early Modern England*. Athens: U of Georgia P, 1996. Print.
- Briggs, John Channing. "Bacon's Science and Relig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Bacon*. Ed. Markku Peltonen. Cambridge: Cambridge UP, 1996. 172-99. Print.
- Davis, J. C. *Utopia and the Ideal Society: A Study of English Utopian Writing, 1516-1700*. Cambridge: Cambridge UP, 1981. Print.
- Faulkner, Robert K. "Visions & Powers: Bacon's Two-Fold Politics of Progress." *Polity*. 21. 1. (Autumn 1988): 111-136. Print.
- Frye, Northrop. "Varieties of Literary Utopias." *Utopias and Utopian Thought*. Ed. Frank E. Manuel. Cambridge: Houghton Mifflin,

1966, 26–49. Print.

Jowitt, Claire. “Books will Speak Plain? Colonialism, Jewishness and Politics in Bacon's *New Atlantis*.” *Francis Bacon's New Atlantis: New Interdisciplinary Essays*. Ed. Bronwen Price. New York: Palgrave, 2002, 129–155. Print.

Knapp, Jeffrey. *An Empire Nowhere: England, America, and Literature from Utopia to The Tempest*. Berkeley: U of California Press, 1994. Print.

Leslie, Marina. *Renaissance Utopias and the Problem of History*. Ithaca: Cornell UP, 1988. Print.

Paterson, Timothy H. “On the Role of Christianity i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Francis Bacon.” *Polity* 19.3 (Spring 1987): 419–442. Print.

Peltonen, Markku. “Bacon's Political Philosophy.” *The Cambridge Companion to Bacon*. Ed. Markku Peltonen. Cambridge: Cambridge UP, 1996. 283–310. Print.

_____. “Politics and Science: Francis Bacon and the True Greatness of States.” *The Historical Journal* 35.2 (1992): 279–305. Print.

Shaklar, Judith. “The Political Theory of Utopia: From Melancholy to Nostalgia.” *Utopias and Utopian Thought*. Ed. Frank E. Manuel. Cambridge: Houghton Mifflin, 1996. 101–115. Print.

Smith, Suzanne. “The New Atlantis: Francis Bacon's Theological–Political Utopia?” *Harvard Theological Review* 101.1 (2008): 97–125. Print.

Vattimo, Gianni. *The Transparent Society*. Trans. David Webb. Cambridge: Polity Press, 1992. Print.

Weinberger, Jerry. "On the Miracles in Bacon's New Atlantis." *Francis Bacon's New Atlantis: New Interdisciplinary Essays*. Ed. Bronwen Price. New York: Palgrave, 2002. 106-128. Print.

■ Abstract

A Critique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 Baconian Utopia and *New Atlantis*

Ko, Kang YI
(Yonsei Univ.)

Building on Marina Leslie's definition of utopia as “a critical practice investigating the historical subject in the interrogative mode,” this essay argues that Francis Bacon's utopian text, *New Atlantis* (1627), explores the limitations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The elite scientists of New Atlantis fail to solve the under-population problem and are ultimately forced to admit that their scientific knowledge cannot explain all natural phenomena. This paper also explores how Bacon's text examines ethical and political problems that scientocracy can cause. In the virtual society that Bacon presents, a few elite scientists marginalize non-scientists populace and dominate its political system. *New Atlantis* illustrates how the dominant elite scientists control the information regarding scientific discoveries, and abuse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ir own profit and power. In doing so, Bacon critically reflects on the possible disaster that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might bring about in the future.

■ Key words

New Atlantis, utopia, science, technology, scientocracy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8년 3월 15일 ○심사일: 2018년 3월 22일 ○게재일: 2018년 4월 30일

원시주의를 넘어서

: 애론 더글러스(Aaron Douglas)의 초기 삽화 작업에 나타난
인종적 정체성 문제와 할렘 르네상스

김진아

I. 서론

할렘 르네상스는 ‘뉴 니그로(New Negro)’ 운동의 맥락에서 뉴 니그로 예술 운동으로도 일컬어진다. 학자에 따라 그 출발과 종결 시기는 조금씩 달리 규정되지만, 길게는 NAACP(Nation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가 결성되는 1910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이다.¹⁾ 그러나 뉴 니그로 운동이 우선적으로 정치적 활동과 사상적 차원에서 새로운 인종적 자각과 자립을 촉구해나 갔다면, 할렘을 중심으로 문학, 연극, 음악, 무용, 미술 전반에 걸쳐 뉴 니

1) 뉴 니그로 운동은 1890년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린치에 맞서 일어난 투쟁에서부터 비롯되어, 1910년대에 백인순응주의의 극복과 새로운 인종적 자각을 강조한 민권 쟁취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확산된다. 1920년대 들어 이러한 인종적 자각과 경제적 호황으로 인한 후원과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문화예술 생산과 활동이 유례없이 왕성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이 발발하면서 문학과 예술 후원이 감소되고 할렘 르네상스 관련 출간물과 예술 현상 역시 급격히 그 파급력이 축소되어 갔다(Cruz 39). 1935년 할렘 폭동 또는 1940년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의 『토박이』(*Native Son*) 이후로 할렘 르네상스가 막을 내렸다고 보기도 한다(천승걸 115; 김진아 135).

그로의 새로운 표상과 모더니즘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실험은 재즈 시대라고도 불리는 1920년대 특히 1920년대 중후반에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를 할렘 르네상스 또는 니그로 르네상스라 일컫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재즈와 블루스 등의 대중음악 분야 외의 할렘 르네상스 시대의 아프리카계 미국 문학은 오래 동안 정전적 기록에서 저평가되어왔으며, 최근 2,30년 간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들의 작업에 대한 조명이 급속도로 증가해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미술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애론 더글러스(Aaron Douglas, 1899~1979)는 할렘 르네상스의 도래를 알리는 대표적인 미술가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벽화 <니그로 삶의 면모들>(Aspects of Negro Life, 1934)은 대공황 시기와 할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현재 미국의 여러 미술사 교재나 다문화 관련 책자들에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이르러서야 미국 여러 지역으로 순회하는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애론 더글러스: 아프리카계 미국인 모더니스트>(Aaron Douglas: African American Modernist)²⁾—이 열릴 정도로, 그의 작업 전반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주목이 뒤늦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³⁾ 특히 대공황기의 벽화 작업으로 유명한 더글러스가 실제 할렘 르네상스 전성기에 주로 작업했던 장르는 잡지와 책자의 삽화, 표지, 광고 포스터 등의 디자인 작업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는 알레인 로크(Alain Locke)가 엮어낸 『뉴 니그로: 해석』(*The New Negro: Interpretation*)(1925)의 삽화 작업에 참여했으며, 니그로 운동의

2) 2007년 캔자스 대학의 스펜서 뮤지엄에서 열렸으며, 이후 내쉬빌의 시각미술 퍼스트 센터(The First Center for the Visual Arts),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아메리칸 아트 뮤지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 11월30일 뉴욕 할렘의 쉰버그 흑인문화연구센터(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에서 열렸다(Knappe 121-30).

3) 이 전시의 도록(2007)에 실린 글들과 에이미 켈쉬키(Amy Kirschke)의 저서(1995)가 더글러스의 작업에 집중적으로 주목한 미술사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매개체가 되었던 잡지들인 『더 크라이시스』(*Crisis*), 『오퍼튜니티』(*Opportunity*), 『파이어!!』(*Fire!!*) 등과 랭스턴 휴즈(Langston Huger), 카운티 컬런(Countee Cullen), 제임스 웰던 존슨(James Weldon Johnson), 클로드 맥케이(Claude McKay), 제시 레드먼 파우셋(Jessie Redmon Fauset)과 같은 할렘 르네상스 문인들의 출간물을 위한 작업을 했다. 이러한 출간물의 삽화나 표지, 포스터 등의 디자인 작업이야말로, 벽화나 회화 등의 독립적인 미술가로서의 행보에 앞서 상호학제적 접근 즉 시각문화와 문학, 음악 사이의 활발한 교섭 과정을 통한 아프리카계 미국 예술 운동의 절정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선 더글러스가 1920년대 뉴욕으로 이주, 정착하는 과정의 전기(biography)를 간략히 추적하며 아프리카계 미국 미술가로서 당면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어떠한 형식적 실험과 변화를 모색해왔는지 살펴본다. 특히 『뉴 니그로』책과 할렘의 주요 잡지들인 『더 크라이시스』, 『오퍼튜니티』, 『파이어!!』, 그리고 몇몇 문인들의 출간물에 등장하는 삽화와 표지 디자인의 형식과 주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뉴 니그로, 원시주의(Primitivism), 모더니즘 등 당대의 문화적 담론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더글러스 특유의 혼종적인 양식과 뉴 니그로를 둘러싼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서구 모더니즘 미학의 한 갈래로서의 원시주의는 지난 30여 년간 탈구조주의적 접근에 영향을 받은 일련의 비평이나 다문화주의와 탈식민주의 등의 담론에서 식민주의적 시각으로 타자를 대상화하고 재현했다는 평가로 못매를 맞아왔다. 또한 할렘 르네상스 예술이 백인 후원자 층에 다분히 의존하였다는 점을 지목하여 자립적 예술 운동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할렘 르네상스 문학과 예술품들이 백인의 취미와 욕망에 부응하는 것이었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필자는 당대의 원시주의 담론에 내재한 타자화의 위험과 폐단, 서구와 원시 또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작용하는 권력의 실행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할렘 르네상스의 작품들을 백인의 시선

에 기댄 생산이라는 측면에만 주목한다면, 이러한 응시 속에서도 그에 대해 균열을 발생시키고 차이를 만들어갔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들의 다양한 도전과 결과물을 꼼꼼히 비평해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고는 원시주의적 수용이면서도 동시에 결코 주류 미학의 원시주의로만 해석될 수 없는 더글러스 작품에서 발견되는 원시(성), 원시주의, 모더니즘, 인종적 정체성 등의 여러 쟁점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성(in-betweeness)’에 주목한 캐롤린 괴서(Caroline Goeser)의 시각은 필자의 관점에 도움을 주었다(17-56). 괴서는 더글러스의 삽화가 ‘원시주의자(the primitivist)’와 ‘원시(the primitive)’간의 이분법적 구분을 붕괴시키면서 양자를 오가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근대적 정체성을 구현해갔다고 평했다. 필자 역시 더글러스 작품에 표현된 모순적이면서도 혼종적인 성격에 주목하는 문화비평적 연구를 병행하되, 더글러스의 할렘으로의 이주 과정과 작품의 형식적/주제적 변모 과정에 대한 미술사적 추적을 중심으로 더글러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재현의 문제를 풀어 나갔는지 고찰할 것이다.

II. 전환점: 할렘으로의 이주

더글러스는 1899년에 태어나 캔자스의 토페카(Topeka)에서 성장하였고, 고등학교 때 학교 신문에 삽화를 실는 등 미술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후 남부의 많은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열차를 타고 동북부 대도시 노동자로 옮겨가기 시작했던 시기에, 그도 난생 처음으로 고향 밖을 벗어나 디트로이트와 뉴욕 주 이리호 근처에서 막노동 일을 했다(Kirschke 3-5; Ragar 77).⁴⁾ 그러나 미술 대학에 꼭 진학하리라 다짐했던 열정 가득

4) 디트로이트에서는 처음에는 회반죽을 섞고 나르는 일을 하다가 곧 캐딜락 회사에서 라디에이터의 뜨거운 주물모래가 식으면 이를 긁어 치우는 일을 했다. 이

한 흑인 청년은 곧 학비를 마련해 네브래스카 주립대학 링컨 캠퍼스에 입학하였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대학 최초의 미술학부 학생이 되었다(Earle 11). 그리고 1922년 졸업하여 1923년 가을부터 캔자스시티의 엘리트 흑인 학교인 링컨 고등학교에서 1년 남짓 미술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⁵⁾

그는 뉴 니그로 운동의 주요 잡지들이었던 『더 크라이시스』와 『서베이 그래픽』(*Survey Graphic*)을 자주 접하면서 흑인 지성인들과 예술 활동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었던 할렘을 선망하고 있었는데, 특히 1925년 3월에 발행된 『서베이 그래픽』 특별호는 더글러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했던 저명한 흑인 철학자인 로크가 게스트 에디터로 참여해 출간하였는데, 이는 “할



[도판 1] 라이스, 『서베이 그래픽』 표지, 1925년 3월호.

렘: 뉴 니그로의 메카”(Harlem: Mecca of the New Negro)라는 제목아래 총 103쪽에 걸쳐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문학예술 활동을 집결시키는 기념비적 작업이었다. 로크 자신은 「뉴 니그로로 들어서며」(“Enter the New Negro”)라는 글을 실었으며, 뉴 니그로 운동의 핵심 멤버들인 W. E. B 두보이스(W. E. B. Du Bois), 제임스 웰든 존슨, 랭스턴 휴즈, 카운티 컬런, 아서 쉰버그(Arthur Schomburg) 등의 시와 에세이 등을 포함했다. 특히 존슨은 「할렘을 만듦」(“The Making of Harlem”)이라는 글에서 “할렘은 단지 식민지 또는 공동체가 아니다. 이것은 도시 안의 도시, 세계에서 가

리호(Lake Erie) 근처에 위치한 에섹스 글라스 컴퍼니의 마루에서 유리 조각들을 치우며 토요일 밤마다 공장 굴뚝을 청소하기도 했다.

5) 본고에서 다룬 더글러스의 뉴욕 도착 전과 직후의 전기에 대해서는 Lewis 60, Kirschke 1-31, Ragar 75-85, Knappe 207-34 등을 참조.

장 위대한 니그로 도시이다”(it is a city within a city, the greatest Negro city in the world. 685)라 적고 있는데, 이는 할렘을 중심으로 한 문예운동의 도래를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이 특별호는 재발행본까지 매진되면서 흑인 사회에서 큰 화제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더글러스는 무엇보다도 그 표지를 장식했던 “프리트 위놀드 라이스(Fritz Winold Reiss)의 훌륭한 흑인 초상화”(Kirshche 26 재인용)에 깊이 감화되었다고 회고하였다.[도판 1] 독일 출신의 백인 미술가인 라이스는 가수인 롤런드 헤이즈(Roland Hayes)를 특별히 이상화하지 않고 두터운 코와 입술, 검은 피부, 이마의 주름 등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었는데, 이러한 헤이즈의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뉴 니그로’로서의 성취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시각적 상징이 되었으며, 특히 더글러스는 미술이나 대중매체 모두에서 전형적인 미의 기준에서 배제되거나 경시되었던 흑인의 얼굴 그대로를 주인공으로 그려낸 당당한 면모에 이끌렸다.

또한 할렘 특별호가 출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글러스는 뉴 니그로 운동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찰스 S. 존슨(Charles S. Johnson)의 비서 에텔 레이(Ethel Ray)에게 편지 한 장을 받게 된다. 그녀는 캔자스시티에서 흑인민권단체였던 NUL(National Urban League, 전미도시연맹)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던 시기에 더글러스와 그의 작업을 접하게 되었다. 그 후 레이는 1924년 뉴욕으로 건너가 존슨의 비서로 일하게 되었고, 『서베이 그래픽』 특별호의 삽화 작업을 하고 있던 라이스를 만나게 된다. 레이 는 라이스로부터 백인 미술가로서 할렘 특별호 작업을 맡은 것에 큰 부담을 느끼며 니그로 미술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더글러스의 스케치를 보여주었다고 한다(Hutchinson 398 재인용). 라이스는 이러한 사람이 뉴욕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고, 곧 레이는 더글러스에게 동부로 오라고 제안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존슨은 “캔자스시티에서 고등학교 교장이 되기보다 뉴욕에서 설거지를 하는 편이 낫다”(Ragar 82 재인용)고 적게 했다. 이는 지방 고등학교 미술 교사직을 폄하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젊은

더글러스에게 보장된 생활에 일찍 안착하기보다 할렘으로 건너와 화가로서의 꿈을 펼치며 뉴 니그로 예술운동의 교두보가 되어보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할렘 특별호가 발행된 지 3개월 후 더글러스는 마침내 뉴욕에 도착한다. 그는 찰스 존슨의 소개로 라이스를 만나게 되었고, 라이스는 첫 만남에서 즉시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한다. 또한 라이스는 그의 스튜디오에서 미술 학교를 열고 있었는데 더글러스가 2년간 수학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고, 가을 수업 시작 전까지 매주 더글러스의 작업을 함께 검토하고 비평하는 시간도 제공해주기로 하였다. 라이스는 1913년 독일에서 이주해 온 작가로 당대 유럽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입체파, 야수파 등 유럽 모더니즘의 영향을 이어 받았다(Schneck 102-3).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상업미술 분야인 실내 인테리어와 잡지의 표지와 삽화 등의 디자인 작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게 되는데, 추상적 성격이 강한 모더니즘 즉 입체파, 미래파, 아르데코 등의 성격을 띠는 최신 경향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그는 원주민과 광대한 서부 개척에 대해 낭만적 이상을 품고 있었으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초상화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초상화들은 그의 모던한 경향의 디자인 작업과는 대조적으로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완성되었다. 또한 그는 뉴욕 대학에서 벽화 수업을 지도하면서 기차역, 호텔, 극장 등에 종종 인종적, 민족적 그룹을 담은 벽화를 그려내었고(Kirschke 64), 로크와 존슨을 비롯하여 할렘 르네상스 문인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뉴 니그로 운동의 핵심 매개체가 되었던 잡지들에 삽화도 기고하고 있었다. 더글러스에게 충격을 주었던 『서베이 그래픽』의 표지와 삽화의 인물 초상들도 원주민 초상화에서처럼 사실주의 기법으로 완성했다. 라이스는 그동안 미술사적으로는 크게 알려져 온 작가는 아니지만, 이처럼 구상과 추상 작업 모두를 능숙하게 다루고 순수 미술과 상업미술 작업, 백인 미술계와 흑인 미술계 양자 모두에 적극 참여하며 1920년대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뉴욕 시각문화에 기여했던 진정한

멀티플레이어라 할 수 있는 작가였다.

라이스와의 만남은 더글러스 작업의 양식적, 주제적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김진아 145-46). 그는 더글러스에게 자신의 인종이 속한 문화적 정체성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더글러스는 그 때까지 인종적 주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어본 적이 없었다. 할렘에 오기 전 그가 그렸던 회화 작품은 전해오는 것이 없지만, 전통적 미술 교육에 입각한 사실주의적 경향의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예를 들어 이후 『더 크라이시스』 지 1926년 11월호 표지 작업에서 인물을 3차원적으로 그려낸 방식은 그가 전통적 모사에도 익숙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는 라이스의 할렘 특별호 초상화를 연상시키면서도 입체파적인 각진 면들의 활용이 결합되어 좀 더 모던한 형식을 띠고 있다.[도판 2]

그러나 라이스는 더글러스에게 아카데미 교육 방식에 입각한 사실주의



[도판 2] 더글러스, 『더 크라이시스』 표지, 1926년 11월호.

적 그림 대신에 입체파와 반추상 등 모던아트 형식을 제안했고, 주제와 소재 차원에서는 아프리카 모티브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삶 즉 이집트와 아프리카 미술, 미국 니그로의 춤, 민속 등을 연구해 보라고 조언한다(Kirschke 26; Campbell 28). 이러한 라이스의 태도는 당대 할렘의 문학과 예술 후원자들과 유사한 주문으로, 원시주의는 백인 후원자들이 흔히 할렘의 문인과 시각 문화에서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라이스는 더글러스를 제자로 후원하기는 했지만,

6) 토페카 고등학교 시절 학교 연보에 실렸던 더글러스의 표지 디자인은 단순하고 모던한 감각도 보여준다. 한편 할렘 르네상스가 저물어갔던 1930년대 중반 경 작업한 <창문 닦기>(Window Cleaning, 1935)와 같은 사실주의적 회화도 있다.

할렘의 문인들과 대등한 예술가로서 교류하며 할렘의 초기 예술 발전에 생산자로서 직접 기여해나갔던 일원이었으며, 다른 백인 후원자들이 기대하곤 했던 야만성이나 순수함의 표출로서의 단순한 원시주의를 중용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백인 미술가로서 할렘 르네상스 특별호의 삽화를 맡게 된 것에 부담을 느끼며 할렘의 예술 생산에서의 진정한 주역과 자각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젊은 제자 더글러스가 곧 그 역할을 맡아 주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더글러스가 아프리카 문화와 모던한 양식에 적극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라이스의 조언 뿐 아니라 할렘 르네상스의 양대 사상가이자 문인으로 일컬어지는 로크와 두보이스의 영향도 컸다. 물론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데에도 라이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할 수 있다. 한편 로크는 더글러스가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베이 그래픽』 특별호 성공에 고무되어, 이를 확장시켜 『뉴 니그로: 해석』(*The New Negro: An Interpretation* 1925)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두보이스가 할렘 르네상스 1세대 문인으로서 보다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차원에서 범아프리카주의를 주창하며 니그로 운동의 선도자로 활약하였다면, 하워드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로크는 문예 비평의 차원에서 할렘 르네상스를 선도하였으며 특히 전문적인 비평이 부재하던 미술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할렘 르네상스의 미학적 담론을 생산해나갔다.

라이스는 『뉴 니그로』에 실릴 초상화들과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며 자신의 작업 뿐 아니라 여러 작가들의 도안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 그 중 새 제자가 된 더글러스에게 가장 많은 드로잉과 장식 부분을 맡겼다. 이 책은 곧 할렘 르네상스 또는 뉴 니그로 예술 운동의 성격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더글러스의 경력에 큰 디딤돌로 역할하게 된다. 로크는 이 책에 실린 글 「조상 예술의 유산」(“The Legacy of the Ancestral Arts”)에서 특히 찰스 킨(Charles Keene)과 더글러스를 지목하며 “[이들은] 단순히 고립된 재능으로서의 출현이 아니라 촉망되는 하나의 미술 운동의 시작을 보

여 준다”(266)라고 적었는데, 실제 이후 잡지와 문인들의 출간물을 위한 디자인 주문이 물밀 듯이 몰려오게 된다.

한편 더글러스는 찰스 존슨의 『오퍼튜니티』에 가끔 삽화를 제공하며 바틱 천 공장에서 초로 염색하는 일을 하거나 아파트먼트 호텔에서 웨이터 일을 하며 라이스의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는데, 라이스의 추천으로 『더 크라이시스』의 편집장 두보이스를 만나게 된다. 두보이스는 그의 고충을 듣고는 곧바로 『더 크라이시스』의 우편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프리카적 디자인을 발전시켜보라고 제안했다. 더글러스는 찰스 존슨의 『오퍼튜니티』와 UNL 쪽에서 서운할 수 있는 일이라 우려하면서도, 『더 크라이시스』에서 일하게 되어 기뻐했다.⁷⁾ 오전에는 라이스의 수업에 참여하고 점심 식사는 건너뛰고 오후에는 우편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드로잉을 하는 등 쉴 새 없는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되었지만, 훗날 더글러스는 이 시기의 작업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흥분된 순간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리고 『더 크라이시스』지 1926년 2월호에 첫 표지 디자인을 싣게 되면서부터 여러 표지 디자인 작업을 꾸준히 맡게 되었다.

어떻게 뉴욕에 갓 도착했던 젊은 더글러스에게 이러한 큰 기회들이 주어지게 된 것일까. 할렘은 1910년대 이후 급증한 남부와 그 외 지역에서 이주해온 흑인들의 도시 속 도시, 즉 흑인 이주민들의 집합소가 되고 있었고, 1920년대 초에는 아프리카계 문인, 음악가, 시인, 사상가들이 할렘을 중심으로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독 미술 분야에서는 할렘에서 활동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들이 극히 드물었다. 이전 시대의 헨리 오타와(Henry Ottawa) 같은 선구자의 뒤를 이어 여성 조각

7) 두 잡지는 뉴 니그로 운동과 할렘 르네상스를 견인했던 쌍두마차 격인 매체들이었다. NAACP의 『더 크라이시스』는 다양한 흑인 문제와 관심사를 보도하고 개선 촉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흑인민권운동과 관련하여 최대 규모의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었다면, 『오퍼튜니티』는 좀 더 학구적이며 문학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

가 메타 보 워릭 풀러(Meta Vaux Warrick Fuller)⁸⁾ 등이 한 때 큰 이목을 모은 바 있지만 풀러는 곧 활동을 거의 멈추었고, 이들의 활동 무대도 뉴욕은 아니었다.

로크가 「조상 미술의 유산」에서 지적했듯이, 아프리카계 미국 예술 중 특히 조형예술분야는 조상의 맥이 끊어진 채 가장 활동이 저조한 장르가 되어 있었다.

음악과 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춤이 아메리칸 니그로의 지배적인 예술이어 왔다. 이러한 강조는 [실제] 아프리카 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조형예술과 공예가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장식과 디자인 미술의 위대한 원천 중의 하나여 왔다. [그러나]... 아메리칸 니그로는 그의 조상 예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온 증거가 거의 없다. 이는 이들에게서 이전 문화의 기술적 요소를 뿌리 채 뽑아간 노예제라는 무례한 이식 때문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니그로는 그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미학적 부어를 정신적 유산으로 가져왔다. (254).

그리고 로크는 이러한 정신적 유산에 주목하여 뉴 니그로 조형 예술의 부흥을 촉구한다. 후일 더글러스도 이와 유사하게 “[아프리카에서의] 건축, 회화, 조각 등에서의 독창적 스타일들의 형성으로 정점을 이루었던 창조적 표현의 거대한 상실”(Kirshche 50 재인용)이라 언급하면서, 동시대

8) 필라델피아에서 미술 교육을 받고 20세기 전환기에 파리로 건너가 수학하면서 로맹과 파리를 찾았던 두보이스를 만나게 되었다. 로맹의 격려와 인정을 받으며 아프리카계 여성 미술가로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명성을 얻는다. 그 후 미국 필라델피아로 돌아와 미술계의 인종과 여성 차별의 벽을 체감하기도 하지만, 할렘 르네상스의 모태 작품으로 거론되곤 하는 <깨어나는 에티오피아>(Ethiopia Awakening)(1910)를 제작한다. 그러나 같은 해 창고 화재로 16년 동안 작업했던 작품들이 모두 불타버리고 난 후 미국에서의 활동은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파리에서와는 달리 미국 주류 미술계에서는 그녀의 작업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많지 않았으며 결혼 이후 세 아이의 양육과 작업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어려웠다(“Fuller, Meta Warrick (1877-1968)”; Bontemps and Fonvielle-Bontemps 13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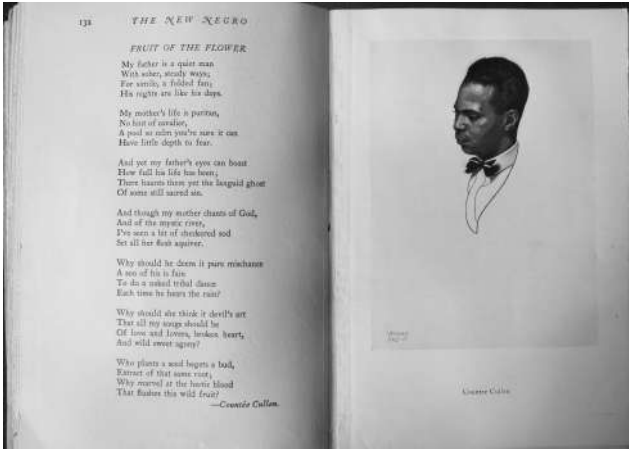
할렘의 미술가로서 아프리카의 조형예술을 되돌아보고 이를 뉴 니그로의 재현에 어떻게 연결시킬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편 새로운 흑인 문학과 예술을 집결하고 선언하는 저술 작업에서 독일 출신 백인 미술가인 라이스가 디자인을 총괄했었다는 점에서도 할렘의 사상가와 문인들이 새로운 흑인 미술가를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지 추측해볼 수 있다. 라이스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흑인 미술가의 출현을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었다. 더글러스는 흑인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미술대학 과정을 마쳤으며, 졸업 후 캔자스시티의 명문 흑인 고등학교의 강사이자 미술가로서 야심찬 포부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당시 더글러스의 스케치를 받아보고 흡족해한 라이스의 반응과 뉴욕에 도착한 후 작업했던 최초의 디자인을 보면, 더글러스가 탄탄한 드로잉 실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더글러스야말로 당시의 할렘 문예 운동에서 결핍된 분야를 메워줄 인재상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Ⅲ. 『뉴 니그로』에 나타난 더글러스의 삽화들: 아프리카로

이 책은 할렘 르네상스 또는 뉴 니그로 문예를 선도하는 글들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초판본의 인화지에 컬러로 인쇄되어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초상화들과 흑백 텍스트 속의 장식 디자인이야말로 독자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으면서 시각적 현상으로서의 뉴 니그로 운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로크는 이 책에서 라이스의 초상화에서처럼 뉴 니그로는 ‘오울드 니그로’(the Old Negro) 즉 백인의 박애주의적 보호에 의존하거나 반항이나 감정으로 맞서는 흑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풍자의 대상이 아닌 자아의 모습으로 진지하게 묘사되고 있다고 강조한다.⁹⁾

9) 로크와 『뉴 니그로』에 관해서는 필자의 글 일부(김진아 140-42)를 참조하였고



[도판 3] 라이스, 카운티 컬른의 초상화, 『뉴 니그로』, 1925년.

라이스는 『서베이 그래픽』에 실렸던 초상화들과 함께 새로 글을 실은 저자의 초상화들을 추가하였으며, 엄마와 아가, 여교사들, 도서관 직원 등 여러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초상[도판 3, 4]을 포함시킴으로써, 뉴 니그로 르네상스 운동을 이끄는 주인공들 뿐 아니라 사회 속의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하는 ‘뉴 니그로’의 모습과 역할을 각인시켰다. 특히 여성 인물들의 초상도 상당 수 등장하고 있어 시대를 앞서 갔던 면모를 보인다. 반면 더글러스는 양식적으로는 이와 대조적으로 모던하면서도 아프리카적 모티브를 활용한 반추상 형식의 디자인을 제시하며, 텍스트에 생생한 시각적 리듬감을 부여한다.



[도판 4] 라이스, 도서관 직원들, 『뉴 니그로』, 1925년.

그 외에 내용을 추가하여 발전시켰음.

라이스와 더글러스의 형식적 대조 즉 사실주의 대 추상은 주제적으로 도 뉴 니그로의 미학의 주요 두 소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사실주의적 초상화가 할렘의 사람들 즉 동시대를 지시한다면, 장식 디자인은 흑인 예술의 문화적 뿌리로서의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였다. 아프리카 조형 예술에 대한 관심은 책 속에 삽입되어 있는 바울레(Baoulé), 뷰송고(Bushongo), 다호메이, 수단, 아이보리코스트 등에서 발견된 조각과 마스크 사진들에 직접적으로 표명되어 있으며, 그 조형적 특징을 활용한 간단한 아르데코 식 문양들도 본문 속에 삽입되어 있다(김진아 146).

이러한 디자인은 ‘아프리카로 돌아가라’는 로크의 미학관을 잘 요약한다. 그는 앞서 언급했듯이 음악과 춤 분야에 비해 저조했던 아프리카계 미국 미술 분야에 주목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이야말로 아프리카 미술의 조형적 우수성과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인지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동시대 유럽의 첨단적인 모던 아트에 끼친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아프리카적 모티브와 주제를 사용한 모던한 양식이야말로 새로운 ‘인종적 초상과 표현’ 즉 뉴 니그로의 표현 양식으로 가장 적합한 형식이라 강조하며 할렘 르네상스 미술의 ‘모더니즘’에 의미를 부여한다.

유럽의 조형 예술의 표현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 내려오면서 결국 테카당에 직면하고 더 이상 새로운 형태들을 잉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그 예술적 발견이 이루어졌다. (258).

로크가 지적한대로 아프리카 조각상은 실제로 20세기 초 피카소, 모딜리아니, 샤갈, 마티스 등과 같은 모던 아트의 대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1920년대 미국 주류 상업 디자인 분야의 아르데코와 같은 스타일에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로크의 말은 양가적으로 해석된다. 실제 백인 미술가들에게 아프리카는 타락한 문명에 대한 구원의 장소

로 영감이 고갈된 서구 미술에 대한 새로운 감흥과 영감의 근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서구 문학과 미술에서 확산되고 있었던 모더니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원시주의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라이스도 이러한 모던 아트의 흐름에 동참하던 작가로 더글러스에게 모던한 형식의 미술과 아프리카를 돌아보라 조언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아프리카적 모티브와 주제에 대한 관심은 글자 그대로 아프리카 미술을 발전시키라는 맥락이 아니었으며, 백인 중심의 서구 모더니즘이나 프리미티비즘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로크는 흑인 미술가들이 유럽 모더니즘의 발전에 근간이 되었던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진정한 후계자가 됨으로써 니그로 미술 학파를 형성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미술이나 스테레오타입을 넘어서는 “니그로 주제”와 “명백하게 새로운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67). 이는 흑인이 아프리카의 후예이기에 아프리카미술의 정통적 후계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상의 미술을 지금이라도 직접 연구하여, 그간의 백인 미술가들에 의한 차용 즉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낭만주의적 환상에서 비롯된 접근이나 아프리카 조각에 대한 피상적인 형식적 실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를 가져와야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리할 때 전략적으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이 당대 미국 미술 즉 전위적인 모던 아트의 흐름을 이어받으면서도 그에 대한 차이와 깊이를 만들어감으로써 미국 미술에 새로운 기여를 해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탈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아프리카 조상 미술 즉 문화적 뿌리에 대한 추구는 정체성의 현존을 가정하는 본질주의적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당대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보면, 아직 투표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열등한 시민으로 간주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민족적, 인종적 자각과 주제 의식 함양은 정치적 실천과 함께 절실하게 요청되었던 당면 과제였고, 이를 위해 백인에 의해 뿌리 뽑혀진 과거 또는 잃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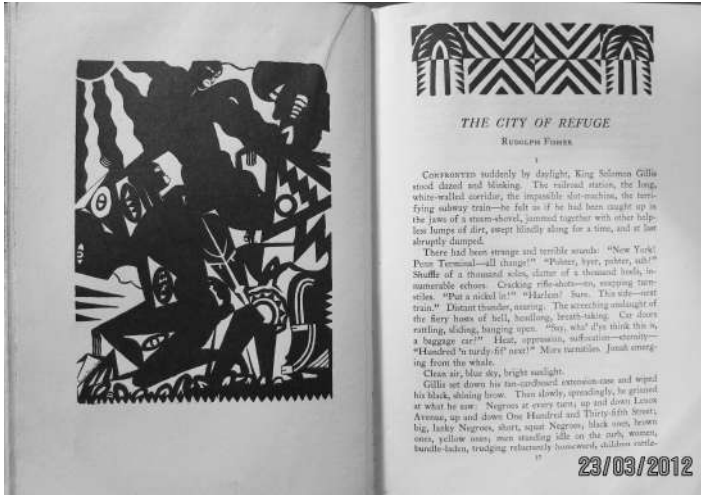
버린 고향의 문화와 예술 유산을 돌아보고 연구해보는 과정은 우선적으로 거쳐 가야 했던 통과 의례 과정이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며 더글러스는 이 책에서 뉴 니그로 정체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적 요소에 좀 더 방점을 두면서도 동시대 미국에서의 모습들도 반영하며 실험해 나갔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인 모티브로 대략 세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였다. 첫째 서아프리카 마스크 또는 조각 이미지를 응용한 추상적 디자인 요소나 아프리카를 연상시키는 원시적 배경, 둘째 이집트 문명 관련 도상, 셋째 동시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모습이다. 총 11편의 삽화와 장식 디자인이 실려 있는데, 각 화면에 한 지역권 관련 조형 요소나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경우와 세 지역권의 모티브들이 모두 융합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

형식적 차원에서는 라이스의 디자인 즉 입체파적이고 모던한 추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불규칙한 직선과 예각의 활용이 엿보인다. 또한 지그재그 문양과 동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의 작업에서 발전되는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당대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상업 미술과 크라이슬러 빌딩의 지붕과 같은 아르데코 스타일에 더욱 가까운 형태이다.¹⁰⁾

우선 더글러스는 소재 면에서 서아프리카적 형태와 이집트적 형상을 반영하였으며, 춤과 음악 등 아프리카의 의례에서 발견되는 모습들을 창조적으로 변형하였는데, 특히 <부활>(Rebirth)과 <사드지>(Sahdji) 등은 아프리카적 제의와 춤 등에서 연상되는 디자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

10) 아르데코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1920~30년대를 풍미했던 큐비즘적인 양식을 보이는 장식 미술이라 할 수 있다. 세기 전환기의 흐르는 듯하며 섬세한 곡선을 위주로 했던 아르 누보(Art Nouveau)의 영향을 받아 유동적인 선이 등장하면서도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하학적인 형태가 두드러지며 야수파적인 색, 지그재그와 동심원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래픽 디자인이 등장하였다. 기계의 시대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1920년대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아프리카와 이집트 미술의 특징을 차용하는 등 원시주의적인 모티브를 차용하기도 하였다.



[도판 5] 더글러스, <부활>, 『뉴 니그로』, 1925년.

<부활>[도판5]은 루돌프 피셔(Rudolph Fisher)의 「피난의 도시」(“The City of Refuge”) 글을 여는 삽화였다. 글의 도입부에는 뉴욕의 펜실베이니아 터미널에 도착하는 수천 명의 구두 소리가 묘사되면서 피난의 도시, 이주의 도시인 할렘으로의 입성이 마치 스케치하듯 표현되고 있다. “어디를 보나 니그로들, 레녹스 아베뉴 위아래로, 154번가 위아래로 ... 흑색의 니그로, 브라운색 니그로, 옐로우 니그로”(Fisher 57)로 가득하고 부산한 할렘! 하지만 삽화는 이러한 동시대 할렘의 소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구불거리는 태양빛과 지그재그 문양을 배경으로 하여 둥근 곡선 몸매의 남성과 좀 더 각진 형태의 여성이 서로 대각선 축을 형성하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오른쪽 상단의 둥근 흑인 두상과 하단 모서리의 두상은 흑인 인물 또는 아프리카 조각과 제의에서 연출되는 메이크업을 결합해 그려졌고, 그 바로 옆쪽에 등장하는 인체의 엉덩이 부분의 지그재그 아르데코 패턴은 동시대 쇼걸의 짧고 풍성한 미니 팬츠를 연상시킨다. 아직까지는 아프리카 가면과 흑인 스테레오 타입에 머물러 있는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다소 복잡한 구성으로 후일 더글러스 화면에 창출되는 특유의 균



[도판 6] 더글러스, <사드지>, 『뉴 니그로』, 1925년.

형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옛 아프리카에서 동시대로 이어지는 춤과 의례의 활기를 통해 할렘 르네상스를 축하하는 듯한 축제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또 다른 아프리카적 제의를 참조하고 있는 삽화로는 장례 행렬에서 모티브를 따온 <사드지>[도판6]가 있다. 리처드 브루스 누젠트(Richard Bruce Nugent)의 동명의 글에 실린 삽화로, 검고 우아한 몸매의 큰 입술을 지닌 아름다운 사드지 즉 부족장의 부인이

남편의 장례 행렬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사드지의 몸과 귀걸이, 오른쪽의 남성 두상의 측면 형태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대륙의 인물과 문화의 지시자이다. 한편 실루엣 곡선으로 처리된 사드지의 몸매는 19세기 호텐토트의 비너스(Hottentot Venus)와 같은 전형을 일부 연상하게도 하지만 이를 극복한 형태로 늘씬하면서도 건강한 근육질의 여인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부족 우상과 같은 형태가 오버랩 되어 있어 주인공으로서의 당당한 면모와 권위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부활>에서처럼 내리쬐는 태양빛과 이집트를 연상시키는 피라미드 형태가 등장하고 있고, 특히 춤을 추면서 무언가를 나르는 세 미망인의 유려한 측면 형상과 그 반복적 이미지는 이집트의 노예들과 벽화 양식을 참조한 것이다. 이러한 소재와 형식의 차용은 이집트의 찬란한 고대 문명을 사하라 이남의 부족 문화와 연결시키면서 아프리카 문명 전반에 대한 위상과 자존심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부활>, <사드지>, <아프리카의 정신> 등이 ‘아프리카로의 회귀’에 집중되어 있다면, 기독교와 동시대적 미국의 모습을 더 강조하는 이미지로

는 「니그로 정신들」(“The Negro Spirituals”)이라는 글의 오프닝 삽화인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An' the Stars Began to Fall)[도판기가 있다. 형식적으로는 직선에 가까운 리듬감과 균형감이 돋보이고, 눈동자가 생략된 얇고 가는 눈이 등장하는 등 <부활>과 <사드지>에서 보다 훨씬 단순화된 형태로 그려져 있어 보다 담백한 민속 판화에 근원을 두고 있다. 방사상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담은 검은 도형들은 뉴욕의 마천루를, 화면 오른쪽 하단 모서리



[도판 기더글러스,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뉴 니그로』, 1925년.

에 부분적으로 그려져 있는 니그로 남성과 여성은 재즈 바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추고 있는 듯한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어, 이러한 별빛들과 트롬본 소리가 마치 그 아래 펼쳐진 도시인 할렘을 축복하고 있는 듯하다.

이 때 어두워진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은 성경 구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 착안하였다(Kirschke 73). 따라서 화면 왼쪽의 상단 모서리에 부분적으로 그려져 있는 기하학적 얼굴 형태는 하나님의 얼굴이며, 그 아래 트롬본을 든 채 당당하게 지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은 인물은 성모에게 예수의 수태를 알리고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천사장 가브리엘일 것이다. 기존의 회화나 삽화에서 항상 하얀 피부에 금발 머리, 파란 눈을 가진 미남으로 재현되어 왔던 하나님과 천사의 모습이 이제는 검은 피부의 니그로 형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백인 중심의 기독교에 대한 의문과 저항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실제 1920년대에 들어 여러 할렘 문인들의 글에서 흑인 예수 또는 검은

피부의 예수에 대한 언급이 종종 등장한다. 그러나 아프리카로의 회귀를 강조한다면, 할렘 특별호에서 콘라드 베르코비치(Konrad Bercovici)가 질문했듯이 “왜 흑인은 아프리카의 신앙이나 종교로 돌아가지 않는가?”(679)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아프리카의 부족 신앙이나 종교로 돌아가자 외친 할렘의 주요 사상가나 문인은 없었다. 기독교는 당대 미국 흑인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생활의 근간이 되어 있었으며, 이미 미국 흑인 사회에서 매우 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 기독교 수용은 일종의 식민주의적 이식이었으며, 흑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백인 지배 체제 즉 노예제에 동화되어 고된 훈련과 노동에 순응하게 만드는 주요 기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고난과 기독교의 내세 구원 사상은 미국에 건너온 흑인들에게 현세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 희망이 되었으며, 교회나 기독교적 집회들은 같은 처지에 놓인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는 장이 되면서 흑인들의 인권회복과 문화신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는 식민주의적 동화 장치였으면서 동시에 삶의 희망이자 평등과 자유를 향한 의식 전환의 기반으로 작용한 기독교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흑인들의 백인 기독교에 대한 질문과 전복의 과정은 뉴 니그로 문화의 구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기독교를 저버리거나 타종교로 개종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전 시대에서처럼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백인 신에게 경배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백인 중심의 기독교를 수정하여 흑인의 언어와 해석이 닮길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성경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되 급진적인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예를 들어 켈른은 할렘 특별호에 실렸던 「유산」(“Heritage”)이라는 시에서 “내게 아프리카는 무엇인가?”(What is Africa to me)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신화와 스테레오타입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한다(674-75). 과거의 낭만적인 아프리카와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적 아프리카 사이에서 분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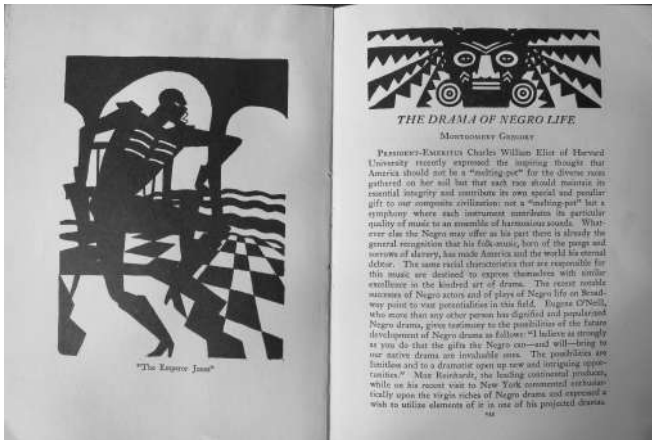
자아를 그리고 있는데, 시의 후반부에서는 아프리카의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 신을 수용한 것에 대한 종교적 갈등이 이어진다.

Wishing He I served were black, 내가 모시는 그 분이[예수께서] 흑인이라면,
Thinking then it would not lack 그리되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Precedent of pain to guide it, [내 심장을] 인도할 고통의 선례가, (675)

1929년에 출간한 그의 장편 서사시 「흑인 그리스도」(“Black Christ”)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한 예수를 미국 사회에서 집단적 린치를 당한 흑인들의 고난과 연결시키면서, 그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하는 흑인 예수를 상정했다. 또한 두보이스의 단편 「텍사스의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in Texas,” 1911), 휴즈의 「앨라배마의 그리스도」(“Christ in Alabama,” 1931)와 같은 작품에서도 예수의 본래 모습을 흑인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등(강신욱 5), 흑인 예수의 출현은 뉴 니그로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자 확산을 의미했으며, 더글러스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했다.

한편 「니그로 삶에 대한 희곡」(“The Drama of Negro Life”) 글에 동반된 삽화 <황제 존즈>(The Emperor Jones)[도판 8]는 미국 최초로 흑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백인과 흑인 사회 모두에서 크게 성공했던 유진 오닐(Eugene O'Neill)의 1920년 작 유명한 희곡 제목에서 유래한다. 오닐은 여러 실존 흑인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희곡을 저술하였다. 주인공 부르터스 존즈(Brutus Jones)는 미국 철도 노동자로 일하던 중 흑인을 부당하게 대우했던 백인 감독관을 죽이고 감옥에 투옥된다. 그러나 카리브 해의 한 섬으로 탈출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살게 되는데, 그는 곧 또 다른 폭력적 압제자가 되어, 결국은 숲으로 쫓겨 가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연극 무대에서 크게 성공했던 『황제 존즈』는 당대 청송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 일으켰는데, 주인공 흑인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과정은 흑인에게

차별을 가했던 백인에 대한 통쾌한 복수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¹¹⁾ 그러나 결국 그가 또 다른 폭력적인 통치자가 되는 모습은 비열하고 거친 이미지의 흑인 스테레오타입으로 연결된다. 더글러스의 삽화에서는 하얀 바탕에 강렬한 검은색 실루엣의 존즈가 등장하고 있는데, 콜로니얼 저택 안에서 작은 두상에 푹 튀어나온 입과 이마를 가진 존즈가 긴 사지를 사각으로 꺾은 듯 꺾렁하게 앉아 있는 모습은 서구 문명의 혜택을 걸쳐 입기는 했으나 정형적인 흑인 사기꾼과 같은 캐릭터를 연상시키면서 우스꽝스러운 황제 군림을 풍자하고 있는 듯 보인다.



[도판 8] 더글러스, 〈황제 존즈〉, 『뉴 니그로』, 1925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뉴 니그로』에 나타난 더글러스의 작업은 형식적으로는 아르데코 특히 아프리카데코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입체파적 영향을 받은 그래픽 디자인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모더니즘 계열의 원시주의라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더글러스가 아프리카를 돌아보거나 흑인 고유의 문화에 대해 주목해보라는 라이스와 로크 등의 조언을 수용하는 과정

11) 흑인 엘리트 계층과 대중 사이의 시각도 달랐다. 이 연극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논란에 관해서는 백환기 116-37 참조.

에서 갈등과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 잭 뉴욕에 도착했을 때 더글러스는 흑인 미술가로서의 정체성에 집중하라는 요구에 대해 압박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풍경화를 선호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강력히 주장해서 나는 결국 이러한 것에 아마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원시적인 것(The primitive thing).”(Goeser 22 재인용)이라고 적기도 했다. 따라서 아프리카 회귀나 모티브로의 전향은 백인 스승과 뉴 니그로 문인들로부터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할렘 문예부흥의 선구자들과 서구 모더니즘 미술이 공유했던 일종의 원시주의적인 주입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글러스에게 아프리카 모티브는 아프리카 문명의 소재와 큐비즘적 스타일의 수용이라는 조형적 차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문화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와의 연관 또는 분리의 측면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미 <황제 존즈>와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등에서 드러나듯이, 이 이미지들은 아프리카 문화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보다 동시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당면한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나 기존의 미화된 자화상으로서의 ‘뉴 니그로’ 이미지와 정형적인 ‘니그로’ 이미지 사이에서의 충돌의 국면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탈인상주의에서 독일 표현주의에 이르기까지 표출되어온 모던 아트에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는 그 성격과 목적이 차별화된다. 한편으로는 원시주의에 기대어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 문명과 서아프리카의 문화적 연결성을 강조하며 범아프리카적 역사의식을 투영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아프리카와 동시대 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면서도 그 사이의 간극과 불가능한 회귀에 대해서도 암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전의 파리 미술계와 미국의 스티글리츠 서클과 관련하고 있었던 조형적 차원의 원시주의 또는 이국적인 원시주의로부터 부분적으로 분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Hutchinson 399).

IV. 그 외 잡지와 서적의 삽화 작업: 모순적이고 초월적인

『뉴 니그로』의 출간은 더글러스를 하루아침에 할렘의 중요한 미술가로 우뚝 서게 하였고,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는 계기가 된다. 그는 같은 캔자스 출신의 흑인 시인인 랭스턴 휴즈와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보낸 편지에 “더 이상 백인 미술이 흑인을 그리게”(Goeser 1 재인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새로운 예술 공동체가 ‘신비하고’ 동시에 ‘객관적인’(objective), ‘정신적인’(spiritual), 그리고 ‘땅 위의’(earthy) 예술을 창조하는 역동적인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러한 역설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더글러스는 모순적이고 대조적인 보이는 것들의 융합으로서의 시각적 표현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갔다.

더글러스는 이듬해인 1926년, 『오퍼튜니티』지 10월호의 표지와 본문에 실리게 된 휴즈의 6편의 시를 위한 삽화 작업을 맡게 된다.¹²⁾ 그런데 이 작



[도판 9] 더글러스, 『오퍼튜니티』 아트 폴리오』 표지, 1926년.

업은 “두 예술가(Two Artists)”라는 타이틀 아래 공동 작업의 성격이 강조된 특별한 사례였다(Knappe 211). 찰스 존슨은 성공적인 협업 작업에 크게 기뻐하며, 이를 크리스마스 호의 한정판 별집인 아트폴리오로 재제작하여 판매하도록 했다. 큰 인쇄용지 각 장마다 개별적으로 시와 삽화가 고급스럽게 인쇄되었고, 더글러스는 휴즈와 자신의 초상을 아프리카 토템을 응용한 추상적 형상으로 디자인한 표지까지 만들었다(Goeser 77).[도판 9] 이는 라이스의 사실주의적

12) 이보다 앞서 『오퍼튜니티』지 1926년 1월호에 실린 휴즈의 시 “To Midnight Nan at Leroy's”의 삽화 작업을 한 바 있다.

인 뉴 니그로 초상화들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후예임을 강조하면서도 매우 모던한 형식에 유머러스한 감각이 가미된 초상으로, 더글러스 자신을 더 작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위상을 시인의 시를 장식해주는 부수적인 인물 즉 관습적으로 이름 없는 삽화가가 아니라 시인과 대등하게 작업하는 예술가로서의 미술가로 위치시키는 작업이었다. 또한 각 인쇄지의 상단에는 삽화가 하단에는 휴즈의 시가 위치하고 있는데 삽화 부분이 오히려 살짝 더 넓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 시보다 부각되어 있고, 더글러스는 휴즈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특정 구절을 삽화 제목으로 별도로 사용하는 등 시와 이미지의 동등한 협업적 성격을 강조하였다.[도판 10, 11, 12]¹³⁾



[도판 10] 더글러스, <블루스를 연주 [도판 11] 더글러스, <맥주를 사기 위
하다>, 『오퍼튜니티 아트 폴리오』, 해 10센트가 필요해, 『오퍼튜니티
1926 아트 폴리오』, 1926



삽화 디자인을 살펴보면, 하얀 바탕에 더욱 단순해진 평면적 구성을 바탕으로 더글러스의 시그니처인 가느다란 일자 눈의 각진 인물 형상들이

13) 「예수의 발아래서」(“Feet O’ Jesus”)의 삽화에만 따로 제목을 부치지 않았다.

등장한다. 「고통」(“Misery”)이라는 시에 동반된 <블루스를 연주하다>(Play de Blues)[도판 10]에는 한 여성과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남성이 등장한다. 그녀의 손과 피아노 위 사이의 구불거리는 선들은 블루스 음악의 파동을 시각화하며, 이 선들에 연결된 손가락을 통해 여인은 마치 그녀의 큰 슬픔을 위로해 줄 블루스 음악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보인다. 이처럼 더글러스는 매우 단순한 실루엣 형상과 몇 가지 소재만을 사용하여 이미지와 청각, 촉각 등의 감각들 간의 전이와 공감각적인 표현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한편 「노숙자 신세인」(“Down an’ Out”)이라는 시의 삽화 <맥주를 사기 위해 10센트가 필요해>(I Need a Dime For Beer)[도판 11]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가난과 비참한 현실의 단면을 보다 직접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화면 왼쪽 위의 나무는 원시 밀림을 오른쪽 하단의 피아노는 동시대적 음악인 블루스를 제유하고 있다. 그리고 나무와 피아노 사이에 위치한 주인공은 구걸용 컵을 피아노 위에 드리우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부터 동시대 미국에 이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을 둘러싼 고난과 병폐를 함축적으로 시각화한다. 그들의 조상은 노예로 끌려와 죽을 때까지 갇혀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고통 받는 생활을 영위했으며, 노예제 폐지 이후에는 대농장의 노예 생활은 벗어나지만 많은 흑인들은 북부의 공장들로 옮겨가 저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흑인들의 삶을 더욱 궁핍한 처지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농장에서는 최소한 식사와 숙소라도 제공받았지만, 공장에서는 자칫하면 쫓겨나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고된 생활 속에서 술과 도박, 마약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와 삽화는 당대의 미국 하층민 흑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병폐에 대한 통렬한 외침이다.

이러한 묘사는 두보이스와 같은 소위 할렘 1세대 문인과 로크 등이 강조했던 아프리카로의 회귀나 뉴 니그로에 대한 엘리트적 비전과 미학적 관

심과는 차별화되는 휴즈의 보다 급진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휴즈는 백인이나 할렘 1세대 문인들의 원시주의적 요청에 반감을 느끼며, “나는 아프리카인이 아니다. 나는 시카고, 캔자스시티, 브로드웨이와 할렘이다”(Goeser 28 재인용)라고 외쳤으며, 아프리카가 아닌 미국 흑인 농부와 노동자의 삶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민속과 계층적 의식에 방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에서처럼 수많은 흑인들이 처한 사회 하층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사회적 고발뿐 아니라 예술 형식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사투리, 흥얼거리는 영가 리듬이나 재즈와 블루스 등 흑인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원료들을 활용해 노래했다. 더글러스 역시 휴즈와 같은 제2세대 할렘 르네상스 문인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다양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넓혀가고 있었다.

한편 위의 삽화들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예수의 발아래서>(Feet o' Jesus)[도판 12]는 대칭에 가까운 정적인 형식적 구성을 보이고,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앞의 작업들에서 등장한 아르데코식 물결 형태의 무늬와는 달리, 더글러스는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식의 반복과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동심원의 파동을 화면 전체에 오버랩 시키며 배경 화면으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들로네가 순수한 색채와 형태에 관한 관심으로 밝은 프리즘 색들로 동심원을 칠해갔다면, 더글러스는 이 흑백 이미지에서 보이듯 미묘한 명도 차를 사용해 동심원을 마치 투명한 공기 속 또는 저 멀리 아득하고 신비한 빛의 파장처럼 느껴지도록 그리기 시작한다. 이는 이후의 여러 작업 특히 벽화 작업에



[도판 12] 더글러스, <예수의 발아래서>. 『오퍼튜니티 아트 폴리오』, 1926

서 더글러스 특유의 배경 표현 방식이 되는데, 색채를 입혀가는 작품에서도 어둡고 은은한 노란색, 회색, 황토색, 초록색 등의 색조를 사용해나가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정체성을 깊은 색조들로 연결해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색채와 동심원의 그리데이션 방식은 더글러스의 종교적 초월성과 구원을 향한 메타포를 구현하는데 절묘한 조형적 요소가 된다. 한편 원시 자연의 모티브인 잎사귀와 들판의 나무와 오로지 빛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공간 속에서 하늘을 향해 서 있는 한 인간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데, 이는 예수에게 위로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고통 받는 한 흑인의 모습이면서도 동시에 예수의 모습 그 자체로도 보이는 중의적 표현으로 보인다.

더글러스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단순한 원시와 문명과의 이분법적 세계나 그 세계 사이의 연결이라는 주제를 넘어서가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삶 즉 뉴 니그로서의 이상적이거나 원시적인 모습뿐 아니라 더욱 열악해진 환경에 직면하여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동시대

흑인들의 삶의 모습을 모던한 표현 방식으로 압축적으로 담아내기 시작한다. 또한 이러한 현세의 삶과 대비되더라도 그 근간이 되어주는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과 뉴 니그로 프로타고니스트로서의 형상에 대한 메타포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한편 더글러스는 1926년부터 27년까지 『더 크라이시스』에 여러 삽화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뉴 니그로』에 포함되었던 삽화가 『더 크라이시스』지 1926년 2월호에서 <불요불굴의 음악, 아프리카의 정신>(Invincible Music, Africa's Spirit)



[도판 13] 더글러스, <불요불굴의 음악, 아프리카의 정신>, 『더 크라이시스』, 1926년 2월호.

Spirit of Africa>[도판 13]이라는 제목으로 수정 작업되어 표지에 실렸는데, 이 삽화도 <예수의 발아래서>처럼 정신적인 구원과 초월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다만 동시대가 아니라 『뉴 니그로』에서 강조되었던 아프리카 과거로의 회귀와 예술적 뿌리를 찾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 화면 상단의 양 모서리에서 태양 빛을 형상화한 지그재그 형태와 구불구불한 유기적 곡선이 서로 대비를 이루며 날카로운 직선 형태가 검은 평면으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아래쪽에는 추상화된 식물과 나무 패턴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대자연을 지시하는 배경 속에서 이집트 헤어스타일을 한 인물이 오른손으로 복을 치며 그의 왼손과 고개를 쳐들어 마치 천상의 빛을 흡수하고 있는 듯 그려져 있으며, 단순하며 안정감 있는 배경 속에서 홀로 목소리만을 높여가고 있는 듯한 장엄한 분위기가 잘 연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과거는 흑인에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 지라도 이제 뉴 니그로를 밝히는 그리고 뉴 니그로가 밝혀나가는 빛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이며, 기존 서구의 원시주의적 모더니즘 경향의 미술 작품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던 종교적 구원과 초월적인 것에 관한 메타포가 강하게 실려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출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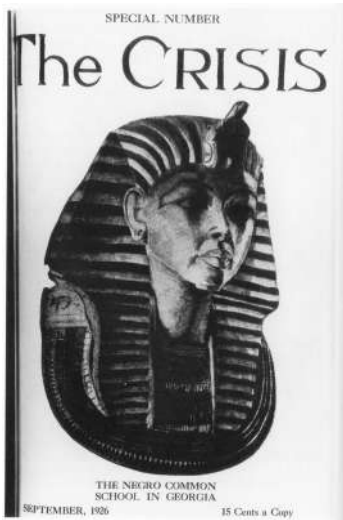
1926년 『더 크라이시스』 11월호에는 앞서 언급했던, 하얀 평면 바탕 위에 사실주의적 드로잉으로 묘사한 3차원적인 흑인 두상이 등장했으며,[도판 2] 바로 다음 호인 크리스마스 호에서는 다시 반추상 형식의 세 흑인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도판 14] 이들은 대지 위에 무릎을 꿇고 경이에 차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며, 화면 왼쪽 아래는 동방 교회



[도판 14] 더글러스, <무제(Three Shepherds)>, 『더 크라이시스』 표지, 1926년 12월호.

를 연상시키는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다. 인물들은 흰 입술과 일자 모양의 눈외에는 모두 검은 실루엣의 평면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러데이션 효과를 사용한 원심원들이 후광처럼 보이면서 이들이 분명 동방박사일 것이라 확신하게 한다. 전통적인 사실주의 회화에서처럼 아기 예수의 모습이 직접 등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레이어 된 하늘의 밝은 빛에서 뿔뚝한 빛줄기가 화면 아래로 수렴되는 모습은 유성 또는 강한 빛줄기가 예수 탄생의 마구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더글러스는 형식적으로도 사실주의와 추상, 전통과 모더니즘 사이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순수 미술가들이 주로 표방해왔던 일관적인 양식의 진화나 변모를 거부하고, ‘뉴 니그로’의 삶에 대한 풍부한 재현의 방식에 더욱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술가의 독창성이라는 명제 하에 일관된 형식의 작업에 집중하는 서구의 모더니스트 또는 원시주의자 미술가들과는 차별화되는 즉 ‘형식의 경계’를 초월한 행보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도판 15] 더글러스, 『더 크라이시스』 표지, 1926년 9월호

한편 『뉴 니그로』에서 표출되었던 이집트 이미지의 차용과 형식적 참조도 1926년 경 정점을 이룬다. 『더 크라이시스』 1926년 9월호 표지에서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도판 15] 투탕카멘은 당대의 이집트 열풍을 대변하는 아이콘이었다. 여러 이집트 도상들이 신문, 책, 잡지 등의 매체와 상업 디자인에 자주 출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투탕카멘은 화제의 중심이었다. 1922년 테베의 서쪽 ‘왕가의 계곡’에서 하워드 카터(Howard Carter)가 투탕카멘의 묘와



[도판 16] 더글러스, 『파이어』 표지, 19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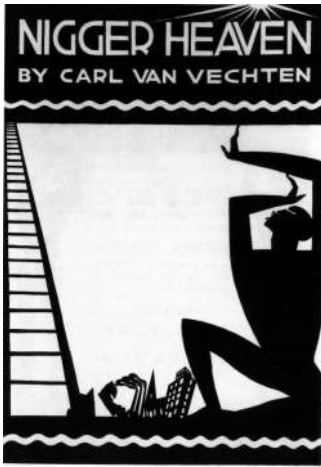
미라, 호화로운 부장품을 발견하였고 그 후 왕가의 저주 일화까지 퍼지면서, 어린 나이에 사망하여 역사적으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 왕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이집트 왕의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이집트 문명에 대한 참조가 두드러지면서도 투탕카멘 표지와는 매우 대조적인 양식의 디자인이 2개월 후인 1926년 11월에 『파이어!!』(Fire!!) 창간호 표지에도 등장한다.[도판 16] 이는 휴즈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했던 잡지로, 더글러스는 휴즈와의 성공적인 협업 작업을 통해 『파이어!!』의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된다.¹⁴⁾ 잡지의 전체 명칭—“FIRE!!: A Quarterly Journal Devoted to the Younger Negro Artists>” 즉 “불!!: 젊은 니그로 아티스트들에게 기여하는 계간지”—에서 드러나듯, 이 잡지는 할렘 제2세대 문인들에 의한 보다 젊고 진보적인 성격을 표방했다. 비록 재정 부족으로 창간호로 끝나고 말았지만 할렘 지성인들의 이목을 모았으며, 특히 더글러스의 표지는 독자의 눈길을 한 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스팅크스, 깃불장신구, 왕으로 추정되는 인물, 사다리 등 고대 이집트적인 소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차용하되 깊은 빨간색 바탕에 검은 면들의 대비는 더글러스 작업에서 가장 평면적이면서도 단순하고 강렬한 화면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투탕카멘이나 이집트 문명 관련 소재는 흔히 야만적, 원초적,

14) 조라 널 허스틴(Zora Neale Hurston), 웰레스 서먼(Wallace Thurman), 리처드 브루스 누젠트(Richard Bruce Nugent), 그웬돌린 베넷(Gwendolyn Bennett), 존 P. 데이비스(John P. Davis) 등이 참가했다.



[도판 17] 더글러스, 반 베흐텐의 『흑인 천국』 광고 삽화, 1926년.

야생적, 순수한 등의 형용사로 수식되는 ‘원시적인 것’ 대신에 고전적, 구축적, 정교한 등의 수식어로 연결되는 ‘문명화 된 것’과 고도의 기술을 표상한다. 한편 당대의 그래픽 디자인들에 종종 출현했던 수직적 이미지는 뉴욕에 갓 세워지던 마천루들을 지시하였는데, 더글러스의 수직적 이미지들은 마천루 뿐 아니라 이집트의 신전 또는 지구라트 등과 연계되면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건축 문명의 발전이 마천루 즉 서구의 근대 문명에 이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러한 예로는 같은 해 알프레드 크노프(Alfred Knopf) 출판사가 펴낸 칼 반 베흐텐(Carl Van Vechten)의 소설 『흑인 천국』(*Nigger Heaven*, 1926)을 위한 광고 삽화를 들 수 있다.[도판 17] 화면 왼쪽에는 사다리가 놓여있고, 오른쪽에는 흑인 누드 실루엣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있고 그의 손끝은 태양에 닿아 있다. 화면의 아래 중앙에는 대도시를 상징하는 고층 빌딩, 연기 솟는 공장, 그리고 교회가 단축적으로 매우 작게 형상화되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피라미드와 스프링크스가 마치 대도시 쪽을 향하는 듯 그려져 있다. 그리고 하늘에 해당하는 공간에는 빛줄기 문양과 소설명, 저자명이 자리하고 있다. 흑인은 마치 제의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이 표현되어 있는데, 다소 거칠고 원시적인 분위기를 창출했던 『뉴 니그로』의 인물 형상들과는 달리 절도 있고 우아한 형태로 그려져 있으며, 화면 구성 역시 사다리와 인물 실루엣 각각이 양쪽 모서리에 딱 차 닿아 있는 채 상단의 하늘 부분이 이집트나 그리스 신전의 엔타블러처를 연상시키면서 고전적인 건축과 같은 견고한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라미드와 스프링크스에서부터 공장과 마천루로 즉 고대 아프리카에서 근대

미국으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기여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한편 책의 저자 반 베흐텐은 할렘 르네상스의 백인 후원자이자 무용비평가, 시인, 소설가로 활약하였으며, 이 소설을 뉴욕 내의 블랙 도시인 할렘을 묘사하고 축하하기 위한 의도로 저술했다. 그러나 책의 내용과 제목은 할렘 생활의 부정적인 양상들을 드러내기에, 할렘 문인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¹⁵⁾ 이에 대해 더글러스는 책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Goeser 45). 따라서 휴즈와의 작업에서처럼 공동 예술가로서 시의 내용과 상호작용하는 진지한 협업적 태도를 보였다기보다, 광고 디자인 자체에 보다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책 자체의 내용 보다는 책 제목의 ‘흑인’과 ‘천국’이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받아 성경 속의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의 장면을 이미지화하였다. 주제적인 측면에서 근대 미국의 문명을 받쳐주는 고대 아프리카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흑인 야곱과 사다리는 그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런 계시와 은총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흑인 예수’처럼 흑인 야곱은 흑인의 긴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시하는 성경 구절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창세기 28장 15절)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투영하는 이미지인 것이다.

15) 휴즈는 베흐텐을 적극 변호했고 제임스 웰든 존슨도 할렘의 다양한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고 지지했으나, 두보이스는 “흑인들의 환대와 백인의 지성에 대한 모욕”(Sanneh Feb. 17&24 재인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인공 두 명은 젊고 야심차고 교육 받은 인물들로 그려져 있으나, 섹스, 도박, 술 등과 관련된 할렘의 세속적 모습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책 제목으로 사용된 ‘Nigger Heaven’은 극장의 흑인용 분리 발코니 구역을 의미하는 슬랭이기도 했으며, ‘니거’라는 용어 자체도 백인이 사용할 때는 흑인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단어였다.



[도판 18] 더글러스, 클로드 맥케이의 『할렘으로 돌아오다』 표지, 1928년.

그리고 바로 이듬해 더글러스가 디자인한 클로드 맥케이(Claude McKay)의 『할렘으로 돌아오다』(*Home to Harlem*)(1928)의 책 커버에 ‘검둥이 천국(Nigger Heaven)’이 적혀 있다.[도판 18] 광고 문구에 등장하는 『검둥이 천국』, 『포지』와 『블랙 에이프럴』 등은 백인 저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할렘을 다룬 저작이라면, 맥케이의 이 소

설은 흑인이 직접 할렘에 대해 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출간된 후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의 소설로는 처음으로 베스트셀러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Earle 18). 두보이스 등 1세대 할렘 문인들이 엘리트 위주의 흑인의 삶에 주목하여 인종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써왔는데 비해, 이 소설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미국의 하류층 흑인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었다.¹⁶⁾

더글러스는 일자 형태의 눈 이외에는 아프리카적 참조를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당대의 할렘과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16) 소설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레이(Ray)는 고향인 아이티를 떠나 미국의 하워드(Howard) 대학에 유학을 온 엘리트라 할 수 있지만, 경제적 고충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기차 식당 칸에서 일하다가 제이크를 만나게 되고 친구가 된다. 그러나 이 소설에 대한 평가 역시 양분화되었는데, 두보이스는 백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할렘의 저속한 모습을 담고 흑인과 관련된 많은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했다고 혹평하였다(McCann 65).

노동자들 앞에 놓인 문화적 기로를 압축적으로 표상화했다. 표지의 모티브는 소설의 주인공인 제이크 브라운(Jake Brown)이 1차 세계 대전 직후 유럽에서 할렘으로 돌아와 할렘의 거리를 거슬러 내려오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Goeser 11), 반 베헤텐의 광고 포스터 작업 때와는 달리 소설의 내용 속에서 직접 디자인 소재를 끌어냈다. 양복을 갖추어 입은 제이크가 화면 중앙에 우뚝 서 있으며, 그의 발아래 놓여 있는 가방은 그가 유럽에서 돌아와 할렘으로 갓 입성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제이크 뿐 아니라 할렘으로 이주해오고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앞에 놓인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 희망, 두려움 등의 장면을 총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인물은 이전 시대의 미국 흑인의 정형적인 모습이었던 앵글 샘이나 삼보 이미지와는 달리 근대 도시에서의 젊은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생활에 대면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화면 양쪽에 거대하게 솟아 오른 최첨단 근대 건축인 마천루와 고딕 양식의 교회 사이에서 어느 쪽 길로 향해야 할까 망설이는 듯하다. 따라서 더글러스가 이전의 작업에서 주로 아프리카 또는 이집트와 근대 도시를 나란히 병치시켰던 방식과 달리, 이 표지 작업에서는 소설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동시대 할렘으로 이주해 온 노동자가 당면한 삶의 방향과 가치, 즉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삶이나 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대변되는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나 간의 기로 공간으로서의 할렘을 표상화한다. 하지만 재즈와 블루스를 연상시키는 음악 부호와 피아노 건반, 태양 등의 이미지로 수놓인 배경 속에서 제이크의 포즈는 마치 양쪽 모두의 세계(마천루, 교회)를 함께 지휘하고 있는 듯 그려져 있어, 이 두 세계가 단순히 선/악, 물질적/정신적 등의 이분법적 구도로 나누어 질 수 없는 혼종적인 공간임을 보여주는 듯하다.¹⁷⁾

17) 실제 소설 속에서 제이크는 고뇌와 갈등의 캐릭터가 아니라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더글러스가 표현한 이 인물이 오히려 더욱 양가적이고 모순이 공존하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 외에도 1927년과 28년 즉 대공황 직전에 할렘 르네상스 문인들의 작품은 최고조의 생산과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더글러스는 이들의 작업의 표지, 광고, 포스터 작업에 일순위로 섭외되곤 하였다. 예를 들어 제임스 웰던 존슨(James Weldon Johnson)의 시집인 『신의 트롬본』(*God's Trombones: Seven Negro Sermons in Verse*, 1927) 삽화는 세련된 구성에 초월적인 정신성을 집약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실제 존슨은 『오 퍼튜너티』에 실린 더글러스의 삽화에 반해, 출판사에게 더글러스와 접촉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로써 8개의 시에 동반된 놀라운 구성의 도판이 탄생하였다. 곧 이어 더글러스는 존슨의 『한 흑인 출신 백인의 자서전』(*The Autobiography of an Ex-Coloured Man*, 1912)의 재출간 표지 작업에도 참가했다.¹⁸⁾ 또한 아서 허프 파우저(Arthur Huff Fauser)의 『자유를 향하여: 미국 니그로의 전기적 이야기』(*For Freedom: A Biographical Story of the American Negro*), 컬른의 『노래하는 땅거미: 니그로 시인들의 시문집』(*Caroling Dusk: An Anthology of Verse by Negro Poets*) 등의 표지 디자인 작업을 맡는 등 그야말로 할렘 문인들과의 협업에서 절정기를 구가했다.

그리고 더글러스는 할렘 르네상스 전성기가 곧 막이 내려갈 시점인 1929년 여름 피스크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새로운 도서관을 장식할 벽화를 맡아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Earle 213).¹⁹⁾ 물론 1929년에도 프랑스 저자 폴 모랑(Paul Morand)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여행기인 『블랙 매직』(*Black Magic*)의 번역판 삽화 작업으로 큰 이목을 모았으며, 역시 프랑스 소설인 『흑인 비너스』(*The Black Venus*)의 영문 번역본 표지 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1930년에 피스크 대학의 벽화 작업을 끝내고 1931년 가을부터 32년에는 파리에 머물며 본격적인 화가와 벽화가로서의 행보를

18) 그의 삽화, 책 커버, 광고 디자인 등의 연혁에 대해서는 Earle 210-213을 참조.

19) 더글러스의 첫 벽화인 <정글과 재즈>(Jungle and Jazz)는 1927년(또는 1930년이라는 설도 있음) 당시 인기 있는 할렘의 카바레인 클럽 에보니(Club Ebony)에 그려졌으나 전해 내려오지는 않는다.

도모한다.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는 1933년 최초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그 이듬해에는 벽화 <니그로 삶의 면모들>을 완성한다. 이후 1939년 피스크 대학 미술학과의 유일한 교수로 부임하게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자로서도 활동하게 된다.²⁰⁾

V. 결론

더글러스의 삽화가 1930년대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대공황의 여파로 할렘 문인들의 작업에 대한 후원과 출판 기회가 끊어지게 되는 현상과 관련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글러스가 뉴욕으로 이주해오면서부터 지녔던 미술가로서의 성공이라는 꿈을 향한 전진 때문이기도 했다. 20대의 젊은 더글러스는 할렘 문인과 사상가들의 교류 활동을 통해 삽화 또는 표지 작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했지만, 이는 본격적인 미술가로서 성장해나가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더글러스의 대표작들인 1930년대의 벽화 작업들을 살펴보면, 1920년대 후반 삽화와 표지 작업에서의 역동적인 실험 과정 속에서 잉태한 형식과 주제적 모티브들이 선택적으로 추출·종합되어 완성 단계에 이룬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삽화 작업에서 다소 조야한 구성이 엿보이긴 하더라도 원시주의와 모더니즘, 추상과 구상, 고대와 동시대, 아프리카와 미국, 성공과 가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등 사이에 놓인 연관과 차이, 동화와 분리 사이의 더욱 복합적이고 충돌적인 ‘사건(event)’으로서의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지닌 화면이 창출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상업 미술과 고급 미술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문학과 미술 생산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측면도 오히려 순수 미술계라는 아성을 쌓고 상업 미술을 경시해오거나 문학의 시녀로서만 삽화를 간

20) 뉴욕의 Caz Delbo Gallery에서 1933년 5월 20일에 열렸다(Earle 214).

주해은 경향에 대해서도 재고하게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더글러스 삽화에 나타난 뉴 니그로에 대한 정체성 재현은 유럽 모더니즘에서 엿보여온 원시주의 미술의 형식과 소재와 연결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형식적 특징 즉 큐비즘과 아르데코적 구성, 이집트와 아프리카 문명 관련 소재 등은 서구 모더니즘이나 원시주의 담론의 영향을 다분히 보여준다. 그러나 더글러스는 이러한 원시주의적 응시에 부응하면서도 단순한 아류나 모방을 넘어서 개별적인 차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형식과 내용을 창출해냈으며, 이는 기성 주류 문화 특히 백인 중심 문화에 대한 도전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통렬한 인식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특수한 모더니즘의 양상이다. 따라서 기존의 모더니즘이나 프리미티비즘 담론으로만 포섭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글러스의 작업은 원시주의와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양가적이며 복합적인 재현을 수행해나갔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양가성 또는 모순을 넘어가려 했던 초월적인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면에서 1920년대 아직 미국 미술이 세계 미술계의 변방으로 간주되고 있을 때 더글러스의 작업과 같은 흑인 미술에 나타난 독특한 원시주의에 대한 비평이야말로 미국 미술의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내비춰 주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전남대)

■ 주제어

애런 더글러스, 할렘 르네상스, 뉴 니그로, 원시주의, 아프리카계 미국 미술

■ 인용문헌

- 강신욱. 「카운테이 컬른의 ‘흑인 그리스도’ -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전복의 서사」, 『신영어영문학』60 (2015): 1-26. Print.
- 김민아, 박숙영. 「할렘 르네상스 미술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속성: 두보이스의 ‘범아프리카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조형교육학회』47 (2013): 37-64. Print.
- 김진아. 「새로운 흑인(The New Negro)’의 모습을 창조하며: 할렘 르네상스 미술과 이중적 정체성」. 『현대미술사학회』33 (2013): 135-66. Print.
- 백환기. 「오늘과 할렘 르네상스: The Emperor Jones에 나타난 원시주의를 중심으로」. 『현대 영미드라마』25.3 (2012): 115-37. Print.
- 오영진. 「인류학과 원시주의: 모더니즘에 보이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고찰」. 『코기토』65 (2009): 143-74. Print.
- 천승걸. 『미국 흑인문학과 그 전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rint.
- 최재현. 「할렘 르네상스’기 미국 흑인의 정체성과 인종 문제: 카운티 컬런과 랭스턴 휴즈」. 『신영어영문학』25 (2003): 201-24. Print.
- Bercovici, Konrad. “The Rhythm of Harlem.” *Survey Graphic* 53 (1925): 679. Print.
- Bey, Sharif. “Aaron Douglas and Hale Woodruff: African American Art Education, Gallery Work, and Expanded Pedagogy.” *Studies in Art Education* 52.20 (2011): 112-26. Print.
- Bontemps, Arna Alexander, and Jacqueline Fonvielle-Bontemps, eds. “African-American Women Artists: An Historical Perspective.” *Black Feminist Cultural Criticism (Keywords in Cultural Studies)*. Malden, Massachusetts: Blackwell, 2001. 133-37.

Print.

Campbell, Mary Schmidt. *Harlem Renaissance: Art of Black America*.

New York: Harry N. Abrams, 1994. Print.

Cruz, Harold. *The Crisis of the Negro Intellectuals*. New York: William

Morrow, 1984. Print.

Cullen, Countee. "Heritage." *Survey Graphic* 53 (1925): 674–75. Print.

Earle, Susan, ed. *Aaron Douglas: African American Modernist*. New

Haven: Yale UP, 2007. Print.

Early, Gerald. "The New Negro Era and the Great African American

Transformation." *American Studies* 49.1/2 (2008): 9–19. Print.

Fisher, Rudolph. "The City of Refuge." *The New Negro: Interpretation*.

New York: Albert and Charles Boni, 1925. 57–74. Print.

Goeser, Caroline. "Strategizing from Spaces Between: Aaron Douglas

and the Art of Illustrating." *Picturing the New Negro: Harlem Renaissance Print Culture and Modern Black Identity*.

Lawrence: UP of Kansas. 2007. 17–56. Print.

Hutchinson, George. *The Harlem Renaissance in Black and White*.

Cambridge; London: Harvard UP, 1995. Print.

Johnson, James Weldon. "The Making of Harlem Black Thought and

Culture." *Survey Graphic* 53 (1925): 635–39. Print.

Jordan, Glenn. "Re-membering the African-American Past: Langston

Hughes, Aaron Douglas and Black Art of the Harlem Renaissance." *Cultural Studies* 25.6 (2011): 848–91. Print.

Kirschke, Amy H. *Aaron Douglas: Art, Race and the Harlem*

Renaissance.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5. Print.

Knappe, Stephanie Fox. "Aaron Douglas: African American

Modernist: The Exhibition, the Artist, and His Legacy."

- American Studies* 49.1/2 (2008): 121–30. Print.
- Lewis, Samella. *African American Art and Artis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rint.
- Locke, Alain LeRoy. “The Legacy of the Ancestral Arts.” *The New Negro: An Interpretation*. New York: Albert and Charles Boni, 1925. 254–67. Print.
- McCann, Paul. *Race, Music, and National Identity: Images of Jazz in American Fiction, 1920–1960*. Madison; Teaneck: Fairleigh Dickinson UP, 2008. Print.
- McClintock, Diana Leslie. *Modernism in the Visual Art of Harlem Renaissance*. Ph. D thesis. Emory University, 1998. Print.
- Pinder, Kymberly N. “Our Father, God; our Brother, Christ; or Are We Bastard Kin?: Images of Christ in African American Painting.” *African American Review* 31.2 (1997): 223–33. Print.
- Powell, Richard J. “The Aaron Douglas Effect.” *Aaron Douglas: African American Modernist*. Ed. Susan Earle. New Haven: Yale UP, 2007. 53–73. Print.
- Ragar, Cheryl R. “Influences of the Early Years.” *Aaron Douglas: African American Modernist*. Ed. Susan Earle. New Haven: Yale UP (2007): 53–73. Print.
- Sanneh, Kelefa. “White Mischief: The Passions of Carl Van Vechten.” *The New Yorker* Feb. 17&24 (2014). Web.
- Schneck, Peter. “The New Negro from Germany.” *American Art* 22.3 (2008): 102–11. Print.
- “Fuller, Meta Warrick (1877–1968).” <http://www.blackpast.org/aah/fuller-meta-warrick-1877-1968>. Web.

■ Abstract

**Beyond Primitivism:
Representing Racial Identity in the Early Illustrations of
Aaron Douglas and the Harlem Renaissance**

Kim, Jina

(Chonnam National Univ.)

Aaron Douglas is widely known as a leading Harlem Renaissance artist particularly as a muralist. However, in the latter half of the 1920s and at the height of the Harlem Renaissance, he was deeply involved in print culture and provided graphic designs for covers, illustrations, and posters for the major magazines of the New Negro movement, such as *Crisis and Opportunity*, as well as several Harlem writer's publications including *The New Negro* (1925), *Nigger Heaven* (1926), *Home to Harlem* (1928).

This paper at first examines Douglas's early life just before and after he arrived in Harlem, focusing on how the questions of racial identity exemplified by the "New Negro" began to be explored in the context of the active support by and cooperation with Harlem Renaissance leaders. It then responds to those questions by analyzing Douglas's works with reference to the specific forms and subject matter. Harlem Renaissance art has been criticized as being other than a form of independent art movement owing to many artists' reliance upon white patronage and often responding to the

mainstream expectation for ‘primitive’ cultures from African American artists. Also, the formal and thematic elements embodied in Douglas's works, such as Cubist and Art Deco style and Egyptian and African metaphors, showed the influence of Western modernist primitivism. However, Douglas also created critical differences beyond mere subordination and imitation to such mainstream primitivism. He suggested highly complicated and often paradoxical styles or poses, dialecticizing the relationships of the primitive and the modern, realism and abstraction, fine art and graphic design, Africa and America, nature and city, and the past and the present.

■ Key words

Aaron Douglas, Harlem Renaissance, New Negro, Primitivism, African American Art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8년 3월 16일 ○심사일: 2018년 3월 22일 ○게재일: 2018년 4월 30일

Whitman's American Experience and Democracy and Divine Literatus in *Democratic Vistas*

Suh, Yun Kyo

I . Introduction

American people frequently suggest that Whitman should be in pursuit of a singular meaning as he should try to consolidate his sight of democracy with his American experience. In *Democratic Vistas*, Whitman tried to arrange a multiplicity of dualities and tensions, both in America and in his sight of it, into a single meaning of democratic culture, one that imagines the individual self as unique only in the context of participation in a democratic society. Whitman was not a professor preparing extensive and rounded essays for an academic audience; he was primarily a journalist and conversationalist. He was, of course, of considerable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literary theorist in urging new ideals which he and others embodied in literary art. But, like most critics who single one thing out of the full circumference of things which makes for good literature, Whitman's actual criticism often involved misplaced emphasis. He did not ignore art and form and beauty, but his remarks on such matters were usually obvious

and trite, and they were strikingly subordinated to an attempt to ascertain author's attitude toward democracy (Allen and Clark 395).

Walt Whitman is destined to become - perhaps he has already become - a legend in American history. Like one of his heroes, George Washington, the poet of democracy has assumed some of the qualities of myth. His ample figure and tumultuous bearded face are more familiar than his writing, which is more quoted from than read in its entirety; and indeed his face, which he put on view at every opportunity, has the symbolic and representative quality of the statues of Alexander, the powerfully jawed portraits of Washington, the brooding portraits of Lincoln in his later years.

For this legend of a representative man of heroic stature, neither the earlier worshipful studies nor the later factual, and far more accurate, biographies of Whitman give an adequate explanation. There was only one brief period of his external life which could be called even mildly heroic, and he himself so frequently celebrated his services in the hospitals of the Civil War. (Briggs 12)

The strength of such statements or phrases as “legend,” “poet of democracy,” “myth,” or “symbolic and representative quality” is almost inestimable. They take us maybe to the essence of what we wish to know about our subject.

Therefore, how great a man for American history is not the question here. Maybe some may feel that Walt Whitman's America was not a real America, though it has been said that the real America was his background and a source of inspiration. It was in many ways a symbolic America, too, existing in his mind, and as Tocqueville had felt, should always be pointed toward a future of which he was also to

be prophetic. In trying to understand what America was we should also recall the atmosphere of the times, an America literally charged with spiritual idealism and doublecharged with intellectual and physical energy. America was then far advanced in equality by Tocqueville's analysis. Tocqueville observed America and the American society with aristocratic sight at that time (Alexis Tocqueville 59–60). By Whitman's thought America was fully equipped with the most appropriate condition to realize democracy ideally. It should be mentioned that he was in connection with Lincoln's speech in relation to the Civil War and influenced by Emerson's transcendentalism and pantheistic thought represented by Oversoul and Self reliance. He began to plan necessary foundation of reality and idea to change America into an ideal democratic nation in consideration with the above-mentioned thoughts. I want to begin with Whitman's American experience and then Ideological Lay-out for American democracy. After that I also analyze his emotions of American identity and confidence in American democracy, and divine literature as well as religious passion by analyzing the related materials and Whitman's *Democratic Vistas*. This paper aims to describe and analyse some of the elements of the American experience, their effect on Whitman's character and on his ideas, his personalism and American democracy, and Divine Literature.

II. American Experience and American Democracy in Whitman

The nineteenth century was century of revolt in the world and to stay the least, transitional to an unusual degree. Science was just beginning a world transformation. Democracy, even in America, was still in the process of cohesion. The “New World experiment,” which seemed to Whitman to be of transcendent importance was irregular. The impact of science upon human nature, and the mixture of classes which was democracy, could not yet be studied by (if ever it could be) or, except as a process, be understood by the imaginative thinking.

In 1884, “in the early candle-light of old age - I and my book - casting backward glances over our travel'd road” (Holloway 41). Whitman composed a definition of his life's work, describing his intentions which at the time of the writing of *Leaves of Grass* had been so often unconscious. He felt that he had been the recipient of the best of the New World, who wished to present himself as a personality of the nineteenth century. He had hoped to prove that the democratic average of America was eligible for the grandest and the best. He had intended to offer, not a dead level of humanity, but rather a myriad of fully developed individuals as the purpose of democracy. *Leaves of Grass* he felt as he looked backward, could not possibly have been fashioned from any other era than the nineteenth century nor in any other land than democratic America (Holloway 4). One writer of Whitman credits him with “seven great achievements,” an reckoning of which shall be quoted in full:

- Whitman's American Experience and Democracy and Divine Literatus
in *Democratic Vistas* | Suh, Yun Kyo

He made articulate and best defined for the imagination the democratic faith which was and is the only binding nation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He established an ideal for international democracy which has proved to as prophetic of danger as it is shrewd and noble in its ideas. Next speaking for hearty physical man, workers, lovers, eaters, and drinkers he burst through the inhibitions of the intellectuals of the Eastern seaboard, who were still colonial and imitative of England in their culture, and tried to speak for a new and still inarticulate America. Furthermore, he is the pivot in American history on which we swing from the sectional and provincial to the national and continental in our literature. And he did what only really great writers have done, he made a great style to express himself and his country in poetry - although, unfortunately, he by no means always used it. (Briggs 15)

These could be called the subjects of Whitman, but there is clearly a story behind them which deals with essentially how and why Whitman himself must have learned about America, democracy, love and death – and of how he became a poet and what he did with that poetry.

Whitman was “self-educated”¹⁾ with all the advantages and

1) Whitman's self-education consisted mainly of fulfilling his desire to read. In his youth he frequented second hand bookstores in Brooklyn and New York. Later on as Doctor Bucke his biographer notes, (*The Complete Writings*, IX) in the 1840s Whitman began an experiment of self-education. Whitman plunged into books of every description but especially factual books, writing down elaborate digests and commentaries which Doctor Bucke says, “lacked any frame of reference.” He continues, “When Whitman tried to analyze Hegel's philosophy, or the periods of English literature, the result closely resembles the attempts of an ill-prepared student to get ready in a hurry for an examination in a survey course. Yet like so many powerful minds, he gained as well as lost from this process of self-education. His mind took what

disadvantages that independent research, eclectic reading routines and unchallenged analyses produce. He became a highly influential political journalist, surprisingly conventional and conformist except for a strong bent toward liberal humanism. Though he finally concentrated only on his own writing, Whitman's text shows the influence of his journalistic career. At the age of twenty-two the young school teacher turned his back permanently on the Long Island villages, and pursued work on a New York paper. He had studied the printer's trade in boyhood, had worked as a newspaper compositor, and for an entire year in Huntington had operated his own newspaper, which failed, it seems, mainly for lack of financial backup in a country district where newspapers were still a luxury. But in New York he soon found editorial work, and, in the uncertain journalistic world of the day, he pursued at least five newspaper in five years, from 1841 through 1845. Meanwhile he was also learning the ways of the free-lance journalist. His articles, and an occasional poem, appeared with increasing frequency in papers then prominent—*the Democratic Review*, *Broadway Journal*, *American Review*, *New York Sun*, and others. This was a practice that he kept on for many years, and it often became an indispensable source of earnings during his long years of application to *Leaves of Grass*, for his poetry always brought in only the merest trickle of earnings. His prose was admirable journalism, but little more, except for his prefaces and a few major essays of his middle years. His poetry was traditional newspaper poetry, often a bit emotional. *Leaves of Grass* was intended to dilate the imagination with a faith, a doctrine, a religion embodied in a

it wanted and stayed original.”

- Whitman's American Experience and Democracy and Divine Literatus
in *Democratic Vistas* | Suh, Yun Kyo

personality. It is a rather long Preface. For the purposes of this paper this excerpt with some paraphrasing will be sufficient.

Compared with the expanding history of the common man on this continent, the small theatre of the antique seems tame and orderly—the Americans themselves are a greater poem. Here in their history is action untied from strings, necessarily blind to particulars and details, magnificently moving in masses. The genius of America is in its common people through all mightly amplitude. America is the race of races. Faith, which is the antiseptic of the soul, pervades the common people of America and preserves them—they never give up believing and expecting and trusting. Thus the American poet must be transcendent and new, indirect and not direct or descriptive or epic. His theme must have vista for the American future. Whatever is past is past. The American poet must expose superior models for life. Illiterate persons, the en-masse, are as good as he; but it is he who can indicate the path between reality and their souls. The American bard shall delineate no class of persons, nor one or two out of the strata of interests, nor love most, nor truth most, nor the body most. For the external tendencies of all toward happiness make the only point of sane philosophy. The direct trial of him who could be the greatest poet is today. (Whitman 36)

These words—which can truly be described as simple, sensuous passionate, and hence themselves poetry—are at the heart of this Preface. They could be described as one part emotional democracy, and one part the romance of an developing America. But romance is perhaps too much an old world term, for there is something in Whitman's dream of an American standard to which the world must

prove responsive. And democracy, while spoken of in political terms elsewhere in the Preface, is here a new and indirect democracy, a call for a poet who can find a way of speaking for the released consciousness of the normal people, their beauty, their vitality, their trust. There is also the cognition that in the new world powerful uneducated people have as much to teach as the philosophers.

III. Political Reality and Ideological Lay-out for American Democracy

Whitman thought that social reality was agonizing situation and people's behaviour was corrupt in America at that time. He thought spread corruption in public society as well as the problem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very seriously (Bradley 866). The Civil War was the direct accident that made Whitman feel serious reflection on democracy. Whitman may have done his best in war period. By Whitman's belief the poets arbitrate and judge a nation's problem rather than a president. He thought that especially they must become the best supporter with the battle and the writing in war period.²⁾ Both the politician Lincoln and the poet Whitman has the firm belief

2) Their President shall not be their common referee so much as their poets shall.... In peace out of him speaks the spirit of peace, large, rich, thrifty, building populous towns, encouraging agriculture, arts, commerce. lighting the study of man, the soul, health, immortality, government, In war he is the best backer of the war, he fetches artillery as good as the engineer's, he can make every word he speaks draw blood (*“By Blue Ontario's Shore-9, 10”*, LG 347).

for the democracy and the confederation unity. Lincoln's Gettysburg Address and *Leaves of Grass* have this aspect in common. Lincoln tried to realize democratic idea as a public leader while Whitman did through literature as a voluntary national poet. *Leaves of Grass* seems to be prosaic while Lincoln's address would be rather poetic.³⁾

Whitman conducted the utopian layout biased towards idea before the Civil War. In contrast, *Democratic Vistas* written after the Civil War is a work for reflection of utopian idea and new search. The Civil War broke out with the problem of humanity and politics in the process of practice of the perfect political system called democracy. The 1869 memorandum was discussed about utopian anticipation for American future. In *Democratic Vistas* Whitman suggested three steps to the ideal nation, the New World from present America. By his belief the steps are forwards. 1.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foundations 2. the demonstration of material prosperity 3. the forthcoming of a religious democracy. But after the Civil War the American society became corrupt, the masses became selfish and it would become hypocrite one.

Never was there, perhaps, more hollowness at heart than at present, and here in the United States. Genuine belief seems to have left us.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the States are not honestly believed in (for all this hectic glow, and these melodramatic screamings), nor is humanity itself believed in. What

3) There is a certain uncharted borderland between prose and poetry, uncharted because the territory of prose often overlaps into the domain of poetry. And vice versa. There is plethora of prose in Whitman's rhapsodic *Leaves of Grass*, and there is unquestionable poetry in Lincoln's Gettysburg Address.... (Louis Untermeyer 101).

penetrating eye does not everywhere see through the mask? The spectacle is appalling. We live in an atmosphere of hypocrisy throughout. The men believe not in women, nor the women in the men, (Whitman *Democratic Vistas* 325)

The entrepreneur and government officials committed various unconformity. Anyhow *Democratic Vistas* is a masterpiece in which Whitman admitted the obvious failure on utopian lay-out and searched for the new corresponding methodology. The best methodology that he insisted was, as before, relief of society through literature, especially poems.

IV. Personalism and American Democracy in *Democratic Vistas*

In *Democratic Vistas*, Whitman represented not only his vision of American democracy but a realistic method and the essay “Personalism” in it showed Whitman's nature consideration of the potentiality, the talent ability of the American people. In *Democratic Vistas* Whitman's view of Personalism and American democracy must be suggested in its context. He began his essay with an assumption that America was not so much degraded as mis-led and had to justify its original intention to eschew political and moral corruption. He suggested that America must count on its future:

America filling the present with greatest deeds and problems, cheerful
acceptation the past, including feudalism, (as, indeed, the present is but the

- Whitman's American Experience and Democracy and Divine Literatus
in *Democratic Vistas* | Suh, Yun Kyo

legitimate birth of the past, including feudalism), count, as I reckon, for her justification and success, (for who, as yet, dare claim success?) almost entirely on the future. Nor is that hope unwarranted. Today, ahead, though dimly yet, we see, in vistas, a copious, sane, gigantic offspring. For our New World I consider far less important for what it has done, or what it is, than for results to come. (Whitman 362)

Whitman, the optimist, had a deep consideration for “results to come”; he implied that America could rely on its future because the present augured so well and held so much hope. Foundation for a viable future had already been laid and even greater things lay in the future. “Do not look back,” he cautioned. “Look ahead.” To support his conviction in the future, Whitman asserted, “I will use the words America and democracy as convertible terms” (Whitman 363). He declared that America “must soon outstrip all examples hitherto afforded, and dominate the world” (Whitman 363). Whitman reiterates, in a more appropriate context and as the basis of his democratic idealism, the literary theory which he first began talking about in the 1885 Preface. Although the American people have, he still thinks, a great potential capacity for democracy, their genius (or potentiality) is still unexplained. There is as yet no Democratic Literature to guide them; hence America's greatest need is a new school of artists and writers. This new democratic literature needs also the help of empiricism and modern science, even necessitating a “new physics.” He pointed out the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mass, which has been the fundamental problem of every civilization and every country. The issue for him was one of absolutes that had to be

reconciled if the American democracy should endure.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he dismissed this lack of reconciliation as a problem and paradox:

Later he returned to the challenges trying to solve it by merging this problem into “communion” or “solidarity” for the American democracy. And he added the need of communion among all individuals, which would he believed be achieved through “perfect individualism.” This idea of perfect individualism, he maintained, would give character to the idea of the aggregate.

Based on such thought, Whitman uttered “Personalism”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Whitman adopted the term “Personalism” for his democratic and political theory in *Democratic Vistas*, and he was, especially at this time, less interested in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than Alcott was, but in his pantheism and panpsychism he had always felt the individual experience to be a part of the all-inclusive Divine Experience. For this reason, there is no great theo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Whitman's earlier, intense pantheism and his later Personalism. He confirmed that personalism was to be joined to the unyielding principle of the average as the equally unyielding one. Indeed, he said the purpose of democracy was to foster an independent and self-reliant Personalism. The mission of government was to train communities through all their grades, beginning with individuals and ending there again, to rule themselves.

In our examination the most likely source for further light is Bronson Alcott, who was instantly drawn to him more intimately by the receipt of the essay on “Personalism.” We think of intellect and individualism, discriminating the latter from Personality. We can

- Whitman's American Experience and Democracy and Divine Literatus
in *Democratic Vistas* | Suh, Yun Kyo

notice that “Personality” is discriminated from “individualism.” Alcott explains in a letter:

The unity of the Personality; the difference is the Individuality ... We must grow into and become one with the Person dwelling in every breast and, thus come to apprehend the saying ‘I and my Father are one’ - that is, to perceive that all souls have a Personal identity with God and abide in him, (Shepard 391)

This above definition sounds a good deal like Christian mysticism, but the idea that “all souls have a Personal identity with God” could also be interpreted in terms of Whitman's pantheism.

I am because God is; nor am I found save by his Presence in my consciousness, and incarnation therefrom. From my soul spring forth my senses, reflecting itself in natural images. My body is my mind's idol. From the beginning I was, and survive all things beside myself. Personally immortal, time deals my periods and dates me by its revolutions. (Shepard 450)

Here the fundamental thought is that men and God are one- we might say one Personality, and that man's personality is immortal in the personality of God. The doctrine stresses individual self-reliance, but as a means of developing or realizing the divine personality inherent in the individual soul, so that by developing its potentiality it becomes more nearly identical with God or the pantheistic All. Thus Personalism curbs and directs Whitman's earlier extreme individualism into ethical and religiously unselfish channels. Besides the two essays “Democracy” and “Personalism,” he had projected a third essay on the

function of American literature in the last part of *Democratic Vistas*. Literature to Whitman, was the most authoritative way of harmonizing America's material growth with its spiritual maturity. He demanded that America's art, poems, and theology be means to evoke the spirit of democracy and redeem what was ignoble in American society. Whitman, although he was an optimist, was not naive. He had a strong sense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Furthermore, he was convinced that the problem of humanity had to be finally met and treated in literature. Thus he emphasized that the most significant matter America needed was not the priest but the 'divine literature': drawn from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of C. Jung. A great original literature he believed would comprise the core of the "justification and reliance" of American democracy. He confirmed that literature would furnish a common spiritual meaning to the American people suggesting that original American poets would appear and give "more compaction and more moral identity to these States, than all its Constitutions, legislative and judicial ties, and all its hitherto political, warlike, or materialistic experience" (Whitman 358). He seemed to have good authority; Thomas Jefferson once said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Whitman developed this "moral identity" into "true nationality" of the States. The true nationality, he insisted, was fervid and tremendous Idea, which melted everything else with resistless heat, and solved all lesser and definite distinctions in vast, indefinite, spiritual, and emotional power (Whitman 368). Though Whitman believed that American democracy would be accomplished in the future, he did not overlook the corruption of his own age. He depicted American society as crude, superstitious, and corrupt. He attacked

- Whitman's American Experience and Democracy and Divine Literatus
in *Democratic Vistas* | Suh, Yun Kyo

the lack of moral conscience in society and lamented the absence of genuine belief in the States. Whitman, however, was disappointed to find slavery, misery, and meanness in his beloved land. He reiterated America's dependence on the future communion of Body and Soul, convinced that the future of America was promising. His optimistic vision was basic to his recognition of the strong personality of the people. So he celebrated an immortal courage for democracy:

Yet is there an immortal courage and prophecy in every sane soul that cannot, must not, under any circumstances, capitulate. Vive, the unpopular cause - the spirit that audaciously aims - the never - abandon'd efforts, pursued the same amid opposing proofs and precedents. (Whitman 386)

After the celebration of an immortal courage, Whitma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iterature. Literature to him was not only his concrete solution for American democracy but America's final hope for enacting communication between Body and Soul. He defined literature as being identical to the Soul: "Bear in mind, though that nothing less than the mightiest original non-subordinated Soul - its other name, in these Vistas, is Literature" (Whitman 413). The only sure and worthy supports and expressions of "American democracy are a new Literature, perhaps a new Metaphysics, certainly a new Poetry" (Whitman 416). Whitman confirmed that the true idea of "Nature" was to furnish the pervading atmosphere requisite for poems in the future literature. Nature to him was the only complete and actual poems, so his dictum was to learn from the laws of nature.

Consequently, the idea of "All" which he recognized in nature

became integral to his poetry. The idea of All was part of eternity. Based on this belief, he declared that death was “not the ending, as was thought, but rather the real beginning” (Whitman 420). He, therefore, insisted on the poems of death, asserting the importance of them:

What the Roman Lucretius sought most nobly, ... must be done positively by some great coming literatus, especially poet, who while remaining fully poet, will absorb whatever science indicates, with spiritualism, and out of them, and out of his own genius, will compose the great poem of death. Then will man indeed confront Nature, and confront time and space, both with science, and con amore, and take his right place, prepared for life, master of fortune and misfortune. And then that which was long wanted will be supplied, and the ship that had it not before in all voyages, will have an anchor. (Whitman 420)

Whitman reaffirmed the faith in the value of poems of death and insisted on the divine role of great poet: “A strong mastership of the general inferior self by he superior self, is to be aided, secured, individual or aggregate democracy, a great passionate body, in and along with which goes a great masterful spirit” (Whitman 422). This passage shows his conviction of the great power in divine literatus.

V. Conclusion

As we have seen thus far, Whitman thought that social reality was agonizing situation and people's behaviour was corrupt in America at

that time.

Whitman's *Democratic Vistas* written after the Civil War was a work for reflection of utopian idea and new search. In *Democratic Vistas* Whitman suggested three steps to the ideal nation, the New World from present America. Furthermore, he was convinced that the problem of humanity had to be finally met and treated in literature. Thus he emphasized that the most significant matter America needed was not the priest but the divine literature.

Poets of death, Whitman pronounced, needed to arise in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to make great poems of death, which would be the concrete solution for the universal identity. To Whitman, the great poem of death would free man from time and space by identifying him with all time and space. This was Whitman's ideal world; here was the perfect re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Body and Soul. In the end of *Democratic Vistas*, Whitman reaffirmed his faith in the future. He was convinced that America would be the “divine Mother,” who would establish absolute communion among all things: Whitman recognized his dignity and transcended the natural world to be a cosmos. Here, such dignity like William Blake's “divine image” was visualized in Whitman. *Democratic Vistas* exhibited Whitman's Utopian of the ideal American democracy. Here, he suggested not only the problem of democracy but also the solution, which he saw to be the function of divine literature, especially poetry. Though he declared that the American democracy rested on the future, we may say that the American democracy with his divine literature had already begun to grow in the first line of *Democratic Vistas*.

(Gachon Univ.)

■ 주제어

Democratic Vistas, American experience, Cultural Program, Personalism,
Divine Literatus

■ 인용문헌

- Allen, Gay Wilson and Clark, Harry Hayden. *Literary Criticism: Pope to Croce*. Detroit: Wayne State UP, 1962. Print.
- Bradley, Sculley and H. W. Blodgett, eds. *Leaves of Grass*. A Norton Critical Edition. New York: W.W. Norton&Co. Inc., 1973. Print.
- Briggs, Arthur. *Walt Whitman: Thinker and Artist*.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2. Print.
- Folsom, Ed. *Whitman: Democratic Vistas*.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2009. Print.
- Holloway, Emory. *W. Whitman: Complete & Selected Prose and Letter*. London: The nun-such Press, 1938. Print.
- Horton, R. and Edwards, H. W. *Backgrounds of American Literary Thought*. New York: Prentice Hall, Inc, 1974. Print.
- Hosea, Chris. *Walt Whitman Award of the Academy of American Poets: Put Your Hands In: Poems*. Louisiana: Louisianan UP, 2014. Print.
- Kaplan, Harold. *Democratic Humanism and Americ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rint.
- McGuire, William. *Introduction to Jungian Psychology: Notes of the Seminar on Analytical Psychology Jung, C. G Given in 1925*. Princeton: Princeton UP, 2011. Print.
- Miller, James E. *Walt Whitman*. Boston: Twayne Publishers, 1990. Print.
- Reynolds, David S. *Walt Whitman's America. A Cultural Biography*. New York: Knopf, 1995. Print.

Shepard, Odell. *The journal of Bronson Alcott*. Boston: Little Brown, 1938. Print.

Tocqueville, Alexis.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Vintage Books, 1990. Print.

Untermeyer, Louis. *The Pursuit of Poetr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9. Print.

White, William and Folsom Ed. *Walt Whitman Quarterly Review*, vol.10, No.4.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1993. Print.

White, William and Folsom Ed. *Walt Whitman Quarterly Review*, vol.35, No.2.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2017. Print.

■ Abstract

Whitman's American experience and Democracy and Divine Literatus in *Democratic Vistas*

Suh, Yun Kyo
(Gachon Univ.)

Whitman gave a new order in the political turmoil and division of US society and continued to reflect on the realistic foundation with the utopian interest, such as the analysis of the self and the morality to be equipped to achieve the ideal of democracy ideally. His work *Democratic Vistas* is basically a reflection of ideal ideals and a new search. After experiencing the Civil War as opposed to ideological early design work, he presents ideas and cultural programs that he urgently needs to turn the United States into a new nation and turn the public into a new humanoid type. In this work he presents the three stages of the present America as an ideal nation, in its own terms the New World. According to him, 1. the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foundation' 2. the realization of material prosperity 3. the gradual rise of religious democracy. Divine Literature to him was not only his concrete solution for American democracy but America's final hope for enacting communication between Body and Soul. He emphasizes Pers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In addition, human beings and gods are one person, discovering the

identity of God and humanity through human beings, and such assertion asserts consciousness of divine reality.

■ Key words

Democratic Vistas, American experience, Cultural Program, Personalism, Divine Literatus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8년 3월 12일 ○심사일: 2018년 3월 22일 ○게재일: 2018년 4월 30일

집의 (불)가능성

: 『제스처 라이프』에 나타난 분열된 욕망*

임 경 규

I. 서론

이창래(Chang-rae Lee)의 1999년 소설 『제스처 라이프』(*A Gesture Life*)는 아시아계 미국문학에 잔존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동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대응이라 할만하다. 여기에서 이창래는 동화에 내재된 윤리적 문제를 깊이 탐색한다. 특히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프랭클린 하타(Franklin Hata)가 안정된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을 (메리 프랫(Mary Pratt)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문화적 “접촉지대”(contact zone)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동화의 과정 속에 내재된 모순을 폭로한다. 여기에서 문화적 접촉지대는 단순히 문화가 충돌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호 뒤얽힘과 동시에, 인종과 젠더와 민족 정체성의 문제가 교차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스처 라이프』가 펼쳐내는 현재라는 공간은 단순 현재가 아닌 과거의 기억이 범람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상황에서 미래의 구원은 과거와 어떻게 화해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즉,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주체를 창안해내지 않고서는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뿐더러 미래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로 향한 문도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타가 이 소설의 유일한 서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사는 철저히 분절화되고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그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트라우마적 과거이기 때문이다.

하타의 서사 속에서 과거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제국주의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강점과 이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개인에 대한 다양한 폭력이 과거 기억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나 그는 조선인으로 태어나 일본제국의 군인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제국주의와 한 층 더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된다. 즉, 그는 제국주의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였다. 이 복잡한 과거는 그의 서사적 현재, 즉 인종적 소수자로서의 미국에서의 삶 속에 망령처럼 출몰한다. 따라서 소설의 실질적인 문제는 하타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가 어떻게 미국에서의 현재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그가 그 멍에를 손쉽게 내려놓고자 시도하거나 단순히 망각 속에 던져두려 시도할 때, 인종주의로 가득한 미국의 현재를 사는 하타의 모든 행위들은 제국주의 시절을 반복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 인정과 동의를 얻기 위한 그의 몸짓이 타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자기 구원의 시도가 되는 것이다.

『제스처 라이프』의 세계는 그러므로 아이러니한 세계다. 인종적 소수자이자 권력관계의 약자인 하타가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자 시도할 때, 그의 모든 행위는 폭력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한 권력관계의 그물망 속에 잡혀 있는 하타에게는 동화를 거부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을 거부하면 할수록 동화에 대한 갈망은 역설적이게도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하타는 이 아이러니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한다. 본 논문이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러니의 근원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국에서 시작하여 일본과 미국을 거치는 하타의 긴 여정을 집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 집 찾기 과정 속에서 하타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한국이라는 근원에 대한 디아스포라적 욕망과 일본과 미국

에서의 동화에 대한 욕망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한국을 향한 그의 디아스포라적 욕망은 동화의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생기거나, 고향으로의 회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화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디아스포라적 욕망이 동화에 대한 열망의 전제조건이다.

II. 존재의 결여와 주체의 (불)가능성

뉴욕 근교의 소도시 베들리런(Bedley Run)에서 조용한 은퇴 생활을 즐기던 하타는 예기치 못한 위기에 봉착한다.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자신이 아끼던 튜더왕조식 저택이 불에 그슬렸을 뿐만 아니라, 하타 자신도 연기를 마신 탓에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이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만은 아니다. 이는 하타에게 사회적 동화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자신의 의식 속에서 애써 제거해버렸던 과거의 기억이 되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튜더왕조식 저택은 하타의 성공적인 동화를 상징하는 물적 징표였다. 하지만 그것이 불에 그슬려버렸다. 이는 미국 사회로의 완전한 동화를 약속했던 아메리칸 드림의 불가능성을 암시한다. 아마도 그가 “하타 박사님”이라는 칭호를 얻고 베들리런의 소문난 자산이었던 튜더 양식 저택을 사들였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이름이 그 집에 영원히 각인되어 모두에게 존경받는 마을의 어른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에 그슬려 흥해진 그의 집을 통해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의 이름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점차 작아지며 지나가게 될” 것임을 말이다(G 196). 이러한 깨달음은 또 하나의 각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다름 아닌 대중의 상상력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결

정하는 핵심 요소가 ‘인종’이라는 사실이며, 따라서 완전한 백인이 될 수 없었던 하타는 언제든 그 경계선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진실이다.

나는 훌륭한 하타 박사님에서 괜찮은 노인네로 그리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저 늙은 동양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새 식당에서 점심값을 계산하던 중 누군가 속삭이던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그 말에는 어떤 악의나 편견도 없었지만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중요한 직책을 가졌었다라도 누구나 나이 들게 되면 슬프게도 존재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나의 경우 시간으로 인해 흐릿해지는 것과는 다르고 현대 생활에서 늙어 가면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사람이나는 둘째 치고, 내가 어떤 인종에 속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실로 남기 때문이다. 내 얼굴이라는 단순한 항수(恒數) 말이다.

I've gone from being good Doc Hata to the nice old fellow to whoever that ancient Oriental is, a sentence (I heard it whispered last summer while paying for my lunch at the new Church Street Diner) which carries no hard malice or prejudice but leaves me in wonder all the same. For while I'm certain this sort of sad diminishment befalls every aging gentleman and -woman, and even those who once held modest position in the town's day, I am beginning to suspect, too, that in my case it's not only the blur of time and modern life's general expectation of senescence, but rather the enduring and immutable fact of what I am, if not who; the simple constancy of my face. (200-1)

하타가 지난 세월 미국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어떤 얼굴과 어떤 피부색을 가졌느냐는 단순한 사실만이 그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러기에 대중적 상상력 속에서 그는 미국이라

는 상상의 공동체의 경계선 밖으로 추방당한다. 아메리칸 드림이 약속한 완전한 동화의 가능성이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화재 사건은 하타의 집을 “친숙함과 편안함의 행복한 어울어짐”의 장소에서(*G*21),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섬뜩함”(uncanny)이라 정의한 친숙하지만 낯선 장소로 변화시킨다. 프로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섬뜩함”이란 집이나 가족처럼 친밀하고 친숙한 어떤 것이 억압에 의해서 낯설고 무시무시한 것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즉, 집이 집이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Freud 219-26). 물론 하타의 저택은 즉각 수리가 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의 집을 낯설어하며 불편함을 느낀다. 특히나 그 지역 부동산업자인 리브 크로포드(Liv Crawford)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갑작스레 예상치 못한 기이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가 “이미 죽어, 기억이 되어, 다른 사람의 집 복도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다. 집으로서의 친숙함과 편안함을 상실한 그 저택은 더 이상 집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미국인이 되고 싶었으나 되지 못했던 한 동양 노인의 못 다한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는, 하지만 “이상하게 만족스럽지 못한 박물관”이 되어버린다(*G*139). 그가 의식 속에서 애써 삭제하려 했던 과거가 억압의 장벽을 뚫고 현재 속에 범람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 시점부터 하타의 내러티브는 독자들을 심연 속에 묻혀 있던 그의 기억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곳에서 그는 “하타 박사님”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지로 구로하타”(Jiro Kurohata)였고 태평양 전쟁에 의무장교로 참전 중이었다. 게다가 그는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원래는 한국인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던 당시에 일본에 있던 가난한 한국인 가족에서 태어나 유복한 일본인 가정에 입양되었던 것이다. 이는 어린 하타가 일본 교육을 받으며 일본인으로 성장했으나 자신이 일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학적 토대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진짜가 아닌 가짜 일본인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기에 어린

하타 역시 노년의 하타와 다를 바 없이 존재와 소속감에 대한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의 소원은 “(단지 백만분의 일일지라도) 무리의 일부”로서 진정한 소속감을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인으로서의 근원적 토대가 부족했던 어린 하타는 일본인의 몸짓과 말씨만을 흉내 낼 뿐이었다. 결국 젊은 하타 역시 “제스처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299).

젊은 하타를 괴롭혔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은 당시 일본제국의 인종담론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리오 칭(Leo Ching)은 일본 제국의 인종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일본은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했는데, 이미 그 때는 유럽 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질서가 완성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유럽중심주의적인 인종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제국의 안정과 확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했던 일본은 유럽중심의 인종담론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인종담론을 창안해낼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사용된다. 한편으로, 유럽중심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대동아공영’ 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고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거대 범주로 묶어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일전쟁(1905) 승리 직후, 자신들이 확보한 제국 열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생기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한다. 이는 일본과 유럽 사이의 동일성을 정초함과 동시에 다른 아시아 민족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유럽의 생물학적 인종담론을 그대로 모방하며 의사과학적 이론을 만들어낸다. 일본 민족은 “인종적으로 ... 황인종을 대표하는 중국인과 구별되며, 인디아나 페르시아,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과 종족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인은 유럽의 코카시안(Caucasian)과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일본 종족의 고유성을 신화적 기원으로 돌리기도 한다. 즉, 일본 종족 중에는 황인종의 피와 일본 본토의 원주민

피도 섞여 있지만, 일본의 황실이나 귀족은 “하늘의 후손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의 인종담론이 유럽의 인종담론과 다른 점은 반드시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일본의 인종 담론은 생물학적 토대나 생물학적 지시대상체를 결여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과 비슷하지만 그 보다는 더 신화적이고 “하나의 추상(abstraction)으로서 ... 생물학적 시스템으로부터 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Ching 66-72 요약)

『제스처 라이프』에 등장하는 일본인 군의관 오노 대위(Captain Ono)가 가진 인종관이 바로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의 인종담론을 그대로 반영한다. 오노 대위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과 조선의 특별하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순수 일본 혈통과 똑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지. 조선의 양반들과 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네. 비록 아주 멀기는 하지만 분명한 일치점 있다는 뜻이지”(G 268). 오노 대위의 특이한 마니교적 이분법의 논리는 생물학적이면서도 동시에 계급을 강조한다. 먼저 순수 일본인의 혈통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여 일본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순수 일본인과 한국과 중국의 귀족 계급 사이에 동일성을 설정함으로써 대동아공영 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혈통의 문제를 계급의 문제와 전략적으로 접합함으로써 민족적 차이와 동일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비(非)일본인 하위 계층을 인종 서열의 제일 낮은 단계에 배치하여 그들을 인종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와 더불어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과 정복을 정당화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자의적 이분법은 인종에 관한 대중적 상상력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 결과 일반 조선 사람을 지칭하는 일본어의 보통명사 ‘조센진’은 영어의 ‘nigger’와 비슷한 방식으로 의미화 된다. 즉, 인종적 열등함과 사회적 혐오감을 담은 말이 되는 것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가난한 조선인 가족에서 태어난 어린 하타는 이러한 마니교적 인종 담론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따라서 지독한 인종주의의 피

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학교의 일본인 친구들은 그를 “대개의 경우 경멸적인 태도로 대했으며, 최악의 경우 주인 없는 개 취급”을 했다(263).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로하타 가문에 입양된 이후였다. 일본식 이름 속에 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을 위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에겐 일종의 축복이었는데도 모른다. 왜냐하면 “주인 없는 개”와 같은 피식민 주체에서 제국주의의 주체로, 피억압자에서 억압자로 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생물학적 본질주의가 작동하고 있던 당시의 인종 담론 속에서 그가 얻게 된 일본 이름이 그의 한국인 피를 완벽하게 희석시켜주지는 못했다. 그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끊임없이 자신의 인종적 열등성을 상기시켜주었다. 즉, 생물학적 존재와 사회적 주체 사이의 분열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 것이다.

이를 라캉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타의 사회적 주체 형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소외”(alienation)가 신경증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를 괴롭힌 것이다. 자크-알랭 밀레(Jacques-Alain Miller)는 이 소외를 “존재의 결여”(lack of existence)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의 실존이 사회적 주체의 외부에 존재함을, 즉 “외존”(ex-sistence)함을 의미한다(11). 이는 곧 존재와 통합되지 못한 우리의 사회적 주체가 결여를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욕망하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하타의 경우 이 존재의 결여는 정체성의 생물학적 토대의 결여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모든 사회적 행동의 근원으로 작동하며 그로 하여금 사회적 “인정과 동의”를 통한 안정된 정체성을 갈구하도록 추동한다(G5). 이 결여는 또한 미국 사회에서 그가 왜 튜더왕조식 저택에 집착하는지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그 저택은 하타의 근원적 결여를 메워줄 수 있는 것으로 상상되는 것으로, 라캉이 “대상 a”라고 정의한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집은 미국 사회로의 성공적 동화와 안정된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물질 증거임과 동시에, 그 집과 하타 사이에는 아무런 존재

론적 연관성도 없다는 의미에서 결여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그것은 하타의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서 시작하여 일본과 미국으로 이어진 하타의 긴 여정은 존재의 결여로 인해 파생된, 즉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 억압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며, 따라서 그 여정의 궁극적 목적은 존재를 위한 집, 즉 존재와 주체가 궁극적 합일을 이룰 수 있는 집을 찾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 지로 구로하타라는 주체는 불가능성 위에서 있는 주체다.

III. 제국주의와 낭만적 사랑의 (불)가능성

하타의 무의식을 지배했던 존재의 결여는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강박적 동일시라는 증상을 통해 표현된다. 그래서 그는 군대에 자원했고, 아마도 그것이 자신을 어두운 인종담론의 나락에서 구원해준 일본인 부모와 일본 제국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했기에 군인이 되기 위한 “준비와 훈련을 산 경험을 통해 시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는 그저 자랑스럽고 기쁘기만 했다(120). 그 어떤 일본인보다 더 뛰어난 제국의 군인이 되는 것이 자신을 경멸해왔던 모든 이에 대한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음을 또한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오로지 그러한 완벽한 흉내 내기만이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혹은 순수 일본인과 가짜 일본인 사이의 마니교적 이분법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완전하고 철저한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그의 열망은 곧 시험대에 서게 된다(235).

군대에서 하타가 맡은 보직은 의무관이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들의 관리를 맡게 된다. 그가 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았

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지원자” 혹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과 군인들을 위해 성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왔을 것이라는 추측뿐이었다. 이영옥(Young-Oak Lee)이 설명하고 있듯이, 자신의 보직을 수행함에 있어 하타는 그 여성들이 제국의 대의를 위해 기꺼이 지원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젊은 여성들이 희생함으로써 전장에 있는 제국 군인들의 도덕성을 유지시킬 수 있으리라는 도덕적 신념이 있었다(148). 물론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폭력이 어린 소녀들의 몸에 가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 했고,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폭력마저도 그는 전시의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화한다.

그것은 기준의 문제였다. ... 이런 체계 내에서 사령관은 자신의 책임이 있고 장교들도 자신이 해야 할 일 있다. 징병된 병사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들만의 일이 있는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이다. 그것은 그 소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자신의 임무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일련의 자연법과 마찬가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It was a matter of standard,... In this schema the commander had his level, the officers theirs, the enlisted men and others yet another, and so on and so forth, until it came to the girls, who had their own. All this was inviolable, like any set of natural laws.” (G 227)

전시 폭력을 정당화함에 있어, 인종과 젠더와 계급은 하타에게 합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평소에 접잡았던 동료 병사 한명이 그 소녀들을 “한국인을 지칭하는 저급한 해부학적 욕설인 조센피(*chosen-pi*)”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를 때도,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251). 그 병사가 소녀들을 우리 안에 든 짐승처럼 취급한다는 생각을 했을 뿐 그에 대해 딱히 반론도 하지 않았고 나무라지도 않았다. 물론 하타가 그 소녀들을 향

해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그 소녀들을 생각하는 방식에는 계급과 접합된 인종적·남성적 우월감이 묻어나 있었다. 하타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의 태도는 일종의 “부자의 태도로서, 부자는 자신의 집안이나 땅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하인들과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거의 알지 못한다. 부자는 그들을 단지 삶이라는 거대한 기계, 즉 밤낮으로 쉼 없이 돌아가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생각할 뿐이다”(251). 이런 의미에서, 그의 세계관은 오노 대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것이 생산하는 담론을 통해 세상을 제단하고 인식한다. 또한 그것을 통해 각 집단과 개인을 서열화하고, 인종과 젠더와 계급에 따라 각 개인이 일본 “민족의 위대한 운명과 사명”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다(120). 그러한 그의 세계관 속에서, 제국의 신민이자 열등한 인종인 한국의 여성들이 제국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타가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무엇인가 잘 못되었음을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소녀들이 부대로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오노 대위의 명령으로 그는 한 위안부 소녀를 특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 소녀의 이름은 “끝애”(Kkuttah)였고, 하타는 그녀를 K라 지칭한다. 그런데 하타는 그녀에게 정서적으로 동화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타가 그녀에게 끌린 최초의 이유가 그녀의 말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즉, K가 교육 받은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이었다. 사실 한국말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던 하타에게 그녀의 한국어는 무엇인가 일깨워주는 듯했다. 그러했기에 “정상적인 음역에서 나오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게다가 그녀의 말은 다른 여자들처럼 천박하거나 지방 사투리가 묻어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는 K가 “분명 교육을 받았으며, 그것도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확신했고 이로 인해 “그러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K에게 더욱 끌리고 만다(235). 그녀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그녀가 양반 가문 출신임을 의미

한다. 다른 소녀와 달리 K는 열등한 종족이 아닌, 순수 일본 혈통에 가까운 사람인 것이다. 바로 이런 연유로 그녀는 하타의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타 역시 그녀를 사랑함에 있어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이 제국의 인종질서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K 역시 하타가 한국인을 알게 되자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자 하타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소설의 유일한 서술자로서, 제국의 군인으로서, 또 K의 관리자로서, 그리고 남성으로서, 하타가 K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는 한국의 양반 가문의 막내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 징집될까 두려워 두 딸들을 정신대에 보내버린 것이다. 결국 위안부로서 현재 그녀의 위치는 제국주의와 인종주의와 가부장제도가 공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녀의 몸은 다양한 권력의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최후의 희생물로 바쳐진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이야기는 하타의 세계관에 균열을 가져오기 시작한다. 그는 먼저 “지원자”라는 말의 진실성에 의문을 던져야 했고, 충성을 받쳤던 일본 제국의 도덕성을 의심해야 했으며, 또한 제국의 인종 질서에 질문을 던져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거기에 멈춰서 더 이상 나아가지는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그의 순진한 충성심의 결과로 고작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폭력적 지배의 최전방에 있었다는 트라우마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었을 것이다.

대신 하타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남성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으로 그 균열을 서둘러 봉합해버린다. 그러했기에 그는 자신과 K가 불균등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자신이 K를 억압하는 사회적 기계의 한 축이었음에도 그것을 애써 부인한 것이다. 이는 그 어떤 낭만적 사랑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지배와 복종이 규범인 곳에서 동등한 개인과 개인의 만남인 낭만적 사랑의 몸짓은 지배

와 복종의 언어로 재영토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타의 믿음은 너무 강고했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악용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랬기에 그는 전쟁이 끝난 이후 K와 함께 할 장밋빛 미래에 대해 백일몽을 꾸는 데 시간을 허비하거나, 욕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반응하지 않는 K의 몸을 탐했을 뿐이었다. 이 시점부터 하타의 내러티브가 평소의 평정심과 건조함을 상실한 채 낭만적 서정성에 물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독자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노년의 하타와는 전혀 다른 청년 하타의 낭만적 열정을 만나게 된다. (점잖음과 형식적 예의가 성적 리비도를 대신했던 백인 과부 메리 번즈(Mary Burns)와의 사랑과 비교해 보라).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로맨스는 비극적 아이러니로 점철되고 만다.

나는 드러나는 그녀의 몸 모든 곳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작은 젖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젖가슴에서는 달콤한 물 같은 액체가 흐르는 것 같았다. 목이 막혔지만 상관없었다.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아주 빨랐고 자연스러웠다. 더 할 수 없이 순결했다. ... 그녀의 어깨와 등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고요밖에 없었다. 그녀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살갗은 서늘하고 색깔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누워 있는 여인의 조각상인 양 누워 있었다. 도무지 진짜 여자 같지가 않았다.

이윽고 내가 입을 열었다. 사랑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랑합니다. 나는 다시 말했다.

[...]

나는 잠시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 실제로 K가 내는 소리였다. 아주 작은 소리로 되풀이해서 말을 했는데, 묘하게도 그것이 꼭 하타, 하타, 하타, 하타, 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 보고 나서 나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억지로 울음소리를 죽이려는 것처럼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

나는 그녀를 두고 나오면서 불안과 환희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가 왜 마음이 상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의 처녀성을 잃은 것이 슬펐을 것이다 (당시 나는 그것이 모든 여자에게 가장 귀중한 보석이라고 생각했다).

I kissed as much of her body as was bared. I kissed her small breasts, which seemed to spill a sweet, watery liquid. I gagged but did not care. Then it was all quite swift and natural, as chaste as it could ever be. ... when I gazed at her shoulder and back there was nothing but stillness, her posture unchanged, her skin cool and colorless, and she lay as if she were the sculpture of a recumbent girl and not a real girl at all.

I said then, *I love you*, and she didn't answer. *I love you*, I said again...

[...]

I stood quietly for a moment and waited and indeed it was K, saying over and over very quietly what sounded most peculiarly like *hata-hata, hata-hata*. But as I listened more closely I realized that she was fitfully crying, though in quelled gasps, as if she were trying to hush herself. ...

After I left her I found myself in a state of unease and exhilaration. I could understand why she should become upset, that she was perhaps sad for the end of her maidenhood (which I thought then was the most precious ore of any woman) (260-61, 강조는 원본)

이 순간이 그의 낭만적 사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 일 것이다. 하타의 제국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응시 하에서, K의 몸은 몇 차례의 변신을 거듭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조각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K의 몸을 깎아내고 오려내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먼저 그녀의 몸은 욕정을 충족시켜줄 성적 대상이 된다. 그다음 그녀는 일종의 미적 대상체가 되어 생기를 상실한 조각상처럼 하타의 페티시즘을 위해 봉사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의 속삭임은 그녀를 가부장제의 충실한 주체로 호명한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녀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낭만적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졌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사랑의 행위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폭력으로 귀결되고 만다. 그 둘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는 사랑과 강간, 동의와 강제 사이의 미약한 경계선을 지워버린다. 그 둘 사이의 사랑은 낭만적 사랑의 공간이 아닌 지배의 장이 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랑의 몸짓은 실질적인 폭력의 행위로 전화된다. 타자의 주체성을 말살하고 사유화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했기에 그 둘 사이의 사랑에 K의 주체성이 각인 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으며, 하타는 K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마저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의 사랑은 K를 또 하나의 위안부 소녀로 만들고 만다. 그것이 K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녀가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타는 그 울음의 진정한 의미마저도 깨닫지 못한다. 그의 가부장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상상력은 어처구니없게도 그것을 처녀성의 상실에 대한 아쉬움으로 변질시켜버린다. 여기에서 하타의 사랑의 비극적 결말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낭만적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던 젊고 순진한 하타에게 K의 마지막 말은 치유 불가능한 트라우마가 된다.

“저는 당신의 도움을 원치 않았어요!” 그녀가 외쳤다. “절대 당신의 도움을 바라지 않았어요. 제 말 들리지 않나요? 저를 내버려둘 수 없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리고 점잖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요. 당신이 원하는 건 나의 성(性)이에요. 나의 성이라는 물건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걸 잘라내서 모피나 좋아하는 보석처럼 보관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그걸로 만족했을 거예요. 당신은 점잖은 사람이지요. 중위님,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I don't want your help!” she shouted. “I never wanted your help. Can't you heed me? Can't you leave me be? You think you love me but what you really

want you don't yet know because you are young and decent. But I will tell you now, it is my sex. The thing of my sex. If you could cut it from me and keep it with you like a pelt or favorite stone, that would be all. You are a decent man, Lieutenant, but really you are not any different from the rest” (300).

그의 낭만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하타는 끝내 K를 잔혹한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위안부라는 제국주의 폭력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했다. K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그가 원했던 것은 아마도 “성” 혹은 “성이라는 물건”이었는데도 모른다. 즉, 하타는 K가 처한 억압적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만을 채운 제국의 군인이자 남성애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IV. 인종주의와 가족의 (불)가능성

하타의 K에 대한 낭만적 이상화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하타의 근원적 분열, 즉 존재와 주체의 분열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K의 몸은 그저 청년 하타의 리비도가 분출될 수 있는 출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의 억압된 에스닉 정체성이 회귀하게 되는 통로에 더 가깝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녀의 한국말에 처음부터 끌릴 수는 없었고, 제국의 군인이 일개 위안부를 사랑할 수는 없었으며, 나름 점잖았던 그가 그녀의 몸에 그렇게 집착하지도, 그녀의 이름 “끝애”가 한국(Korea)을 상징하는 알파벳 첫 글자 K로 그의 머릿속에 각인될 수도 없었다.

식민지 시절, 한국이라는 이름은 감히 입 밖에 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단지 그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열등한 인종의 낙인을 지고 살아야만 했다. 따라서 그가 정상적인 일본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애써 한

국민이 아님을 강변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으로서 하타가 만들어낸 사회적 현실은 그 토대가 빈약한 것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억압에 기생하는 것이었다. 한국이라는 궁극적 욕망의 대상체를 “지로 구로하타 중위”라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기표로 대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의 욕망의 대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존재한다. 그리고 억압된 모든 것은 반드시 회귀하듯이, 그것은 끝내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 즉, K를 향한 그의 멈출 수 없는 욕망은 그의 몸이라는 실존이 사회적 주체로서의 지로 구로하타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할 수 있다. 젊은 하타는 그 질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K의 성에 대한 물신화는 그의 응답 방식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K의 성을 소유함으로써 상상적인 차원에서 한국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속한 제국주의적 체계의 강고함은 하타에게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하타는 그 이상을 원치 않았다. 젊은 하타의 비극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는 제국에 저항하기보다는 판타지 속으로 탈출하여 그곳에 K를 감금하고 사유화하고 대상화한 것이다. K가 하타의 사랑을 견딜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위에 인용한 K의 마지막 말은 섬뜩하게도 그의 양녀 서니(Sunny)가 하타의 집을 나오며 하타에게 한 말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돌아서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워 100미터는 꿰뚫을 것 같았다. ‘전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으나 동요가 없었다. ‘절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절 필요로 했지요. 하지만 절대 그 반대인 경우는 없었어요’”(96). 서니의 이 말은 서니와 K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하타의 궁극적 욕망의 대상은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 와서도 여전히 하타의 무의식 어디엔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한국 여성의 몸을 가진 서니는 애써 의식 속에서 지우고자 했던 K의 유령을 다시 불러들였고 그것이 하타의 조용한 미국 생활에 균열을 낸 것이다. 이런 의

미에서, 캔디스 추(Kandice Chuh)가 지적한 바대로, 서니는 하타에게 “제 2의 기회이자, K의 대체물”이었다(15). 즉, 하타는 서니를 통해 K와 화해하고 이를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G 74). 하타의 이런 (무)의식적 욕망은 서니가 하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문에 일정 부분 답을 제공해준다. 서니는 하타에 대해 이렇게 질문한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난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버지가 왜 아이를 갖고 싶어했는지 말이에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아버지는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정성 들여 가꾸어놓은 이 집에서 말이에요.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메리 번즈처럼 좋은 여자랑 결혼 하실 수도 있었어요. 좋은 이웃들이 있는 이 좋은 마을에서 든든한 가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만 데리고 있었죠. 저는 언제나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But with you, I just didn't understand, I thought this even when I was very young, why you would ever want a child, me or anyone else. You seemed to prefer being alone, in the house you so carefully set up, your yard and your pool. You could have married someone nice, like Mary Burns. You could have had an instant, solid family, in your fine neighborhood, in your fine town. But you didn't. You just had me. And I always wondered why. (335)

하타는 서니의 다양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녀를 데리고 있었다. 서니에게는 하타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서니는 과거의 지로 구로하타와 현재의 프랭클린 하타 사이를 매개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서니와 하타의 재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준다. 분명 서니는 K의 재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니와 K 모두 한국인의 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하타의 억압된 정체성

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하타는 서니를 입양함으로써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받고, 서니를 통해 K와의 못다 이룬 사랑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었는데도 모른다. 그것이 그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무의식적인 차원에 서나마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서니를 통한 하타의 자기구원의 시도는 완성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서니는 K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K는 순수 한국 혈통의 양반가문 출신이었으나, 서니는 그렇지 못했다. 그녀는 “어느 미군과 술집 여인 사이의 하룻밤 질펀한 만남의 ... 소산”이었다(204). 즉, 서니는 순수 한국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열등한 흑인의 피에 오염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K의 완전한 대체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흑인의 피는 치유 불가능한 것이었고 교정될 수 없는 차이의 표상이었다. 일본제국주의와 가부장제, 그리고 미국의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 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던 하타에게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도덕적·생물학적 결함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서니를 통해서 과거와 화해하고 K와의 로맨스를 복원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상적 차원에서나마 성취하고자 했던 하타의 무의식적 시도는 끝내 좌초하고 만다. 하타와 서니의 관계를 결정지은 것은 가족관계가 아닌 일종의 권력관계였기 때문이다. 부녀시간이 되어야 할 하타-서니의 관계는 백인의 대리자와 흑인의 사이의 인종적 지배관계로 변질된 것이다. 그는 K에게 저지른 잘못을 또 다시 반복했다. 근본적인 권력구조에 대한 성찰이나 그에 대한 저항 없이,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자를 대상화하고 전유한 것이다.¹⁾

1) 하타가 자신의 한국적 정체성을 복원시키고자 K와 서니를 전유하는 행위는 하타의 상상력 속에서 민족 정체성이나 시민권이 철저하고 젠더화 된 것임을 의미한다. 즉, 여성의 몸이 남성의 정체성을 위한 텅 빈 기표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타의 내려티브가 “시민권 구성의 젠더화”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헤게모니적 미국 시민권의 영역 내에서 자신을 구성해내려는 주체의 실패”를 형상화함으로써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해밀턴 캐롤(Hamilton Carroll)의

V. 트라우마와 동화의 (불)가능성

하타는 분열된 주체다. 한편으로, 그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철저히 복종함으로써 그것이 요구하는 충실한 주체가 되고자 한다. 또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한국인의 정체성을 갈망한다. 그의 몸이 상반된 두 욕망이 충돌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그가 K와 서니의 관계에서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정의는 하타의 모순된 두 가지 욕망이라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²⁾ 지젝은 라캉의 개념인 “실재의 핵심”(kernel of the real), 즉 거세불안과 같이 근본적으로 판타지 구성물이라 할 수 있는 트라우마의 핵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접근한다. 그에 따르면, 주체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수용은 “구조적 필연성에 의해 결코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다. ... 언제나 잔여물 혹은 찌꺼기가 남으며, 그것에 들러붙어 있는 트라우마적인 비합리성과 의미[혹은 느낌]없음(senselessness)의 긴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찌꺼기는 “주체가 이데올로기적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방해한다기보다는 ... 완전한 복종의 조건이 된다”(43). 다시 말해서, 주체는 트라우마적인 실재의 핵심을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는 것이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이에 대한 대가로 주체에게 이데올로기적인 자기현전의 느낌 혹은 주이상스를 제공해줄 것을 약속한다.

법에 대해 무조건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의미/느낌 없는 트라우마의 비통합적 잉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비통합적 잉여—이것이 이데올로기적 의미로부터 탈출하는 한—은 우리가 이데올로기적 주이-상스 혹은 이데올로

주장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593).

- 2) 여기에서 나의 주장은 지젝의 개념인 “비통합적 잉여”(non-integrated surplus)(232)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정치를 이론화한 토모 하토리(Tomo Hattori)의 논문에서 영향을 받은 것임을 밝혀 둔다.

기의 본질적 요소인 의미-에서의-향유라 부르는 것을 지탱해 준다.

It is precisely this non-integrated surplus of senseless traumatism which confers on the Law its unconditional authority: in other words, which—in so far as it escapes ideological sense—sustains what we might call the ideological jous-sense, enjoyment-in-sense (enjoy-meant), proper to ideology (43-44, 이텔릭은 원본).

지젝은 한 아버지의 꿈에 대한 라캉의 분석을 이용하여 이를 보다 명료하게 설명한다. 병든 아들을 간호했으나 끝내 아들이 죽자 옆방에서 잠시 잠든 아버지가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죽은 아들이 나타나 이야기한다. “아버지, 제가 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꿈은 두 개의 전혀 다른 현실 개념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아버지가 꿈으로부터 깨어나 눈을 뜨게 되는 현실이다. 아버지가 자고 있던 바로 옆방에서 아들의 시신이 실제로 불에 타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꿈과 현실은 가짜와 진짜의 의미다. 진짜 불이 났다는 사실을 꿈속에서 불이 난 것으로 치환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잠을 깬다는 것은 따라서 환상에서 벗어나 진짜로 아들의 시신이 불에 타고 있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진짜 아픈 현실은 시신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아들은 이미 죽은 뒤이기 때문이다. 지젝에 따르면, 오히려 아버지가 꿈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미지 자체, 다시 말해 불에 타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 자체가 “실재의 핵심”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꿈에서 깨어 아들의 시신이 타고 있는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병든 아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진정으로 고통스러운 실재로부터 도피하여 잠에서 깨어나 현실로 탈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꿈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지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데올로기의 기능은 우리의 현실로부터 탈출로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

라, 트라우마적인 실재의 핵심으로부터의 탈출구로서 사회적 현실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45).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을 통해 지적은 전통적인 이데올로기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 개념에 도달한다.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 응시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성을 간과하는 부분적인 응시다. 반면에 라캉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자신의 불가능성을 삭제함으로써 가능해진 총체성(*a totality set on effacing its own impossibility*)을 지칭한다”(49, 강조는 원본).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의 메커니즘이 부분을 전체로 잘못 동일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은 은폐된 전체를 드러내는 탈신비화 혹은 탈은폐 전략을 통해 가능해진다. 하지만 라캉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성급한 탈신비화가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된다. 예컨대, 거세 공포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유럽 부르주아 문화의 산물이나 역사적 우연성의 산물로 치부하는 것이다. 즉, 특정 사회구성체의 내적 총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총체성의 논리에 위배되는 특정 사회적 모순을 삭제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지속된 모순이었음에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특정 사회구성체가 자신의 불가능한 총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모순을 삭제하거나 위장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된다.

다시 하타의 내러티브로 돌아가자. 위에서 언급한 아버지의 꿈과 일본인으로서 혹은 미국인으로서 영위했던 하타의 삶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하타에게 트라우마의 핵심은 그에게는 집이 없다는 단순하지만 근원적인 사실이다. 자신의 고향인 한국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곳이 되었고 따라서 제국의 주변적 주체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뼈아픈 진실이 그에게는 반드시 깨어나야 할 악몽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현실 속으로 깨어나야만 했다. 물론 그 현실은 일본 제국의 대동아공영론 담론과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현실이다. “지로 구

로하타 중위”와 “하타 박사님”과 같은 사회적 칭호와 그의 거대한 튜더왕 조식 저택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공된 탈출구에 다름 아니다. 그러한 호칭을 취함으로써, 거대한 저택에서 점잖은 삶을 누리면서,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한국인으로서의 과거를 생물학적 우연이라 치부함으로써, 하타는 일본 제국의 군인이 그리고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동화의 노력은 필연적 실패를 내포한다. 주류에 대한 동화는 언제나 잉여를 남기기 때문이다. K와 서니에 대한 그의 집착은 그러한 필연적 실패의 징후인 것이다. 하지만 이 실패는 오히려 그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완전한 투항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 실패를 위장시켜야만 그는 트라우마적인 실재의 핵심과 조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K와 서니의 관계에서 더욱 가혹한 제국주의적이며 인종주의적인 거부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했기에 하타는 K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니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K의 죽음이 그리고 서니의 탈출이 그가 점잖은 사람으로서 또 성공적인 동화를 성취한 사람으로서 미국사회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었던 것이다.³⁾

VI. 집의 (불)가능성

미국 지배 이데올로기의 권위에 대한 하타의 무조건적 신뢰는 또 한 번

3)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트라우마와 동화의 관계는 알렉시스 모투즈(Alexis Motz) 2013년 논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 할 수 있다. 모투즈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경험하고 있는 인종주의에 의한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공식적 역사와 디아스포라 주체의 ‘성공적’ 동화에 관한 내러티브에 대해 가치있는 반-내러티브(counter-narrative)”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413). 하지만 사회적 주체가 트라우마를 직접 응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를 통한 대안적 혹은 반-내러티브를 생성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 트라우마는 동화의 논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전에 직면한다. 그것은 서니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부터다. 일종의 또 다른 자아와의 대면과도 같은 그 순간이 그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안내하게 된 것이다. 마을의 코모 경관이 서니가 아들 토마스를 데리고 베들리런 근처로 돌아왔다고 알려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녀가 근처 상가 프랜차이즈 상점의 매니저가 되었다고 알려주었을 때만 하더라도, 하타는 그녀가 사업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게를 몰래 엿본 순간, 그는 낯선 친숙함과 대면하며 몸이 뻗뻗해짐을 느낀다. 그녀의 가게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반짝이며 따뜻한 조명”이 비추고 있는 전시 창은 “자신의 가게였다면 그렇게 했을 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204). 이것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로운 스펙터클이었다. 그리고 이 경이로움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과 자신이 갈망했던 것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즉, 서니 역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원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 고향과 결별한 그녀 역시도 평생토록 집을 찾고자 했던 하타 자신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타는 자신의 집만을 찾고자 서니의 집에 대한 욕망을 억압하고 심지어 그녀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에 복종시키고 이용했다. 그러했기에 그가 찾은 집은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 속에 굴복시키는 지배와 복종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트라우마적인 자각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생 전반을 새로운 관점에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것이 내가 내 인생 전체를 걸쳐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던가. 일본인 부모님과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 영광스러워야 했을 전쟁을 위해 입대하기까지,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좋은 마을에 정착하기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이는 내 오랜 어리석음이자 나의 항구적인 실패가 아닌가?

“For isn't this what I've attempted for most all of my life, from entering the regular school with my Japanese parents ... to enlisting myself in what should have been a glorious war, and then settling in this country and in a most respectable town, isn't this my long folly, my continuous failure?” (205).

이 깨달음에는 역설이 존재한다. 먼저 이 깨달음은 하타를 상징적 죽음으로 재촉한다. 그는 더 이상 베들리런의 존경 받는 어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아니 그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죽음은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한 정화이자 부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순수함과 같은 어떤 느낌” 혹은 “조금 전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추방해버린 듯한 파괴와 갱생의 느낌”을 갖게 된다(207). 즉, 트라우마의 핵심과의 갑작스런 조우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권위를 문제시한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갖는 토대의 빈곤함과, 그 이데올로기가 언명한 동화의 명령의 당위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마침내 지배 이데올로기의 힘이 유예되는 공간에 까지 이르게 된다. 이제는 “하타 박사님”과 같은 호칭이나 그의 자랑스러운 튜더왕조식 저택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역설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서니를 통해 비극적 자기 지식을 획득하게 된 하타는 모든 세속적 인연을 하나씩 끊어 간다. 소설의 끝 부분에서 하타는 친구인 레니(Renny Banerjee)에게 이렇게 말한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딱 한번 양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네”(321). 그 후 그는 글자 그대로 자신이 미국에서 획득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타 박사님”이라는 이름도, 자신의 성공적 동화의 상징이었던 튜더왕조식 저택도 모두 포기하고, 끝내는 30년 넘게 살아온 베들리런을 영원히 떠날 것을 결심한다.

나는 나의 살과 피와 뼈만을 짊어지고 갈 것이다. 나는 깃발을 흔들겠다. 내일이

면 이 집에 생기가 돌고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나는 밖에서 들여다보겠지. 나는 이미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 마을 아니면 그다음 마을 아니면 오천마일 멀리 떨어진 곳을 걸어갈 것이다. 나는 돌고 돌 것이다. 집에 거의 다 도착할 것이다.

Let me simply bear my flesh, and blood, and bones. I will fly a flag. Tomorrow, when this house is alive and full, I will be outside looking in. I will be already on a walk someplace, in this town or the next or one five thousand miles away. I will circle round and round again. Come almost home. (356)

이 수수께끼 같은 마지막 말은 집의 의미에 대한 하타의 새로운 이해를 보여준다. 이름 없는 식민지 주체에서, 일본 제국의 “지로 구로하타 중위”로, 그리고 베들리런의 “하타 박사님”으로의 극적인 변신 과정은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한 그의 고된 투쟁의 항로이자 진정한 집을 찾기 위한 디아스포라적 여정이었다. 즉, 그가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한국이라는 고향을 포기하고 생물학적인 정체성을 포기했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의 토대로서의 ‘집’은 포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은 것이다.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장소도 안정된 정체성의 토대로서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집이란 그저—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말을 빌리자면—일종의 “우연적이고 자의적인 멈춤”(contingent and arbitrary stop)의 지점에 불과한 것임을 말이다(Hall 397). 사실 집을 찾기 위한 긴 여정 동안 집은 단 한 번도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가 집에 이르는 길은 끊임없이 연장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도착은 언제나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집이란 공간은 언제나 각 개인이나 집단 주체들의 초민족적 여정의 회로 속에서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그러하다. 다시 말해, 집이란 특정 역사적 구성체와 자신을 특정 위치에 각인시키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의식적 노력이 어우러지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각인은 자의적인 것이며 또 토대가 빈약한 것이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집과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집도 안정된 정체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VII. 결론: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

하타의 포기 행위는 궁극적 ‘집 없음’이라는 초민족주의 시대 주체의 근본적 숙명을 긍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집에 대한 갈망으로 고통 받지 않아도 되며 또한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는 집을 “밖에서 들여다보며” 집 주변을 “돌고 도는” 추방자의 위치에 선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집을 떠난 그는 “집에 거의 도착”한다. 집을 포기하자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고정되고 안정된 하나의 집 대신 적대적으로만 느껴졌었던 세계가 이제 자신의 집이 되어 돌아온다. 결국 그토록 갈망하던 집을 마침내 얻게 된 것이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그는 하나의 보편자로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 시민으로 변모한 것처럼 보인다. 이 시점에서 그는 분명 회복 불가능한 고향 땅을 복원하려 시도하는 디아스포라도 아니고,⁴⁾ 몇 평 남짓 물려받은 땅을 지키고자 부단히 애쓰는 불박이 토착민도 아니며, 토착민과 동화되기 위해 분투하는 이민자는 더욱 아니다. 사실 디아스포라의 길과 동화의 길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이 아니다. 앞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하나는 다른 하

4) 이영옥은 2009년 논문을 통하여 하타의 마지막 결정을 물리적 시·공간에 한정된 집과 생물학적인 에스닉 정체성을 버리고 정신적인 집을 찾고자 하는 디아스포라적 행동으로 해석한다(78). 하지만 이것은 디아스포라 개념의 지나친 확장으로, 디아스포라 개념이 가진 역사성을 고갈시키고 순전히 메타포로서의 디아스포라만을 남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향의 상실이나 박탈, 식민주의, 이주 등 디아스포라의 물질적인 측면이 증발되어 그것에 내재된 비판적 기능까지도 상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신경증적인 방식으로 주체에게 말을 걸어오는 고향집의 존재가 있기에 동화에 집착하게 되고, 동시에 동화가 불가능하기에 집과 고향을 향한 디아스포라적 욕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대안도 아니다. 동화를 갈망하는 모순적 디아스포라가 되거나, 아니면 둘 모두에 대한 총체적 포기의 길만이 존재한다. 최후의 결정적인 순간 하타가 선택한 길은 총체적 포기의 길이다. 이 길은 포스트모던적, 혹은 다문화적 다양성을 체현하는 주체도 아니며, 디아스포라로서 중심과 집을 향한 열망을 가진 주체도 아니다. 어쩌면 작가인 이창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주체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디아스포라와 동화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주체 말이다. 그것이 어떤 주체인지 우리는 아직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조선대)

■ 주제어

『제스처 라이프』(소설), 집 찾기, 동화, 디아스포라, 트라우마의 핵심

■ 인용문헌

- Carroll, Hamilton. "Traumatic Patriarchy: Reading Gendered Nationalism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Modern Fiction Studies* 51.3 (2005): 592-616. Web.
- Ching, Leo. "Yellow Skin, White Masks: Race, Class, and Identification in Japanese Colonial Discourse." *Trajectories: Inter-Asian Cultural Studies*. Ed. Kuan-Hsing Chen. New York: Routledge, 1998. 65-86. Print.
- Chuh, Kandice. "Discomforting Knowledge: Or, Korean 'Comfort Women' and Asian Americanist Critical Practice."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6.1 (2003): 5-23. Web.
- Freud, Sigmund. "The 'Uncanny.'"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7: An Infantile Neurosis and Other Works*. Trans. & Ed. James Strachey in collaboration with Anna Freud. London: The Hogarth Press, 1955. 217-256. Print.
-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Colonial Discourse &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Eds. Patrick Williams & Laura Chrisman. New York: Columbia UP, 1994: 392-403. Print.
- Hattori, Tomo. "Model Minority Discourse and Asian American Jouis-Sense."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11.2 (1999): 228-47. Print.
- Lee, Chang-rae. *A Gesture Life*. New York: Riverhead Books, 1999. Print.
- Lee, Young-Oak. "Gender, Race, and the Nation in *A Gesture Life*."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46.2 (2005): 146–59.

Web.

_____. “Transcending Ethnicity: Diasporicity in A Gesture Life.”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12.1 (2009): 65–81. Web.

Miller, Jacques-Alain. “An Introduction to Seminars I and II.” *Reading*

Seminars I and II: Lacan's Return to Freud. Eds. R. Feldstein,

B. Fink & M. Jaanus. New York: SUNY P. 1996. 3–35. Print.

Motuz, Alexis. “Before Speech: An Interrogation of Trauma in Chang-

rae Lee's *A Gesture Life*.” *Canadi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43.3 (2013): 411–32. Web.

Žižek, Slavoj.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Print.

■ Abstract

**(Im)possibility of Home:
Split Desires in *A Gesture Life***

Im, Kyeong Kyu
(Chosun Univ.)

The world of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is full of irony. When the protagonist-narrator Franklin Hata, a marginalized subject in the racial relations in the US, attempts at assimilation into the US social reality, all his seemingly harmless gestures toward the other people turn out to be extreme cruelties. Furthermore, he cannot resist the lure of American dream that promises him a seamless assimilation. Ironically, the more he doubts about the promise, the stronger his desire for assimilation becom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lve deep into this irony.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defines Hata's long and difficult journey from Korea to Japan, and finally to the US as a desire for an authentic home—a place that he can feel full presence of the self. In this journey, his desire for home is bifurcated. On the one hand, he unconsciously suffers from diasporic longing for the original homeland, Korea, which is expressed through his inevitable relationship with K and Sunny. On the other hand, he cannot give up the aspiration to become part of dominant culture, which finds its prolongation in his beloved Tudor house.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his diasporic desire for Korea is in fact a precondition for his unconditional surrender to the dominant ideology.

■ Key words

A Gesture Life (fiction), homing desire, assimilation, diaspora, kernel of trauma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8년 3월 12일 ○심사일: 2018년 3월 22일 ○게재일: 2018년 4월 30일

교육 연극과 소시오드라마를 활용한 영미 드라마 수업 연구

정 미 경

I. 서론

한국의 영문학과에서 드라마 수업은 종종 영어 교육을 위한 효과적 도구로 평가받는다. ‘드라마를 이용한 영어교육(영어회화)’ 같은 강좌가 진행 중이며 드라마 수업과 영어교육을 주제로 작성된 교육 논문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영어 교육의 도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드라마 활동은 언어의 총체적 기능을 습득하고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인 것으로 평가된다(Fleming 7). 이 경우 영미 드라마 수업은 영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인지적 작업의 보조 활동이 된다. 다른 한편 드라마 수업은 공연 예술에 대한 기초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들과 구별되는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994년 한국영어영문학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공연을 의식한 새로운 희곡 교육의 실천방향”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드라마라는 장르의 특성을 살려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세미나에서, 발표자 대부분은 드라마 수업이 교재를 읽고 해석하는 텍스트 강의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데 공감했고, 나아가 학생들의 즉흥성과 창조성을 유도하는 공연 체험 활동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의에 담긴 문제의식은 영미 드라마수업이 지향하는 학습의 목적 내지 목표가 무엇인가, 즉 드라마수업의 목표가 ‘영어(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인가 혹은 연극을 통한 예술적 경험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소한 것들』(*Trifles*)을 배울 때, ‘드라마읽기 및 활동을 통해 문법 및 듣기 실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수업과 ‘20세기 초 미국 여성의 삶과 현재의 나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성찰’하려는 수업의 차이는 매우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미 드라마 수업의 목표를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과 예술 체험이라는 대립 쌍으로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전자, 즉 영미드라마 수업을 언어습득의 도구라는 방법론으로 국한시키는 경우이다. 전통적으로 서구 드라마는 몸과 행위에 기반을 두지만 근대 계몽 시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언어 중심적 리얼리즘 극 텍스트가 이를 대체해왔다. 몸과 언어 외적인 극 요소보다 언어 대사가 부각된 근대 드라마 텍스트는 외국어 학습을 위한 최적의 교재일 수 있으나, 자칫 영미드라마의 공연적 특징을 언어적 의미로 축소시킨 협소한 감상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영미드라마 수업의 목적을 언어 습득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미적 체험을 제공하는 예술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도를 모색해 보려한다. 드라마를 통한 예술 교육, 즉 학생들이 드라마를 만들고 공연 과정을 경험하는 수업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학생 주도(PBL) 수업, 창의적 드라마(creative drama) 수업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60년대 이후 발전되어 온 교육 연극(DIE, Drama in Education)의 성과를 활용하는 한편, 20세기 초 제이콥 모레노(Jacob Moreno)가 창시하고 발전시킨 ‘소시오드라마’(sociodrama) 기법을 영미 드라마 수업에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미문학과 공연예술”, “문화와 예술세미나”, “부조리문학”과 같은 영문학 전공수업과 일반교양수업에서 영미 드라마를 교재로 사

용하여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강좌들에서 수강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연극과 심화된 집단 토론을 위한 소시오드라마 기법을 적용했던 방식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미 드라마 수업에서 예술 체험을 강화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교육 연극과 소시오드라마의 활용

영미드라마 수업에서 작가와 텍스트를 중시하는 경향은 근대적 학문 연구의 영향으로서, 관객과 무대 그리고 몸이 중시되었던 서구 드라마의 수천 년 역사를 배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비극을 정의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드라마의 어원인 dran을 행위, 즉 to do 라고 밝힌 바 있듯이, 드라마는 본질적으로 공연과 별개로 논의할 수 없다(최성희 70). 1994년 영어영문학회에서 논의된 “새로운 희곡 교육의 실천 방안” 세미나 역시 텍스트를 읽고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드라마의 본질을 강조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수업, 관객성을 체득하는 수업, 한 학기 동안 공연을 연습하고 실행하는 수업, 문화적 생산력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위한 드라마 수업 등 인지적 정신적 텍스트 중심 수업을 감성적 육체적 공연 수업으로 바꿔야한다는 제안이 쏟아졌다(김경한 50).

하지만 텍스트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 상연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을 통해 관객을 전제로 한 영미 드라마 공연을 준비한다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공연 준비에 바빠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깊이 있는 탐색을 놓치게 될 우려도 있

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서 텍스트 독해를 넘어서는 수업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면,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만이 드라마 수업의 유일한 대안이 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영미 드라마 수업은 전문 극단의 연출가와 배우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대학의 전공 수업에서 학생들이 드라마의 본질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영미 드라마 수업의 목표를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 결과물 제시가 아니라 학생들이 드라마의 공연적 성격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학생과 교수가 공연 부담 없이 드라마를 체험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 방법으로서 교육 연극을 검토해볼 만하다. 교육연극은 1950년대 영국의 도로시 헤스코트(Dorothy Heathcote)가 개발한 놀이 형식의 교육에서 시작되었다. 헤스코트는 드라마를 교육을 완성하는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참여자인 학생들이 갈등이 발생하는 극적 상황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드라마를 통한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최지영 238). 그 후 교육 연극은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시실리 오닐(Cecily O'Neill)에 의해 과정 드라마(process drama)라는 용어로 발전되어 대중화되었다. 교육 연극은 무대 위에서의 예술적 성취를 위한 제작 중심의 공연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참여자의 성장과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교육 연극은 관객보다는 참여자에게 어떤 연극적 체험 구조와 양식을 제공할 것인지, 참여자의 변화를 위한 연극 양식의 수용 맥락과 그 과정을 중시한다(최지영 235).

교육 연극의 특징은 첫째, 미리 쓰인 각본이 없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나 그림 등의 텍스트로부터 출발하여 구성원들과 논의를 통해 드라마를 만드는 수업 형식을 들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즉흥적, 창의적 놀이 방식과 행동을 유도하여 능동적인 발견 학습을 이끈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연극 수업에서처럼 관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공연을 하지 않는다. 대신 수업 과정 중에 동료 학생들 앞에서 즉흥적 에피소드를 시연하게 된다. 교육 연극이 진행되는

공간에서 관객은 곧 배우이고 배우는 곧 관객인 형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연을 목표로 간주하는 것이 ‘연극 교육’이라면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교육적 효과를 중시하는 것은 ‘교육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다(김경한 53-55).

이처럼 교육 연극은 참가자들의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격려하고, 드라마 준비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에 담긴 문학적 구조뿐만 아니라 감정의 구조도 체험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교육 연극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드라마 장면들을 다른 동료들 앞에서 공연하게 되므로, 배우와 관객의 역할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드라마 고유의 연극성과 관객성의 의미를 번갈아 체험한다. 그들은 ‘마치 ~인 것 같은’(as if) 허구의 세계를 설득하는 배우가 되었다가, 다른 학생들의 연기를 볼 때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서 있는 관객이 된다. 이 두 과정을 모두 경험함으로써 연극 무대 고유의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감상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특히 메타드라마, 브레히트식 서사극, 연극성(theatricality)과 같은 드라마 기법과 그 효과에 대한 이해는 텍스트 독해와 더불어 학생 스스로 드라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더 생생하게 체험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연극이 학생들의 참여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인은 수업을 이끄는 교사이다. 교육 연극을 영미 드라마 수업에서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수업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가 지시자, 강의자가 아니라 촉진자,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는다. 소재를 구성하고 참여자들이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드라마속의 실체와 방향을 타협하고 재 타협해야 한다(테일러 & 워너 23재인용).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몰입을 방해하는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져야 하며, 연극 텍스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제기하고 의

미의 확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테일러& 워너 44). 공연이 끝난 후 학생들은 동료 관객들과 함께 상호 평가하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와 연결된 문제의식이 도출되거나 현실과 연관된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교사는 이를 즉석에서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논의할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마무리 과정에서 제시하는 현실 인식과 성찰적 의문은 종종 텍스트를 넘어서는 주제라고 간주되거나 집단적 토론의 대상이 아닌 개인적 과제라고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언어 습득을 목표로 영미 드라마를 활용하는 수업이라면 드라마를 통한 인식의 변화와 성찰의 과정을 수업 목표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허구의 세계를 감상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 세계에 대한 성찰로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문학을 통해 얻게 되는 고유한 경험이며 나아가 문학 수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연극을 활용하는 영미 드라마 수업은 드라마 체험 후 학생들이 보이게 될 다양한 반응을 구조화할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업 구조화 마련의 책임과 방식은 일차적으로 교사 개인의 역량에 달렸지만, 학생들의 성찰과 토론을 드라마 수업의 주요 목표로 삼는 수업이라면 일회적이거나 우연적인 토론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수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 대안으로서 소시오드라마¹⁾ 기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소시오드라마는 1920년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모레노가 『사이코드라마 1권』(*Psychodrama I*)에서 정의한 집단 심리치료방식을 말한다.

1) 소시오드라마는 영미 드라마에서 일컫는 사회극(social drama)와 구별해야 한다. 사회극이란 용어는 19세기 중반 사실주의의 기반 위에 현실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연극이나 희곡을 일컫는다. 당시의 사회문제를 다룬 헨릭 입센이나 아서 밀러의 희곡작품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에 비해 소시오드라마는 교육이나 심리 분야에서 역할놀이의 개념으로 학생이나 환자의 어떠한 상태를 개선 혹은 치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사용되는 상황극을 뜻하기도 한다(유필상 63). 이 글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며 소시오드라마로 표기할 것이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소시오드라마는 집단 간의 관계와 집단적 이데올로기를 드라마적 행위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루는 방법이다. 모레노의 소시오드라마 기법은 당시 유럽을 휩쓴 파시즘, 자본주의로 인한 비인간적 사회현상들, 그리고 이성과 과학 맹신으로 인한 영성과 감성의 붕괴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상담기법으로 시작되었다. 정신의학자로서 모레노는 프로이트식 언어 상담기법이 아니라 연극을 통한 ‘잉여현실’(surplus reality)을 구현하여 상담자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했다. 이후 소시오드라마 기법은 임상의로, 심리상담, 교육 연극, 종교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었고 인간관계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적 학습과정,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드라마, 가족 갈등, 인종 편견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역할 놀이 방식 등으로 그 정의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최현진 667).

소시오드라마가 근거하는 전제조건은 관객을 구성하는 집단이 이미 문화를 공유하고 수행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문화적 역할들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역할 수행자’(role player)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모든 개인은 행동을 지배하는 특정 역할에 의해 성격이 부여되며, 모든 문화는 집단원들에게 부여되는 역할들로 특징을 갖게 된다고 본다(Fox 18-19). 영미드라마 수업과 문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집단을 이루어 드라마 텍스트를 연기하고 서로 지켜보는 과정은 문학텍스트에 묘사된 개개인의 이야기를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재구성하는 인식 작업의 결과물이다. 문학 작품 속 인물의 개인 심리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 인물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 때 문학 텍스트 외부로 학생들의 시선이 돌아가는 상황은 텍스트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문학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반성(reflection)을 통한 현실 인식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소시오드라마는 작품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던 학생들의 성찰

과정 그리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대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대안이 된다. 교육 연극에서도 학생들의 성찰과 마무리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소시오드라마는 이를 단순 마무리가 아닌 핵심적인 과정으로 다룬다는 점, 현실과의 연관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소시오드라마는 참가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행위를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제기되었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참여자의 역할 훈련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스텐버그 & 가르시아 26). 통찰만으로 치유가 되지 않으며 행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모레노 49).

다시 말해서 영미 드라마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텍스트를 교육 연극의 드라마적 행위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이해하고 묘사하는데, 이후 학생들이 상호 평가를 통해 텍스트 내적, 외적인 문제의식이 제기될 경우, 이를 소시오드라마 기법을 활용한 또 다른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교육 연극 과정이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방도가 된다면 소시오드라마는 학생들이 작품을 통해 이해한 현실 세계를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사례 연구

2.1 동영상상을 이용한 드라마 만들기와 역할극을 통한 문제 해결

필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학기동안 영문학과 전공 수업인 “영미 문학과 공연예술”에서 교육 연극과 소시오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다. 35명 내외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영어 텍스트 강독, 학생들의 드라마 공연, 역할극을 통한 평가와 대안 모색을 강의 목표 및 내용으로 설정했다. 학기 초와 중반은 교수 강의와 학생 발표를 통해서 세 편의 현대 영미 드라마 작품을 독해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취했다. 학기말에 수강생들은

세 작품 중 하나를 각자 선택하고 같은 작품을 선택한 동료들과 한 조를 이루어 2주에 걸쳐 드라마를 제작하였다. 학생들은 드라마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대본을 만들고 직접 연기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과제로 제출된 동영상은 수업시간에 다함께 감상하였고, 상영이 끝난 뒤 관객들의 질문과 감상을 듣고 상호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대부분은 서로 다른 해석을 보여준 조별 동영상을 비교하며 즐거워했고, 동영상 과제의 지속여부를 묻는 필자에게 준비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이해를 돕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하면서 계속 시행할 것은 권했다.

주목할 점은 학생 과제가 다양한 작품 해석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문학 텍스트를 뛰어넘은 현실적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2017년 수업에서, 데이비드 헨리 황(David Henry Hwang)의 『엠 나비』(*M. Butterfly*)를 선택한 조들은 저마다 색다른 재해석을 보여주었다. A조의 경우, 『엠 나비』의 주제를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서구의 성 규범 강요로 파악했다. 이를 재현하기 위해 카페에 혼자 온 아시아 여성을 보면서 서구 남성들이 오리엔탈리즘과 가부장적 편견을 드러내는 대화 장면을 설정했다. 서구 남성들의 연기가 과장될수록 패러디는 강해지도록 연출한 것이 백미였다. 이에 비해 같은 『엠 나비』를 선택한 B조는 문화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권력의 문제로 접근했다. 한국 남학생과 서구에서 유학 온 여학생의 연애 장면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근본적 요인으로서 한국남성의 가부장적 태도를 제시했다. 서구와 아시아의 권력 관계를 남녀(이성) 관계에 빗대어 묘사하는 원작과 달리, B조의 드라마는 남녀의 권력관계가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동서의 권력 관계와 어떤 방식으로 재협상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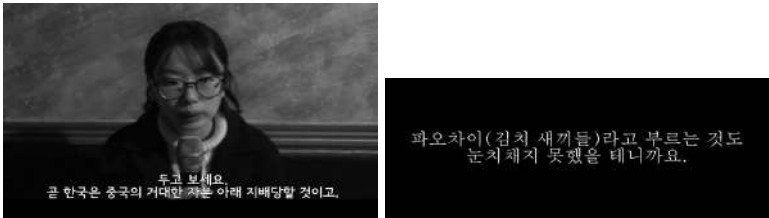
2세대 한국계 미국 작가 영진 리(Young Jean Lee)의 작품, 『용비어천가』(*Songs of the Dragons Flying to Heaven*)를 선택한 조들은 좀 더 확

대된 문제의식과 사례 적용을 선보였다. 『용비어천가』는 2004년 미국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중산층 진보 백인들의 위선을 꼬집고 인종 정치성을 비판하는 대사 때문에 평단의 논란을 불렀던 작품이다. 학생들은 이 작품의 독특한 텍스트 형식과 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구의 리얼리즘 극 형식, 메타드라마 형식, 브레히트적 기법을 비교 분석하는 학습을 진행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동시대 인종 문화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주제가 극 중 인물들로부터 공격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설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영문학과 전공 수업이지만 중국 유학생과 타과생이 많이 수강했기 때문에 『용비어천가』에 대한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었고 드라마 텍스트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 과정이 이루어졌다.

뜨거웠던 토론의 흔적은 동영상 과제에서도 이어졌다. 2015년 수업에서 C조는 이 작품에 나타난 소수인종 내의 인종차별과 배척에 주목했다. 원작에서 한국 여인들이 한국계 미국 소녀를 따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한국 대학생들과 중국 유학생의 권력 관계로 대치되었다. C조가 묘사한 중국 유학생은 강의실에서, 캠퍼스에서, 노래방에서 늘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존재였다. 실제 중국 여학생이 연기한 유학생은 화면 밖의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중국말로 격렬하게 토론했다. 『용비어천가』에서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어와 광동어를 사용하며 백인 관객들 면전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유학생은 한국인을 비판한다. 그녀의 대사는 곧 이어 한국어 자막으로 다음과 같이 전달된다. “두고 보세요. 곧 한국은 중국의 거대한 자본 아래 지배당할 것이다.” 그리고 동영상 속의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김치새끼라고 부르는 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조롱조의 자막이 떠오르며 마무리된다. 동영상이 끝난 후 잠시 의미 있는 침묵이 흘렀고 이어진 상호평가투표에서 학생들은 C조의 동영상에 최고점을 부여했다.

2017년 같은 과목 수업에서 『용비어천가』의 주제를 분석하여 발표한 조원들도 위와 유사한 지점에 주목했다. 학생들은 다문화 사회가 주장하는

<2015년 C조 동영상 캡처>



대의에 대해 한국인은 공정한가라는 주제를 제기하고 토론했다. 그들의 문제의식은 한국인이 인종 차별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는 것이었다. 한국 학생들은 관용, 이해라는 대의에 공감하지만 다문화를 살아가는 현실 생활에서 그들이 체감하는 또 다른 의미의 불공정한 상황을 논의하고 싶어 했다. 대다수 한국 학생들은 중국 유학생이 겪는 불편함이 한국인의 인종 차별과 다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공감을 표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논의를 마무리하려 했다. 오늘에 의하면 교육 연극에서 이 시점에 촉매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필자는 학생들이 문제에 공감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학생 스스로 찾아내도록 새로운 극적 행위를 제안했다. 먼저 수강생 중 중국 유학생들의 이름을 파워포인트에 적어 소개한 후, 한국 학생들이 그들 중 한 명을 택하여 조를 이루게 했다. 조원들은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겪은 차별과 불합리한 경험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진 후, 그 이야기를 즉흥극으로 만들었다. 이 때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인 역할 연기를 해야 하고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중국인 유학생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한국말이 서툰 중국 유학생을 배려하는 이유도 있지만 중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역할 교대를 통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연극적 체험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역할 교대’(role reversal)라고 하는데, 교육 연극과 소시오드라마의 주요 기법으로서 역할자가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봄으로써 이해를 돕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로 찾도록 유도할 때 사용한다(스텐버그 & 가르시아 102-03).

학생들은 중국 유학생이 강의실에서 겪었던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즉흥극으로 표현했다. 한국말이 서툰 중국 유학생에게 수강 정정하라고 요구했던 교수, 중국 학생과 같은 조원이 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한국 학생들, 영어권 출신 유학생들에게 호의적이면서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냉담한 한국 학생들, 중국 유학생들에게 물건 값을 비싸게 속여 팔려고 했던 마트 주인, 중국인 여자 친구에게 한국 축구팀을 응원하라고 강요했던 한국 남자친구 등 각 조의 재현 장면들은 배우와 관객 모두를 깨달음과 반성의 시간으로 이끌었다. 이어진 마무리 시간에 한국 학생들은 드라마를 만들면서 중국 유학생들이 느낀 차별과 분노에 공감하게 되었으며, 외국에서 겪었던 차별과 소외의 경험이 떠올랐다고 고백했다. 중국 유학생들도 조 편성 과정에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무례한 태도가 학점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에 대한 무시와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들은 한국어 교육 강화 등 대학 측의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역할 교대를 통한 역할극을 통해서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차별과 소외의 기억들을 풀어내고 상호 공감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영어로 된 드라마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는 과정, 주제를 재해석하고 드라마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드라마 텍스트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과의 연관성을 또 다른 역할극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영어 학습과 드라마를 통한 미적 체험 그리고 자기 통찰에 이르는 교육 목표를 수행할 수 있었다.

2-2. 번역서로 읽는 서구 문학 텍스트, 드라마로 이해하기

영문과 전공수업과 달리 일반교양수업인 “문화와 예술 세미나” 그리고 “부조리문학”은 두 강좌 모두 영문학 전공자가 아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읽는다. “문화와 예술 세미나” 수업은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읽고 자유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도록 운영한다. 그 중 드라마 작품으로는 미국 극작가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을 읽는다. 1949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는 『세일즈맨의 죽음』은 리얼리즘 사회극으로서 연극 경험이 거의 없고 영미 드라마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감상하기에 적절한 교재이다. 가족 이야기라는 친근한 소재와 기승전결에 기초한 플롯 구조가 학생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수업의 기본 형식인 발표와 토론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텍스트 감상을 방해하기도 한다. 토론 주제를 찬반으로 정해야 활발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발표 조들은 종종 이 극의 비극적 사건과 인물을 다룰 때 이해와 공감의 태도를 보이는 대신 원인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문제처럼 간주하곤 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갈등을 선과 악, 유용함과 무용함의 문제로 환원하여 생각하거나, 사회적 통념과 가치에서 벗어난 선택을 한 인물을 비판하는 도덕적 평가로 귀결된다. 하지만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은 대부분 기존 사회의 가치와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적 인간들이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안티고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선택하는’ 유형의 결정을 내리곤 한다. 문학 작품이 제기하는 이 낯섦과 불편함이 곧 독자들을 성찰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동력인 것이다.

2016년과 2017년 수업에서 『세일즈맨의 죽음』을 발표한 조원들은 ‘주인공 윌리의 죽음은 사회 구조적 타살인가 아니면 부인 린다의 수동적 태도 때문인가’를 토론 주제로 제시했다. 후자의 의견을 지지한 학생들은 남편 윌리의 가부장적 태도와 고집은 옳지 않지만, 정신적 폭력을 수동적인 태도로 묵인하고 받아준 린다의 태도가 역설적으로 가부장을 유지시켰고 남편에게 경제적 압박감을 배가시켜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린다를 옹호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이 대

립을 이루었는데 논의는 그녀를 피해자로 볼 것인가 혹은 가해자로 볼 것인가로 확대되었다. 윌리의 죽음원인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린다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여성인물의 수동적 태도가 형성된 원인과 배경에 대한 고찰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결과에 집중해서 평가한다는 데 있다. 윌리의 죽음을 논하려면 우선 린다를 비롯한 윌리 가족들 개개인에 대한 심리적인, 사회적인 접근, 즉 입체적인 이해 과정이 필요했다.

필자는 이 연극이 공연될 때 각 인물들에게 필요한 소품이 각각 무엇이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물었다. 학생들은 윌리는 세일즈 가방, 모자, 씨앗이 필요하고, 린다는 스타킹, 고무호스, 큰 아들 비프의 경우 운동화, 농구공, 만년필을 언급했다. 교사는 언급된 소품들을 파워포인트 화면에 적어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뒤, 각 조별로 등장인물을 한 명 선택하게 했다. 조원들은 인물과 관련된 소품을 하나 정해 그 소품의 관점에서 인물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드라마를 만드는 과제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준비된 즉흥극을 연기하면서 인물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반복하기도 하고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별로 준비한 드라마를 시연하면, 교사는 관객이 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유도했다. 관객들의 즉석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맡은 학생은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미를 깨닫고 즉석에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령, 린다의 스타킹을 주인공으로 제시했던 A조는 뚫어진 스타킹을 기워 신는 린다를 동정하면서도 비웃는 드라마를 시연했다. 그들에게 던져진 관객의 질문은 “스타킹씨, 당신은 린다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이었고, 스타킹 역할자는 잠시 생각한 후에 린다는 빠듯한 가계 살림을 꾸려갈 때, 출장 간 윌리를 걱정할 때 울었고, 윌리가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알았을 때도 혼자 몰래 울었다고 답했다. 이 장면을 본 후, 학생들은 린다를 수동적이고 답답한 부인이 아니라 외로움과 불안을 느꼈으나 가족들에게 위로받지 못했던 여성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윌리의 장례식에 사용된 관을 주인공으로 제시한 B조는 생전의 윌리가 원했던 인

기와 성공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조문객이 없는 장례식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관의 입을 통해 전달했다. 그 외에도 올리버의 만년필을 연기한 C조 역할자는 비프가 자신을 흠쳐 달아나면서 느꼈을 감정을 설명했다.

이러한 드라마 만들기 과정은 드라마 작품을 언어적으로만 접했을 때는 알기 어려운 의미를 지각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드라마라는 장르가 무대와 배우와 관객이 공존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점, 대사 언어와 더불어 비언어적인 연극 요소들-소품, 연기, 소리 등이 의미를 형성하고 전달한다는 점을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각 조는 교실 앞 쪽 공간에서 드라마를 시연하기 전에 짧은 리허설을 했는데 인물의 배치, 대사 순서, 등장 방식 등을 논의하면서 무대를 완성시킨다. 이 과정은 즉흥적이며 단순한 놀이 내지는 오락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글로 읽고 상상한 극 무대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조원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협동이 요구되는 중요한 학습시간이다. 교사와 관객들은 각 조원들이 무대를 구성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그들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했고 재현할 것인지 확인하게 된다. 관객들 또한 시연 중인 조와 자신들의 해석을 비교하고 분석하게 됨으로써 작품 해석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다른 수업 “부조리 문학”에서는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를 다루었다. 부조리 연극뿐만 아니라 부조리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므로 작품 감상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학생들은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 조세프 카프카의 「법 앞에서」, 『변신』 등에 나타난 서구 부조리 문학과 철학의 특징을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언어의 표현 불가능성, 신을 상실한 인간 존재, 이성에 대한 회의,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손윤희 1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꿈꾸는 존재 등 부조리 문학의 원리들이 드라마적 기법으로 흠뻑려져 있기 때문이다. 1차시 수업에서 필자는 파편화된 대사들, 에피소

드의 무의미한 반복 구조 그리고 침묵으로 가득 찬 부조리극 무대를 학생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분담하여 읽게 했다. 그리고 극단 <산울림>의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을 단체 관람한 후 공연 무대의 특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차시 수업에서 텍스트에 나타난 연극성과 의미를 토론한 후, 4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조별로 한 장면 드라마를 만드는 조별 활동을 수행했다. 먼저 학생들은 시지푸스가 돌을 밀어 올리는 이미지를 본 후, 슬프다, 희망차다, 화가 난다, 아름답다 등 제시된 감정 중 자신의 느낌과 가까운 것을 고른다. 그리고 같은 감정을 선택한 이들과 한 조를 구성한 후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고 떠오른 장면이나 느낌을 ‘한 장면 드라마’(vignette)로 만들었다.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만든 드라마는 매우 다양한 결과물로 나타났다. 고고와 디디가 포조의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드라마, 취업 면접장을 배경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면접관의 태도를 비판하는 드라마, 체육 특기생들의 강압적인 선후배 서열관계를 고고와 디디의 모습으로 패러디한 드라마 등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그중에서 회사에서 ‘을’의 처지에 놓인 인턴사원 럭키가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와 폭력에 저항하는 장면은 동료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다.

필자는 럭키의 저항에 환호를 보내는 학생들의 반응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 소시오드라마의 ‘이중자’(double) 기법²⁾을 사용하여 럭키 역할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새로운 드라마를 즉석에서 만들었다. 교사는 진행자의 역할을 맡아 럭키를 연기한 학생에게 럭키를 연기하면서 떠오르는 과거의 경험을 물었다. 럭키 역할자는 고등학교 때 보충수업을 빼 먹어 체벌 받던 순간이 떠오른다고 했다. 교사는 럭키 역할자에게 그 장면을 연기해 줄 배우를 동료학생들 중에서 고르게 했다. 지목된 학생의 참여의사

2) 이중자란 숨겨진 자아를 표면화하는 특수한 역할이며, 주인공의 숨겨진 목소리를 대신 표현함으로써 주인공이 이중자를 보면서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문을 품거나 깨달도록 돕는다(스텐버그 & 가르시아 107-08).

를 확인한 후 그에게 럭키 역할자가 묘사하는 장면과 대사를 그대로 연기하도록 했다. 옆으로 비껴서 있던 럭키 역할자는 옆드려 엉덩이를 맞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정의 동요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교사는 진행자로서 그에게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매를 맞는 자신의 이중자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물었다. 럭키 역할자는 이중자가 불쌍하고 억울해 보인다고 말한 후,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진행자는 럭키 역할자의 감정이 해소된 것을 확인한 후 드라마를 종료시켰다.

위에서 설명한 소시오드라마는 럭키 역할자 개인의 경험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객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럭키라는 인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경험을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럭키 역할자는 개인적 억울함과 연민을 상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왜 럭키로 하여금 저항하도록 드라마에서 표현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이 그에게 공감을 느꼈다면 그들 역시 럭키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 폭력적이고 불합리한 강자 중심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부조리 드라마 작품에 대해 철학적,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드라마 만들기 과정은 각자의 삶에 녹아있던 부조리적 경험을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조리 철학과 문학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Ⅲ. 결론

영미드라마 수업은 드라마라는 장르의 고유한 특성상 영어로 된 텍스트 독해학습과 드라마 공연 체험학습이 모두 요구된다. 하지만 대학의 학부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텍스트를 읽고 공연 준비를 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관객을 염두에 둔 공연이 아니라 수업 현장에서 동료들과 즉흥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경험하는 교육 연극과

집단적 문제를 연극 행위를 통해 인지적, 감성적으로 풀어보는 소시오드라마 기법을 그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본 글은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와 촉진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바탕으로 영미드라마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수업 모델을 검토해 보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미드라마 텍스트를 교육연극과 소시오드라마 기법으로 분석하고 체험하는 수업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와 한계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 영미 드라마 텍스트를 읽고 감상하는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독해와 토론을 기반으로 인지적 접근뿐만 아니라 즉흥적인 역할극과 소시오드라마 체험을 통한 지각(Perception)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드라마제작을 통해 문학과 예술 수업의 궁극적 목표인 자아 성찰과 변화를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다. 교사 역시 일방적 강의를 하거나 혹은 수동적 관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수렴하고 촉진하는 새로운 교사 역할을 모색할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드라마 장르가 갖는 집단적, 즉흥적, 현시적 특징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언어 텍스트 독해와 비평에 국한된 근대 미학의 영역을 벗어나 공연 미학의 전통과 재현의 속성을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비평적 안목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미 드라마를 교육 연극과 소시오드라마 기법을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구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영미드라마 텍스트 이해: 교수 강의, 문화적 배경 학생발표
- 2> 드라마 제작: 동영상 혹은 즉흥극 만들기(교육 연극)
- 3> 1차 시연 및 상호평가: 조별 발표, 관객 상호 평가
- 4> 상호평가에서 도출된 문제 및 주제 확장(소시오드라마)
- 5> 2차 시연 및 전체 토론: 조별 발표, 전체 마무리 평가

하지만 필자가 시도한 수업 사례는 적합성이 갖춰진 영미드라마 수업 모델을 도출해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학생들의 수업 평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 글은 필자의 주관적 판단과 몇몇 학생들의 자발적 의견 개진내용, 그리고 필자가 속한 대학에서 시행한 강의평가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사전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업 방식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포함된 조사를 시행했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필자가 진행했던 영미드라마 수업은 교육 연극과 소시오드라마 기법을 영미 드라마에 적용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 미약하나마 하나의 선행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

■ 주제어

교육 연극, 소시오드라마, 역할극, 역할 교대, 이중자, 제이콥 모레노, 시실리 오닐, 영미드라마

■ 인용문헌

- 김경한. 「교육 연극 기법 기반 영미 드라마 수업 모형」. 『영미문학교육』 16.2 (2012): 47-81. Print.
- 모레노 켈카 외. 『사이코 드라마와 잉여현실』. 황헌영, 김세준 공역. 서울: 학지사, 2005. Print.
- 손윤희.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들에 드러난 하이데거의 “세상 사람들” (Das Man)」. 『영어권문화연구』 9.3 (2016): 117-140. Print.
- 스텐버그 패트리샤, 가르시아 안토니나. 『사회극: 원리와 적용』. 조성희·김광운 공역. 서울: 학지사, 2012. Print.
- 윤필상.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과 알투세르의 호명이론에 나타난 사회극의 원리와 기능」. 『콘텐츠문화』 6. 59-90. Print.
- 필립 테일러 & 크리스틴 워너. 『시실리 오늘의 교육연극』. 김숙희 외 옮김. 서울: 연극과 인간, 2013. Print.
- 최성희. 「문화연구로 영미드라마 가르치기: 텍스트/공연, 고급 대중 예술의 이분법을 넘어서」. 『영미문학교육』 10.1 (2006): 67-84. Print.
- 최지영. 「교육연극에서 드라마 전문가의 역할 형성 및 핵심 요건」. 『연극교육연구』 6 (2015): 231-60. Print.
- 최현진.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0. Print.
- Bowell, P. & Heap, B. *Planning Process Drama*. London: David Fulto, 2001. Print.
- Fleming, Mike. *Starting Drama Teaching*. London: Routeledge, 2011.
- Fox, Jonathan. *The Essential Moreno: Writings on Psychodrama, Group Method, and Spontaneit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7. Print.

■ Abstract

A Case Study on Teaching English & American Drama Using D.I.E and Sociodrama

Jung, Mi Kyung
(Dongguk Univ.)

This article is a case study on the practical process of D.I.E and sociodrama for English and American Drama course. In most of English Literature departments of Korea, the aim of English and American Drama course has been in a binary choice: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or having an aesthetic experience through drama. The problem is that if the course's aim is limited to learning language, it is very likely to reduce traditional western drama based on the body performance into modern knowledge system based on language text. Incidentally, it could lead to failure of proper appreciation for English and American Drama texts.

This article explores finding a teaching method model through which students can be exposed to both the cognitive exercise of leaning English language and the aesthetic experience of dramatizing the English and American drama texts. As an exemplar for this, the method for English and American Drama course includes 'D.I.E' (Drama in Education) and 'Sociodrama' techniques. Based on three drama classes that I have taught since 2016, I explain how I have used

the procedure of D.I.E and Sociodrama, then derive a new model for English and American Drama course.

■ Key words

D.I.E, Sociodrama, role play, role reversal, double, Jacob Moreno, Cecily O'Neill, English and American Drama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8년 3월 15일 ○심사일: 2018년 3월 22일 ○게재일: 2018년 4월 30일

대화시에서 극적 독백으로

: 브라우닝의 『폴린』

조 희 정

I. 들어가는 말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적 특징을 논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시 형식이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이 발전시킨 ‘극적 독백’(dramatic monologue)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시인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화자(speaker)가 침묵하고 있는 청자(auditor)를 대상으로 전달하는 발화의 현장을 포착하는 극적 독백 형식은 낭만주의 시기의 ‘대화시’(the conversation poem)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극적 독백과 대화시가 대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시인과 화자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는 방식에 있다고 하겠다. 대화시가 ‘진솔함’(sincerity)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시인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비하여, 극적 독백은 시인과는 구별되는 시적 화자를 내세움으로써 독자가 시 속에서 진행되는 발화의 내용에 거리를 둘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대화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틴턴 사원」(“Tintern Abbey”)은 처음 시작 부분부터 시각과 청각적 인식을 지시하는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독자를 시인이 서 있

는 곳에 위치시키고 시인이 펼치는 명상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든다. 반면에, 브라우닝의 가장 성숙한 극적 독백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전 공작 부인」(“My Last Duchess”)을 읽는 독자는 화자가 청자를 앞에 놓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대화의 흐름을 목격하고 엿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대화시와 극적 독백 사이의 차이는 특히 시의 말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두 가지 시 양식이 잠재적 대화 상대방으로서 청자의 역할에 대해 취하고 있는 상반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극적 독백에 대한 여러 비평가들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극적 독백의 결말 부분은 화자의 발화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열려 있는 형태로 마무리된다.¹⁾ 비록 청자의 발화가 시작되기 전에 텍스트는 끝나지만, 독자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화를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극적 독백이 보여 주는 열린 결말과는 달리 낭만주의 대화시는 마지막 부분에 종결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전해 주며, 따라서 청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라고 느껴진다.

또한, 이 두 가지 시 형식 사이의 차이는 시간성(temporality)에 대한 관념과도 연결된다. 대화시에서 작동하는 시간성은 인과 관계의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예컨대, 「틴턴 사원」의 텍스트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관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시간적 개념들을 텍스트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주로 화자의 의식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극적 독백은 서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인과 관계의 논리가 작동하는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어 있다. 「나의 전 공작 부인」의 첫 부분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저게 그림으로 벽에 걸려 있는 내 전 부인이오/ 마치 그녀가 살아 있는 듯 보이지요. 나는/ 저 그림을 이제 경이롭다고 부르오.”(That's my last Duchess painted on the wall,/ Looking as if she

1) 극적 독백을 일종의 “열린 형식”으로 파악하는 논의는 고전적인 로버트 랭범(Robert Langbaum)의 저서에서 시작하여 엘리자베스 하우(Elizabeth Howe), 데이빗 쇼(David Shaw)의 ‘극적 독백’에 대한 비평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were alive. I call/ That piece a wonder, now, ll.1-3)라는 공작의 독백은 이미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저것” 혹은 “저”(that)가 두 번 반복되면서 이 텍스트가 시간적 흐름에 종속된 대화를 담고 있음이 드러나는 데 더하여, “전”(last)이나 “그녀가 살아 있는 듯”(as if she were alive) 등의 표현은 좀 더 거리가 먼 과거의 사건까지도 호출하게 된다. 게다가 시의 마지막 부분은 독자의 관심을 텍스트의 종결을 넘어서는 미래의 시점까지로 옮겨 놓는다. 공작부인의 죽음이 현재의 대화를 촉발한 것처럼 공작의 발화와 이에 대한 청자의 대응은 미래가 전개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극적 독백이 포착하는 시간은 오직 짧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이 발화의 순간은 훨씬 긴 시간적 흐름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송기호는 브라우닝의 극적 독백 양식에 대해 “빅토리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객관화시켜 그것들의 사회적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했던 사회적 성찰에 대한 시적 대응물”(514)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낭만주의 시인들이 솔직하고 진지하게 자신들의 마음을 전달하여 청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 형식을 구축하고자 했다면, 빅토리아 조의 급박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던 브라우닝은 주관성을 시간적 흐름과 인과 관계의 논리에 따라 객관화할 수 있는 시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당대에 적합한 문학 형식의 진화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시 형식의 이러한 변화는 낭만주의 대화시에서 침묵하는 청자로 남아 있었던 여성에 대한 관념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사무엘 테일러 코올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와 워즈워스의 대화시에서 청자로 설정되는 인물들은 주로 아내나 누이동생 등 시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다. 이들이 시인으로부터 타인과의 유대를 갈망하는 발화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동적인 청자의 위치에 머무르면서 침묵하고 만다는 사실은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비평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온 바 있다.²⁾ 그에 비해, 브라우닝의 극적 독백은 남성 화자를 독자의 평

가에 노출시킴으로써 텍스트 속에서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재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선희정의 설명에 따르면, 브라우닝의 「포피리아의 연인」(“Pophyria's Lover”)이나 「나의 전 공작부인」은 “여성인물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남성 화자”(1-2)를 제시하되 “독자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남성 화자를 판단하고 비판”(2)하게 이끄는 독특한 시 형식이다.

브라우닝의 극적 독백 양식은 그의 시 세계가 발전하고 변모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기에, 처음부터 선대의 대화시 형식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완성된 장르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김철수는 브라우닝을 “초월적 주관성이라는 낭만적 유산을 물려받은 후기 낭만적 주체”(「브라우닝」 1)로 규정하면서 그가 낭만주의적 시 형식으로부터 결별한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조벨 암스트롱(Isobel Armstrong)은 브라우닝의 형식 실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 중 하나로 『폴린』(“Pauline”)을 제시하는데, 그녀의 설명에 의하면 이 시는 브라우닝이 낭만주의 시인들로부터 물려받은 시적 전통에 대해 점점 더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청자인 여성을 완전한 침묵의 상태에 놓아두는 대화시에 비해, 『폴린』은 매우 흥미로운 형식적 장치를 텍스트 속에 지니고 있다. 즉,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전체 텍스트와 대조를 이루면서 여성 청자의 이에 대한 반응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폴린이라는 여성의 주석을 프랑스로 담고 있는 텍스트의 각주에서 그녀는 자신이 시적 화자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화자가 폴린이야말로 그가 유일하게 정신

2) 낭만주의 대화시에서 남성 시인의 시적 기획 속으로 여성 청자가 종속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특히 워즈워스의 사례가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앨런 리처드슨(Alan Richardson), 말론 로스(Marlon Ross), 데이빗 왓킨스(David Watkins) 등의 논의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이들의 논의에는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워즈워스를 비판하기에 앞서 청자와의 유대감을 확립하고자 하는 대화적 형식이 당대에 가졌던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적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상대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폴린의 각주는 화자의 텍스트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다. 암스트롱이 말하듯이 폴린은 여기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녀는 “청자이고 대상이면서, 또한 같은 텍스트의 편집자이자 글 쓰는 주체이며 주석을 다는 자이기도 하다”(117)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폴린은 “텍스트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밖에 있는”(117)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이중적 역할은 전체 텍스트를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독자를 유도하며 시적 공간에 화자의 관점과 대조되는 또 하나의 관점을 도입시킨다.

암스트롱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본 논문은 낭만주의 대화시 전통에 대해 일종의 비평을 제공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폴린』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시의 일관성 없는 구조가 서로 상반된 의도와 충동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사실 브라우닝 비평가들로부터 이 시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언뜻 보아 앞뒤가 맞지 않는 비일관적인 면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혼란이 부재하다는 것은 ... 시의 구조 자체에 드러나는데, 이 시는 일련의 기분과 정신적 상태가 별다른 일관성 없이 나열돼 있다”(4)는 콜린스(Thomas J. Collins)의 평은 이런 점을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비일관성과 혼동스러움이 오히려 대화시에서 극적 독백으로 이동하는 도정에 놓인 브라우닝의 형식적 실험의 궤적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폴린』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보게 될 것이다.

II. 내면 탐색의 객관화

『폴린』의 화자가 시인인 브라우닝 자신과 겹쳐지는지 혹은 시인과 일정한 거리를 지닌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비평가들의 논쟁이 있어 왔

다. 대표적인 브라우닝 전기 작가의 한 사람인 베티 밀러(Betty Miller)는 브라우닝의 몰개성성(impersonality) 이론과 이에 기반을 둔 시적 실천이 『폴린』에서 보여 주었던 당황스러운 “자기 노출”(self-exposure)에 대한 반성적 반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22). 또한 브라우닝 자신이 1886년에 『폴린』의 집필 당시를 돌아보면서 화자의 나이가 시인의 당시 나이와 똑 같은 스무 살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화자와 시인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의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반면에, 마이클 핸처(Michael Hancher)는 실제 시에서 화자의 발화 내용을 살펴보면 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폴린』에서 화자는 인생의 “봄”과 “여름”을 모두 지나온 중년 이후의 시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브라우닝이 이 화자가 스무 살이라고 언급한 것은 자신의 예전 작품에 대한 일종의 착각이라고 말한다(151). 따라서 핸처에 의하면 『폴린』의 화자는 시인인 브라우닝과 분명한 거리를 지닌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힐리스 밀러(J. Hillis Miller)는 이 시를 브라우닝의 “첫 번째 극적 독백”(105)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파크 호넨(Park Honan) 역시 『폴린』에서 아직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분명한 “극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11-17).

사실 이 중요한 비평적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올바른 답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를 구성하는 한 부분은 브라우닝이 이 시의 화자를 당대 문화에서 주류를 이루던 ‘시인’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막 시를 쓰기 시작한 초보 작가 브라우닝에게 ‘시인’은 스스로의 문학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낭만주의 시인들의 모습으로 상상되었던 것이다. 『폴린』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선대 시인들의 작품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느낀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두려움은 일지 않았지

내가 위대한 시인들의 작품을 바라보았을 때,

나 자신의 사고가 기록되고, 내 자신의 상상들이 정당화되고,
그들의 열망들이 내 자신의 것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그 처음의 기쁨 속에서.

No fear outbreake

As on the works of mighty bards I gazed,
In the first joy at finding my own thoughts
Recorded, and my own fancies justified,
And their aspirings but my very own. (ll. 384-88)³⁾

위의 구절에서 화자는 당시 명성을 떨치던 시인의 작품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사고와 능력, 열망 등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느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이렇게 선대의 낭만주의 시인들과 자신을 거의 동일시하던 화자는 점차적으로 이들의 작품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결과적으로, 텍스트의 후반으로 갈수록 선대 시인들과 『폴린』의 화자는 서로 겹쳐지면서도 차이를 빛는 양면적인 양상을 보인다. 전례 없이 ‘진솔함’(sincerity)이나 ‘진정성’(authenticity)을 시의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던 낭만주의 시인들은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를 시적 발화의 중심에 두는 전통을 일구었으며, 작가로서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브라우닝은 이런 전통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양가적인 감정은 『폴린』의 화자가 보이는 복합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화자는 청자인 폴린을 향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모두 고백하고자 하는데, 이 때 그가 드러내는 자아의 양상은 스스로의 내면을

3) 『폴린』의 텍스트는 *Robert Browning: A Critical Edition of the Major Works*, Ed. Adam Roberts (Oxford: Oxford UP, 1997)에서 인용했으며, 앞으로는 본문에 행수로만 표시하기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던 과거의 낭만주의적 자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자는 과거의 자아가 의미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내면 속으로 침잠했던 과거가 있었기에 그 상태를 조금 씩 극복해 온 현재의 자아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화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시간적 지점은 아래 인용된 구절에서 말하듯이 “그 중간 단계”(that middle stage)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내 마음을 발가벗기오, 그 마음의 첫번째 요소들을
드러낼 것이지요—유년 시절에 그것들이
분투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도 아니고, 이제는 그것들을 넘어
성장해서 다스리게 된 지금 존재하는 대로도 아니고,
아직 내가 나의 의지대로 그것들을 처리하기 전
그것들이 가득했던 그 중간 단계의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요소들이 어떻게 내 현재 상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지를 보일 것이오.

I strip my mind bare, whose first elements
I shall unveil—not as they struggled forth
In infancy, nor as they now exist,
When I am grown above them, and can rule
But in *that middle stage* when they were full,
Yet ere I had disposed them to my will:
And then I shall show how these elements
Produced my present state, and what it is. (ll. 260-67, 필자 강조)

이 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의 정신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고백한다. 물론 자서전적 텍스트에서 과거의 자

아와 현재 텍스트를 집필하고 있는 자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워즈워스의 『서시』(*The Prelude*)의 경우도 이런 간극을 보여 주는 텍스트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성장’(*Bildung*)과 자아 형성의 과정을 텍스트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장 자끄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고백록』(*Confessions*)의 영국적 형태를 체현하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자아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서시』는 ‘이중적인 목소리를 띤’(double-voiced) 텍스트이고, 이런 면에서 브라우닝의 『폴린』은 낭만주의적 자기 탐색의 전통을 잇는 측면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하지만 브라우닝의 텍스트가 선대 낭만주의 시인들로부터 물려받은 시 형식과 결별하는 지점은 과거의 자아에 대해 시간적으로 거리를 둔 시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에 있다는 데 놓여 있다. 김철수가 정리하듯이, 워즈워스에게 자의식의 과잉은 내면의 주관성이 지니는 “전체성과 통일성”을 파괴하는 위협적인 것이며, 따라서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이항대립을 소멸시키는 “초월적 주관성”(transcendental subjectivity)의 순간이야말로 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시적 비전을 보여 준다(『영국시』 7-8). 반면에, 브라우닝은 주체의 사고와 감정 자체를 객관화시키는 자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역할을 긍정적인 것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는 『폴린』에서 화자가 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다. 과거의 자아가 자신의 내면에 몰두하여 외적 세계와 단절된 상태를 보여 주었던 것에 비하여, 화자가 서서히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외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확립함으로써 주체의 존재 양태를 객관화하고 내면에 갇혀 있는 상태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닌다.

『폴린』의 앞부분에서 화자가 보여주는 과거의 모습은 주로 자신의 내면에 몰두해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화자의 독백에 외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이 당시에 경험하고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화자의 내면으로 포섭되는 듯한 인

상을 준다. 화자 자신이 그려내는 스스로의 자화상은 텍스트 속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나는 가장 열렬한 삶으로 구성되어 있지,
자의식에 대한 아주 명확한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자질들로부터 구별되어,
모든 애정과, 열정과, 감정과, 능력들로부터.
그리고 이제까지 그것은, 따라가 보자면, 모든 것에 존재하네.
내 안에서, 자아의 지배로 연결되어,
모든 것의 중심으로 존재하면서,
너무나 힘 있게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그것에 따르라고 불러내지.
그리고 쉽 없는 동요의 원칙에 따르도록
모든 게 될 것이지, 모든 걸 갖고, 보고, 알고, 맛보고, 느끼게—
이게 내 자신이야.

I am made up of an intensest life,
Of a most clear idea of consciousness
Of self, distinct from all its qualities,
From all affections, passions, feelings, powers;
And thus far it exists, if tracked, in all:
But linked, in me, to self-supremacy,
Existing as a centre to all things,
Most potent to create and rule and call
Upon all things to minister to it;
And to a principle of restlessness
Which would be all, have, see, know, taste, feel, all—

This is myself; (ll.268-79)

이러한 묘사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외적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끝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자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드러난다. “자아의 지배”(self-supremacy)라는 관념 속에 갇혀 있는 화자는 자신 바깥에 있는 타자 혹은 외적 대상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헨리 코지키(Henry Kozicki)는 『폴린』의 화자에 대하여 평하면서 그가 “마음의 동굴”에 갇혀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드러내는 인물(24)이라고 말한다. 서구 신비주의(occultism)와 연결지어 브라우닝의 시를 탐색하는 코지키에 따르면, 이 시의 화자는 “타락한 상태”(23)에 놓여 있는 채로 독자에게 소개되어 한편으로는 타락하여 고립된 자신의 상황에 대해 탄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준다(25).

반면에 시의 후반부로 가면서, 『폴린』의 화자는 자아의 내면에 속박된 채 타자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상태에 대한 자의식을 첨예하게 느끼고 자신을 가두고 있는 좁은 세계에서 점차적으로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예컨대, 시의 후반부에서 화자는 스스로를 가두는 내면의 틀을 깨고 외부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충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영혼들은 변하질 않지, 그리고 내 영혼은 항상 전진해야만 해.
내가 몰랐다는 게 이상한데, 내가 내 젊은 시절의
주요한 목표들을 던져 버렸을 때, 그 상실은
내가 견지했던 얼마 안 되는 것의 상실로 이어졌고, 어떤 자원도
내게 남지 않았지. 모든 게 얼마나 변했는지 보라구!
난 내 영혼을 묶어 둘 수 없어. 그것은
진흙 감옥, 이 가장 좁은 영역에 남아 있지 않을 거야.

그것은 이상한 충동, 경향, 욕구를 가지고 있어,
내가 해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지,
그러나 모든 감정을 똑같이 신뢰할 수밖에 없기에,
모든 측면에 귀 기울이는 것을 억누를 수는 없어.

Souls alter not, and mine must still advance,
Strange that I knew not, when I flung away
My youth's chief aims, their loss might lead to loss
Of what few I retained, and no resource
Be left me: for behold how changed is all!
I cannot chain my soul: it will not rest
In its clay prison, this most narrow sphere:
It has strange impulse, tendency, desire,
Which nowise I account for nor explain,
But cannot stifle, being bound to trust
All feelings equally, to hear all sides: (ll. 588-98)

이 부분에 이르면 화자는 외적 세계와의 연결 고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적인 내적 욕구를 느끼게 되며, 따라서 내면의 견고한 벽 안에 갇혀 있었던 과거의 경향에 대해서는 “투옥”(imprisonment)이나 “속박”(enchainment)과 같은 부정적 함의의 개념을 적용시키게 된다. 화자의 자아는 스스로의 내면을 넘어서서 외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존재와 진정한 관계를 찾고자 하는 갈망을 안고 바깥 세계를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고자 한다. 자아에 대해 변화된 관념을 갖게 된 화자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과거는 이제 그만! 난 더 이상 내면을 보지 않을 거야./나 자신의 무법의 욕망을 너무 믿었어./내 허황된 자아, 희미한 직관을 너무 믿었어—”(No more of the past! I'll look within no more./ I have too trusted

my own lawless wants,/ Too trusted my vain self, vague intuition—, ll.937-39)라고 절규하는 화자는 내면에 갇혀 외적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던 자신의 과거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서서히 자아를 객관화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움직임은 후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에게 영향을 주었던 조지 메드(George Herbert Mead)의 이론을 적용해 볼 때 더욱 확실하게 그 형태가 드러난다. 메드는 1인칭 주격 대명사인 “나”(I)와 1인칭 목적격 대명사인 “나”(me) 사이의 구분을 사회적 맥락에서의 이중적인 자아 개념과 연결시킨다. 메드가 말하는 목적격 “나”(me)는 타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맺음,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속으로의 포섭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아를 뜻한다. 반면에 주격 “나”(I)는 자아의 자발적이고 충동적인 측면을 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 두 가지 자아 개념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서시』를 비롯한 자서전적 낭만주의 텍스트에서도 이러한 긴장 관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폴린』의 독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의 주제의식이 바로 이러한 긴장 관계 그 자체의 탐색이라는 것이다. 브라우닝의 『폴린』은 자의식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수궁하여 외적 세계의 관점에서 개인의 내면을 비판적으로 매개해 주는 역할을 부여한다. 이같은 인식을 통해 브라우닝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시적 전통에 내재된 자아 개념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런 비판적 거리는 후에 그가 창안한 ‘극적 독백’ 시학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III. 청자/타자로서 폴린의 역할

화자 자신의 자의식에 대한 탐색이 『폴린』의 주제의식을 이루는 데 더하여, 이 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여성 청자인 폴린이 담당하는 역할이다. 남성 화자에게 폴린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그의 사고와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다. 폴린은 시의 원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발화의 주체가 되지는 않지만,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로서 텍스트 전체의 흐름을 규정해 주는 존재로 나타난다. 시의 첫 부분부터 화자는 다음과 같이 폴린을 호출하면서 시의 전개를 시작한다.

폴린, 나의 것, 내 위로 몸을 숙여 주오—그대의 부드러운 가슴이
내 가슴에 맞추어 혈떡일 것이오—내 위로 몸을 숙여 주오—그대의 아름다운 눈,
그리고 풀려진 머리카락, 그리고 숨 쉬는 입술, 그대에게
나를 당기는 팔들—이것들이 나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차단하여 그대와 함께 있게 해 줄 장막을 지어 올리오.
내가 그것들이 숨어 있는 장소인 내 영혼에서
잠들지 못하는 공상의 무리를 열어낼 수 있도록.
그 각각이 지나가서, 이렇게나 관심을 받고, 이렇게나 사랑받고,
이렇게나 보호되는 자에게 절대 돌아오지 않으리라 의심치 않을 수 있도록.

PAULINE, mine own, bend o'er me—thy soft breast
Shall pant to mine—bend o'er me—they sweet eyes,
And loosened hair and breathing lips, and arms
Drawing me to thee—these build up a screen
To shut me in with thee, and from all fear;
So that I might unlock the sleepless brood
Of fancies from my soul, their lurking place,
Nor doubt that each would pass, ne'er to return
To one so watched, so loved and so secured. (ll, 1-9)

이와 같이 처음부터 폴린의 존재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

을 이끌어 낸다고 말하는 화자에게 그녀는 절대적인 구원을 가져다주는 매개체이며 외적 세계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는 방어막이기도 하다. 코치키는 폴린을 화자의 “수호 천사”(guardian angel, 27)라고 규정하며, 헨치는 폴린이 화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상상적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한다(153). 호넨은 폴린이 이 시에서 수없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연인, 어머니, 분신, 시인, 아마추어 문학 평론가, 그의 성숙한 자아, 그의 더 나은 자아, 그의 이상적 자아”(14-15) 등 그녀가 화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로마 킹(Roma A. King) 역시 화자에게 숨쉬는 공기와도 같이 소중한 폴린의 역할을 “고해 사제, 연인, 어머니, 친구, 분신, 아마도 심지어 신”(8)에 근접한다고 설명한다.

이 시에서 화자가 그려내는 폴린은 마치 페트라르카(Petrarch)의 소네트에서 이상화된 여인인 로라(Laura)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만, 실제로 화자와 같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면서 화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청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폴린은 낭만주의 대화시의 청자와 친연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워즈워스와 코올리지는 누이동생이나 아내 등 주로 여성 청자를 향해 자신들의 내면을 표출하는 시를 창작했으며, 시인들이 청자들과 형성하게 되는 정서적 유대는 이들의 시적 발화에 안정성을 부여해 주는 주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브라우닝의 화자 역시 연인인 폴린을 호출하여 그녀와의 친밀한 관계에 기반을 둔 시상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대화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화자가 어느 정도 내적인 변화를 이룬 『폴린』의 후반부에서도 여성 청자로서 폴린의 중요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표현할 것은—날 떠나지 마오,
항상 내 옆에 앉아 있어 주오, 뛰는 가슴과, 풀려진
머리카락으로, 내 옆에서 진지하게 지켜봐 주오.

내 책들을 넘기고, 내가 바라볼 때 내게
입 맞추면서—마치 여름 바람처럼. 항상 내게
마음이 헤아리지 못하는 음악의 신비를 알려 주는
조력자가 되어 주오, 그저 실마리 말고 그 해답을!

But what I would express is,—Leave me not,
Still sit by me with beating breast, and hair
Loosened, be watching earnest by my side,
Turning my books or kissing me when I
Look up—like summer wind! Be still to me
A help to music's mystery which mind fails
To fathom, its solution, no mere clue! (ll.925-31)

이 부분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변화를 이해해 주고 예술적 세계로 향하는 영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폴린을 지목한다. 그녀는 그 동안 화자 자신이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결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면서 새롭게 체험하고 창작할 신비로운 시적 세계로의 입문을 도와 줄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폴린』이 낭만주의 대화시와 분명한 차이점을 빚게 되는 대목은 텍스트의 중간인 811행에서 청자인 폴린이 침묵을 깨고 화자와 그의 발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프랑스로 된 주석을 통해 표현하는 부분이다⁴⁾. 폴린은 “나는 유감스럽게도 내 가련한 친구가 이 신기한 단편에서 입을 수 있게 남겨진 것을 통해 항상 완전하게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화자의 독백을 “꿈”과 “혼란”에 가까운

4) 폴린의 글은 *Robert Browning: A Critical Edition of the Major Works*의 22쪽에 프랑스로 실려 있는 주석에서 인용했으며, 734쪽에 수록된 영어 번역을 참조하였다.

것으로 규정한다. 폴린에 의하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 귀환하는 화자의 글쓰기는 이 텍스트를 “불에 던져서” 태워 버려야 마땅한 수준으로 만들지만, 텍스트 바깥에서 그녀가 접한 화자의 정신적 상태와 그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녀는 그나마 이 시를 “호의를 갖고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린은 “망각과 잠이 모든 것을 끝내 줄 것”이라는 듯한 이 시의 결론적인 생각에 도저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결론은 자신 뿐 아니라 화자에게도 “아마 똑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리라고 일침을 가한다.

여기서 폴린의 주석이 프랑스로 되어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디테일인데, 우선 그녀가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독자가 그녀의 지적 수준을 쉽게 폄하하거나 평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다. 낭만주의 대화시의 청자가 되었던 도로시 워즈워스(Dorothy Wordsworth)나 새러 프리커(Sara Fricker)는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이면서도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주체라기보다는 남성 시인들의 발화를 수용하고 긍정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당시 교육받은 여성들만이 구사할 수 있었던 프랑스어를 자유자재로 말하고 쓸 수 있는 폴린은 화자의 사고와 감정에 지배되기보다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지적인 여성으로 등장한다. 또한, 폴린의 주석이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어의 차이를 통해 그녀의 글쓰기와 화자의 발화 사이의 거리감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측면을 지닌다. 독립적인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그녀는 화자의 발화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나아가서 화자의 사고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출한다. 여러 평자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폴린은 화자의 발화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비평가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지인으로 알고 있는 남성 화자와 그가 생산해 낸 텍스트를 별개의 것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텍스트를 맥락화해 주는 일종의 추가적 정보로서 남성 화자의 상황과 성정을 고려한다.

브라우닝은 『폴린』에서 여성 청자를 수동적인 텍스트의 수용자로만 위치지우지 않고 화자와의 대화적 관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어 텍스트에 대해 반응하고 응답하는 주체로 설정한다. 낭만주의 대화시에 등장하던 여성 청자의 모습이 『폴린』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빅토리아 시대에 접어들면서 ‘남성성’(manhood)의 재정의가 이루어지던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 허버트 서스만(Herbert Sussman)은 빅토리아 시대에 남성성에 대한 관념을 교란시켰던 많은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의 하나로 “문화의 여성화”(10)를 꼽는다. 사실 18세기 후반부터 문자 해독 능력의 사회 전반적인 확산, 출판물의 다양화, ‘순회도서관’(circulating libraries)의 폭넓은 운영 등 문학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중이었으며, 여성 작가와 여성 독자가 문학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점점 커져 가는 상황이었다. 워즈워스가 「조애너에게」(“To Joanna”)와 같은 시에서 자신이 시상을 전개하는 과정을 커다란 웃음으로 중단시켜 버린 여성 청자 조애너에게서 위협을 느끼자 종국에는 텍스트 내부로 기입하는 것에 비해, 브라우닝은 폴린에게 청자이면서 동시에 독자/비평가로서의 이중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여성 청자는 이제 독립적인 사고와 관점을 지니고 남성 화자의 발화를 바라볼 수 있는 또다른 화자이며 주체로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화자가 폴린을 떠올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운 가슴”, “풀려진 머리”, 그리고 “입맞춤” 등의 표현들이 그녀를 화자의 연인으로 상상하도록 독자를 이끄는 반면, 폴린의 주석은 화자를 그저 “내 가련한 친구”(my poor friend)로 언급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화자의 성적 매혹이 다분히 일방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후에 브라우닝의 잘 알려진 극적 독백인 「나의 전 공작 부인」이나 「포피리아의 연인」에서 남성 화자는 타자로서의 여성이 지닌 성적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종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여성을 파괴하는 길을 택한다. 『폴린』의 화자는 아직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지만, 그가

상상하는 여성 청자와의 관계와 폴린이 사고하는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화자의 남성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폴린의 주석은 그녀를 자신과 밀착된 존재로 끝없이 상상하는 화자의 발화를 떠받치는 근거를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독자들이 화자에 대해 더 이상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화자의 신뢰성을 잠식시키기에 화자를 시인 브라우닝과 동일시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결국 외형적으로 대화시를 닮아 있는 『폴린』은 대화시의 전통과 결별하면서 대신 문제적인 화자를 내세워 독자의 판단과 비판을 유도하는 극적 독백으로 조금씩 다가서기에 이른다.

브라우닝의 시적 실험은 당대의 비평가들에게 이 시가 호평을 받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예컨대, 폭스(W. J. Fox)는 무명으로 출판된 『폴린』에 대해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폴린에게 할당된 주석”을 이 시의 “주된 흠”(Litzinger 36)이라고 지적한다. 폭스는 이에 이어서 이런 결점은 “사소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시의 다른 부분에만 관심을 둬으로써 폴린의 주석이 텍스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의 중반부에 갑자기 여성 청자의 긴 주석이 프랑스로 주어져 있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균열은 당대 시 쓰기의 관습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며, 어쩌면 폭스의 이런 비평적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폴린의 발화를 텍스트에 대한 그녀 나름의 답으로 바라보고 이 주석을 통해 텍스트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시각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극적 독백이라는 장르의 성숙한 모습을 이미 경험한 후대의 독자들만이 사후적으로 얻은 특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폴린』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폴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죽어 가는 것 같소, 마치 어둠 속에서
거인과 싸우러 가는 자처럼. 그러나 그대는 영원히 살아서,
모두에게 그대가 나에게 그랬던 것 같은 존재가 되시오!
이 시가 나에게 대한 좋은 생각을 일깨워 내는 모든 사람들,
내 마지막 상태가 행복했으며, 의심이나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음을 아는 모두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의 평안을 빌어 주시길!

For I seem, dying, as one going in the dark
To fight a giant: but live thou for ever,
And be to all what thou hast been to me!
All in whom this wakes pleasant thoughts of me,
Know my last state is happy, free from doubt
Or touch of fear, Love me and wish me well! (ll, 1026-31)

화자의 죽음은 낭만주의적 남성 주체의 권위가 약화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화자는 여성 청자가 이 죽음을 계기로 화자의 통제에서 좀 더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임을 예견한다. 여성 청자와의 합일을 통해 시인/화자의 시적 비전을 완성시키던 대화시와는 달리, 『폴린』의 결말은 남성 화자가 지닌 권력이 서서히 소멸해 가는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IV. 나가는 말

시의 끝부분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화자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탐색에 몰두해 있던 전반부의 화자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 주며, 이렇게 들쭉날쭉 변화하는 화자의 모습은 흔히 『폴린』이라는 시의 약점으로

여겨져 온 혼란스러움과 비일관성을 드러내는 듯하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다기한 측면을 지닌 화자를 통해 낭만주의적 주체에 대한 브라우닝의 양가적 감정이 표현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시의 혼란과 비일관성은 반드시 약점이라기보다 시인 브라우닝의 작품이 걸어가게 될 앞으로의 행보를 예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브라우닝을 선대 시인들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비평들은 주로 주제의식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그가 셸리(Percy Bysshe Shelley)에게서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화자의 발화 내용이 변화하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이 시를 읽으면서 대화시에서 극적 독백으로 향하는 도정에 『폴린』을 자리매김하여 낭만주의와 브라우닝의 관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사고하고자 시도해 보았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화자가 시의 청자인 폴린과 맺고 있는 관계의 양상은 낭만주의 대화시의 특징과 겹쳐지는 측면을 가지면서도 물려받은 시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르를 향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틴턴 사원」에서 누이동생 도로시는 워즈워스에게 먼 훗날에도 와이 강 주변의 자연경관과 함께 기억되어야 하는 존재로 설정되며, 「에올리언 하프」(“The Eolian Harp”)에서 코올리지는 아내인 새러를 “(신이) ... 이 오두막과 함께 .../내게 소유하도록 주신”(gave me to possess/ ... this COT, and THEE, ll.63-64)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해, 브라우닝의 화자는 시의 중반부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벗어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위한 집”(A home for us, out of the world; in thought, 1.726)을 짓겠다고 선언하다가 시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폴린에게 “그대가 이 생명이 있어야 할 곳을 선택했다”(thou hast chosen where this life shall be, 1.946)면서 “그대의 달콤한 명령”(thy sweet commands, 1.945)에 따르겠다고 말한다. 여성 청자를 자신의 공간 속으로 끌어들이기보다 그녀가 이끄는 공간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은 낭만주의 대화시에서 등장하는 시인/화자와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인다. 폴린은 화자의 발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청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공간 선택의 주도성을 지닌 또 하나의 주체로 나타나며, 이런 변화를 통해 브라우닝은 낭만주의 대화시의 목표였지만 끝내 충분히 성취되지 못했던 타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중앙대)

■ 주제어

로버트 브라우닝, 『폴린』, 대화시, 극적 독백, 여성 청자

■ 인용문헌

- 김철수. 「브라우닝 극적 독백시의 정치성」. 『영미어문학』 105(2012): 1-23. Print.
- _____. 「영국시의 탈중심 문화 지형(2)—브라우닝의 셸리 저항과 『폴린』의 텍스트 전략」. 『19세기 영어권 문학』 8.2(2004): 5-26. Print.
- 선희정. 「떨비의 페미니즘 영화 이론으로 읽는 브라우닝의 극적 독백」. 『영미문화』 17.2(2017): 1-27. Print.
- 송기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학과 극적 독백」. 『영미문화』 4.2(2004): 513-31. Print.
- Armstrong, Isobel. *Victorian Poetry: Poetry, Poetics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1993. Print.
- Browning, Robert. *A Critical Edition of the Major Works*. Ed. Adam Roberts. Oxford: Oxford UP, 1997. Print.
- Hancher, Michael. “The Dramatic Situation in Browning's ‘Pauline.’” *The Yearbook of English Studies* 1(1971): 149-59. Print.
- Hawlin, *The Complete Critical Guide to Robert Browning*. London: Routledge, 2002. Print.
- Honan, Park. *Browning's Characters: A Study in Poetic Technique*. New Haven: Yale UP, 1961. Print.
- Howe, Elizabeth. *The Dramatic Monologue*.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96. Print.
- King, Roma A. *The Focusing Artifice: The Poetry of Robert Browning*. Athens, OH: Ohio UP, 1968. Print.
- Kozicki, Henry. “Browning, *Pauline*, and Cornelius Agrippa: The Protagonist as Magus.” *Victorian Poetry* 28.1(1990): 17-38. Print.

- Langbaum, Robert. *The Poetry of Experience: The Dramatic Monologue in Modern Literary Tradition*. New York: Norton, 1957. Print.
- Litzinger, Boyd, and Donald Smalley Eds. *Robert Browning: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1968. Print.
- Mead, George Herbert. "The Definition of the Psychical." *Selected Writings*. Ed. Andrew J. Reck. Indianapolis: Liberal Arts Press, 1964. Print.
- Miller, Betty. *Robert Browning: A Portrait*. New York: Scribner, 1953. Print.
- Miller, J. Hillis. *The Disappearance of God: Five Nineteenth-Century Writers*. Urbana-Champaign: U of Illinois P, 2000. Print.
- Richardson, Alan. "Romanticism and the Colonization of the Feminine." *Romanticism and Feminism*. Ed. Anne K. Mellor. Bloomington: Indiana UP, 1988. Print.
- Ross, Marlon. *The Contours of Masculine Desire: Romanticism and the Rise of Women's Poetry*. Oxford: Oxford UP, 1989. Print.
- Shaw, David. *Origins of the Monologue: The Hidden God*. Toronto: U of Toronto P, 1999. Print.
- Sussman, Herbert. *Victorian Masculinities: Manhood and Masculine Poetics in Early Victorian Literature and Art*. Cambridge: Cambridge UP, 1995. Print.
- Watkins, David. *Sexual Power in British Romantic Poetry*. Gainesville: UP of Florida, 1996. Print.

■ Abstract

**From the Conversation Poem to the Dramatic
Monologue:
Robert Browning's *Pauline***

Cho, Hee Jeong
(Chung-Ang Univ.)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Browning's generic experimentation taking place in *Pauline*. Although the poem has been entertaining relatively low critical attention due to its incoherence, it merits close analysis in the context of the generic development that transforms a conversation poem into a dramatic monologue. Browning's *Pauline* resembles the conversation poem in that its speaker focuses on his own mental movement and invokes a female auditor in order to confess his feelings and thoughts. Yet, the speaker, who clearly shows the tendency toward self-supremacy in the beginning, increasingly realizes his own limit in connecting with the outer world. The speaker's clear self-consciousness inserted later into the text renders the poem "double-voiced." In addition, through the footnote added by Pauline in the middle of the text, the poem reveals a striking discrepancy between the speaker's utterance and the female auditor's reaction. Pauline in this poem does not function merely as a silent, passive recipient of the speaker's monologue; rather, she becomes a reader and a critic, who possesses the potential to dialogize the

poetic text. *Pauline* displays its author's ambivalent view of Romanic poethood as well as the inherited poetic form. Diverging from the generic features of the conversation poem, it foreshadows the emergence of the dramatic monologue in Browning's later poetry.

■ Key words

Robert Browning, *Pauline*, the conversation poem, the dramatic monologue, the female auditor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8년 2월 28일 ○심사일: 2018년 3월 22일 ○게재일: 2018년 4월 30일

Narrative Form, Unheimlich, and the Queer Subject in Jessica Hagedorn's *Dog eaters*

Choi, Cho A

I. Introduction

When Jessica Hagedorn's seminal novel *Dog eaters* was published in 1990, Christopher Lehmann-Haupt insisted in *New York Times Book Review* that the novel seems to defeat the mantra that literature, especially works written by authors of the postcolonial world, is all about politics. He wrote *Dog eaters* sounds “more a Bildungsroman than [a work of] an anti-colonialist tract” (“Life in a Colonized Culture”) because of its peripatetic narrative style and deflating conclusion that seems far from subversive. Calling the novel not “anti-colonial,” Lehmann-Haupt meant that the novel's portrayal of the lives of two narrators do not provide extensive social commentary on the Philippines's haunting postcoloniality. Underlying Lehmann-Haupt's reception of *Dog eaters* is the idea that the hectically non-conventional form of the novel does not do justice to the message that the novel like *Dog eaters* is supposed to deliver. However, his understanding of the novel is missing the point that the novel's

collage-like structure, further complicated by its two-narrator scheme, is precisely what brings the postcolonial condition of the Philippines to the fore. While critical receptions of the novel has been imparted from reading it as a coming-of-age narrative, it also has been equally read as a work that embraces anti-colonial sensibility in a manner uniquely tailored to Hagedorn's aesthetic vision.

In her kaleidoscopic novel *Dogeaters* (1990), Hagedorn weaves a palimpsest of stories about the postcolonial era Philippines under Ferdinand Marcos who ruled the islands from 1965 to 1986. At a first take, readers may find *Dogeaters* confusing and the reading experience frustrating because the book actively disrupts our expectations for its genre as a novel as it did for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er. *Dogeaters* does not follow the unilinear and teleological elements of fiction where the story closes to a neat end. Hagedorn employs two first-person narrators, Rio and Joey, and one third-person narrator, while jump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three perspectives without explicitly telling from whose point of view the story is being told. She also divides the book into many small chapters, each chapter chronicling different story in a manner unbounded by any chronological or perspectival consistency. Hagedorn parallels this move by incorporating different forms of writings—ranging from newspapers articles to political speeches to prayer script—that traverse the real and the fictional.

In the popular understanding of Rio Gonzaga, one of the novel's first-person narrators, she is a transnational subject who has been deeply affected by the Americo-global influences on the Philippines but who has the potential to *de-fog* herself of the colonial aura after

moving to the United States. As such many critics have focused on making sense of how Rio deals with her past and what kind of effect does that coping ensue in Rio's self-fashioning of identity. One among them, Jeremy De Chavez, highlights Rio as a medium through which we can detect the amalgamation of traditional and modern Philippines, revealing "the inadequacies in both Western modernity and local nativism" to fully describe who she is (86). I want to explore the mechanism underlying these "inadequacies" of existing frames to fully capture Rio's subjectivity.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fragmented and cinematic narrative methodology effectively harbors the postcolonial sensibility of Rio as well as Joey. As if several new stories are edited and designed to fit in one print page, various vignettes of Manila life in *Dogeaters* are bounded together to evoke a sensibility particular to the postcolonial Philippine reality. The non-conventional narrative form works organically with the novel's stories; form becomes content. The postcolonial sensibility informs us of Rio's position as a subject who relies on revising and selecting her past memories. Rio *writes* her homelessness and projects her longing for *heimlich* through the editorial space that the novel's narrative form affords. If Rio is the scribe of homelessness, then textually, Joey is the one whose queerness bears the traces of Rio's *écriture*. The repressed or disavowed stories that Joey's body registers bespeak to Rio's sense of feeling like a permanent exile. Ultimately, Joey's visceral body simultaneously archives and lays bare the lacuna that Rio's reconstructive storytelling—not simply out of her memories but heavily framed by her effort to revise her past—inevitably ousts.

II. The Narrative Aesthetics of Informing Form

Amongst other novels that are often categorized as “Asian American” and that have gained considerable American readership, *Dogeaters* deserves a special attention for its particular mode of storytelling. The novel's peripatetic form raises the question of how the rhetorical container contributes to content or participates in plot. Some critics cast an uneasy outlook on Hagedorn's storytelling for being unconventional and unfocused. In analyzing the three phases of Filipino–American writership, E. San Juan Jr. argues that *Dogeaters* is dismissive and reductive, heavily dependent on the postmodern aesthetics in allegorizing the socio–political situation of the Philippines:

The novel can be conceived as a swift montage of phantasmagoric images, flotsam of banalities, jetsam of clichés, fragments of quotes and confessions, shifting kaleidoscopic voices, trivia, libidinal tremors and orgasms, hallucinations flashed on film/TV screens-virtually a cinematext of a Third World scenario that might be the Philippines or any other contemporary neocolonial milieu processed in the transnational laboratories of Los Angeles or New York. (118)

While San Juan Jr.'s assessment of the novel seems accurate, I suggest that it is precisely this postmodern methodology of storytelling that does the best job of representing the fragmented and disjunctive everyday experiences of those who live in the postcolonial Philippines. As one Amazon reviewer puts it succinctly, the narrative and rhetorical strategies used in *Dogeaters* make the reader witness “a dizzying whirlwind slice of Filipino life” (“Amazon.com”). San Juan

Jr. criticizes Hagedorn's work for lacking the particular context of the Philippines, for merely sketching a “swift montage” of urbanite stories of metropolises. Contrary to what San Juan Jr. argues however, Hagedorn's narrative strategy does not co-opt the kind of story she tries to tell. Rather, this “montage” *informs* the ungrounded positionality of the protagonists and highlights the promising spatiality that the novel develops.

In discussing postcolonial form of writing and its affective potentials through Ruth Ozeki's novel *My Year of Meats*, David Palumbo-Liu explores the productiveness of bringing fact and fiction into play: “In what forms, rhetorics, discursive formulations, poetics, can the ‘minor’ effectively represent its case across those differentiated spaces and hope to produce some sort of affect that will move people to act in ethical manners?” (Lionnet and Shih 43). This is exactly the question that Hagedorn grapples with in *Dogeaters*. In the 2008 interview with Michael Collins, Hagedorn explicitly says that the cinematic writing style “just evolved” because “it felt right” (1222). She describes her writing process as “instinctive, organic, and musical” (1222). She explains further about her narrative strategy that specifically addresses “Filipino sensibility” (93) in the 1995 interview with Kay Bonetti:

You can have a novel that is like a collage, which I feel *Dogeaters* is. A lot of the ten years thinking about *Dogeaters* I worried about the structure. How could the structure also tell that story? A lot of novels about the Philippines or set in the Philippines don't cut it at all because they don't capture the crazy-quilt atmosphere and the hybrid ambiance that occurs twenty-four hours

a day. Things happening all the time, and noise and crowds and beautiful animals and amazing flora. At the same time, pollution and urbanization and sophistication and, you know, the jungle. (97)

In other words, the stories, or story for that matter, also becomes a version of history precisely through the disjointed form that *Dogeaters* is set in. The only natural way to tell the Filipino story that does justice to the postcolonial sensibility of the Philippines is doing a literary collage. The traditional method of storytelling in which cause-and-effect sequence spearheads the plot development cannot contain the reality. The *naturalness* of the pastiche-like narrative embraces what Saskia Sassen succinctly calls the “multiple spatiotemporal (dis)orders” particular to postcolonial/transnational literary works (221; qtd. in Lionnet and Shih 6). For Hagedorn, writing *Dogeaters* works less like being the secretary of the invisible but more like a newspaper or magazine editor. She has designed *Dogeaters*, compiling and assembling bits and pieces of stories to deliver a sense of homelessness that pervades the minds of Filipinos. The cinematext-like form of *Dogeaters* becomes the meaning itself, organically fueling, and fueled by, the text.

The particular methodology of storytelling-editorializing-works closely with Hagedorn's own search for a transnational identity. Jessica Hagedorn is a multiply determined subject just like her protagonists in *Dogeaters*. She is born in Manila to a Scottish-Irish-French-Filipino mother, and a Filipino-Spanish father of Chinese ancestry. Hagedorn moved to San Francisco with her mother when she was 14 years old just like Rio moves to United States as a teen. As

- Narrative Form, Unheimlich, and the Queer Subject in Jessica Hagedorn's *Dogeaters* | Choi, Cho A

Hagedorn's alter ego, she partakes in shaping Hagedorn's identity as a female Filipino–American transnational writer in the global capitalist order. At a meta-fictional level, writing Rio's story parallels writing Hagedorn's story. Rio is the emblem of Hagedorn's autobiographical attempt to construct her identity, the identity that is perpetually slipping, displaced, in motion, sliding. In *Postcolonial Life-Writing*, Bart Moore–Gilbert argues that the issue of identity formation is a trait of women's life-writing whose genre portrays a “decentered subjectivity” (xxi) in “a more dialogical conception of Selfhood as something which is essentially social and relational (xviii). Writing about Rio and Joey, Hagedorn concurrently inscribes her migratory literary subjectivity which is persistently in-becoming and never arriving. As such, Hagedorn interweaves three spaces—the fictional space of a novel, the historical space of postcolonial Philippines, and her personal space as a female Filipino–American writer—to render what Bhabha calls the “Third Space” politically generative. In this sense, what San Juan Jr. has called “a cinematext” of Hagedorn's narrative form and structure *de facto* serves as an effective modality to highlight the “transpositionality” (Lionnet and Shih 101) of the characters within the novel as well as Hagedorn herself.

III. The Third Space and Narrative Authority

Recasting Frantz Fanon's famous “the zone of occult instability” in his own grammar, Homi Bhabha understands the Third Space as the space in which “the structure of meaning and reference [becomes]

ambivalent” (36). Cultural identity is never that which is essential and singular but hybrid and contestatory. Bhabha observes that “the productive capacities of this Third Space have a colonial or postcolonial provenance” (56) that can open up the space to trace how the subject of enunciation articulates itself. There is a “disjuncture between the subject of a proposition and the subject of enunciation” and the Third Space is this disjunctive space where the self barter between the two conceptions of itself. In other words, the Third Space is a space of mediation where cultural identity is always negotiated, thus, providing the leeway to read “transnational as translational” (Bhabha 247). The migrants' or refugees' cultural experiences of displacement would be the most exemplary case of Third Space negotiation in which their identity formation is untenable to streamlined representation. Rio is a permanent exile who neither belongs to the Philippines nor the United States. Even in her second homeland, she feels “anxious and restless, at home only in airports” (Hagedorn 247). Yet, through the selective re-calling and revision of her memories, Rio struggles to construct her identity. The Third Space for Rio is, in Chang-hee Kim's words, “a strategic site for interstitial subjectivity” (107) where we can glimpse the self-fashioning of her identity unfold.

Even before Rio goes to the United States, she already strikes as a neocolonial and transnational subject. Rio enjoys American movies and foods; much of her life details the pervasiveness of American culture. Even while she is literally at home in Manila, Rio's structure of feeling is deeply affected and conditioned by American pop culture. The novel opens with a scene in which Rio and her cousin Pucha are

impressed by “American, modern, and enviable” (Hagedorn 4) portraiture of Gloria Talbott, the actress who plays Jane Wyman in all-time classic melodrama *All That Heaven Allows*. The Filipino psyche is already deeply mediated and interpellated by Americanism; the obsession with American culture and its “cool indifference” (3) undergird Filipinos' unconsciousness. In delivering the sense of neocolonialism that heavily weighs in on every nook and cranny of the Philippine society, Hagedorn portrays what Arjun Appadurai has articulated as “mediascape,” a dimension in which the many media outlets shape the “imagined world” we inhabit and where narratives and images are primarily forces informing cultural tastes (35). Filipino imagination, even after the liberation in mid-1940s, continues to be haunted by “the specters of colonialism” (Kim 107). Rio's vernacular is an excellent example of how her postcolonial subjectivity is multiply determined, everyday language arresting not only the longue durée of Spanish and American colonialism but also the history of hybrid and polymorphic creolization of the national language. The colloquial intimacy of the language is detected through phrases like “It is *merienda* time” (Hagedorn 4) or “*Abuelita*” (93) or “*sabes ya*” (occurring multiple times), which are all vernacularized form of Spanish intermixed with Tagalog and English.

Growing up in this omnifarious reality, Rio already resides in the Third Space as a homeless figure even before she moves to the U.S. This is why at the end, an image of “deserted, ramshackle house” (247) keeps coming back to Rio in a dream as the unreachable heaven. For a migratory subject like Rio, the real home can only be discursive and narratological. The homely feeling is immanent to the

process of giving shape and form to memories through writing a narrativ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is storytelling does more than aestheticizing the migratory subject's journey for identity. This search—this movement towards—renders Rio's identity as the organic entity in a state of perpetual becoming, not as a property that can be acquired. Therefore, the Third Space afforded by Rio recasts the negative reception of the Third Space that it is an apolitical and de—historicizing space. However, as Pucha later corrects most of Rio's story, Rio's account of what happens in the postcolonial Philippines is not entirely accurate. Rio's editorial agency in narrating her stories re—writes the Third Space as the space of forgetting and remembering.

In order to remember certain events in the way she desires to remember, Rio has to disown or revise certain memories. The similar process happens with national historiography where the formation national identity is predicated on the constructing collective memory. The link between the process of Rio's revision of her memories and what Bhabha calls “a double narrative movement” (208) of “*writing the nation* [sic]” (209) is worthwhile quoting at length:

The people are the historical ‘objects’ of a nationalist pedagogy, giving the discourse an authority that is based on the pre-given or constituted historical origin *in the past* [sic]; the people are also the ‘subjects’ of a process of signification that must erase any prior or originary presence of the nation-people ...

The scraps, patches, and rags of daily life must be repeatedly turned into the signs of a national culture, while the very act of the narrative performance interpellates a growing circle of national subjects. It is the production of the

- Narrative Form, Unheimlich, and the Queer Subject in Jessica Hagedorn's *Dogeaters* | Choi, Cho A

nation as narration there is a split between the continuist, accumulative temporality of the pedagogical, and the repetitious, recursive strategy of the performative. (208-09)

It is not difficult to locate the instances in which Rio defines her Filipina identity through the signification process that depends on “the production of nation as narration.” The nation for Rio is what which arouses homely, familial, and traditional feelings. As such, she readily associates her nostalgia for motherly homeland with Lola Narcisa.

In the chapter titled “Luna Moth,” Rio confesses that her grandmother Lola Narcisa “is the main reason for [her] frequent visits to Manila” (Hagedorn 246). Rio's frequent addressing of Lola Narcisa as “my *Lola* [sic] Narcisa” illuminates that Rio exteriorizes the concept of *abuelita*, meaning grandmother in Spanish and Tagalog, as a feminized home. Concurrently, acknowledging that she feels at home with Lola Narcisa is a sign that Lola Narcisa figuratively stands for the what Rio has to purge herself of—the attachment to pre-modern or traditional Filipino way of life. Her grandmother eats with the *bakla* class servants and is shamelessly obsessed with the radio melodrama serial *Love Letters* aired in Tagalog:

Actually, my *lola* prefers eating her meals with the servants in the kitchen. She prefers to eat what the servants cook for themselves ... While they eat *kamayan* with their hands, she had the servants go over the intricate plots of their favorite radio serial, *Love Letters*, which they listen to after dinner in my grandmother's cozy room. I know. When my cousin Pucha isn't visiting or

spending the night, I've joined my *Lola Narcisa* and her friends many times. (9)

Identifying herself with *Lola Narcisa*, Rio counter-narrates the sense of repression she registers while growing up in postcolonial urban Manila as the daughter of a well-to-do bourgeois family. The social more that the Gonzaga family is so keen to abide by foists itself upon Rio as “the continuist, accumulative temporality of the pedagogical” (Bhabha 209) narrative that inducts her into a “pre-given or constituted historical origin” (208), making her disavow the cultural traditions, social codes, and personal preferences that make her feel at home. The Third Space confers Rio the narrative authority to fashion her identity through autobiographical *écriture*, casting off certain memories and assorting the other as facts of her life. Though *Dogeaters* does not explicitly state what kind of memories are rejected by Rio, it leaves a trace of what has to be rejected in making the narrative space Rio's home. Making of Rio's figurative home relies on rejecting the sense of homelessness that is best illustrated in the novel by *tsismis*, a Tagalog word meaning gossip or rumor, and the queer subject Joey Sands.

IV. Unhoused Gossip and Alienating Queerness

Among the critics who read *Dogeaters* as delivering a sense of resistance endemic to Asian American literature, Helena Grice observes that gossip functions as a counter-narrative to “destabilize established generic and discursive registers” (183) of official history

and hegemonic historiography. Lisa Lowe also acknowledges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gossip trope, contending that *tsismis* (Tagalog word meaning “gossip”) is “a popular discourse that interrupts and displaces official representational regimes” (113). She further explains that gossip is not antithetical to official history but supplementary:

Extravagant and unregulated, gossip functions as an “unofficial” discursive structure ... Though gossip is unofficial, I do not mean to imply that it occupies a terrain that is separate or discrete from official narratives; rather, gossip is peculiarly parasitic, pillaging from the official, imitating without discrimination, exaggerating, relaying. In this sense, gossip requires that we abandon binary notions of legitimate and illegitimate, discourse and counterdiscourse, or “public” and “private” for it traverses these classifications so as to render such divisions untenable. (Lowe 113-14)

Indeed, over at the Saturday night Gonzaga dinner, *tsismis* dismantles what each family member has heard or been relayed to. The veracity of bits and pieces of information is “parasitic” (113) to the allegedly official accounts of what happens at “them torture camps” (Hagedorn 65). Yet, the need to confirm the origin of the rumor or the veracity of the information is absent. *Tsismis* serves as “a public form of popular discourse in colonized societies in which relations of rule force popular modes of social organization (from subcultures to acts of insurgency) into unsanctioned sites and discourses” (Lowe 114). When Pucha tells Rio that they “will go over the night's *tsismis*, the juicy gossip that is the center of [their] lives” (Hagedorn 66), the plan

to “go over” (66) the night's *tsismis*, in other words, is an effort to put an order to the unresolved curiosities. This is Pucha's attempt to map her perception of reality through vernacular historiography just like Rio tries to re-organize her pool of memories into a neat narrative years later.

The diffusive, disjointed, and unsettled gossip knows no home. Homelessness is the nature and modality of gossip. The very nature of *tsismis* does not demand locating an origin of the story. At a remove from the true fact, gossips and rumors in postcolonial Manila stand simply as what they are, as alternate facts always containing the precarious but assuring credibility. In this sense, the state of homelessness is the permanent homeground of *tsismis*. The feeling of alienation and vagrancy that *tsismis* culture illuminates is embodied by Joey Sands. Joey is a street orphan named after “a casino in Las Vegas” (72) who lives in a shabby shack with a street pimp called Uncle. He works as a local DJ at a gay bar CocoRico and earns his keeps, in the crudest sense, as a male prostitute. Unlike Rio who has the social mobility to move to the U.S and fashion herself as a transnational subject, Joey is trapped in the state-led project of attracting global capital so that the Philippines can induct itself into the world order by faithfully following the trajectory of a modern nation. His queer subjectivity serves as the avenue through which we can glimpse the Filipino state government's complicity in fashioning the nation as a neocolonial postcolony.

Achille Mbembe defines postcolony as “societies recently emerging from the experience of colonisation and the violence which the colonial relationship, *par excellence*, involves” (3). The “chaotically

pluralistic” postcolony is where “identities are multiplied, transformed and put into circulation” and where the typical binary categories of describing the postcolonial power relationship is ineffective (Mbembe 3). Post-1946 Philippines, officially freed from the American colonial rule, is just such a place where the lives of non-heteronormative characters are materialized via hyper-dramatization: queer Joey eventually turning into an anti-nationalist guerilla, transvestite hairdressers Chiquiting Moreno in a bonhomie relationship with Rio's mother, Daisy Avila abrogating her beauty queen status to become a guerilla, and so on. Among these turns of identities, queerness as “a sexual or gender identity that does not correspond to established idea of sexuality and gender, especially heterosexual norms” (“queer, adj.1”) best exemplifies the plight of the Philippines's postcolonial condition that usurps its people of homeliness.

Joey's sexuality and desire are always commodified and staged. In selling his service to foreigners like the German Rainer or American Nick, Joey feels joyful, as his name alludes. However, the emotional response Joey bears as a male prostitute is conditioned by the fact that opportunities to sleep with foreign men provide him the access to material luxuries. In the very first narration by Joey titled “Mister Heartbreak,” Joey unabashedly admits that he feels “pleasant-waking up like [he does], in fancy hotel rooms with clean sheets and the air conditioner always on” (Hagedorn 37). For Joey, the world of prostitution is like that of a commercial market where he can relish the luxuries of life that his ordinary, real life could never afford him with:

What I like best is waking up alone in bachelor apartments-the kind rich guys rent in Makati-surrounded by invisible servants, elaborate stereo systems, bottles of imported cologne and aftershave arranged in gleaming bathrooms Andres would die for, my money waiting for me in an envelope discreetly left on a table near the front door. (37)

Joey is keen to notice the presence of luxurious goods whenever he steps into his clients' hotel rooms. His financial security and emotional need is fulfilled by experiencing the modern and sleek lifestyles of his clients. Within the postcolony's economic structure, Joey's only option is to be a parasitic subject. Joey's preference for men, as he readily admits, has less to do with the innate biological drive he feels for them than the need to see them as source of financial stability. In directly addressing the reader, Joey confesses:

I learned early that men go for me; I like that about them, I don't have to work at being sexy. Ha-ha. Maybe it's my Negro blood.

Uncle says I prefer men because I know them best. I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run men around, make them give me money ... I know how to do that. Make them love me even when I break their hearts, steal, or spend all their money. (44-45)

For Joey, men looking to have sex with him are never romanticized in the conventional sense; they are merely reservoirs of wealth. Well-aware of this, Joey chooses—or rather, is socially conditioned to choose—to (dis)identify himself as queer and feels no particular moral pangs about performing his queerness for money. In

Jose Esteban Muñoz's words, the practice of disidentification is about "cultural, material, and psychic survival" (161). To sustain himself facing "state and global power apparatuses that employ system of racial, sexual, and national subjugation" (161), Joey has no room to feel morally depraved about his work. Prostitution is like acting "in [his] movie" while playing the role of "the strong young animal" because "most sex is charity, on [his] part" (Hagedorn 32). Performing queerness, then, is not just Joey's *modus operandi* but his *modus vivendi*. Brandishing queerness is Joey's way of coping with the harsh reality wherein the heteronormative gender system is utterly inadequate in "managing and negotiating historical trauma and systemic violence" (Muñoz 161).

Stephen Hong Sohn astutely observes that Joey ends up being a perennially displaced and commodified subject even though his queer performativity affords him the subversive power to benefit from the informal economic sector. Joey is "fixed as a sexualized commodity" and as "the perfect Filipino accessory, something to be admired but then left behind" (Sohn 329). Some scholars argue that Joey's status of being a mere commercial prop and being exposed to Uncle's violent scheme finds an outlet when he turns into an anti-nationalist guerilla.¹⁾ However, it is crucial to note that even as a guerilla member, Joey is only valued as a witness. He is not entirely at home even as an accepted member of the guerilla, having to prove his worth. What is interesting is that Joey's body is the primordial register

1) More on the subversive potential of staged queerness in *Dogeaters*, see Viet Thanh Nguyen, "Queer Bodies and Subaltern Spectators" in *Race and Resistance: Literature and Politics in Asian America*. Oxford UP, 2002, pp. 125-41.

of his presence at the murder scene of Senator Avila. His body is not only physically present at the shooting but also bears the symptoms of being the witness. After seeing Avila getting killed, Joey becomes more vulnerable and less bumptious but most of all, he feels hungry. Joey starts to feel the pangs of visceral hunger after having witness Avila's death, and this hunger stirs him when he is on his way to the mountains.

V. Unheimlich, Performative Queerness, and Hunger

Joey's performative queerness comes at the expense of mastering his body as a marketable product. Taking pride in being able to wield his power and bend the hearts of his clients to his will, Joey embodies “the subject's deployment of a talent for play and a sense of fun which makes him *homo ludens par excellence* [sic]” (Mbembe 5). The postcolonial *homo ludens* are able “to splinter their identities and to represent themselves as always changing their persona; they are constantly undergoing mitosis” (5). In selling his queerness, Joey has felt exhilarated with the sense of invisibility that stealing provides him with:

Sometimes I'll steal from them, just to make a point. A bottle of cologne, a Rolex left carelessly next to the bathroom sink. It keeps that element of danger alive in their luxurious rooms ... It's a warning, my philosophy of life-keeping things slightly off-balance. It's how I survive. (37)

The “point” (37) Joey wants to make is that his racial position, compounded by the class position that he occupies in the postcolonial Philippines, should not automatically render him as the naïve figure who is wanting in fatherhood. The sense of pleasure in stealing is something that Joey learns to enjoy from the age of seven when he feels “a heady rush of triumph like dope, a pleasure so private, delicious, and powerful” (43). It is a similar sensation Joey feels when his body records “extreme and overwhelming” (44) orgasm while being forced to have sex as a child with a much older woman. In the two instances of pleasure, Joey discovers a sense of *heimlich* in feeling comfortable in and confident of his own body. As a sly pickpocket, Joey's body is invisible, and as a unripe youth with shaved head that leaves him feeling “ludicrous and smaller than ever” (44), his shame is shrouded by sensual pleasure. This is exactly the invisibility that Joey made himself feel at home in.

While Joey seems to be crusading smoothly through his life, every opportunity he has with a client proves that Joey's selfhood and body are actually alienated. Even though he can earn money, he is always at a remove from his bodily vessel precisely because he has to perform his gender in the web of “historical and anthropological positions that understand gender as a *relation* among socially constituted subjects in specifiable contexts” (Butler 10). The extreme hunger Joey feels after witnessing the Avila murder discloses that Joey's queerness is a fake vessel of his homeliness. In fact, the uncontrollable hunger for food, a sensation Joey has never felt before, foregrounds Joey's repressed longing for maternal homeliness. Shortly after running away from the murder scene, Joey suddenly has

a ravenous appetite for traditional Filipino foods which is unlike his usual preference for American dishes. The sense of starvation makes Joey desperate for “Something in a brown, tangy sauce poured over hot, steaming rice. Some kind of spicy meat, maybe chicken or goat. He thought of how the rice would fill his burning stomach, easing the pangs of hunger he was beginning to feel again” (Hagedorn 195).

Joey's hunger is an after-symptom of not only the shock his body registers while taking cover from the shooting but also his heightened concern for being found guilty party by association. He tells what he has witnessed to Uncle but even after the confession, Joey unmistakably feels hollow. The hunger persists as a symptom of verbal purging. It is a metaphorical hunger for a maternal home where he can feel relieved with “a certain tenderness” (197) like the one Uncle affords him with. Yet, it is an uncanny desire not only because Joey's mother is long dead and thus physically unlocatable, but also because Joey strongly refuses “to remember anything else about [his] sad whore of a mother” (43) because she is a constant reminder of his racial makeup that is particular to the context of postcolonial Philippines. Joey's bodily longing translates into his desire to locate motherly *heimlich*.

Even after the confession, Joey is unable to shake off “the vividness of the actual moment from his mind, the Senator's body sprawled in a pool of blood on the plush carpet, the blood so red it vibrated black in Joey's buzzing mind” (190). The graphic horridness of the bloodbath is something Joey cannot discharge from his consciousness because his bodily memory owns that memory. The body is affected by the sheer visibility of the other's death. This

bodily register immediately makes Joey feel uncannily guilty just for that fact that he was present at the murder scene. According to Sigmund Freud who is indebted to Schelling for expounding on the notion *unheimlich*, *unheimlich* is the realization that the demarcating line between the home and the world are breaking down. It is something that needs to remain hidden and repressed but inadvertently revealed. In Joey's case, his bodily affect summons the repressed nostalgia for the feeling of *heimlich*. The initial moment that Joey's body records the sense of *unheimlich* is the moment when Joey realizes that other people at the lobby are "busy being hysterical" (151) all of a sudden after Senator Avila is shot. The sense of theatricality that people exhibit—a certain performativity that has been so essential and intimate for Joey thus far—is spread out before his eyes. Moreover, because of Joey's bodily presence at the scene, he suddenly becomes exposed to a national incident. His body crosses the boundary of being exclusively private to himself as it sits at the liminal zone between the historical event—Avila's death—and the personal event of looting Rainer minutes before he witnesses the shooting. In this sense, Joey's longing body becomes the site that mediates the collective national trauma.

On a national level, the Philippines suffers from the symbolic absence of a mother figure. Historically, United States has long imposed itself as a parent to its colony and this is reflected on the textual level when President William McKinley reifies the image of the Philippines as "unfit for self-government" (71) in his address to a Methodist delegation. The sense of white's man burden that the Americans imposed on the Philippines was compounded by religious

zeal and political motive. Historically, Americans have positioned themselves as a saintly father figure who can provide the ideal model of modernizing the nation that can “uplift and civilize and Christianize them” (71). The gendered nature of American colonial agenda have propagated pop culture that is complicit in spreading the idea of a heteronormative and patriarchal romance like the one played out in *All That Heaven Allows*. American pop culture is not the only accomplice. The Filipino state government with its state-driven nationalist agenda to modernize the nation also participated in making the nation neocolonial. It is to these two sources of national trauma that Joey is exposed to. Avila's murder begets the feeling of *unheimlich* to Joey as the boundary between his private world and national world is blurred. The national history that Joey has hitherto considered irrelevant to his way of making a living suddenly becomes as an integral part of his life. When Joey is no longer the invisible subject but the visible subject to personal and national traumas, as in the case of Avila shooting, Joey can no longer (dis)identify himself with his body and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Filipino postcolony's predicament. The visibility of Joey's body, manifested by unsatiable hunger for food and maternal home, illustrates the sense of homelessness that Rio disposes from her narrative.

VI. Conclusion

The collage-like narrative not only delivers the sense of fragmented reality that regulates the postcolonial Philippines but also provides

the lens through which we can make sense of the doubleness of Third Space. Manila, where the state government's plan to urbanize and modernize the nation is manifested most perceptibly, is a geographical origin for both Rio and Joey. Yet, Rio has the means to move to the United States, thus, finding herself at home as a writing subject; that is, shaping, selecting, assorting, and revising her memories at a critical distance from the land of her birth. By contrast, Joey gets no choice but to inscribe himself into the niche market by performing queerness without parents or class privilege. He never gets the chance to escape the postcolony. Figuratively, Joey has no home, just living day by day as a drifting subject. But interestingly, even Joey's sense of homeliness, as a queer subject, is performative. Only after Joey's body reacts, responds, and registers the death of Senator Avila is he able to feel the genuine hunger for homeliness. For Joey, the bodily affect estranges himself from that which has been very familiar to him—his own corpus. The lack of the absent mother continues to inform the desires of Joy and the nation itself.

Rio's autobiographical memory revision inscribes her *unheimlich* and nostalgia for homeliness. Meanwhile, Rio's reconstructive identity formation gains visibility through the textual abjection. The homeless nature of *tsismis* and nostalgia for maternal home that Joey's body registers are textual remnants of Rio's storytelling. Hagedorn's *Dogeaters* stages Joey's queerness as a generative gateway to re-formulate the Third Space as a historical and affective place for a postcolonial subject. By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body in mediating the national collective trauma, Hagedorn shows that autobiography for a transnational subject like Rio requires an

embodied site of abjection like Joey's body onto which Rio can textually map her *unheimlich*.

(Yonsei Univ.)

■ Key words

Dogeaters, narrative form, Third Space, gossip, transnational subject, unheimlich, queerness

■ Works Cited

- 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 of Minnesota P, 1996. Print.
- Bhabha, Homi K.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1994. Print.
- Bonetti, Kay. "An Interview with Jessica Hagedorn." *The Missouri Review*, vol. 18, no. 1, 1995, pp. 89–114. Print.
-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1990. Print.
- Collins, Michael. "I'm Interested as a Writer in Less Exalted Persons': An Interview with Jessica Hagedorn." *Callaloo*, vol. 31, no. 4, 2008, pp. 1217–28. Print.
- De Chavez, Jeremy.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in Jessica Hagedorn's *DOGEATERS*." *The Explicator*, vol. 75, no. 2, pp. 84–87. Print.
- Grice, Helena. "Artistic Creativity, Form, and Fictional Experimentation in Filipina American Fiction." *MELUS*, vol. 29, no. 1, 2004, pp. 181–98. Print.
- Hagedorn, Jessica. *Dogeaters*. Penguin Books, 1990. Print.
- Kim, Chang-Hee. "The Biopolitical Effect of Cold War Containment in a Coming-of-Age Narrative: On Postcolonial Subjectivity in Hagedorn's *Dogeaters*." *Journal of Narrative Theory*, vol. 47, no. 1, 2017, pp. 89–116. Print.
- Lehmann-Haupt, Christopher. Review of *Dogeaters* "Books of The Times; Life (and It's Cheap) in a Colonized Culture." *New York Times*, 22 March 1990. Online. Web.

- Lionnet, Françoise, and Shu-mei Shih. *Minor Transnationalism*. Duke UP, 2005.
- Lowe, Lisa. *Immigrants Acts*. Duke UP, 1996. Print.
- Mbembe, Achille. "Provisional Notes on the Postcolony."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frican Institute*, vol. 62, no. 1, 1992, pp. 3-37. Print.
- Moore-Gilbert, Bart. *Postcolonial Life-Writing*. Routledge, 2009. Print.
- Muñoz, Jose Esteban. *Disidentifications: Queers of Color and the Performance of Politics*. U of Minnesota P, 1999. Print.
- Palumbo-Liu, David. "Rational and Irrational Choices: Form, Affect, and Ethics." *Minor Transnationalism*, edited by Françoise Lionnet and Shu-mei Shih, 2005, pp. 41-72. Print.
- raymundo@mto.gov.on.ca. Comment on *Dogeaters*. Amazon.com, 23 June 1998, https://www.amazon.com/Dogeaters-Contemporary-American-Fiction-Hagedorn/product-reviews/014014904X/ref=cm_cr_arp_d_paging_btm_2?ie=UTF8&reviewerType=all_reviews&pageNumber=2. Print.
- Nguyen, Viet Thanh. *Race and Resistance: Literature and Politics in Asian America*. Oxford UP, 2002. Print.
- San Juan Jr., E. "Mapping the Boundaries: The Filipino Writer in the U.S.A." *The Journal of Ethnic Studies*, vol. 19, no. 1, 1991, pp. 117-32. Print.
- Sohn, Stephen Hong. "From Discos to Jungles: Circuitous Queer Patronage and Sex Tourism in Jessica Hagedorn's *Dogeaters*." *MFS Modern Fiction Studies*, vol. 56, no. 2, 2010, pp. 317-48. Print.

- Narrative Form, Unheimlich, and the Queer Subject in Jessica Hagedorn's *Dogeaters* | Choi, Cho A
- “queer, adj.1.” *OED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June 2017, www.oed.com/view/Entry/156236. Accessed 4 January 2017. Web.

■ Abstract

Narrative Form, Unheimlich, and the Queer Subject in Jessica Hagedorn's *Dogeaters*

Choi, Cho A
(Yonsei Univ.)

This paper reveals that the disjunctive and cinematic narrative form of Jessica Hagedorn's *Dogeaters* organically carves a politico-literal space for its two principal narrators to show how they cope with the feeling of homelessness. The novel's peripatetic narrative consists of first-person narrations, third-person narration, newspaper articles, president's speech, quotes from a book, and an adapted version of prayer script. As Hagedorn reveals in the very beginning of the book, these accounts are neither entirely fictional nor factual. *Dogeaters* presents a space of quasi-reality that traverses the literal, political, and historical. For Rio Gonzaga, this space becomes a narrational space in which Rio re-arranges, edits, and re-formulates her memories of living in Manila to come to terms with her identity as a transnational migratory subject. During this process, Rio deliberately forgets or belies certain memories. It is Joey Sands who registers the sense of homelessness that Rio strenuously tries to eject. While Joey thinks that he may have found home in the material comforts afforded by performing his queerness, his body tells a different story. His body

- Narrative Form, Unheimlich, and the Queer Subject in Jessica Hagedorn's *Dogeaters* | Choi, Cho A

works as a medium through which Joey's personal trauma and the Philippines's national trauma settle in. Rio's reconstructive and revisional storytelling needs Joey's visceral body as a site of abjection where Rio's *unheimlich* is textually discharged.

■ Key words

Dogeaters, narrative form, Third Space, gossip, transnational subject, unheimlich, queerness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8년 2월 26일 ○심사일: 2018년 3월 22일 ○게재일: 2018년 4월 30일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규정

제1조 (학술지 발간의 목적과 성격)

- (1) 동국대 영어권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는 영어권 문화와 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의 연구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술지 『영어권문화연구』(*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를 발간한다.
- (2) 본 학술지는 영어권문화연구와 관련된 논문들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은 영어권의 인문, 철학, 문학, 문화 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괄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그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조 (학술지 발간 일정)

- (1) [학술지 발간]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연 3회 발간한다.
- (2) [원고 접수와 심사] 원고는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고자에게 게재 희망호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논문 접수 마감은 1권은 2월 28일, 2권은 6월 30일, 그리고 3권은 10월 31일로 하고 이때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호 게재 여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기한 보다 늦게 투고된 논문들에 대해서는 편집회의를 통해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 및 심사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투고 및 심사 일정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조 (학술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

- (1) 학술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

- (1)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영어권문화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수록될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 (4)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5)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7) 편집위원은 학문적인 조예가 깊고, 연구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전문성, 대내외적 인지도, 경력사항, 연구실적, 연구소기여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8) 편집위원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상임이사나 회원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9)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10)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기타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소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 (11) 편집위원은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에 맞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고루 선정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 (1) 편집위원장은 『영어권문화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학술지와

관련하여 제반 대외 업무를 수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두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공분야에 맞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회의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 2회 이상 학술지의 편집방향과 특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특집호를 기획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예정 발행일 8개월 전까지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 (1) [접수 및 관리] 원고는 공정한 투고 시스템을 사용해 모집한다.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2) [심사 송부]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blind test) 인비로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의 저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그 논문에 적합한 전공분야 3인의 편집위원으로 연구 기여도,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에 해당분야 책임자가 없을 시에는 다른 회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심사 일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심사결과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5)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1) 학회계재 형식 부합성, 2) 내용의 창의성, 3) 논지의 명확성, 4) 논증과정(문단간 연계성, 인용근거의 정확성, 구성의 밀도, 문장의 명증성, 설득력 등), 5) 주제의 시의성, 6) 논리적 논지전개, 7) 학문적 기여도와 같은 논문의 질적 심사와 8) 논문 형식, 9) 참고자료의 적합성, 10) 영문초록과 주제어가 적절한지 등과 같은 형식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심사자는 평가결과를 연구소의 심사결과서 양식에 따라 서술식으로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계재 가’,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사’, ‘계재 불가’ 중 택일하여 판정한 후 논문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계재 가’ 판정이 아닐 경우 그 이유나 수정-보완 지시 및 계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6) [계재 판정] 논문의 계재여부는 해당 분야에 학문적 조예가 깊은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계재가’ 혹은 ‘수정 후 계재’로 평한 논문만을 원칙적으로 계재 대상으로 한다. 각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계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호에 계재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계재 가 :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계재 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나) 계재 불가 :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계재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다) 수정 후 계재 :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계재” 혹은 그 보다 상위의 종합평가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라) 수정 후 재심사 :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아 대폭적인 수정을 한

후에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그보다 하위의 종합평가 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 (7) [심사 결정 및 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심사자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첨부한다.
- (8)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적어 논문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 혹은 재심을 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 위원 1인이 참여하고 2인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한다.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 (9) [심사결과 통보] 접수된 모든 논문은 연구소 일정에 따라 40일 이내에 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유선이나 전자우편으로 게재 확정을 통보하고, 논문의 집필자가 학술지 발행 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편집위원장은 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집필자에게 <게재 불가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정 후 게재가’나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일시를 적시하여 수정제의서를 발송한다.
- (10)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 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논문 제출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계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⅔이상의 동의를 얻는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 (11) [수정제의 수용원칙] 논문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를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론문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요구도 없는 경우와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

1. 논문의 구성

- (1) 제목 : 제목은 논문보다 큰 글자(14 포인트)를 사용하고 부제목 (12 포인트)이 있는 경우에는 주제목 다음에 콜론을 찍고 부제목을 쓴다. 작품제목은 영어로 쓴다.

예: 브라이언 프리엘의 휴머니티 이념: Translations를 중심으로

(2) 논문의 소제목

로마 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 서론부분: I. 서론 (영문논문의 경우, I. Introduction)
- 본론부분: II, III, IV. . . (구체적 소제목 명기는 저자의 필요에 따른다)
- 결론부분: V. 결론 (영문논문의 경우, V. Conclusion)

(3) 필자이름

- ▶ 논문 서두 우측 상단에 위치. 한글 성명을 쓴다.
예 : 홍길동
- ▶ 논문 본문 마지막, 주제어 전에 소속 학교 명칭을 넣는다.
예 : 동국대
- ▶ Abstract 경우에는 영문 성명 아래 영문 학교 명칭을 쓴다.
예 : Hong, Kil Dong (or Kil-Dong)
(HanKuk University)
- ▶ 영문 성명은 Hong, Kil Dong으로 한다.
- ▶ 공동필자의 경우: 맨 앞에 위치한 필자가 제1필자이고, 그 다음의 공

동필자는 가나다 순 (영어 이름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4) 참고 / 인용 문헌(References / Works Cited)

본문이 끝난 뒤 반드시 인용 문헌(11 포인트)이라는 제목 하에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서지사항을 열거하고 인용 문헌이 끝나면 200 단어 내외의 영문 요약을 붙인다.

(5) 영문 요약

논문제목(14 포인트)은 영어로 쓴다. 제목 1줄 밑 오른쪽 끝에는 필자의 영문이름을 쓴다.

예: Myth-seeking Journey in Brian Friel

Hong, Gil Dong
(Dongguk University)

The theme of rebirth in Brian Friel is well expounded in many aspects : . . .

Its main objective is. . . .

(6) 주제어

본문이 끝나면 2줄을 띄고, 한글 논문인 경우 “주제어”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한글로 명기한다. 그리고, 영문초록이 끝나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영어로 기입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영어로 기입한다.

(7) 본문

본문의 글자 크기는 10 포인트로 하되 줄 사이의 간격 비율은 160으

로 한다.

2. 한글 논문에서의 외국어 사용

- 고유명사의 경우 작품명은 우리말로 번역하고 인명은 우리말로 옮겨 적되 교육인적자원부 제정 외국어 발음 규정을 따른다.
- 처음 나오는 모든 외국어는 괄호 속에 원어를 제시하되, 두 번째 부터는 원어제시가 필요 없다. 작품명과 번역된 저서명은 처음에 번역한 제목을 『 』 안에 쓰고 이어서 () 안에 원어 제목을 병기하고, 그 다음에는 번역된 제목만 쓴다. 한글 논문 제목은 「 」 안에 쓴다.

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

3. 강조와 들여쓰기 (Indentation)

- (1) 본문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방점 혹 밑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 ’ 안에 쓰며, 인용문 중 강조 부분은 원저자의 명기에 따르고, 논문 필자의 강조는 이탤릭체로 쓰며 인용문 끝 출처 표시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원문 강조) 혹은 (필자 강조)를 명시한다.

- (2) 모든 새로운 문단은 두 글자만큼(타자 철자 5칸) 들여쓰기를 한다.

4. 인용 및 출처 밝히기

모든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고 바로 뒤의 괄호 안에 원문을 덧붙인다.

- (1) 직접인용의 경우

- 한글로 된 번역본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 ” 안에 인용문을 쓰고 이어서 ()안에 출처를 밝히고 괄호 밖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55-56).

- 외국어 원본에서 인용할 경우 “ ” 안에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을 쓰고 이어서 ()안에 원문을 쓴 후에 적절한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밝힌다.

예: “역설적으로, 오늘의 등장인물들은 저급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열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대함을 구축한다”

(Paradoxically, O'Neill's characters achieve their greatness through passions that might be thought of as base. 428-29).

예: “어제의 고통”(yesterday's pain, 471)

- (2) 간접인용의 경우 출처는 문장의 마지막에 칸을 띄우지 않고 바로 이어서 ()안에 쪽수를 밝히고 괄호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55-56).

(3) 독립인용문

- 두 줄 이상의 인용의 경우 독립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독립인용문의 위쪽과 아래쪽은 한 줄씩 비워 놓는다. 독립인용문의 첫 줄은 어느 경우에도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나 두 개 이상의 연속된 문단을 인용할 경우 두번째 문단부터 들여쓴다. 또한 독립인용문은 본문보다 작은 9 포인트의 글자를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좌우를 5칸 정도 본문보다 들어가게 한다.

- 괄호를 사용하여 독립인용문의 출처를 밝힌다. 본문중 인용과 달리 인

용문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한 칸 띄 다음 괄호를 시작한다.

예: 길을 가다 영희를 만났다고 그가 말했다. (15)

(4) 인용문중 논문 필자의 첨삭

- 인용문의 중간부분을 논문필자가 생략할 경우 마침표 세 개를 한 칸씩 띄운다.

예: 길을 가다 . . . 만났다고 그가 말했다.

길을 가다 영희를 만났다. . . (뒤를 완전히 생략하는 경우에)

- 인용문의 대명사나 논문의 맥락에 맞춰 의미를 논문 필자가 지칭하여 밝힐 때 대명사나 어구 다음 []안에 쓴다.

예: In his [John F. Kennedy's] address, "new frontier" means . . .

(5) 구두점과 인용문

- 따옴표와 함께 마침표(또는 쉼표)를 사용할 때 마침표(또는 쉼표)는 따옴표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처를 병기하여 밝힐 때는 ‘출처 밝히기’ 원칙에 먼저 따른다.

예: 인호는 “영어,” “불어”에 능통하다고 “철수가 주장했다.”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 (55-56).

5. 영문원고 및 영문요약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6. 서지 사항

(1) 인용 문헌이라는 제목 하에 밝히되 모든 출전은 저자 항목, 서명 항목,

출판 배경 항목, 쪽수 항목 등의 순서로 적는다. 그리고 항목 내의 세부 사항은 MLA 최신판의 규정을 따른다.

(2) 단 한국어로 번역된 외국 문헌을 명기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저자 항목: 원저자의 한국어 발음 이름 중 성, 싹표, 이름 순으로 기재한다.

- 번역자 항목: 번역자 이름을 쓰고 “역”을 붙인다.

- 서명 항목: 번역된 책 명을 겹낫표 안에 쓰고 괄호 안에 원서 명을 이탤릭체로 쓴다.

- 출판 배경 항목: 번역서의 출판 도시, 출판사, 출판 연도 순으로 쓴다.

예: 윌리엄스, 레이몬드. 이일환 역. 『이념과 문학』(Marxism and Literature).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2.

(3) 하나의 문헌에 관한 서지항목의 길이가 길어서 한 줄 이상이 될 때 두 번째 줄부터 6칸 들여 쓰도록 한다.

예: Lewis, C. S. “View Point: C. S. Lewis.”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d. Denton Fox.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110-22.

(4) 외국문헌 서지목록에 국내문헌도 함께 포함시킬 때는 국내문헌을 가나다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열거한다.

(5) 외국대학 출판사의 경우 University는 U로 Press는 P로 줄여쓴다. 외국출판사의 경우 Publishers, Press, and Co., 등의 약호는 모두 생략하고 하나의 머리 이름만 쓴다.

예: Harper, Norton, Houghton, Routledge 등.

예외로 Random House로 표기한다.

- (6) 같은 저자의 2개 이상 출판물을 명기할 때는 두 번째부터 저자이름은 다섯칸의 밑줄로 처리한다. (____.)
- (7) 공동저자의 경우, 맨 앞에 위치한 저자가 제1 저자이고, 그 다음의 공동 저자는 가나다 순 (영어 이름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 (8) 기타 상세한 논문 작성법은 MLA 최신판을 따르고 그 기준을 한국어 논문 작성법에 응용하도록 한다.

『영어권문화연구』 투고 규정

1. [학술지 발간] 매년 4월 30일, 8월 31, 12월 31일 연 3회 발행하며, 한글논문은 앞부분에 외국어 논문은 뒷부분에 게재한다.
2. [원고 제출시한] 1권은 2월 28일, 2권은 6월 30일, 그리고 3권 10월 31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투고 예정논문을 제출한다.
3. [논문의 내용] 투고 논문의 내용은 영어권의 인문, 철학, 문학, 번역, 문화 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그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기고 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영어권문화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나 연구자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생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연구소장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5.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을 따른다.
6. [편집요령]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에 따른다.
7. [심사기준]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4항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을 적용한다.
8. [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 시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은 30만원, 전임 논문은 20만원, 비전임 논문은 10만원을 논문 게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저작권 소유] 논문을 포함하여 출판된 원고의 저작권은 영어권문화연구소가 소유한다.
12. [규정의 개폐 및 수정] 본 규정의 개폐 및 수정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개폐 및 수정을 의결한다.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영어권문화연구』에 기고하는 논문은 아래의 원고 작성요령을 따라야 한다.

1. 논문은 제목을 포함하여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된 논문은 본문에 한자와 영문 등을 쓰지 않기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 괄호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쓰는 경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한다.
2. 외국어 고유명사는 한글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제시한다. 작품명은 한글로 번역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제시한다. 인용문은 번역하되, 필요에 따라 원문을 괄호 속에 병기한다. 운문의 경우에는 원문을 번역문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인명이나 지명의 경우 해당 언어권의 발음을 존중하되, 결정이 어려울 때는 교육부 제정 외국어 발음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3. 각주는 연구비 관련 내용 및 재인용 사실을 밝히거나 본문 내용의 필수적인 부연 정보를 위해서 간략히 사용하고, 인용문헌의 명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미주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실용논문의 경우 조사 및 실험 내용을 미주의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
5. 컴퓨터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되, 우리말 논문은 45자×450행, 영문논문은 70자×500행 (출판지면 약 20쪽) 내외로 한다. 논문의 작성은 가능하면 <아래한글>프로그램(hwp)으로 하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및 크기 등은 기본양식으로 한다.
6. 직접, 간접 인용 부분의 마지막 구두점이 마침표의 경우에는 출처 표기 원칙을 적용 받아 (따옴표 다음의) 괄호에 이어서 표기한다.

7. 국내 서적이거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본문 중에 괄호를 이용하여 미국현대어문학회(MLA) 『지침서』(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의 규정에 따라 저자와 쪽수를 명시하고, 논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인용문헌(Works Cited)으로 밝힌다.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 이름』, 편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 영문문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고 책 이름은 이탤릭체로 한다.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 이름, 편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8.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을 함께 인용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국내문헌을 ‘가나다’ 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문헌은 ‘ABC’순으로 열거한다. 인용문헌은 본문 중에 직접, 간접 인용된 문헌만을 명시하고 참고(references)로만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기하지 않는다.
9. 기타 논문 작성법의 세부 사항은 미국현대어문학회(MLA)의 『지침서』(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최근판 규정을 따르며, 한글 논문의 경우에도 미국현대어문학회 『지침서』의 세부 사항을 응용하여 따른다.
10. 심사의 공정을 위하여 필자의 이름과 대학 이름을 논문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필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원고 제출시 필자의 신원은 ‘논문게재 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한다.
11. 원고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3부의 인쇄본을 동시에 우송한다. 제출할 때, 다음의 기본사항을 명시한 표지를 붙이고, 원고(영문요약 포함)에는 일체 필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게재 확정 이후 출판 교정 시에 필요에 따라 인적 사항을 첨부한다.
 - 논문 제목 (한글 및 영문)

- 필자 이름 (한글 및 영문) 및 필자 정보
 - 공동 연구의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있을 때 명시
 - 필자 소속단체(학교)명(한글 및 영문)
 - 필자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게재 희망호
12. 모든 논문의 말미에 5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를 명시한다. 한글논문의 경우 논문 말미에 2줄 띄고 “주제어”를 제목으로 한글 주제어를 한글로 명기하고, 영문초록 말미에 2줄 띄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영문으로 제시한다. 영어논문의 경우 논문과 영문요약 말미에 2줄 띄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영어로 명기한다.
13. 모든 논문 뒤에는 20행 내외의 영문요약을 붙인다.
14. 원고는 접수 순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각 논문의 심사위원회를 위촉하여 심사하고 게재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15.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포함한 원고 필자에게 출판 최종 송고 이전에 논문 형식과 맞춤법에 대한 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받은 논문의 경우 최종 교정 및 편집의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원고작성 세부 지침

1. 용지규격: A4

2. 용지여백: 위 쪽: 56.00 mm 머리말: 10.00 mm
 왼 쪽: 49.99 mm 오른쪽: 49.99 mm
 아래쪽: 60.00 mm 꼬리말: 0.00 mm

3. 아래의 사항은 편집 메뉴 중 “모양 → 스타일”을 이용하여 정하시오.

구 분	정렬 방식	행간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글자 크기	글자 장평	글자 간격	글자모양
논문제목	가운데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4pt	90%	0%	한글: HY신명조 영문: Times New Roman 한자: HY신명조
부-소제목	가운데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2pt			
필자명	오른쪽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0pt			
본문/바탕글	혼합	160%	0글자	0글자	2글자	10pt			
인용문	혼합	150%	2글자	0글자	2글자	9pt			
각주	혼합	130%	0글자	0글자	2글자	9pt			
머리말-홀수	오른쪽	150%	0글자	0글자	0글자	9pt			
머리말-짝수	왼쪽	150%	0글자	0글자	0글자	9pt			

* 논문의 시작 쪽에서는 머리말 감추기를 하시오.

접수 제 호

(심사) 호

수정·보완 의뢰서

심사 위원 ()명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님의 논문을 『영어권문화연구』 제 ()호에 게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아래의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고 교정을 거쳐서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시 필수 기입 사항

1. 수정·보완 사항의 항목별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고쳤는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 수정·보완이 완료된 논문과 수정·보완 의뢰서를 영어권문화연구소 이메일 계정(esc8530@dongguk.edu)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력물의 우편송부는 편집시 그림이나 도표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만 한합니다.

년 월 일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장

수정·보완 확인서

<p>논문 제목</p>		
<p>수정 및 보완 사항</p>	<p>논문 형식</p>	
	<p>논문 내용</p>	

영어권문화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 연구 활동 및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윤리와 진실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원 및 투고자는 학술연구자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증진되도록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는 학술연구 저작들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고 게재한다. 이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 저자뿐 아니라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연구윤리규정을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학술행사 발표문, 단행본, 영상물을 포함한 모든 간행물과 출판물 및 심사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및 위 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forgery, 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alteration, falsification)는 참고문헌 등의 연구자료,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plagiarism)”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및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 및 연구결과물(비학술단체 발간물, 학술대회 발표문, 연구용역보고서 등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붙지 않는 발표물은 제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 및 연구결과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 및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제보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설치) 연구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조사, 심의, 판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장,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소 전임 연구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의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구부정행위로 제보,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연구기관에 의해 인지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인지된 사안에 대한 조사의 적부 판단, 조사위원회의 설치,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안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설치)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과 외부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활동을 시작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해산한다.
3.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으로 한다.
4. 연구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9조(조사위원의 의무와 자격정지)

1.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조사위원은 자신과 사안사이에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사위원의 연구 결과 혹은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해당 심의 안건의 조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연구윤리의 검증

제10조(검증 시효)

1. 연구 윤리성 및 진실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심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상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 혹은 사회적으로 연구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결과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 혹은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위원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7.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의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며 조사위원회는 해산한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문제 제기가 허위이며 피조사자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 훼손이라 판단될 경우 향후 연구소 활동을 제한하는 등 허위 제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구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조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취하며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 혹은 연구결과물 게재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 삭제
2. 해당 지면을 통한 공개 사과
3. 논문 투고 금지
4. 연구소의 제반 간행물과 출판물 투고 및 연구소의 학술활동 참여 금지
5. 해당자의 회원자격 정지

제14조(후속조치)

1.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확정되면 조속히 이를 제

- 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조치 후 그 결과는 인사비밀 문서화하여 연구소에 보존한다.
 3.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결과조치를 통보한다.

제4장 기타

제15조(행정사항)

1.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 등에 사용 하기 위하여 받은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임원 명단

- 소장 : 김애주

- 편집위원장 : 황훈성(동국대)
- 편집위원회
강민건(대구대), 김경숙(안양대), 김대중(강원대),
김 유(성균관), 박정만(한국외대), 임경규(조선대),
정윤길(동국대), 노현균(동국대), 김순영(동국대)

- 운영위원회
김성중(동국대), 김영민(동국대), 김종갑(동국대)
양현미(중부대), 홍승현(동국대)

- 연구윤리위원회
김애주(동국대), 황훈성(동국대), 노현균(동국대)
정윤길(동국대), 김대중(강원대), 박정만(한국외대)
손병용(경남대), 최현숙(동국대)

- 연구교수 : 정월일
- 전임연구원 : 최현숙
- 조교 : 꺾세림

영어권문화연구 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

2018년 4월 30일 / 30 April 2018

11권 1호 / Vol.11 No.1

발행인 한태식

편집인 김애주

발행처 영어권문화연구소/Official Publication by

Institute for English Cultural Studies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4620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계산관 206호

Tel 02-2260-8530

<https://english-culture.dongguk.edu/>

E-mail: esc8530@dongguk.edu

인쇄처: 동국대학교출판부

(우편번호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 2260-3482~3

팩스: (02) 2268-7852